

발간등록번호

11-1092128-10000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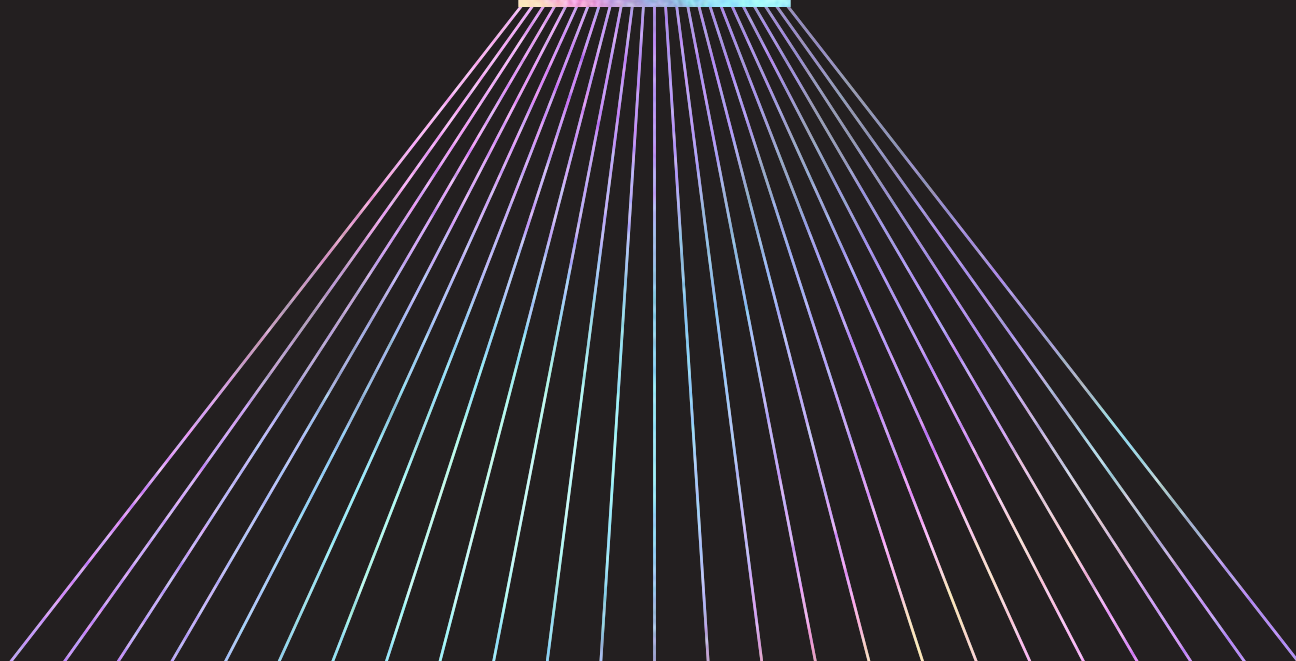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광복

광복 80년 기념사업 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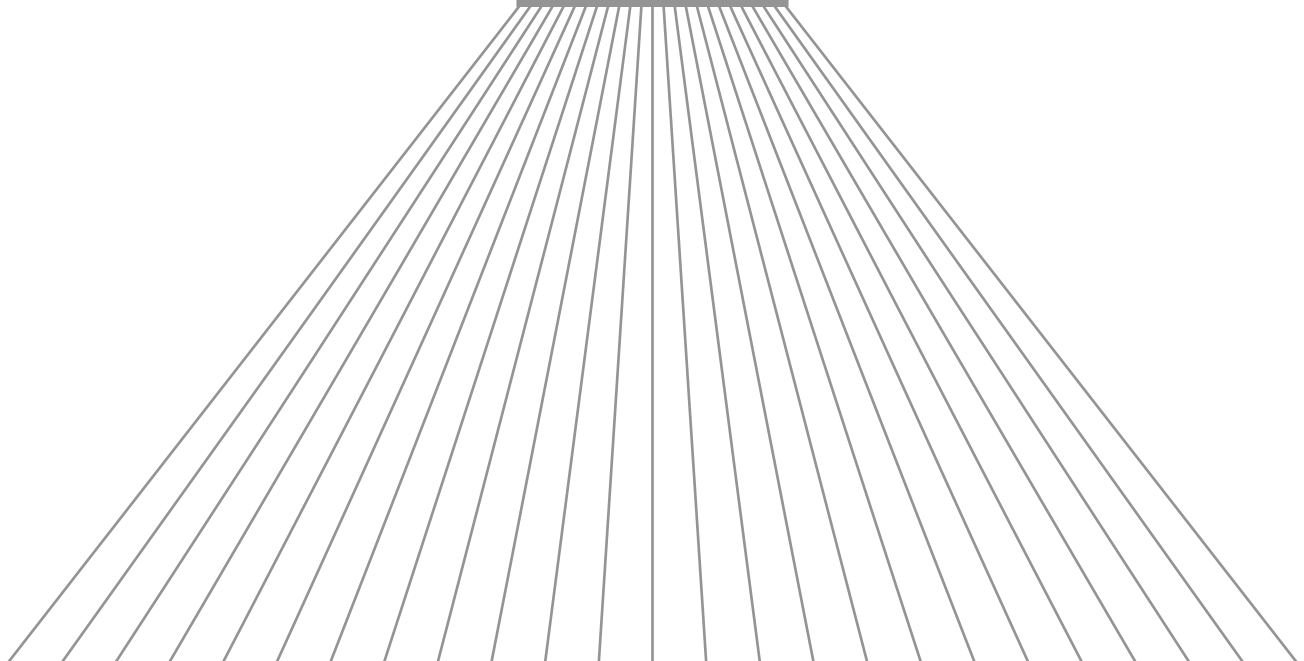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기리



광복

광복 80년 기념사업 백서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기리



발간사

광복 80년, 빛나는 발걸음으로 새로운 길 위에 서다

오랜 어둠 속에서 빛을 되찾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분들이 있었습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전국의 장터에서, 의병이 일어선 산야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이 싸웠던 이국 땅에서 선열들의 광복을 향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남긴 이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이 모여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다시 찾았습니다.

광복은 어느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선열들의 헌신과 희생이 모여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되찾은 주체적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공화국을 이어가는 것이 오늘의 광복이고, 선열들의 희생을 되새기며 더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은 미래의 광복입니다.

우리가 되찾은 빛은 지난 80년간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더 밝고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국민은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민주공화정의 기반을 다졌고, 독재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발전을 거듭해, 반도체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우리의 문학과 음악, 영화와 드라마는 세계인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광복 80년은 선열들의 헌신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성취를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뜻깊은 계기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7월 21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위원회는 역사·과학·문화·사회 분야의 민간 위원 58명을 포함한 총 73명으로 구성되어, 민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는 협력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위원회는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을 광복 80년 공식 슬로건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이 이뤄온 성취를 함께 나누고, 세대를 아우르고 국민을 통합하는 ‘빛의



국무총리
김민석

축제로 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원회는 7월 31일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러한 정신을 반영하는 45개 기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항일문화유산 특별전,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개관 사업 등을 통해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고 재조명하였습니다. 또한 「통계로 본 광복 80년,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발간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시회를 통해 대한민국이 이루어낸 성취를 되새기고 국민적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광복회장
이 중 찬

광복 80년 전야제와 경축식, 기념 마라톤, 무궁화 대축제 등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광복의 기쁨을 나누는 통합의 장을 열었습니다. 아울러 국제 한반도 포럼, 국제 콘텐츠 공모전,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등을 통해 세계적 시각에서 광복의 의미와 가치를 조망하고 평화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위원회는 광복 80년을 과거를 기념하는 마침표를 넘어, 광복 10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선양, 광복 100년 기념사업 준비 및 추진체계 마련 등 16개의 중장기 기념사업을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 백서는 광복 80년을 맞아 추진된 모든 기념사업의 발자취와 성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은 기록입니다. 기록은 과거를 보존하는 동시에 미래를 설계하는 자산입니다. 이 백서가 광복 8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맞이할 광복 90년과 광복 100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은 국민과 정부가 함께 만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념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5월 31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경축사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존경하는 5,200만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80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겼던 빛을 되찾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을 감격으로 환하게 밝힌 그 빛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대한 불굴의 의지, 주권회복의 강렬한 열망으로 스스로를 불사른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일궈낸 것이었습니다.
광복절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닙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정하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고,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구 선생이 염원했던 문화강국의 꿈도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우리말로 노래 부르고, 영화, 드라마, 만화, 문학 등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독립투사들과 애국선열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음수사원(飲水思源), 물을 마실 때 그 물의 기원을 생각한다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입니다.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의 역사를 기리고,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누가 공동체를 위해 앞서 나서겠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공동체도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독립투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생존 애국지사분들께 각별한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더 넓히겠습니다.

해외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더욱 적극 추진하고,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빼앗긴 빛을 되찾고, 그 빛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3·1혁명의 위대한 정신이 임시정부로 이어졌고, 한반도 삼천리 방방곡곡을 넘어, 온 세계에서 독립투쟁의 불길로 번지며 마침내 우리는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캄캄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독재의 엄혹한 추위 속에서도 소중한 빛을 지켜내 왔습니다.

4·19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으로 민주화의 빛을 환하게 밝혔고, 세계사에 없는 두 번의 무혈 평화혁명으로 이 땅이 국민주권이 살아있는 민주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 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았고, 빛이 있기에 어둠에 맞설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냅시다.

그것이야말로 ‘빛의 혁명’의 진정한 완성이며,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고난 속에서도 부강한 나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동양의 평화를 역설했고, 침략의 아픔에도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분단은 이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분단 체제는 국토를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벽이 되어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주권을 제약하는 것도 모자라 전쟁의 참화 속으로
우리 국민을 몰아넣으려는 무도한 시도마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입니다.

분열과 배제의 어두운 에너지를 포용과 통합, 연대의 밝은 에너지로 바꿀 때 우리 사회는 더 나은 미래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입니다.

넓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선조들이 바라던 부강한 나라,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분단으로 인해 지속되어 온 남북 대결은 우리 삶을 위협하고, 경제발전을 제약하고, 나라의 미래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넓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적대 상태의 지속은 남과 북 주민 모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가 흔들릴 때 어떤 불행이 생기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를 통해 가혹할 정도로 체험했습니다.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이며,

경제 발전의 필수조건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술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완전히 끊기고 말았습니다.

영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합니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입니다.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닙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 그리고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입니다.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를 인정합니다. 남북, 그리고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일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한·일 양국은 오랫동안 굴곡진 역사를 공유해 왔기에 일본과 관계를 정립하는 문제는 늘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크게 존재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합니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합니다.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60년 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양국 국민 간 왕래는 1만여 명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연간 1천2백만 인적 교류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의 국력 또한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과 통상 질서의 급격한 변화, 첨단기술 경쟁에 따른 산업대전환,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전환의 이 복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하나의 파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파도들이 시시각각 밀려올 것입니다.

급변하는 질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위협받게 됩니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가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그때와 달라야 합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난파될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다시 도약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현재 우리 자신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걸음 뒤처지면 고단한 추격자 신세가 되겠지만 힘들더라도 반걸음 앞서 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과학 기술을 육성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여 미래를 앞장서 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도 더욱 같고 닮아 소프트 파워로 세계를 선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되찾은 자주독립의 빛이, 우리 국민들이 이룬 민
주주의의 빛이 우리의 앞날을 밝히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나라로,
국민 여러분,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목차

여는 글	1. 광복 80년의 발자취와 80년 기념사업 (박찬승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020
	2. 광복 80년, 기억을 넘어 미래로 (문수복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028

제1장 빛의 시작: 80년의 역사를 잇다

제1절	범국가적 결집: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	034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035
	2.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037
제2절	비전의 설계: 기념사업 추진 배경과 목표	038
	1. 기념사업 추진 배경	039
	2. 기념사업 추진 목표	039
	3. 기념사업 상징체계	041
제3절	공론의 장: 위원회 회의 및 주요 활동	043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	044
	2. 위원장 및 위원 주요 활동	046

제2장 기억의 빛: 독립의 역사에서 도약의 서사까지

제1절	빛나는 독립운동, 희생과 헌신의 역사	052
제1항	광복의 기록으로 역사를 조명하다	053
	1. 광복 80년 특별전시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054
	2. 광복 80년 기념 태극기 전시 <태극기, 함께해 온 나날들>	058
	3. 광복 80년 항일유산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	061
	4. 광복 80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학술회의	065
	5. 광복 아카이브 <1945년 한 해>	069
	6. 광복 80년 기념 <과학조선을 꿈꾸다> 기획전	072
	7. 광복 80년 계기 특별전	076
	※ [인터뷰] 김화곤 독립기념관장	080
제2항	독립 영웅의 헌신을 기리다	084
	1.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085
	2. 보훈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090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092
	4. 독립 관련 정부 기념식	095
	5. 일본 소재 한국 문화유산 환수·복원	099
	6.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및 발굴 포상	104
	7. 모두의 보훈 기반 민·관 협력 활성화	107
	※ [기고문] 광복 80년, 보훈의 가치를 다시 묻다(윤종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112
제3항	광복의 유산을 미래로 잇다	115
	1. 가칭 독립의 전당 건립	116
	2. 독립운동가 감사캠페인 <꺼지지 않는 빛>	118
	3. 광복 80년 기념키트 및 타임캡슐 제작	123
	4. 국가관리기념관 디지털전시관 재개관	126
제2절	자랑스러운 80년 대한민국의 여정	130
제1항	국가 발전의 궤적을 마주하다	131
	1. 광복 80년 국가기록 특별전 <빛으로 이어진 80년의 기록>	132
	2. <통계로 본 광복 80년,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발간	136
	3. 광복 80년 국립중앙도서관 80년 전시	140

제2항	미디어로 80년의 서사를 널리 알리다	143
	1. 광복 80년 KTV 대기획 시리즈 제작	144
	2. 민속아카이브센터 미디어큐브 영상 전시 <되찾은 빛, 이어질 노래 아리랑>	150
	3. 광복 80년 기념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153
	4. 광복 80년 기념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인천공항 홍보	157
	5. 광복 80년 공익광고 <다른 시대, 같은 마음>	160
	※ [기고문] 광복 80년 광고로 보는 한국사회(김병희 서원대 교수)	163
제3항	문화강국의 자긍심을 높이다	167
	1. 광복 80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I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	168
	2. 광복 80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II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	172
	3. 광복 80년 특별전시 <우리들의 이순신>	176
	4.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군	180
	5. 광복 80년 기념품 발행 및 연계 사업 추진	185
	6.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계기 광복 역사 조명 프로그램	188
	7. 2025 대한민국 과학축제 <과학문화 팝업 별별잡화점>	191
	※ [기고문] 광복 속에 피어난 우리의 빛(이정우 전(前)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194

제3장 모두의 빛: 하나 된 축제, 미래의 비전

제1절	모두가 하나 되는 빛의 축제	198
제1항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다	199
	1.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200
	2. 광복 80년 전야제 <우리는 빛이다>	204
	3.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208
	4. 광복 80년 경축 드론쇼	212
	5. 광복 80년 기념 미디어 아트쇼 <80개의 빛, 하나 된 우리>	217
	※ [인터뷰] 김태욱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220
제2항	문화예술공연으로 광복의 가치를 꽃피우다	226
	1. 광복 80년 기념 특별공연 <광복, 빛의 씨앗들>	227
	2. 광복 80년 기념 역사 뮤지컬 갈라쇼	231
	3. 광복 80년 기념 국악 공연 I <빛을 노래하다>	233

4. 광복 80년 기념 국악 공연 II 〈흙(屹); 들풀처럼, 불꽃처럼〉	236
5.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제작	238
6. 광복 80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	242
제3항 국민 일상 속 보존 문화를 넓히다	245
1. 8.15 광복대행진	246
2.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250
3. 중국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사적지 탐방 I	254
4. 중국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사적지 탐방 II	257
5. 8.15km 통일 마라톤	261
6. 손기정 평화 마라톤	264
7. 광복 80년 공군 에어쇼	267
8. 독립운동가 후손 프로야구 시구	270
9. 광복 80년 연계 보존콘텐츠 공모전	273
※ [기고문] 별과 시, 그리고 광복 80년의 빛(고현수 경기북부보훈지청 주무관)	276
 제2절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278
제1항 국외 독립운동 거점을 복원하여 역사를 지키다	279
1. 몽골 이태준 기념관 개관	280
2. LA흥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	283
3. 충칭 한·중 공동행사 개최	285
4. 뉴욕 한인교회 독립운동전시관 개관식 및 음악회	287
5. 한인의 미주 이주와 독립운동 전시	289
※ [기고문] 광복 80주년, 독립 역사에서 '재외동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정세운 디지털조선일보 부장)	292
제2항 글로벌 네트워크로 광복의 의미를 전파하다	296
1. 주요 재외공관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	297
2. 재외문화원 광복 80년 기념 문화행사	300
3.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304
4. 재외동포사회와 교류하는 광복 80년 I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308
5. 재외동포사회와 교류하는 광복 80년 II 〈2025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	310
6. 재외동포사회와 교류하는 광복 80년 III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312
7. 국제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코리아 2025〉	314
8. 광복 80년 기념 국외교류 전시	317

9.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광복 80년 기념행사	322
※ [수기] 광복 80주년, 우리가 만든 영자신문에 담은 이야기	325
제3항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비전을 제시하다	327
1. 광복 80년 성과 및 광복 100년 대비 미래전략 연구	328
2.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330
3.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334
4. 나라사랑 태극기 캠페인	337
5. 청소년 통일 어드벤처	342
6.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345
※ [기고문] 광복 80년, 분단 80년: 통일을 넘어 '분단 이후의 시민'을 상상하다 (정진헌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348
※ [기고문] 광복 80주년, 역사 앞에 선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묻는다(전재학 교육 칼럼니스트)	353

제4장 빛의 확산: 국민과 함께 나눈 80년의 가치

제1절 홍보 개관: 광복 80년 홍보의 지도를 그리다	358
1. 홍보 목표 및 방향	359
2. 단계별 홍보 추진 체계	360
제2절 홍보 준비: 빛을 맞이할 길을 마련하다	361
1. 국민인식조사	362
2. 홈페이지 운영	364
3. SNS 채널 운영	366
4. 상징체계 활용	368
제3절 국민과 함께: 일상의 풍경에 스며들다	370
1.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	371
2. 민관 협업	375
3. 참여 이벤트	378
※ [수기]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 참여 수기	382

제4절	광복의 확장: 광복의 가치를 널리 전하다	386
1.	광고	387
2.	홍보 콘텐츠	391
3.	서포터즈 ‘영광(YOUNG:光)’	394
4.	국민 소통의 결실	397
※	[수기] 광복 80년 서포터즈 활동 수기	398

제5장 빛의 비상: 광복 100년의 여명을 향하여

제1절	중장기 기념사업 발굴: 광복 100년 미래의 토대를 쌓다	402
1.	위원 제안 및 워킹그룹 운영	403
2.	광복 100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404
3.	중장기 기념사업 내용	405
※	[인터뷰] 부윤경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워킹그룹 의장	410
※	[수기] 광복 100년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수기	416
제2절	2026년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추진	422
1.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	423
2.	워킹그룹 및 전문가 간담회	424
3.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준비 상황	425

부록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련 규정	428
2.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438
3.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념사업 개요	442
4.	광복 80년 지방자치단체 기념사업 개요	450
5.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회의 내용	453
6.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	456

광복 80년의 발자취와 80년 기념사업

‘광복’과 ‘광복 80년’의 의미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 질곡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49년 정부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안하면서, 8월 15일을 ‘독립기념일’로 이름 붙였다. 그러나 당시 국회에서는 이를 ‘광복절’로 고쳐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로 하였다. 이후 광복절은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과 1948년 정식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 날을 함께 기념하는 날이 되었다. ‘광복절’에서 말하는 ‘광복’의 의미는 무엇일까? 흔히 ‘광복’을 ‘빛의 회복’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 말은 원래 중국 고전의 ‘광복구물(光復舊物)’이라는 말에서 가져온 것으로, “옛것(주로 영토와 국권)을 다시 빛나게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1910년대 일제에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박상진 등에 의해 조직된 비밀결사 이름이 ‘대한광복회’였다. 1930년대 중국 관내의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 대신 ‘광복운동’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1940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군’ 명칭으로 이어졌다. 당시 임시정부의 여당인 한국독립당의 당강을 보

면 첫 번째가 “국토와 주권을 완전 광복하여 대한민국을 건립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광복’이란 원래 ‘빼앗긴 조국의 영토와 주권을 빛나게 회복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는다. 그러나 일반 대중이 ‘광복’을 ‘빛의 회복’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일제 지배하의 어둠에서 해방되어 빛을 회복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우리에게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까지 포함하면 일제에 의해 빼앗겼던 우리의 주권, 영토, 경제, 자유, 참정권, 문화예술을 되찾은 날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광복 80년’은 이를 소중하게 가꾸고 발전시켜 온 80년이라는 의미가 있다. 1945년 광복 이후 80년 동안 분단, 전쟁, 독재 등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이를 극복하고 민주화, 산업화, 정보화를 성취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의 모든 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었다. 광복 80년, 한국인들은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이러한 성취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모든 성취에는 명암이 있다.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서 ‘광복 80년’ 대한민국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이 백서에 실린 2025년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취지와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박 찬 승



광복 80년의 정치사: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광복 이후의 현대 정치사는 대체로 1) 국가형성과 분단체제 형성기(1945~1960), 2)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시기(1961~1986), 3) 민주화의 진전과 제도화 시기(1987~현재)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해방 직후의 미군정기부터 1960년 이승만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의 시기이다. 해방 직후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점령 시기를 거쳐 1948년 남한과 북한에 각각 분단정부가 들어서고, 분단은 바로 한국전쟁으로 이어져 남북한은 모두 커다란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 이후 남한의 정치질서는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체제 하에서 반공주의와 안보논리에 의해 규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승만 정권은 점차 권위주의적인 지배체제로 흘러갔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시작되었으나, 불과 1년 뒤 일어난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중단되고 말았다.

두 번째 시기는 1961년 군사쿠데타로부터 시작하여 1987년 6월항쟁으로 군부 권위주의 체제가 사실상 무너진 때까지의 시기이다. 1960년대 박

정희 정권은 군부를 등에 업고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전략을 취하면서 점차 권위주의적인 정권으로 흘러갔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에는 ‘유신체제’라는 권력의 집중과 정치적 억압을 제도화한 체제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과 권력 내부의 분열로 인해 무너졌다. 박정희 사후 민주화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나 전두환을 중심으로 등장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학생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을 억누르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은 전형적인 군부독재의 억압적인 통치체제를 보여주었다. 군부 지배체제는 결국 1987년 6월 학생과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크게 약화되고, 한국 정치는 민주화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87년 6월항쟁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권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민주화의 진행,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이재명 정권으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위기, 그리고 회복이 교차한 시기이다. 6월항쟁을 계기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의 이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후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여야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5·18 책임자 처벌과 권력형 부패에 대한 청산 등이 어느 정도 진행되

었다. 이후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은 여전히 남아 있던 권위주의 정권 시대의 유산을 청산하고, 지역주의를 청산하고자 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87년의 헌법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 김대중 - 노무현 정권 이후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은 양대 정당을 세워 대립하면서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모두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절차를 통해 중도에서 물러나면서, 진보와 보수 세력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4년 말에 시작된 정치적 혼란,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한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헌법과 법률의 제도적 측면, 시민들의 정치의식적 측면에서 상당히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광복 이후 한국 정치는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선언한 민주공화정 체제를 계승하였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에는 여러 난관이 있었다.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세우기 위한 민주화운동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다. 그러한 희생 위에서 한국 정치는 민주주의를 제도화시켰고, 이제는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광복 80년의 경제사: 압축성장과 경제구조 전환

광복 이후의 한국 현대 경제사는 1) 광복과 한국 전쟁 이후 복구와 원조 의존 경제 시기(1945~1950년대), 2)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고도성장 시기(1960~1980년대), 3)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조정 시기(1990년대~현재) 등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 한국경제는 식민지 경제구조의 잔재와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해로 극심한 저개발 상태에 있었다. 일제가 남긴 공장들은 원료와 기술, 판로의 부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였다. 1950년대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소작 구조가 해체되고 자작농 중심의 농업구조가 형성되었다. 일제가 남긴 귀속재산 불하에서 실제로 다 낮은 가격에 이를 불하받은 기업들은 큰 이익을 보았다. 1950년대의 산업은 주로 원조물자의 최종 가공형태를 띤 수입대체산업, 흔히 ‘삼백산업’이라 불리는 면방·제분·제당 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다. 당시 한국 정부의 재정은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미국은 한국에 원조물자를 주었고, 한국 정부는 이를 시장에 팔아 대충자금(對充資金)을 만들어 운영하였으며, 미국은 대충자금의 운영에 대한 승인권을 갖고 있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고도성장의 시기이다.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목표로 했으나 실적이 좋지 못했고, 미국 국제개발처(AID)의 조언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외자도입,

수출지향적 산업화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섬유·합판·가발 등 경공업 중심의 수출 구조를 형성하였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화가 본격 추진되어 철강·화학·조선·기계 등의 중화학공업단지가 조성되어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였고, 수출 확대와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전반기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 내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화학공업의 중복 과잉투자와 대외 의존 심화로 인해 경제위기가 나타났으며,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노동운동 탄압과 같은 문제도 나타났다. 1980년대에 신군부정권은 경제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경제안정화 정책과 중화학공업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1986년부터 일시적으로 이른바 ‘3저 호황’을 배경으로 한 성장세가 이어졌지만, 1989년을 고비로 3저 호황이 사라지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 이는 한국경제가 전형적인 가공무역형 경제구조였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할수록 이에 필요한 생산재의 수입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1980년대 한국경제는 재벌들의 문어발식 계열확장으로 지나친 재벌 의존 경제가 되어 여러 우려를 자아내고 있었다.

세 번째 시기는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구조전환의 시기이다. 한국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다. 이는 일부 재벌이 과도하게 은행 빚과 외자를 차입하여 몸집 불리기를 해온 결과였고, 이 사태로 여러 재벌이 도산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았고, 그 대가로 부실기업과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었다. 기업

의 연쇄도산과 대량 해고로 중산층이 무너졌고, 빈부격차가 확대되었다.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는 좋아졌지만, 많은 기업이 외국자본의 손으로 넘어가고, 정리해고 제도가 도입되어 평생직장의 믿음은 사라졌다. 이후 ‘노동유연성 확보’라는 이유로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하는 직장이 늘어나 고용이 크게 불안해졌으며, 재벌들은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주력 기업 위주로 구조를 재편했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경제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갔다.

200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동시에 대외의존도가 높아졌다. 2010년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고령화, 생산성 둔화, 불평등 심화 등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었다.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와 첨단기술 산업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후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025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목표로 ‘AI 고속도로’ 구축과 ‘피지컬 AI’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광복 이후 한국경제는 한마디로 ‘압축성장과 구조전환’의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서구 국가들이 수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수십 년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었고, 1990년대 이후 구조전환을 통해 정보화 사회, 첨단제조업 중심 경제로 재편해왔기 때문이다.

광복 80년의 사회사: 산업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한국 사회는 광복 이후 80년 동안 농촌 기반 농업사회에서 도시 기반 산업사회로, 다시 지식, 정보, 서비스업 중심의 후기 산업사회, 즉 정보화 사회로 변화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저학력 사회에서 고학력 사회로, 대가족 사회에서 소가족 내지 1인 가구 사회로 전환되어 왔다.

광복 직후 한국 사회구조는 농촌, 농업 중심이었으며, 대다수 인구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도시화,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농촌인구는 급속히 도시로 이동하였으며, 도시에서는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1950년 21.4%였던 도시화율은 1980년 56.7%로 급상승하여 인구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으며, 2005년에는 81.3%, 2021년에는 90.7%에 이르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급속히 진행되어, 1970년 28.3%였던 수도권 인구집중률은 2020년 50.2%가 되었다. 그 결과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농업사회 시대의 대가족은 해체되고, 대부분 소가족(핵가족)으로 재편되었다. 최근에는 1인 혹은 2인 가구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고, 2인 가구 29.0%, 3인 가구 18.8%, 4인 이상 가구 16.0%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한편 광복 직전 초등학교 취학률은 5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의무교육 제도를 시행하면서 무상의무교육을 도입한 결과, 1959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95.4%에 달했으며, 1970년에는 100%를 기록했다. 1970년 36.6%에 그쳤던 중등학교 취학률도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에는 중학교 95.3%, 고등학교 90.8%를 기록했다. 대학 취학률도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7년 70% 수준까지 도달했다. 이는 1981년 졸업정원제 실시로 대학정원을 사실상 2배로 늘리고, 1997년 정부가 대학설립준칙주의를 채택하여 대학 설립이 전보다 쉬워진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와 같은 교육 기회의 확대는 사회 변동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특히 고등교육의 확대는 계층 이동 가능성을 확대하였고, 산업화·정보화 사회를 여는 데 필요한 인적 자원을 공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계층 이동을 목표로 한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2000년 이후 한국 사회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저출생 문제를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에서 1980년 2.82, 1990년 1.57로 급속히 감소하였으며, 이후 2000년 1.48, 2010년 1.23, 2020년 0.84로 크게 떨어졌다. 이후 0.7~0.8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저출생의 원인으로는 만혼과 초산 연령의 상승, 기혼 가구의 평균 출생아 수 감소,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혼인율의 하락, 여성의 근로 시간 증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저출생과 함께 고령화 또한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다. 65세 인구의 비중이 2000년에 7.2% 정도였던 것이 2020년에는 15.7%, 2025년에는 20.3%가 되었다. 65세 이상 인구를 14세 이하 인구로 나눈 ‘노령화지수’(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의 비율)를 보면, 2017년 105.1로 100을 넘었고,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2년에 151.0, 2025년에 199.9에 도달하였다. 노인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배가 된 것이다. 당분간 저출생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어 노령화지수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사회의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 추세는 향후 경제 부문에 큰 영향을 미쳐 생산가능인구의 급감, 소비의 위축, 혁신동력의 저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또한, 재정 부문에서는 부양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세금을 내는 인구는 줄어들어 사회보장제도의 위기를 가져오고, 복지 비용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사회구조적으로는 지방소멸의 현실화, 병력자원의 부족,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를 가져올 우려도 제기된다. 또 하나 주목할 현상은 1990년대 이후 대학에 진학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었고, 취업 등 사회진출 확대와 함께 사회적 지위 또한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녀 간의 임금 격차는 1990년대 40%, 2020년대 30% 내외로 아직도 OECD 국가 중 가장 큰 수준이다. 그 이유는 여성들의 일자리가 주로 저임금 비정규직이며,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여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광복 이후 80년의 한국사회의 변화는 도시화, 가구 형태의 변화, 교육

의 확대, 여성 지위의 상승 등으로 요약되지만, 최근에는 저출생·고령화의 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광복 80년의 문화사:

한국문화의 재건에서 글로벌화로

광복 이후의 한국 현대 문화사는 우리 문화의 회복과 재건(1945~1950년대), 산업화·도시화에 기반을 둔 대중문화 형성(1960~1970년대), 대중문화의 영역 확장과 민주화(1980년대), 세계화와 신세대 문화의 대두(1990~2000년대), 디지털 전환과 한류의 글로벌화(2010년대 이후) 등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인 1945~1950년대의 문화는 해방, 분단 정부의 수립과 한국전쟁 등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미소 냉전, 남북 대결, 권위주의적인 정치의 영향을 받은 반공주의적, 국가주의적인 관변 문화가 나타났다. 문학계에서는 분단, 전쟁, 가족 이산의 영향으로 허무주의적이고 실존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중문화에서는 미국문화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일제강점기 억압받았던 우리 말과 글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문맹퇴치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초등학교 취학률 95% 이상을 달성한 ‘우리 문화의 회복과 재건’의 시기이기도 했다.

두 번째 시기인 1960~70년대에는 산업화, 도시화가 본격화되면서 라디오, 영화, TV 등 대중매체가 확산하고, 대중문화도 본격적으로 성장하

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이 계속되는 가운데 영화, 음악, 방송 등은 국가의 강력한 검열 하에서 자유로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 정권은 ‘재건’과 ‘근대화’, ‘새마을’ 등을 강조하는 관변 문화를 만들고자 했고, 청년층은 포크 음악 등으로 젊은 세대의 자유와 낭만을 표현하면서 이에 대응하였다.

세 번째 시기인 1980년대에는 산업화, 도시화가 일단락을 짓고, 신군부 정권이 컬러 TV 방송, 프로야구 등을 도입하면서 대중문화의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런 가운데 1987년 6월항쟁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크게 확장되면서 대중문화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네 번째 시기인 1990~2000년대에는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문학, 예술, 대중문화에서 창의적이고 다원주의적인 작품들이 등장할 수 있었다. 또한, 포스트모더니즘이 도입되면서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신세대가 문화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이 시기 등장한 신세대 가요계는 댄스와 힙합 중심으로 재편되었고, 인터넷, PC통신, IT혁명 등으로 대중문화에는 팬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드라마 ‘겨울연가’는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서 큰 호응을 받으면서 ‘한류’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

다섯 번째 시기인 2010년대 이후는 한류가 본격적으로 세계로 뻗어간 시기이다. SNS, 유튜브, OTT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 K-pop, 영화, 드라마 등이 세계적으로 커다란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의 대중문화 산업은 크게 성장하였다. 한국 문학도 다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화되었고, 노벨상을 받는 등 세계

문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광복 이후 80년의 한국 현대 문화사는 우리 문화의 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문학·예술·대중문화의 모든 부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특히 대중문화는 ‘한류’의 글로벌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이러한 한국 문화의 성공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공이라는 서사, 그리고 한국인의 가족, 공동체, 연대, 정의, 인본주의와 같은 보편적 정서가 세계인들의 호감과 공감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범 김구 선생이 <나의 소원>에서 말했던 ‘한없이 높은 문화의 힘을 갖는 나라’, 즉 ‘문화국가’의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방향과 주요 사업

2025년 80년 광복절은 정치적 풍랑을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고, 새로운 정부, 특히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여 만에 맞는 광복절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이재명 정부는 7월 21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2025년의 광복절을 ‘빛을 다시 찾은 날’로 선언하였다. 아울러 광복 80년 기념사업은 과거의 성취를 발판 삼아 세대를 아우르고 국민을 통합하는 ‘빛의 축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광복 80년 기념행사의 슬로건(주제어)을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로 정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독립정신’이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

임을 재확인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여러 위기 속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며,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를 준비하고 통일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선도’의 방향에서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자유와 민주주의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기념행사, 학술행사, 문화행사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위원회 논의를 통해 각 부처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기념사업 중 45개를 ‘광복 80년 기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먼저 제1주제 ‘빛나는 독립운동, 희생과 헌신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업적과 정신을 기억하고 재조명하는 13개 사업이 선정되어 진행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보훈부의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가칭 ‘독립의 전당’ 건립, 국가유산청의 ‘항일문화유산 특별전’ 등이 있다.

제2주제 ‘자랑스러운 80년, 대한민국의 여정’과 관련해서는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9개 사업이 진행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의 광복 80년 국가기록 특별전, 광복 80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과 특별전시 ‘우리들의 이순신’, 통계청의 ‘통계로 본 광복 80년,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발간 등이 있다.

제3주제 ‘모두가 하나 되는 빛의 축제’와 관련해서는 세대·지역·이념을 넘어 국민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여는 사업들이 선정되어 진행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안

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주관하는 광복절 전야제, 광복절 경축식, 경축 드론쇼, 기념 국악공연,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기념 마라톤, 무궁화 대축제 등이 있다.

제4주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새로운 문명국가로의 도약 등을 주제로 한 사업들이 선정되어 진행되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보훈부·외교부의 해외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활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광복 80년의 성과 및 광복 100년 대비 미래전략 연구, 통일부의 국제 한반도 포럼,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등이 있다.

한편, 위원회는 광복 80년을 일회성 기념에 그치지 않고, 그 성과와 경험을 미래 세대에 전승하며 광복 100년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2025년 12월 23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체계 및 제도 정비, 광복 100년을 기념하는 인프라 조성, 광복 전후 역사의 기록 및 학술연구, 체험과 교류를 통한 공감대 확산 등 4개 분야 16개 ‘중장기 광복 기념사업’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광복 80년을 맞아 추진된 다양한 기념사업들은 광복 이전의 독립운동과 광복 이후의 대한민국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20세기 이후 한국사는 ‘시련과 극복, 도전과 성취’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그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는 글

광복 80년, 기억을 넘어 미래로

“흠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해마다 광복절이면 울려 퍼지는 광복절 노래 첫 소절입니다. 이 노래는 1945년에는 없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950년 4월 광복절 노래로 확정되었습니다. 광복절 노래 1절 세 번째 소절에는 “이 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영긴 자취니”라고 하면서 사십 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전의 과도기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미군정 체제 하에서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했던, 해방 직후의 혼란한 역사가 녹아 있습니다.

광복절 노래를 들을 때면 늘 외조부이신 위당 정인보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1965년에 태어난 저로서는 한 번도 외조부를 뵈는 적이 없지만, 삼일절, 제헌절, 그리고 광복절 노랫말 속에 깃든 외조부님을 그리워 합니다. 구한말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를 거친 외조부께서는 ‘오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논설을 통해 민족 정신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 백서 ‘여는 글’의 집필을 요청하였을 때 솔직한 심정으로 걱정이 크게 앞섰습니다. 학교에 몸 담은지 20년이 넘었지만 역사나 정치와는 무관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였다보니, 경술국치와 태평양 전쟁, 해방과 공화국 수립에 이르는 근현대사에 대한 지식이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친가와 외가의 조부모님 모두 건국공로 훈장을 받으신 분들이기에, 그분들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광복 후 80년이 지나 격동의 시대를 직접 겪으신 분들이 많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방 후 세대들이 어떻게 그 역사를 인지하고 기억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글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며, 광복 100년을 향한 준비가 단순한 기념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외조부의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순국선열추념문’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945년 12월 제1회 순국선열추념대회에서 봉정된 이 글은 5

KAIST 전산학부 교수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문 수 복



천 년 역사 이래 처음이었던 국권 침탈에 대한 분노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긴 시간 동안 광복을 위해 끊임없이 애쓰셨던 선열들에 대한 절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1980년대 초 문과와 이과로 나뉘었던 고등학교 교육 체계속에서 이과를 선택했던 저에게 ‘순국선열추념문’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로 가득한 무척 어려운 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글은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아픔과 이를 되찾기 위한 선열들의 의지, 그리고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며, 광복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외조부께서는 6·25 전쟁 중에 납북되신 후 행적이 알려지지 않아 1990년에야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지만, 학자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연세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신 이력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친조부모님 행적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친조부이신 일창 문일민 선생은 1920년 평안남도 경찰부 폭탄 투척 거사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 친조모이신 안혜순 여사는 친조부의 중국 망명 생활 속에서 임시정부 활동을 적극 지원하셨습니다. 친조부

께서는 1962년 건국공로 독립장을 추서받으셨습니다.

철이 든 이후 가끔 들었던 할머니의 얘기 속에는 권기옥 여사님과 안창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권기옥 여사님은 중국 공군에 들어가 비행을 익힌 대한민국 최초 여성 비행사로 활약하셨던 분이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외할머니가 선생님과 같은 순흥 안씨인 이유로 친조카처럼 아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조부모님의 행적은 가족들의 기억 속에만 있고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987년 천안 독립기념관이 개관했을 때, 양가 조부들의 활약상이 잘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던 대학생으로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았지만, 독립기념관이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전시한 친조부의 행적을 접하며 오늘의 자유와 번영이 그분들의 헌신 위에 세워졌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1992년 미국으로 박사 공부를 하러 떠나

10년 넘게 외국 생활을 하다가 2003년 귀국했을 때는 웹 기술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친 조부에 관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포털 등에서 검색하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친조모께 건국포장이 수여되었습니다. 할머니의 희생과 공로를 인정해 준 국가에 무한히 감사했습니다. 저 자신은 여성 공학인으로 살아오면서 실적을 인정받고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할머니의 공적에는 무심했음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2017년 이후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포상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부부 독립운동가나 석주 이상룡 선생님 일가처럼 한 가문에서 10명이 넘게 훈장을 받으신 사례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사학과 대학원생이 제 친조부의 일생에 관해 석사 논문을 집필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조부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이 없는 후손 세대에게 학술적 연구를 통해 조부의 행적을 정밀하게 복원하고 정리해 준 일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파편처럼만 알고 있던 할아버지의 행적을 석사 논문으로 정리해 주셨고, 작은아버지께서 감수해 주셨습니다.

또한, 2022년에는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931년 이순신 장군의 묘와 위토가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외조부께서 이를 언론에 알리고 ‘이충무공유적보존회’를 결성하여 성금 모금을 주도하셨습니다. 당시 상해에 계셨던 친조부께서도 이에 동참하여 성금을 기탁하셨

다는 사실이 후손 찾기 사업을 통해 밝혀졌고, 그 이유로 저희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2022년 현충사 중건 90주년 기념사업 덕분에, 외조부께서 도모하신 일을 친조부께서도 도우신 역사적 필연을 알게 되어 저희 모두 뭉클했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 중에서도 네트워크 분야의 연구를 합니다.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던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인터넷 성능을 측정하고, 문제가 되는 점을 찾아 고치는 연구를 했습니다. 2003년 KAIST에 부임한 후로는 소셜 컴퓨팅과 초고속 네트워크 시스템 쪽으로 연구 분야를 확장했습니다. 싸이월드와 같은 세계적인 서비스가 클라우드 인프라 미비 등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고,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의 비약적인 발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초거대 언어모델(LLM)과 추론엔진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AI G3 강국’으로의 도약을 노리는 오늘, 미국과 중국의 2강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21세기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21세기의 전기라 불리는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오는 엄청난 변혁의 파고를 우리가 어떻게 타고 갈지 사회 전체에서 화두입니다. 제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학문 분야에서도 중국의 논문 배출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낼 수 있는 교육·연구기관이 있는 나라들의 인적자원 규모를 모두 합하더라도 중국이 보유한 인적자원 규모가 여전히 압도적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6년 5월, 제6

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공개한 계획안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새로운 성장”의 기치 아래 과학기술부총리 중심의 범부처적인 연구개발(R&D) 강화와 예산 확대(정부 총지출 대비 연구개발 예산을 5% 수준으로 안정적 확대) 등 체계 혁신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AI 대전환을 통한 혁신 가속화, 기술 주도 성장 및 균형 잡힌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AI 주권 확보를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제도적 인프라와 국가적 경쟁력이 충분한지, 우리나라가 성공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자문하게 됩니다.

이종찬 공동위원장의 저서 ‘나, 조계진’을 보면 공동위원장님 어머님의 시각을 통해,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해방 공간에 이르기까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주국가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선열들의 촘촘한 궤적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며 나라를 지켜내려고 목숨을 걸고 일하셨던 분들을 생각했습니다. 친조부의 서간도 지역 무장단체 활동, 상하이와 충칭 임시정부, 그리고 해방 후 신탁통치 반대 활동에 대해 읽으면서 열강 사이에 끼여 나라를 잃었던 처지에서도 자주 국가 수립에 헌신하셨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반만년 역사에 어려운 혼란의 시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선조들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 오셨나를 알고 싶어 자료를 찾아봅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 이후 정치적 풍랑, IMF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어려움을 극복해 냈습니다. 이는 현대의 돌연

변으로 생긴 국가적 역량이 아니라, 오천년 역사 속 새겨진 DNA 덕분입니다. 2026년에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 주식시장에 큰 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10위에 진입하는 저력을 보였고, 국내 주식시장 규모도 세계 6위까지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5년 후, 그리고 10년 후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기술 주권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고, 우리 내면에 흐르는 개척과 극복의 DNA를 다시금 일깨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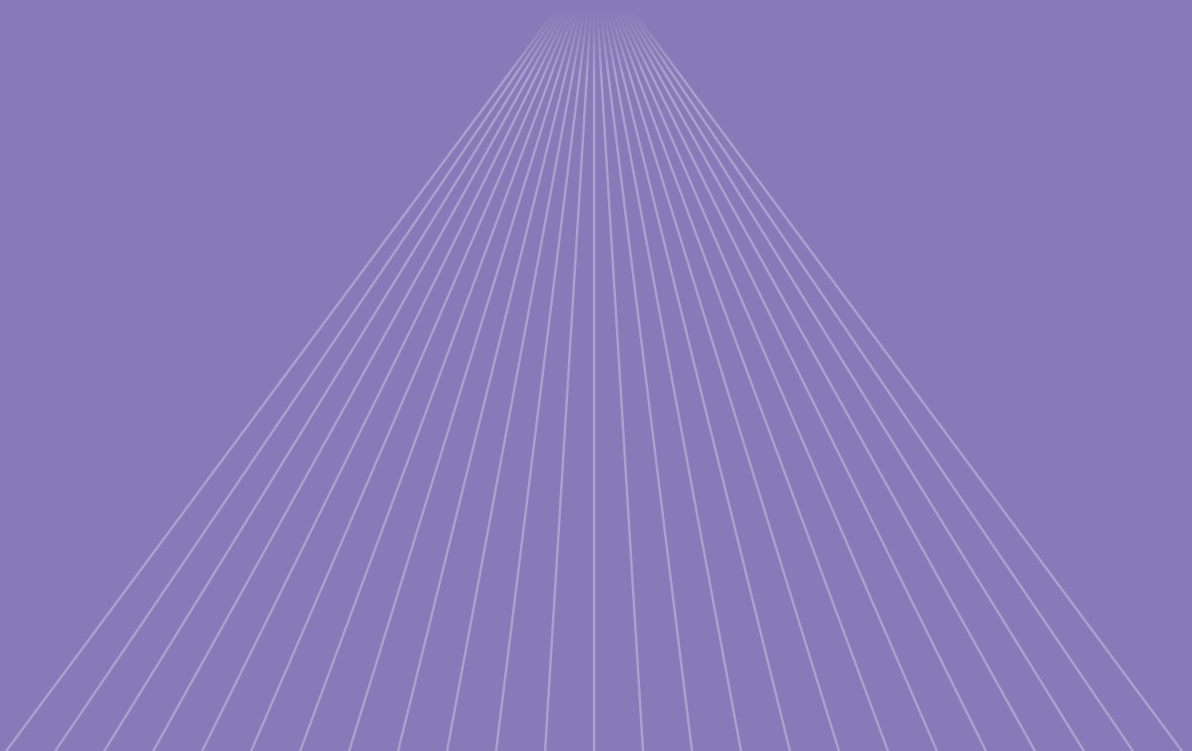
해방 후 80년, 우리는 과거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더 풍성한 역사를 누립니다. 글로벌 문화 아이콘인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좋은 예입니다. 과거 한 수상소감에서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 한 구절을 인용했을 때의 감동이 그 증거입니다. 광복 100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역사 탐색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와 내일을 여는 개척정신을 함께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끝으로 외조부께서 작사하신 광복절 노래 2절의 마지막 소절을 빌려, 대한민국의 끊임없는 전진을 염원하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세계의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
힘써 힘써 나가세 힘써 힘써 나가세”

광복 80년은 단순한 기념의 해가 아니다.
80년의 시간을 이어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역사다.
온 국민이 함께 기념하는 광복 80년을 위해
범국가적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 장에는 광복 80년 찬란한 여정의 시작이 담겨있다.

1장



제1장 빛의 시작

80년의 역사를 잇다

제1절 범국가적 결집: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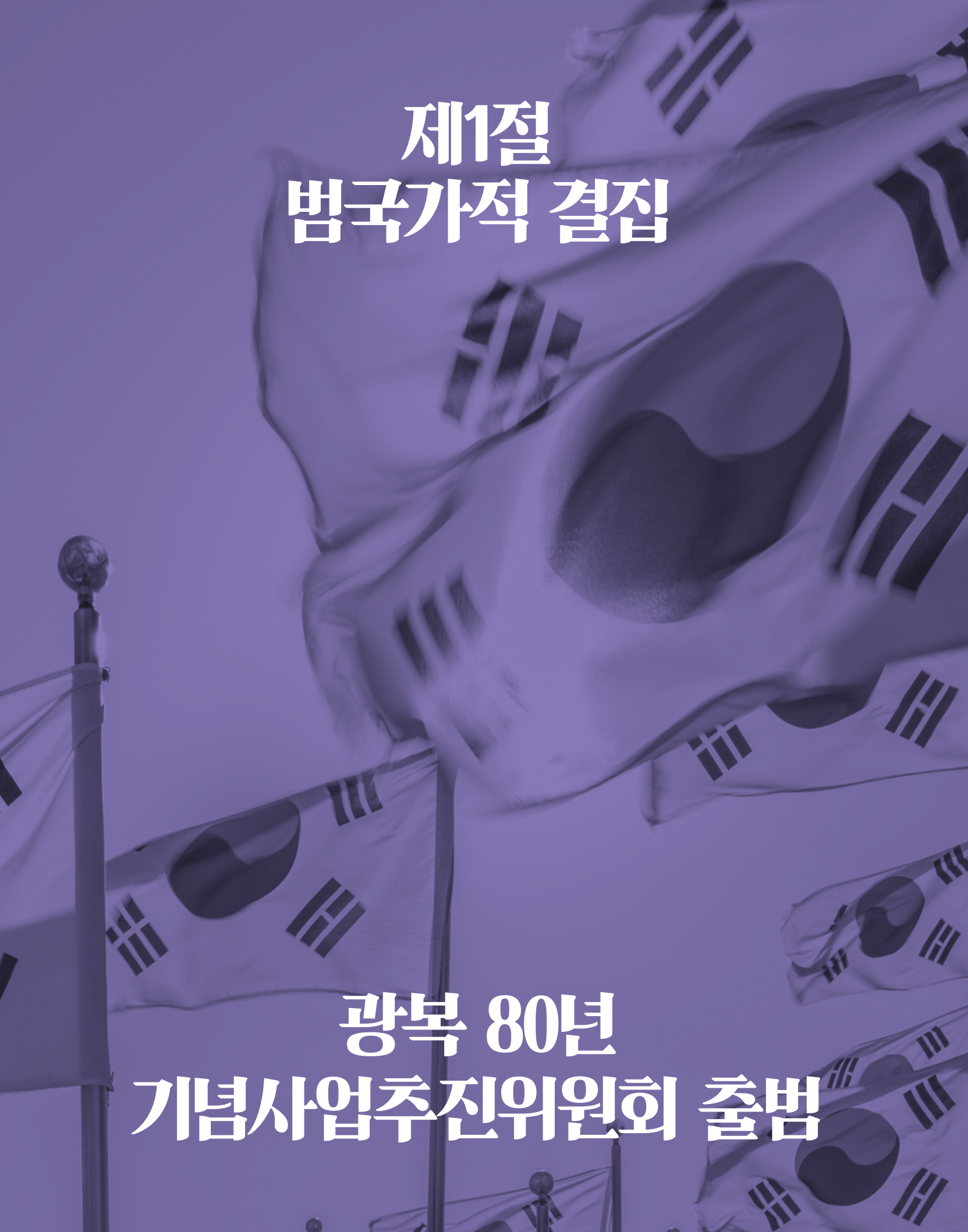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제2절 비전의 설계: 기념사업 추진 배경과 목표

1. 기념사업 추진 배경
2. 기념사업 추진 목표
3. 기념사업 상징체계

제3절 공론의 장: 위원회 회의 및 주요 활동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
2. 위원장 및 위원 주요 활동



제1절 범국가적 결집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 위원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2024년 7월 23일 제정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2025년 7월 21일 출범하였다. 위원회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을 결정하고,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각종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이종찬 민간위원장(제23대 광복회장)이 맡았으며, 민간위원 58명, 정부위원 13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되었다.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구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명단

공동위원장 (2)	국무총리, 이종찬 민간위원장(제23대 광복회장)
정부위원 (13)	재정경제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교육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위촉위원 (58)	강동수, 강새봄, 공병삼, 김능진, 김민선, 김아영, 김용달, 김은미, 김주혜, 김준수, 김초롱, 김춘동, 김태욱, 김형미, 문수복, 박명현, 박일준, 박지우, 박진호, 박찬승, 방승찬, 배순민, 부윤경, 서영석, 서원석, 서해성, 송재혁, 신민재, 양정훈, 양조훈, 오준, 유민, 유은지, 이광형, 이경숙, 이영표, 이우일, 이정주, 이준희, 이진현, 이찬우, 이태준, 이해학, 이호성, 임석희, 장애진, 전봉희, 전순옥, 정광태, 정대례, 정영순, 정진호, 정태현, 조용병, 최태성, 허미미, 호사가 유지, 황태연

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산업통상부장관,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 장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이 참여하였으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간사 역할을 담당하였다. 민간위원은 광복 이후 역사적 사건·계기와 관련된 인사들과 역사·과학·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국무총리가 위촉하였다.

국무총리는 출범식에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기쁨과 슬픔, 자랑과 아픔, 보수와 진보, 과거와 미래를 하나의 몸에 담아내는 상징이 되는 분들을 위촉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역사의 현장에서 직접 활동한 인사들과 그 가족도 포함함

으로써 다양성과 대표성을 갖춘 위원회로 구성하였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산하에는 기념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의·선정하고, 중장기 기념사업을 발굴·조정하며, 개별 사업의 보완과 세부 추진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구성하여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협의와 후속조치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이슈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전문가의 현장 경험과 자문 의견을 사업 검토·추진 등에 충실히 반영하였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

2.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 기획단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기획단장 아래 위원회 운영과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총괄과, 독립유산의 보존 및 계승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독립유산과, 미래비전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미래비전과, 국제협력 및 재외동포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세계협력과, 국민 참여와 소통·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참여문화과 등 5개 과로 구성되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명단

(2025년 7월 기준)

기획단장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 박상철
기획총괄과	국무조정실 부이사관 백승일(과장), 서기관 최진수, 사무관 이채영, 국가보훈부 주무관 황유연, 행정실무원 강혜빈
독립유산과	국가보훈부 서기관 송영조(과장), 사무관 김준호, 국가유산청 연구관 임경희, 독립기념관 전문위원 홍용표
미래비전과	기획재정부 서기관 윤우근(과장), 통일부 사무관 노일준
세계협력과	행정안전부 서기관 박래운(과장), 사무관 신종혁, 외교부 사무관 조민정, 국방부 중령 이윤병, 한국국제교류재단 전문위원 한수진
참여문화과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이규석(과장), 사무관 김민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장규택, 서울특별시 사무관 이재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전문위원 최정민

제2절 비전의 설계

기념사업
추진 배경과 목표

1. 기념사업 추진 배경

광복은 단지 독립을 이룬 날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정하고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되찾은 날이다. 민주공화정과 문화국가를 꿈꾸며 헌신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지난 80년간 빛나는 성취를 이루어 왔다. 분단과 전쟁, 독재와 내란의 시련을 딛고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반도체·인공지능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성장한 동시에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문화국가로 성장하였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2025년 광복 80년을, 선열들이 꿈꾸었던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넘어, 기술과 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국가로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했다. 이에 대한민국이 이룬 성과를 국민과 함께 체감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고 더 큰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2. 기념사업 추진 목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2025년 7월 21일 열린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 광복 80년을 ‘과거의 성취를 발판삼아 세대를 아우르고 국민을 통합하는 빛의 축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오늘 이 자리는 광복회가 상징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 그것이 다시 제자리로 복원되어 가는 시작의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올바른 역사인식과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건설과 진정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종찬 민간위원장은 “대한민국이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민주공화정의 정체성을 지켜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며, “광복 80년을 계기로 자유·민주·인권의 가치가 강물처럼 흐르는 가운데 기술과 문화가 들꽃처럼 꽃 피우는 나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7월 25일과 29일 두 차례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핵심가치를 도출하였다. 이어 7월 31일 개최된 제2차 전체회의에서 ‘독립역사’, ‘독립정신’, ‘국민통합’, ‘미래선도’ 네 가지 핵심가치를 확정하였다. 이러한 4대 핵심가치는 ‘빛나는 발걸음’과 ‘새로운 길’이라는 두 축으로 연결되어, 광복 80년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핵심가치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복 80년 기념사업 핵심가치와 주요 내용

① 독립 역사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업적과 정신을 기억·재조명하고, 독립전쟁 등 독립 역사의 능동성을 부각한다. 또한 여성·노동자·학생 등 다양한 활동 주체를 조명하며, 특별한 헌신에 걸맞게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예우한다.

#역사 바로 세우기

#감사·기억

#유해봉환

③ 국민 통합

여러 위기 속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세대·지역·이념을 넘어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

#K-경축식

#빛의 축제

#세대공감·화합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자주·민주정신 계승

#80년 기록·소장품

#학술·통계

3·1운동과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진 독립 정신이 오늘날의 발전과 민주화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지난 80년간의 성취에 대한 국민 자긍심을 고취한다.

#과학기술

#평화통일

#새로운 문명국가

AI 시대 선도, 평화로운 한반도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고 광복의 가치를 미래 세대 및 세계와 공유한다.

② 독립 정신

④ 미래 선도



제1차 전체회의 국무총리 모두 발언



제2차 전체회의 현장

3. 기념사업 상징체계

광복 80년 기념사업 슬로건은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이다. 이는 독립운동의 여정, 그리고 광복 이후 80년간 축적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취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빛나는 발걸음’은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노력과 그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새로운 길’은 이러한 성취를 토대로 모든 세대가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상징한다. 특히, 운동주의 시 ‘새로운 길’에서 착안하여,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길

을 찾아 나섰던 청년 독립운동가 운동주의 정신을 반영하는 한편, 일상적 용어를 활용하여 청년 세대의 공감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엠블럼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방향성과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숫자 ‘80’은 광복 80년을 직관적으로 상징하도록 구성되었으며, 한반도를 모티브로 하여 우리 한민족 전체를 상징하는 ‘8’과 완전성을 의미하는 동그라미 형태에 태극문양을 반영한 ‘0’을 결합하여 국민통합과 완전성을 상징하였다. 색채는 태극의 빨강과 파랑을 기반으로 그라데이션을 적용하였다. 파랑은 ‘희망’을, 빨강은 ‘열정’을 의미하며, 국민 모두의 열정을 모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를 표현하였다. 상징체계는 전문가 간담회 및 디자인 전문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개발되었다.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5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청년·청소년 등 미

기념사업 상징체계

엠블럼



활용안



래 세대의 공감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과거 - 현재 - 미래’의 연속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견은 ‘길’이라는 컨셉으로 구체화되어 슬로건에 반영되었고, 이후 2024년 1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전문기관 협업과 추가 자문을 통해 상징물 개발이 진행되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 상징물 및 활용안은 2025년 7월 21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논

의를 통해 확정되었고, 상징물을 바탕으로 로고의 표준 색상, 글꼴, 간격 등 상세 내용을 규정하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상징체계는 행정·사무용, 행사·홍보용, 옥외광고용, 온라인 매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관련 자료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상징물의 체계적, 통일적 활용을 도모하였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활용 사례





제3절 공론의 장

위원회 회의 및 주요 활동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

2024년 7월 23일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근거 법령으로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2024년 8월 20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국무조정실 산하에 설치되었다.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 광복절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설치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기획단 설치 시기를 광복절 1년 전으로 앞당겼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조기에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후 2025년 2월 27일에는 범부처협의회를 통해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각 부처가 차질 없이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정비하였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등의 정국 상황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2025년 7월 21일에 출범하였다. 다소 늦은 출범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3차례의 전체회의 및 6차례의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기념사업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는 독립정신과 임시정부 계승의 의미를 담아 백범김구기념관에

서 개최되었다. 출범식 사회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배성재 아나운서가 맡았으며, 기념사업 슬로건을 반영한 행사 연출을 통해 출범의 의미를 더욱 부각하였다.

광복 80년 기념사업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념사업 추진계획’과 ‘상징물 및 홍보 추진방안’을 심의하였고, 위원들은 국민통합, 역사 정체성 확립, 기술·문화 선도국가로의 도약 등 폭넓게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으며,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여 위원회 산하에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신속히 세부사항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제1차 전체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7월 25일과 29일 두 차례 워킹그룹 회의가 열려 기념사업의 핵심 가치, 우선 검토대상 사업, 신규제안 사업, 사업 보완·조정 방향 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먼저, 7월 25일 개최된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우선 고려 대상인 22개 사업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어 29일 개최된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검토 가능 37개 사업과 부처 추진 17개 사업이 논의되었다.

이후 7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는 기념사업의 종합계획과 광복 80년 경축행사 준비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광복 주간 주요 행사 준비와 온라인 생중계 필요성 등도 검토하였다.

중장기 기념사업

광복 주간 이후에는 위원회 논의가 중장기 광복 기념사업으로 확대되었다. 9월 24일 워킹그룹에서는 중장기 기념사업 후보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대국민 공모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어 10월 24일 열린 워킹그룹에서 중장기 기념사업 후보안을 통합하고 16개 중장기 광복 기념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기념사업들은 관계부처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구체화되었다.

12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의미를 담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16개 중장기 기념

사업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복 90년을 넘어 광복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기념사업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고,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기념사업의 추진 성과도 점검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광복 100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자 황지운 씨가 직접 자신의 제안인 ‘기억의 숲, 올림의 서고’를 발표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아이디어를 광복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기념사업으로 채택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 100년 준비에 나섰다.

2026년 1월 27일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광복 10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이 논의되었고, 3월 4일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계기 기념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문가 간담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공식 회의 외에도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4년 6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는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IT 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념사업 아이디어, 상징체계, 중장기 기념사업,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등 위원회 핵심 현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간담회는 위원회 공식 회의에서 담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적 식견을 기념사업에 반영하는 통로로서 기능하였다.



워킹그룹 회의

2. 위원장 및 위원 주요 활동

국무총리

국무총리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다양한 기념행사에 직접 참여하며 광복 80년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누었다. 2025년 8월 13일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을 주재하여, 오랜 세월 이국 땅에 잠들어 있던 독립유공자를 국가의 이름으로 모셔오는 뜻깊은 자리를 이끌었다. 이어 8월 15일 광복절 당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주권대축제>에 참석하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동을 나누었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낭독하는 국무총리

광복 주간 이후에도 국무총리는 주요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11월 23일 <광복 8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 행사> 등을 통해 광복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확산시켰다.

이종찬 민간위원장(제23대 광복회장)

이종찬 민간위원장은 광복 주간을 전후한 주요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광복 80년의 의미를 널리

알렸다. 2025년 8월 13일에는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식>과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VIP 시사회에 참석하였으며, 8월 14일에는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에 참석하여 광복의 기쁨을 나누었다. 광복절 당일인 8월 15일에는 경축식에서 직접 기념사를 낭독하였으며, 이어진 <국민주권대축제>와 <광복대행진>에 참여해 광복의 현장을 함께했다.

광복절 경축행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활동은 이어졌다. 11월 12일 <광복 80년 특별기획 학술세미나>에서 기념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의의를 재조명하였으며,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과 11



<광복 8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 행사>에 참석한 국무총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이종찬 민간위원장



월 23일 <광복 80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한국 재현 행사>에 참석하여 순국선열과 임시정부 요인에 대한 국가적 예우에 함께하였다. 특히, 12월 23일 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김구 탄생 15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해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기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의미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언론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부일보(8월 11일), 서울신문(8월 12일), 한국일보(8월 14일), 경인방송(8월 15일)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하고, 독립운동의 올바른 계승이라는 과제를 국민에게 널리 알렸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기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부윤경 위원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으로서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을 방문하여 홍범도 장군의 독립정신과 고려인 사회의 역사 현장을 국내외에 알렸으며,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제작 공로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함으로써 독립운동을 대중문화로 재조명한 문화예술계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박찬승 위원은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학술회의에서 발제를 맡아 광복의 역사적 의의를 학술적으로 조명하였다.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이종찬 민간위원장

경축·문화 사업에서도 위원들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김태욱 위원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및 <국민주권대축제>의 총감독을 맡아 광복 80년 경축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광복 80년 기념 국악공연 국악칸타타 <홀(屹); 들꽃처럼, 불꽃처럼>의 연출감독을 담당하여 전통예술을 통해 광복의 정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구현하였다. 이후에도 김태욱 위원은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TF 위원으로도 위촉되어 후속 기념사업의 기획에도 계속해서 힘을 보탰다. 공병삼 위원은 <손기정 평화 마라톤>에 참여하여 스포츠를 매개로 한 평화와 광복의 정신을 국민과 함께 나누었다.

재외동포 및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활동에는 김민선 위원이 앞장섰다. 김민선 위원은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세계한인의 날 기

념식>에 참석하여 재외동포 사회와 광복 80년의 의미를 공유하고, 광복 80년을 계기로 한민족 글로벌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데 힘을 보탰다.

중장기 광복 기념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도 위원들의 기여가 이어졌다. 박명현 위원과 이경숙 위원은 <광복 100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접수된 404건의 아이디어 가운데 수상작 7건을 선정함으로써 광복 100년을 향한 중장기 기념사업의 방향 설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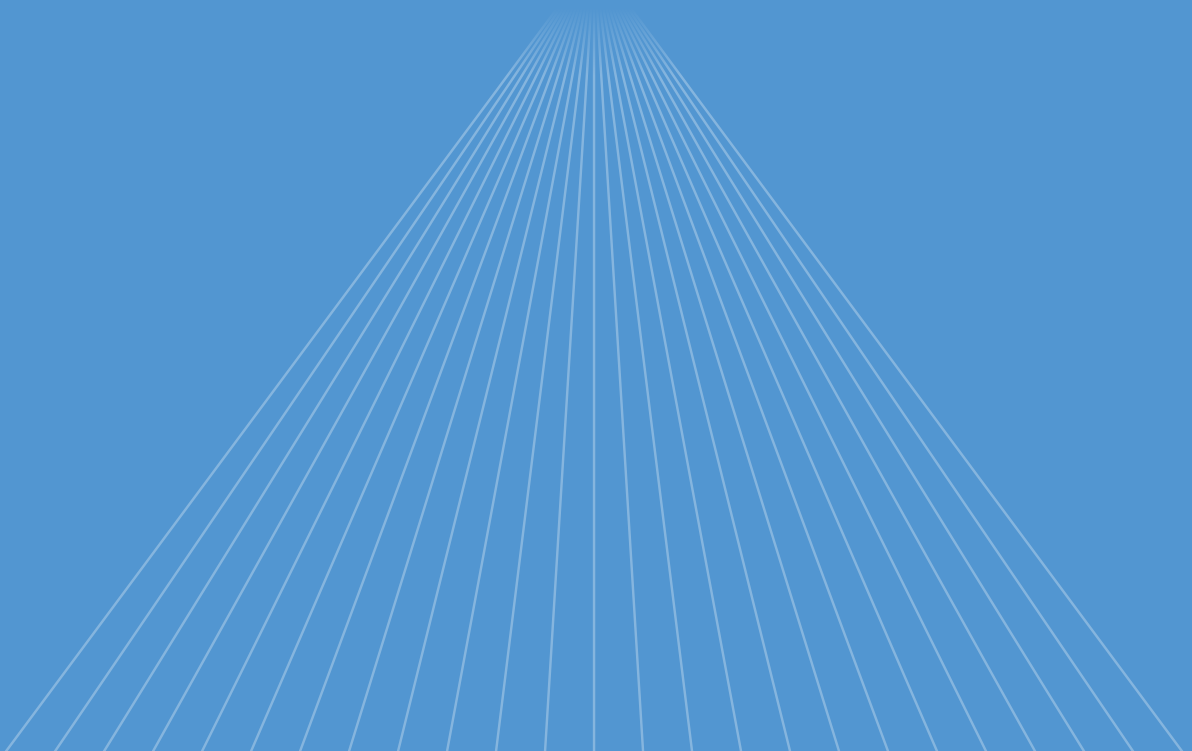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위원회 위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활동 영역을 바탕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현장 곳곳에서 제 역할을 다한 결과, 기념사업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광복의 정신을 미래로 연결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었다.



<손기정 평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공병삼 위원(사진 오른쪽)

광복은 수많은 이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써 내려간 역사다.
우리는 그 희생을 기억하고, 헌신을 기리며,
독립의 유산을 미래로 잇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이 장에는 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독립의 역사와 도약의 서사가 담겨있다.

2장



제2장 기억의 빛

독립의 역사에서 도약의 서사까지

제1절 빛나는 독립운동, 희생과 헌신의 역사

1. 광복의 기록으로 역사를 조명하다
2. 독립 영웅의 헌신을 기리다
3. 광복의 유산을 미래로 잇다

제2절 자랑스러운 80년 대한민국의 여정

1. 국가 발전의 궤적을 마주하다
2. 미디어로 80년의 서사를 널리 알리다
3. 문화강국의 자긍심을 높이다

제1절

빛나는 독립운동
희생과 헌신의 역사

1.

광복의 기록으로 역사를 조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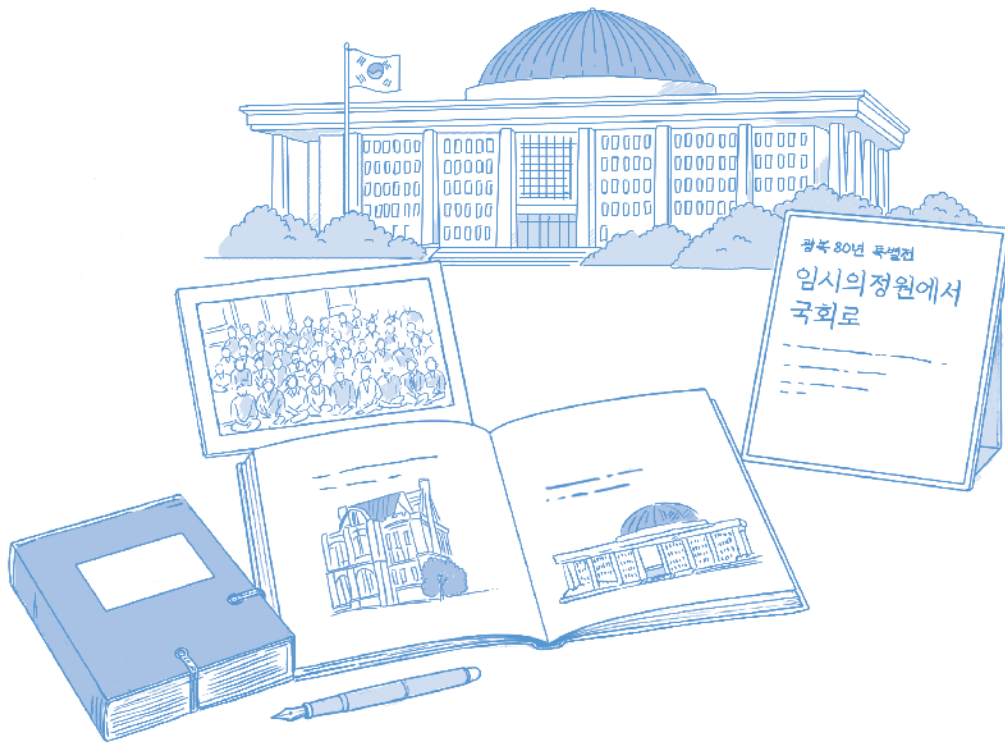
독립운동에서 광복에 이르는 역사적 발자취를 되짚어보기 위해
추진된 광복 80년 기념사업들로 구성하였다.

다양한 형식의 전시와 학술적 논의,
아카이브 구축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국민 누구나 광복의 역사적 가치를 직접 마주하고 그 의미를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❶ 광복 80년 특별전시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민주주의의 뿌리를 찾아 떠난 127,644명의 발걸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국회박물관은
광복 80년을 맞아 2025년 8월 15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
특별전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를 공동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국회의 기원인 임시의정원부터
오늘날 국회에 이르기까지의 계승과 발전을 중심으로 180여 건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획하고 선보인 이번 전시는 총 127,644명이 관람하였다.



광복 80년을 맞아 임시의정원에서 오늘날의 국회로 계승·발전되어 온
우리나라 의회 제도의 뿌리와 정신, 그리고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

역사와 오늘이 만나기까지

오늘날 대한민국의 곳곳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가 남아 있다. 1919년 4월 10일 제1차 회의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민주권의 공간인 국회로 이어진다. 그렇기에 광복 80년에 임시정부의 역사를 보존하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우리나라의 현재 민주주의를 기록하는 국회박물관이 함께 특별전을 기획한 것은 역사와 오늘을 이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다.

광복절 하루 전, 역사와 오늘이 만나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2025년 8월 14일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막식이 개최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참석하였으며, 특히 이종찬 민간위원장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함께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튿날 8월 15일 광복절에 시작된 전시는 2026년 3월 2일까지 약 8개월간 이어졌다. 전시는 크게 4부로 나뉘어져, 우리나라 민주공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도입부터 임시의정원의 구성과 활동, 제헌국회의 성립과 오늘날 국회에 이르기까지, 180여 건의 자료를 주제와 시간순을 고려하여 배치하였다. 특별전은 임시의정원과 국회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입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두 기관의 구조와 역할을 역사적 연속성과 공통점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독립운동 중에 해외에서 운영되었던 임시의정원의 특수한 시대적 맥락과 오늘날의 국회를 비교하여 다르게 운영된 점 또한 함께 조명하였다.

● 전시 개요

구분	내용
전시 기간	• 2025. 8. 15.(금) ~ 2026. 3. 2.(일) / 10:00~18:00
전시 장소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특별전시실
주최기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 국회박물관(공동 개최)
협조기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등
전시 자료	• 임시의정원 · 국회 관련 문서, 사진, 물품(투표함 · 인장 등), 영상 등 180여 점
관람객 수	• 127,644명

● 전시 구성

구분	주제	전시 내용
프롤로그	민주주의 싹트다	우리나라 민주공화제의 시작을 알리는 자료와 영상 전시
제1부 이어지다	‘국회’라는 이름으로 이어진 가치 - 임시헌장에서 헌법으로 -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간 의원들	- 임시헌장 제10조의 ‘국회’ 명칭 계승 - 임시헌장(1919) · 임시헌법(1919 · 1944) · 제헌헌법(1948) · 현행헌법(1987) 자료 - 신익희 · 조소앙 · 김상덕 등 양원 활동 인물 유물
제2부 소리내다	- 회의의 목소리, 기록으로 남다 - 독립의 목소리를 내다	- 회의 · 토론 관련 규정과 회의록 · 속기록 - 임시의정원이 이루어 낸 독립 관련 주요 성과 소개
제3부 함께하다	1919년, 그리고 1948년 1944년, 그리고 1987년	- 임시의정원(1919. 4. 10.)과 국회(1948. 5. 31.) 설립 비교 - 좌우연합 제34차 임시의정원 회의 자료와 1987년 여야 합의 개헌 자료 비교
제4부 올바르다	- 법의 이름으로 - 제도를 따라 - 절차를 지키다	- 임시의정원법 · 국회법 및 조직 구성 - 의원 선출 방식과 여성의원 자료 - 재정 · 예산 관련 업무와 권한 비교
에필로그	국회에서 임시의정원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각하는 관람객 주도형 전시 콘텐츠 공간



개막식 축사를 전하는 우원식 국회의장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전시실 내부

● 전시 주요 자료

자료명	연도	소장처	의의
독립선언서	1919	임시정부기념관	• 민족 대표 33명 명의로 대한민국이 독립국임과 민주주의·인권을 선언한 문서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	연세대 이승만 연구원	• 총 10조로 구성. 제10조 '국토 회복 후 만 1년 안에 국회 소집'이 임시의정원과 국회의 계승성을 명시
역대 임시의정원 회의 개최 일람표	1938년 이후	역사박물관	• 1919~1937년 제1~30회 의회 개최일·폐회일·장소 정리. 이동시기에도 지속된 임시의정원의 연속성 입증
대한민국 헌법	1948	임시정부기념관	• 제헌헌법 전문에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이어 받았다고 명시
홍진 인장	미상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 임시의정원 마지막 의장 홍진의 도장. 이름·호(만호)와 본명(홍면희) 각인
5·10 총선거 포스터	1948	국립민속박물관	• 제헌국회 총선거 홍보물. '국회'라는 명칭이 1919년 임시헌장에서 이미 결정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
국회법	1952	역사박물관	• 1948년 10월 2일 법률 제5호로 제정된 최초 국회법. 총 10장 구성

127,644명의 발걸음으로 이어 나갈 것들

특별전은 2026년 3월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임시의정원과 국회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시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임시정부기념관에서는 온라인 전시 서비스를 마련하여 국민들이 임시의정원의 기록을 계속해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은 임시의정원과 국회의 역사적 연속성을 문서와 유물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기관 간 공동 전시다. 1919년 상하이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그 의회가 오늘의 국회로 이어진다. 12만 7천 644명의 국민이 광복 80년에 두 기관의 긴밀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광복 80년 기념 태극기 전시 <태극기, 함께해 온 나날들>

하나의 깃발에 담긴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광복 80년을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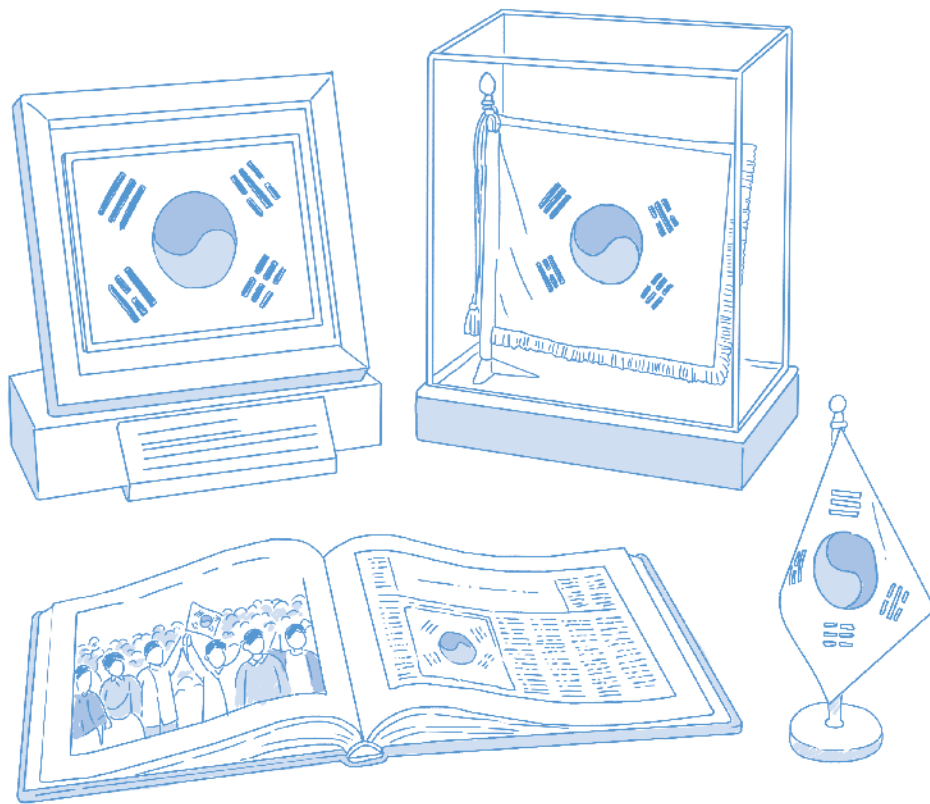
2025년 8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101일간

특별전 <태극기, 함께해 온 나날들>을 개최하였다.

전시는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130여 년 동안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함께해 온

태극기 17점을 선보였다.



태극기가 과거의 기억을 담은 동시에
오늘날의 정체성을 비추고, 내일의 비전을 연결하는 상징임을
국민과 함께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 전시 개요

구분	주제
전시명	• 광복 80년 기념 특별전 <태극기, 함께해 온 나날들>
전시 기간	• 2025. 8. 8.(금) ~ 11. 16.(일), 총 101일 간
개막식	• 2025. 8. 8.(금)
전시 장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층 전시실
전시 자료	• 국내외 주요 태극기 및 관련 자료 17점(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태극기 국내 최초 공개 포함)
주최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수	• 373,518명

태극기 하나로 읽는 대한민국

이번 전시는 태극기가 국기로 공식 선포된 이후, 자주외교와 독립을 외쳤던 순간부터, 평범한 일상과 도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대한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당시 대한제국관에 걸렸던 태극기가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에 공개되었다. 이를 통해 대한제국이 자주 국가로서의 의지를 세계에 알린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우리의 시간에 함께 해 온 태극기

전시는 시대별 태극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시대마다 태극기에 어떤 의미를 새겼는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등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민주화를

비롯한 성취의 시간에서 우리와 함께 휘날렸던 태극기를 통해 국민 공동의 기억을 짚어 나갔다. 1부, ‘붉고 푸른 깃발 높이 들고’는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태극기를 선보였다. 태극기가 국기로 지정되고 국가의 상징으로 사용된 순간들을 담았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국내에 처음 공개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태극기는 대한제국이 세계 무대에 자신을 내보이던 그 순간에 함께 했던 것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2부, ‘그대들 돌아오시니’는 일제강점기에 조국 독립의 의지를 담은 특별한 태극기들을 모았다.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항일정신을 담아 곳곳에 표현한 태극기와 광복과 함께 우리 곁으로 돌아와 자랑스럽게 펄럭이는 다양한 태극기들을 함께 다루었다.

3부, ‘기쁨과 슬픔, 희망을 담아’는 광복 직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의 곁에 있었던 태극기들을 함께 소개했다. 임박한 광복에 대한 기대와 기쁨, 처절한 전장에 담긴 결연한 의지, 뜨거운 민주주의가 샘솟던 광장, 또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도전하

는 현장, 마지막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까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던 태극기를 보여주었다.

태극기로 이은 기념과 일상

이번 특별전은 국내에 최초 공개한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태극기를 포함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상징하는 주요 태극기 17점을 한자리에 모았다.
기념은 과거의 의미를 현재에 되새기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된 특별전도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오늘의
정체성과 내일의 비전을 열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와 함께 휘날린 태극기에서 돌아본
37만 3천 518명의 기억이 내일로 뻗어나갈 시작
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전시 구성

구분	부제	전시 내용
제1부	붉고 푸른 깃발 높이 들고	태극기의 국기 공식 선포 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기까지의 역사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 태극기를 국내 최초 공개 - 대한제국이 세계 무대에 자신을 내보이던 순간을 소개
제2부	그대들 돌아오시니	일제강점기 독립 의지와 광복을 향한 뜻을 담은 태극기들 - 깊숙이 숨겨졌다 꺼낸 항일 태극기 - 광복 이후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다양한 태극기 실물 전시
제3부	기쁨과 슬픔, 희망을 담아	광복 이후 현재까지 여러 순간에 있던 태극기들과 맥락 소개 - 광복의 날이 머지않았다는 기대를 담았던 - 전선에서 자신을 희생하여 모두를 지켜온 -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의 연대 - 스포츠의 도전과 함성 -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들



대한제국의 근대식 군함 광제호에 게양되었던 태극기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학교 학생회장 박관현 열사의 관을 덮은 태극기

3 광복 80년 항일유산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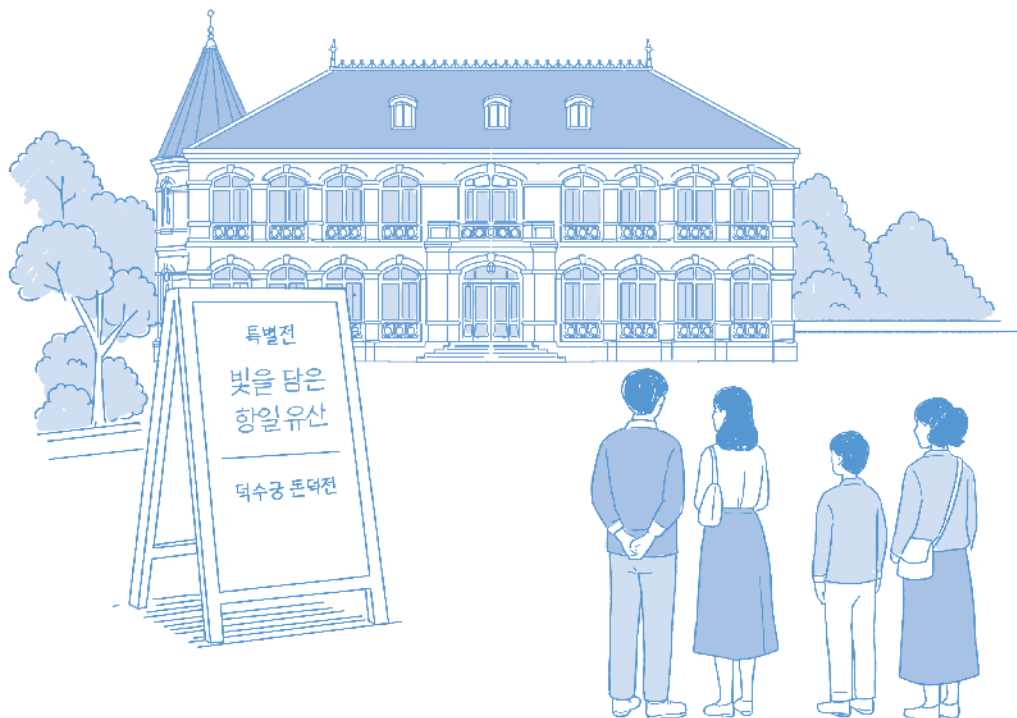
덕수궁 돈덕전에서 만난 독립의 기억

국가유산청은 광복 80년을 맞아

덕수궁 돈덕전에서 항일유산 특별전을 개최하였다.

광복에 이르기까지의 항일 독립 유산 110여 점을

한자리에 모은 이번 전시는 총 247,746명이 관람하였다.



국민들과 함께 광복 80년을 기념하고,
광복의 참된 의미와 항일유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국가유산청 -

항일유산을 ‘빛’으로 읽다

국가유산청은 2025년 1월 내부 TF를 구성하며 특별전 준비에 착수하였다. 전시명 〈빛을 담은 항일유산〉은 항일 독립 문화유산이 일제의 억압과 탄압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독립의지를 담은 빛의 기록이라는 기획을 중심으로 출발하였다.

덕수궁 석조전에서 연 빛

2025년 8월 11일 저녁 7시 30분, 덕수궁 석조전에서 국내의 기억과 국제적 연대가 한 공간에 모인 개막 행사가 열렸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이종찬 민간위원장, 임오경·박수현·김승수 국회의원, 베르트랑 자도 주한 프랑스 수석참사관, 탄 김 주한 미국 대외협력국장이 자리를 함

● 전시 구성

구분	부제	시대	주요 전시 유물
제1부	자주구국의 유산	개항기~대한제국	〈미사일록〉(대한제국 주미공사 이범진 외교일기), 한일관계사료집 등
제2부	민중합성의 유산	일제강점기 초기	〈서울 진관사 태극기〉(보물), 한말 의병 관련 문서 등
제3부	민족수호의 유산	일제강점기 중기	안중근 의사 유묵 〈녹죽(綠竹)〉, 독립운동가 서영해 자료 등
제4부	조국광복의 유산	일제강점기 후기	조선말 큰사전 원고, 임시정부 관련 문서류 등
제5부	환국의 유산	광복 전후	광복 직후 귀환 관련 기록물, 독립선언 관련 자료 등

● 최초 공개 주요 유물

구분	시대
한말 의병 관련 문서	2024년 7월 일본에서 환수 - 의병장들의 결사항전 기록으로 의병 체포, 서신 강탈 등 일제의 탄압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
안중근 의사 유묵 〈녹죽(綠竹)〉	2025년 4월 경매를 통해 개인 소장자가 환수 - 안중근 의사의 친필 유묵
〈미사일록〉	- 국가등록문화유산, 대한제국 주미공사 이범진의 외교일기 - 당시 외교활동과 영어 사용 용례·표기, 서양국가에 대한 인식 수준 등 다양한 역사적 상황을 담은 기록
한일관계 사료집	-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연맹에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편찬한 역사서 - 임시정부의 체계적 외교 전략을 보여주는 자료
〈서울 진관사 태극기〉	- 보물,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로 발견된 일제강점기 태극기 - 불교계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독립운동 양상과 강한 항일 의지를 보여주는 유물
독립운동가 서영해 자료	국가등록문화유산, 일제강점기 유럽 독립운동을 이끈 서영해가 프랑스 파리에 설립한 고려통신사를 중심으로 수행한 외교 활동 관련 자료

깨하였다.

또한 이 날 오전 먼저 열린 특별전 기자간담회는 언론에 전시의 의미를 전달하였고, 이튿날인 8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62일간 덕수궁 돈덕전에서 일반 관람이 열렸다. 전시기간 중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덕수궁에 방문하여 특별전을 관람하였다.

조명하였다.

광복절 연휴인 8월 15일과 16일에는 대중 강연 두 편이 이어졌다. 황선익 국민대 교수가 〈빛을 담은 항일 유산 전시를 말하다〉로 전시의 맥락을 풀어냈고, 최태성 역사 강사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광복에 미친 영향〉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보는 것을 넘어, 함께 들고 배우는 빛나는 유산들

전시는 유물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8월 14일(목) 오후 2시, 돈덕전 아카이브실에서 학술 세미나 〈항일 독립운동과 문화유산〉이 열렸다. 동아대 김기수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다섯 명의 전문가가 항일유산을 다각도로



〈빛을 담은 항일유산〉 개막식 축하 세리머니

● 학술세미나 발표 구성

구분	분야	발표자	발표 주제
기조강연	종합	김기수 (동아대 교수)	기억(記憶)과 기록(記錄)의 근대기 항일독립운동 유산
주제발표1	건축	안창모 (경기대 교수)	항일운동의 현장, 탑골공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 회복
주제발표2	건축	송석기 (군산대 교수)	항일독립운동, 집회결사의 공간으로서 국가등록문화유산
주제발표3	동산	김도형 (前 독립기념관 수석연구위원)	국외 독립운동 문화유산의 현황과 과제
주제발표4	동산	이광표 (서원대 교수)	항일독립운동 문화유산의 인식과 활용

빛의 향일유산이 전국으로 펼쳐지다

특별전은 덕수궁 돈덕전 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 부산 근현대역사관, 광주 역사민속박물관, 울산 박물관, 목포근대역사관 등 4개 지역 박물관에도 전시 부스를 설치해 전국의 관람객이 향일유산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차주영, 이선빈 배우와 협업해 제작한 홍보 영상을 공개해 특별전의 의미를 널리 알렸다. 또한 차주영 배우는 전시장 오디오 도슨트로도 참여하여 국내외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도왔다.

이어지는 향일 유산의 빛무리

전시 기간 62일, 총 247,746명. 하루 평균 약 3,996명이 덕수궁 돈덕전을 찾았으며, 전시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전시가 끝난 뒤에도 향일유산의 이야기는 이어졌다. 도록 700부가 유관기관에 배포되었고, 전시를 다룬 룬폼과 솟폼 영상도 온라인에 공개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향일유산의 빛을 전하고 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지향한 것은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의 일상 속에 되살리는 일이었다. <빛을 담은 향일유산>은 그 지향을 문화유산이라는 구체적 실물로 구현한 사업이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지정·등록 문화유산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국민들과 함께 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환수 유물의 지속적 활용과 향일유산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존·관리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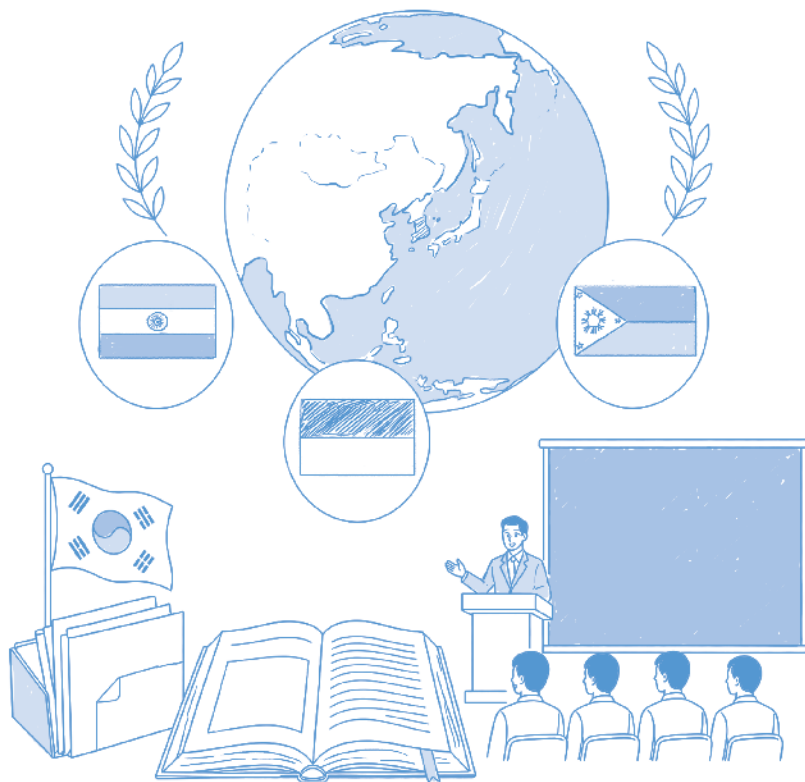
《빛을 담은 향일유산》 개막식 참석 후 전시관람하는 이종찬 민간위원장



2025년 8월 15일, 황선익 교수의 1차 강연 현장

4 광복 80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학술회의 세계사의 시선으로 본 국권회복

1945년 우리나라의 광복은 세계의 흐름 속에 있었다.
아시아 각국이 그동안 서구, 일본 또는 둘 모두에게
국권 침탈의 고통을 받다가 회복하는 시작점에 있었다.
제63회 한국사 학술회의는 우리 광복의 의미를 세계의 관점에서 살피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광복 80년을 맞아 국권회복과 탈식민의 역사적 경험을
한국사를 넘어 세계사적으로 고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제63회 한국사 학술회의〉에서 개회사를 전하고 있는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세계사 속에서 본 광복의 의미

우리가 광복을 이룬 1945년은 세계사적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되던 때이다. 특히 아시아 일대에서 그간 국권을 잃었던 국가들이 제각기 국권회복과 독립 투쟁에 나서 독립 국가를 수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인도,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 일본의 점령을 겪은 인도네시아, 스페인, 미국 그리고 일본의 지배에도 주권을 되찾은 필리핀 등, 구체적인 모습은 달랐지만 각국은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독립 국가를 수립하는 공통된 경험과 과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2025년 8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63회 한국사 학술회의는 이러한 공통점에 주목했다. ‘세계사의 시선으로 본 국권회복’을 주제로 한국의 국권회복 경험을 아시아 여

러 나라 사례와 비교·분석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폭넓게 살폈다. 식민 지배와 국권회복 경험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사례와 함께 검토해 광복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드러내고자 했다.

학술회의는 3부로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제1부는 한국의 국권회복운동과 제헌헌법을 다루고, 같은 시기 일본이 평화헌법을 통해 전후 국가 체제를 어떻게 정립했는지 살폈다. 제2부는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독립 이후 제헌헌법을 통해 어떤 국가를 구상하고 실현했는지 분석했다. 제3부에서는 앞선 여섯 편의 발표를 바탕으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제63회 한국사 학술회의 프로그램

시간	구분	발표자	발표 주제
13:00~13:15	개회 및 인사말	—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13:15~14:35	1부 한국 국권회복의 역사적 의미와 전후 국가 일본 사회: 박진희, 국사편찬위원회		
13:15~13:45	발표1	박찬승(한양대)	한말 · 일제하 국권회복운동의 역사적 의미
13:45~14:10	발표2	오동석(아주대)	한국 제헌헌법에 반영된 기본권, 민권, 주권과 민주주의
14:10~14:35	발표3	하종문(한신대)	일본의 '전후국가론'과 평화헌법의 재해석
14:35~14:55	휴식		
14:55~16:10	2부 아시아 각국의 국권회복과 제헌헌법 사회: 정대훈, 국사편찬위원회		
14:55~15:20	발표4	신민하(한국외대)	독립운동기 인도의 국가 구상과 제헌헌법
15:20~15:45	발표5	박준병(강원대)	필리핀 국권회복 이후 미국 · 필리핀 관계 변화와 제헌헌법
15:45~16:10	발표6	변해철(한국외대)	인도네시아 국권회복과 제헌헌법
16:10~16:30	휴식		
16:30~17:50	3부 종합토론 좌장: 이지원(대림대) / 토론: 도면희, 염운옥, 강상규 및 1, 2부 발표자		
17:50~18:00	폐회		

1장 빛의 시작

2장 기억의 빛

3장 모두의 빛

4장 빛의 확산

5장 빛의 비상



〈국사편찬위원회 제63회 한국사 학술회의〉 종합토론 참석자 기념사진

학문을 연결하여 인식으로

종합토론은 아시아 각국의 국권회복 경험을 비교·연구하는 작업의 필요성에 주목해 진행했다.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사회가 공유할 역사 인식의 토대를 마련하려면 한국사 범위에만 머무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동양사, 서양사, 국제법을 결합하는 학문 간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토론 그 이후의 과제

학술회의 결과물은 발표문과 토론 내용을 묶은 〈학술회의 총서〉로 정리해 2026년에 발행할 예정이다. 총서는 이번 논의를 연구 기록으로 남기고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제63회 한국사 학술회의는 국사편찬위원회가 광복 80년을 맞아 국권회복의 의미와 과제를 아시아로 시야를 넓혀 탐구하고 공유한 학술 행사였다. 이는 광복 80년이 한국사를 세계사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는 학술적 계기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보여준다.



기조강연 현장

5 광복 아카이브 <1945년 한 해> 400점의 자료가 열어놓은 그 해의 창

1945년은 나라를 세우려던 열망과 이념의 균열 속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태평양 전쟁과 광복, 그 직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38선으로 나뉜 한반도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근현대사 아카이브 웹콘텐츠 <1945년 한 해>를 통해
400여 점의 소장 자료로 이토록 복잡했던 한 해를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1945년 한 해의 역사를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자료 400여 점과
영상을 통해 조명했습니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누리집



유물로 보는 1945



〈1945년 한 해〉 메인 화면

1945년을 입체적으로 읽는 방법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이 웹콘텐츠를 기획한 것은 2025년 1월이었다. 광복의 해를 단 하나의 서사로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해 동안 공존했던 여러 목소리와 다양한 현실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기획의 출발점이었다. 8개월간의 기획과 개발 끝에 광복절 당일 공개된 이 콘텐츠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누리집 근현대사 아카이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1945년이 품은 네 개의 줄기, 자료로 여는 역사의 창

콘텐츠는 1945년이라는 시간을 네 개의 흐름과 아홉 갈래의 이야기로 엮어, 그 해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용자는 연표를 따라 역사의 흐름을 순서대로 살펴볼 수도 있고, 통합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해 400여 점의 자료 가운데 원하는 항목을 바로 찾아볼 수도 있다. 각 자료에는 고해상도 이미지와 상세

한 설명이 함께 제공된다.

첫 번째 줄기 〈시대를 견디다〉는 광복 이전을 살았던 사람들의 현실을 기록한다. 태평양전쟁의 전선,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 수탈과 통제 아래 쪼그라든 일상이 자료를 통해 드러난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이 독립 이후를 준비하던 장면, 광복 후 임시정부 요인들의 귀국과 정치 활동을 담았다.

두 번째 줄기 〈대한독립만세〉는 광복의 순간을 보여준다. “조선 동포 여러분, 일본은 무조건으로 연합국에 항복하였습니다.”라는 방송이 전파를 뒀던 날, 거리에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모습과 당시 남겨진 사진과 문서들이 이 줄기를 채운다.

세 번째 줄기 〈분할점령과 정부 수립의 열망〉은 환희 직후의 균열을 다룬다. 미소군의 진주와 38선 설정, 건국준비위원회와 한국민주당의 출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 좌우 세력의 대립이 이어진다. 더불어 광복과 함께 이루어진 강제 동원 귀환자, 일본인 본국 송환, 해외동포 귀국, 전쟁피해동포를 위한 모금과 구호도 이 줄기에서 다루어진다.

네 번째 줄기 〈미군정 통치와 일상의 변화〉는 해방 이후 일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본다. 한글 교육 시작, 미군정이 제작·배포한 포스터와 홍보물, 미국 자유시장 정책 도입과 그에 따른 경제적 혼선 등 해방된 나라가 맞이한 새로운 풍경을 자료를 통해 전한다.

디지털로 이어진 기억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1945년 한 해〉는 대

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 아카이브 누리집에 공개되었다. 특별한 입장권이나 관람시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누리집에 접속하여 1945년의 자료들을 직접 만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400여 점의 자료가 디지털 아카이브에 담겨, 연구자에게는 사료로, 교사에게는 교육자료로, 학생에게는 탐구의 출발점으로 활용되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 되었다. 1945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80년이 지나 새로운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는 점은 이 웹콘텐츠가 품고 있는 가장 큰 의미라 할 수 있다.

● 웹콘텐츠 구성

항목	구분	내용
① 시대를 견디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었나?	1945년 광복 직전의 식민지 조선 - 전쟁 동원 체제 아래 수탈과 통제가 극심해진 상황 속 조선인의 삶
	1945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 상하이부터 충칭까지 이어진 임시정부 이동 - 한국광복군 창설을 비롯한 임시정부 활동 - 광복 이후 임시정부 요인의 환국과 정부 수립 준비
② 대한독립 만세	조선 동포 여러분, 일본은 무조건으로 연합국에 항복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항복 방송 - 광복의 순간, 거리를 가득 채운 사람들의 기쁨 - 미소군의 한반도 분할점령과 미군정 통치의 시작
	모두가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해	- 광복 직후 여러 정치 세력의 건국 준비 활동 - 건국준비위원회, 한국민주당 등 정당·단체 결성 과정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신탁통치 결정과 이후 일어난 좌우 이념 대립
③ 분할점령과 정부 수립의 열망	돌아간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	- 광복 이후 강제 동원되거나 삶의 터전을 찾아 해외에 거주하던 한국인들의 귀국 - 해외에서 돌아온 동포를 위한 구호 사업이 진행
	해방은 교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	광복 후 한글 교육 시작과 교과서 편찬, 미군정 교육 정책 도입
④ 미군정 통치와 일상의 변화	미군정은 통치하기 위해 인쇄기를 돌렸다	미군 진주와 미군정이 제작·배포한 포스터, 홍보물 등
	약간은 어긋났던 미군정의 경제 정책	- 미군정이 시행한 각종 경제 정책 - 생활필수품 공급, 미군 정책, 토지 정책 등
	새로운 시대를 그리다	일본의 잔재를 없애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되찾으려는 노력과 미국 문화에 대한 관심

6 광복 80년 기념 <과학조선을 꿈꾸다> 기획전

과학기술자들의 독립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복 80년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과학운동을 재조명하는
기획전 <과학조선을 꿈꾸다 - 과학기술자들의 독립운동>을
국립과천과학관 명예의 전당에서 개최했다.
2025년 8월 1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두 달간 운영된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 분야의 노력을 통해 민족의 자립을 도모했던 인물들을
실물 사료, 시청각 자료,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해 소개했다.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준비한 기획전을 통해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 -



〈과학조선을 꿈꾸다〉 전시장 전경

과학으로 독립을 꿈꾸다

일제강점기 시대, 과학은 단순한 학문적 영역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과학을 널리 보급해 민족의 지식 수준을 높이고 산업 자립을 이루려는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 과학운동에 헌신한 인물들은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이번 전시는 1922년 안창남 비행사의 고국 방문 비행을 시작으로 ‘과학데이’ 창시자 김용관·이강현·석주명·이태규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자들을 순차적으로 소개했다. 전시는 총 8개 코너로 구성되었으며 마지막 코너에서는 1936년 김용관이 잡지 〈사해공론〉에 예측했던 ‘100

년 후의 과학조선’과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나란히 배치해 비교하는 구성을 선보였다.

전시 방식은 실물 사료 전시와 디지털 콘텐츠를 병행했다. 사료 정보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구현한 일제강점기 ‘과학데이’ 행사 영상이 전시장 내에 상영되었으며, 유리 진열장에는 일제강점기 과학기술 관련 실물 역사자료가 전시되었다. 또한 시청각 자료도 함께 전시되어 글과 영상으로 인물의 활동을 입체적으로 전달했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과학잡지 합성사진 촬영〉과 〈기념 책갈피 만들기〉 부스가 운영되며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았다.

● <과학조선을 꿈꾸다> 기획전 코너 구성

구분	전시 주제	대표 인물 및 소재	주요 내용
Intro	하늘을 날아 조선을 깨우다	안창남 비행사	- 과학조선의 꿈을 상징하는 도입부 1922년 고국 방문 비행으로 전국적 반향을 일으킨 안창남의 이야기로 전시 시작
1-1	과학데이와 과학조선	김용관 (과학데이 창시)	- 일제강점기, 과학데이(1934~)의 의의 소개 - 시로 재현한 과학데이 자동차 행렬 행사 영상 표출
1-2	과학조선을 꿈꾼 과학자들	김용관, 안동혁, 조응천	과학 대중화 운동을 이끈 인물들의 활동과 업적 조명
2-1	이강현과 경성방직	이강현 / 경성방직, 태극성	조선 섬유 산업의 자립을 위해 헌신한 이강현과 경성방직의 역사 소개
2-2	이준열과 대동광업	이준열 / 대동광업, 건국공업박람회	광업을 통해 조선의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한 이준열의 활동 소개
3	조선의 생물·박물을 연구했던 사람들	석주명, 조복성, 정태현	나비 분류학(석주명), 동물학(조복성), 식물학(정태현)으로 조선의 자연을 학문으로 기록한 인물들
4	해외에서 과학 연구를 선도한 사람들	이태규, 우장춘, 리승기	해외에서 세계적 연구 성과를 낸 한국인 과학자들의 업적 소개
Outro	1936년 김용관이 꿈꾼 100년 후의 과학조선	김용관 / 잡지 〈사해공론〉	1936년 김용관이 〈사해공론〉에 예측한 ‘100년 후의 조선’과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대비한 마무리 전시



<과학조선을 꿈꾸다> 전시장 내, 시로 재현한 광복 80년 기념 '과학데이' 행사 영상

과학의 뿌리, 광복의 땅에서 피어나다

광복절 당일에는 성인 대상 과학 학습 프로그램 〈과학과愛〉의 특별강좌인 〈대한민국 첫 과학자들을 만나다〉가 운영되었는데, 이 강좌에서는 이명현 천문학자가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대한민국 과학발전을 위한 과학자들의 노력에 대해 강의하였다. 8월 23일에는 채찬병 연세대 교수의 〈차세대 과학자와 공학자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 강연이 개최되었다.

과학으로 기억하는 광복 80년

이번 전시는 총 대신 시험관을 들고, 거리 대신 실험실을 선택했던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첫 과학자들을 재조명함으로써, 광복 80년의 과학 정신이 미래 기술로 이어지는 역사적 만남을 통해 광복 80년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부대 프로그램 구성

주요 프로그램	일자 및 장소	주요 내용
과학과愛: 대한민국 첫 과학자들을 만나다	2025. 8. 15.(금) 패밀리창작놀이터	- 이명현 천문학자 강연 -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 대한민국 과학 발전에 기여한 과학자들 소개
선을 넘는 과학자들: 광복 80년 기념 강연	2025. 8. 23.(토) 상상홀	- 채찬병 연세대학교 첨단융합공학부 교수 강연 - 해방 이후 대한민국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미래 기술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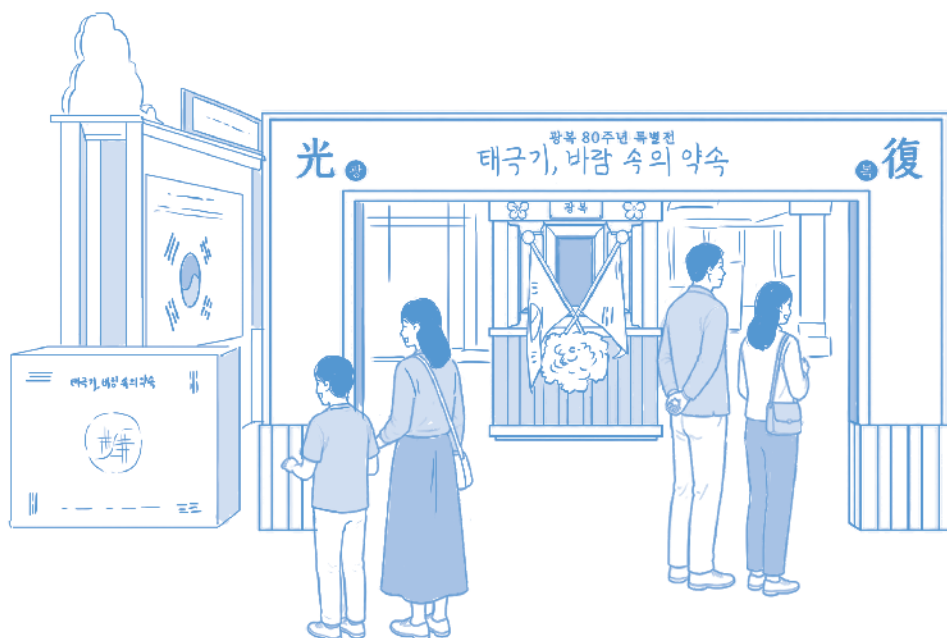


〈과학조선을 꿈꾸다〉 전시 포스터

7 광복 80년 계기 특별전

태극기, 독립의 기억을 품고 전국을 순회하다

국가보훈부와 독립기념관이 태극기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특별전 <태극기, 바람 속의 약속>을 개최했다.
천안 · 대구 · 광주 · 제주 네 곳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 이 전시는
각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고,
2025년 8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총 882,909명이 관람했다.



태극기와 함께 자유를 되찾기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희생을 기억하고, 광복 80년의 의미를 온 국민이
깊이 있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국가보훈부 · 독립기념관 —

천안에서 제주까지, 4개 지역 순회 전시

독립운동과 광복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과정에서 태극기는 우리와 함께 해왔다. 역사의 순간 속에 휘날린 태극기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하는 소중한 일일 것이다.

총 2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독립운동 시기의 태극기와 광복 이후 국가 상징으로서의 태극기

를 시간 순서에 따라 조명했다. 1부 ‘바람을 타고 외친 독립’에서는 일제에 맞서 항일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깃발을 만들고 흔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으며, 2부 ‘광복, 우리가 그려가는 태극기’에서는 광복 이후 국가 상징으로서 태극기에 담긴 국민들의 헌신과 자부심을 담아냈다.

● 지역 순회 전시 일정

순서	권역	전시 장소	기간	관람 인원
1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	8. 15.~11. 23.	716,242명
2	대구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	8. 25.~10. 26.	109,415명
3	광주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9. 8.~11. 16.	4,417명
4	제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9. 26.~12. 21.	52,835명



독립기념관(천안) 특별전 전시실 전경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대구) 특별전

● 전시 프로그램 구성

구분	주제	주요 전시자료 및 내용
1부	바람을 타고 외친 독립	- 내용: 독립운동 시기 자주 · 독립의 상징이자 저항의 불씨가 된 주요 태극기 및 각 지역 독립운동사 소개 - 전시자료 - 불원복(不遠復) 태극기 (전남 구례 일대에서 활동한 고광순 의병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짐) - 김구 서명문 태극기(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의 친필 서명이 포함) - 지역별 특색 있는 전시자료 - 광주: 목포 정명여중에서 기증한 <조선독립광주신문>, 광주학생독립운동 당시 격문 - 제주: 법정사 항일투쟁, 해녀항일운동 등
2부	광복, 우리가 그려가는 태극기	- 내용: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부터 이후 국민들과 함께한 태극기 이야기 소개 - 전시자료 1945년 당시 광주역 앞 경축탑 사진 1948년 광복 이후 최초로 참가했던 제14회 런던올림픽 한국선수단 입촌식 사진 1988년 서울올림픽 포스터 등
국민 참여 콘텐츠	나의 태극기 이야기 / 태극기 서명 캠페인	- 나의 태극기 이야기 -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편 전시 - 광복 80년 태극기 서명 캠페인 - 육 · 해 · 공군, 경찰청, 민간기념사업회 등과 협력하여 수집한 태극기 6종 전시



학생독립운동기념화관(광주) 특별전 개막식

“

광복 80년 특별전은
태극기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전국의 역사와 기억을
하나의 전시로 담아냈다.

”

태극기로부터 이어지는 과거와 현재

광복 80년 특별전 〈태극기, 바람 속의 약속〉은 우리 곁에서 펄럭이는 태극기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국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의병장의 신념, 해외 동포들에게 전하는 임시정부 주석의 호소가 역사 속 태극기 곳곳에 새겨져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 독립을 염원하는 곳곳에는 태극기가 높이 함께 했다. 남쪽 제주부터 전국을 수놓았던 태극의 물결은 기다리고 기다렸던 광복의 그 때에도 우리와 함께 했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었던 광복 80년의 특별전은 과거와 오늘을 연결하여, 우리가 미래로 가는 길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민속자연사박물관(제주) 특별전에서 학예사 해설과 함께 관람하는 모습

김희곤 독립기념관장 인터뷰

광복 80년, 정통성과 역사성 관점에서 본 독립



김희곤 독립기념관장

독립기념관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이 어떠신지요?

중요한 시기에 관장으로 취임하여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래 국민들의 관심과 지탄이 거듭되었고, 또 역사 바로잡기에 나섰던 광복회원들의 헌신도 생각하면서, 정리해야 하는 임무가 막중한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다급한 임무는 직원들이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기념관 곳곳과 사업 현장을 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마음을 다독이고 조직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장
김 희 곤



취임사에서 1) 독립기념관 설립 정신, 2) 독립운동의 세계사적 가치 확립, 3) 독립기념관 사업 활성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무엇보다 독립기념관을 왜 만들었는지 그 정신을 돌아보고 설립 목적에 맞는 일을 해야 합니다. 1982년 일본의 역사왜곡은 일본이 일제로 향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연구자들의 시선에서 그것은 역사침략이었습니다. 역사침략은 ‘일본’이 아닌 ‘일제’가 펼친 민족정체성 말살정책의 하나입니다. 그것을 막아내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사가 가지는 특성을 정립하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는 중심축으로 세운 것이 독립기념관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포함하여 전 국민이 성금 모금에 참여하여서 기념관이 건립된 것이지요. 우리의 독립운동을 우리의 눈으로 담아내겠다는 의지가 독립기념관의 설립 정신이고,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둘째, 한국 독립운동을 한국의 역사만으로 보면 제대로 보이지도 않고 또 작아 보입니다. 하

지만 세계 독립운동사, 세계 식민지해방운동사 차원에서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침략 제국주의 국가는 열서너 개에 지나지 않지만, 침략에 맞서 독립운동을 펼친 나라는 백몇십 개나 됩니다. 그러한 나라들의 독립운동사에 견주어 보면, 한국 독립운동사는 비슷한 보편성도 있지만 뛰어난 특수성도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면, 독립운동을 통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전시킨 것이지요. 우리는 독립을 하면서 군주국가에서 민주국가, 국민이 참정권을 가지는 근대 시민사회, 근대국가를 만들어 냅니다.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정부와 의회라는 두 개 축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세계사에서도 드문 사례입니다. 그 가치를 정립하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셋째, 독립기념관이 내년에 개관 40주년을 맞습니다. 독립기념관을 세우던 그날의 그 정신, 초심으로 돌아가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기념관 운영과 핵심사업의 방향을 되새겨볼 때가 된 것입니다. 독립기념관이 문을 열고 40년간 국민과 함께한 시간을 담을 수 있는 여러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의 정신을 담은 국민 참



김희곤 독립기념관장 인터뷰 현장

여형 전시, 40년을 돌아보는 백서 발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학술회의 등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시대적 변화에 맞춘 새로운 기획전시 등을 도입할 생각입니다. 독립기념관의 정신은 바뀌지 않지만, 이를 보여주고 알리는 방법은 새로운 시대의 기법을 활용하여 바뀌어나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 AI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는 그 속도나 영역이 엄청나게 빠르고 넓어지겠지요. 그런데 독립기념관의 전시는 이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기법으로 전시하더라도 2, 3년이 지나면 벌써 옛것이 됩니다. 따라서 상설전시는 전통 방법을 상당수 지켜나가고, 특별기획전시는 최신 기법을 활용하여 더 많은 국민이 찾아오는 독립기념관을 만들겠습니다.

작년 광복 80년에 독립기념관은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광복 80년이 관장님께는 어떤 의미로 기억되시는지요?

무엇이든지 계기를 맞으면 특별하게 되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게 되지요. 저 같은 연구자는 지난 80년의 연구성과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따져봅니다.

광복 직후에 독립운동가들이 친일잔재를 청산하려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몰입했지만, 일이 쉽게 진척되질 못하고 오히려 뒤집어지는 일도 생겼지요. 그러다 보니 역사전쟁이라는 이상한 현상이 오래 거듭되어 왔습니다. 지난 날의 잘못되었던 과거는 잘못된 것으로 정의내리고, 앞으로의 반듯한 방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토대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하여 연구자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독립기념관이 독립운동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K-pop처럼 전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우리는 미완의 광복 80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복은 완전한 복원이라 하는데, 우리는 분단되고 말았잖습니까? 통일이 되어야 진정한 광복이겠지요. 이 기회에 희미해져 가는 통일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전세계의 혼잡한 국제 정세로 인해 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자국의 의지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

습니다. 그러나 독립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루어 냈듯이, 통일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 함께 공감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전 세대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독립운동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너진 나라, 빼앗긴 국권을 되찾는 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 속에서 배우고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내 나라 내 겨레를 지키려 몸 바친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 역사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는 일인지를 거듭 되새기는 일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다짐하고 또 이어나갈 정신이자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광복 100년을 향해 나아갈 미래 세대에게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는 가장 악조건의 침략통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한 투쟁성으로 광복을 맞이한 자랑스런 역사입니다. 민족정체성 말살이라는 혹독한 침략 통치를 이겨내고, 독립운동으로 근대국가를 세웠습니다. 독립운동을 배우고 독립기념관을 찾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켜낸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는 일입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사실과 가치를 이해하면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백범 김구 선생의 뜻을 헤아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류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문화를 알리는 것이 통일로 향하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광복 80년을 맞이하며 미래 세대가
독립운동의 강인한 투쟁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김구 선생이 강조한 ‘높은 문화의 힘’을 길러,
한류의 에너지를 통일의 동력으로 승화시키기를 기대합니다.

2.

독립 영웅의 헌신을 기린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그 발자취와 공헌이 시간 속에 잊히지 않도록 기억하기 위한
광복 80년 기념사업들로 구성하였다.

봉환과 환수, 기념과 포상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독립 영웅의 희생을 마음에 새기고
그 가치를 오늘날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❶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머나먼 땅에 잠든 독립유공자 6위, 고국 품으로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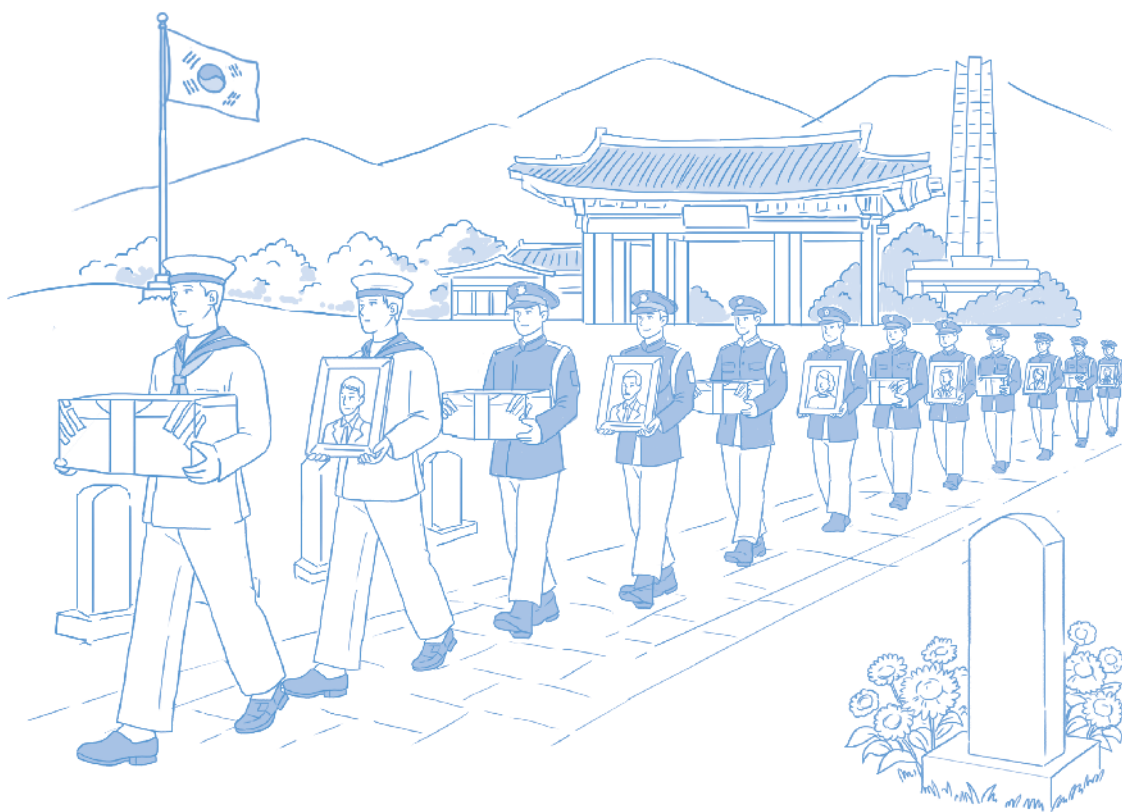
미국, 브라질, 캐나다에 안장되어 계셨던

독립유공자 6위(位)의 유해를 국내로 모셨다.

2025년 8월 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이번 봉환 사업은

현지 추모식부터 유해 영접, 봉환식, 안장식, 유족 위로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독립유공자에 대해 극진한 예우를 다하여 진행되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독립유공자 여섯 분의 유해를

광복 80년의 뜻깊은 해에 고국산천으로 모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

이역만리에 계셨던 독립유공자분들

광복 80년을 맞아 고국으로 돌아오신 6위의 독립유공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었다. 문양목 선생은 미국에서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역임하며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기반 조성에 힘썼고, 김재은·김기주·한응규 지사는 광복군에 입대하여 일본에 대항한 정보수집과 공작활동 등에 참가하였다.

고국으로 모셔오기 위해

이번 유해 봉환은 2023~2024년 미국·브라질 현지 묘소 실태조사와 유족 협의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유해

이장 권리를 가진 직계 유족이 없었던 문양목 지사를 국가보훈부가 고국으로 모셔 오기 위해서는 미국 법원의 결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부득이 국가보훈부가 미국 법원에 봉환을 위한 파묘 및 화장을 청원했다. 여기에 교민 1,000여 명의 탄원 서명과 최홍일 변호사의 무료 변론 등 민·관이 힘을 모은 덕분에 2025년 2월 미국 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미국 법원의 결정을 받은 것은 역대 유해 봉환 중 최초 사례이며, 고국으로 봉환할 미국 3위, 브라질 2위, 캐나다 1위를 확정할 수 있었다.

봉환 대상자가 확정되자 국가보훈부는 6위를 모셔 올 5개 반의 봉환반을 편성하여 미국과 브라질, 캐나다로 파견했다. 봉환반은 현지 추모식·유해 수습·방한 유족 지원 등 전 과정을 수행하며 독립유공자들의 마지막 귀환길을 함께 했다.



봉환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	성명	훈격	기존 안장지	주요 공적
미국	문양목	독립장(95)	캘리포니아 맨티카	대동보국회 결성,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역임, 독립운동 자금 모집·군인 양성운동 전개
미국	임창모	애족장(19)	캘리포니아 LA 잉글우드	3·1운동 참여(징역 6월), 흥사단 가입, 대한인국민회 임원, 독립자금 모집
미국	김재은	애족장(02)	조지아 애틀랜타	일본군 탈출, 광복군 제2지대 입대, OSS 훈련 참가
브라질	김기주	애족장(90)	상파울루 콩고나스	일본군 탈출, 광복군 총사령부 보충대 입대, 중국 중앙군 유격대 공작 활동
브라질	한응규	애족장(90)	파라나 쿠리치바	광복군 제2지대 제3구대 강남분대 입대, 정보수집·초모 공작 활동
캐나다	김덕윤	애국장(90)	브리티시 컬럼비아씨리	비밀결사 열혈회 결성, 일경에 체포(징역 4년 집행유예 5년)



봉환 행사 세부 일정

Time Line	구분	장소	주요 내용
8. 8.~8. 11.	현지 추모식	미국 · 브라질 · 캐나다 현지 공간 등	유족, 교민, 독립운동 단체 회원 등 참석
8. 12.(화) 19:00	유해 영접식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국가보훈부 장관 영접, 경찰 에스코트를 받으며 서울현충원으로 운구
8. 13.(수) 10:00~10:45	유해 봉환식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국무총리, 유족, 국회의원, 주한외교사절(캐나다 · 브라질), 각계 인사 등 참여 ※ KBS 생중계
8. 13.(수) 15:00 / 17:40	유해 안장식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특별묘역	유족, 광복회원, 기념사업회 회원 등 참여
8. 15.(금) 18:30	유족 위로연	더플라자 서울 22층 루비홀	유족에 위로 및 감사 전달



인천공항에서 이루어진 유해 영접식

국민이 함께 예를 다하여, 유해봉환식

8월 13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조국을 향한 발걸음, 끝나지 않은 길’을 주제로 유해 봉환식이 거행되었다. 국무총리와 이종찬 민간위원장,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한 캐나다·브라질 외교사절 등 각계 인사와 유족,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하였으며, KBS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국무총리가 독립유공자 여섯 분의 유해 위에 건국훈장을 헌정하고 봉환사를 낭독하였다. 이어 배우 홍지민이 정지용의 시 〈그대들 돌아오시니〉를 낭독하고, 국악인 이윤아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거국행〉을 공연하는 등 참석자들의 깊은 추모와 공감을 이끌어 냈다.

마지막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모든 참석

자가 독립유공자 6위의 유해를 환송하는 가운데, 국방부 의장대가 영현을 봉송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하였다.

모두가 힘을 합쳐 모신 귀환길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은 국가보훈부가 주관하고, 8개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재외공관은 교민사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모식과 봉환 절차를 지원하였으며, 유족·교민사회·독립운동 단체는 봉환 과정에 동참하여 봉환식이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예우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6위의 유해와 유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하늘길이 편안하도록 도왔다.



유해봉환식에서 건국훈장을 헌정하는 국무총리



유해봉환식에서 일동 묵념하는 모습

한편 국내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관세청, 질병관리청이 인천국제공항에서의 입국·검역·세관 등의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지원하였다. 또 유해가 고국에 도착한 후에는 국방부와 경찰청이 봉송 차량 에스코트, 경호, 영현 봉송 등을 각별한 예우를 다해 수행했다.

155위째 귀환, 계속되어야 할 봉환

8월 13일 오후, 먼 길을 오신 여섯 분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특별묘역에 안장되는 것으로 광복 80년에 거행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은 마무리되었다.

1946년 백범 김구 선생의 주도로 윤봉길·이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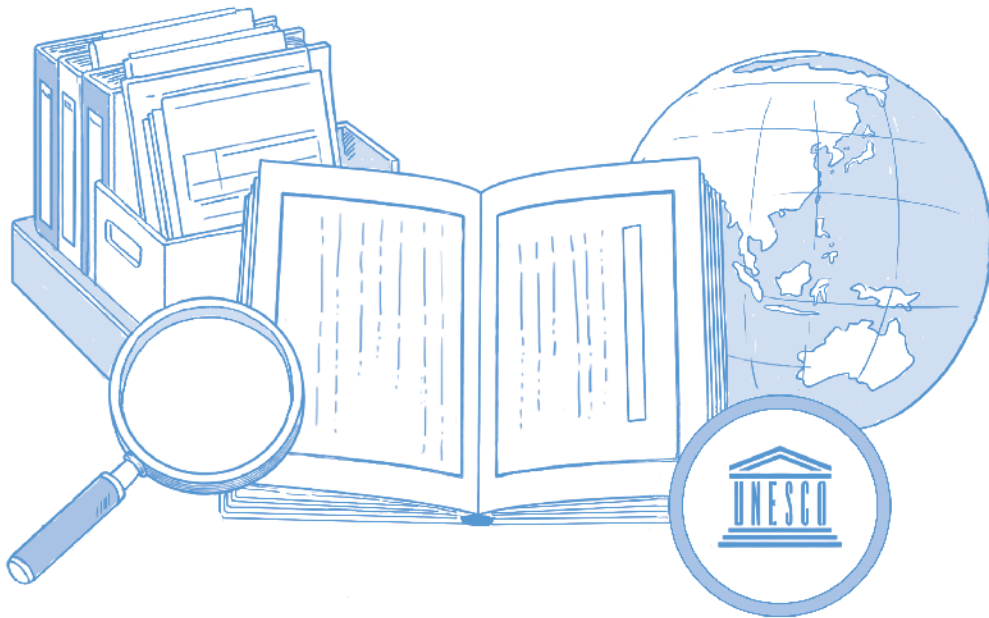
창·백정기 의사의 유해를 봉환한 이래, 이번 6위를 포함해 총 155위가 고국으로 돌아왔다.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이 어디 계시든 이를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광복 80년의 봉환은 전 국민, 그 중에서도 미래 세대에게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아직 이역만리에 계신 독립유공자가 계시기에, 국가보훈부는 이들을 고국으로 모셔오는 일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외에 안장되어 계신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계속하는 한편, 현지 유족과의 협의도 병행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다.

2 보훈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3·1 독립선언서, 세계의 기록으로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인 2025년,
3·1 독립선언서를 비롯한 보훈 관련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 수립 연구에 착수했다.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에 산재한 독립선언서 214건의 소장현황을 파악하고,
등재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및 대응 전략과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고 있다.



3·1운동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초의 비폭력 평화 항쟁으로,
그 기록물은 단지 한국의 역사 자료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간직해야 할 평화의 기록입니다.

- 국가보훈부 -

보훈을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해당 기록물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절차다. 어떤 기록물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니는지 입증해야 하고, 국내외 심사 과정의 장애 요소를 예측해야 하며, 관련 기관들의 공감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1운동은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비폭력 평화 항쟁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와 인류가 함께 간직해야 할 평화의 기록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 사실을 세계에 설득할 논리와 전략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 국가보훈부는 2025년 5월 과제 선정을 시작으로 착수보고회(8월), 중간보고회(12월), 최종보고회(2026년 1월) 끝에 독립선언서 소장 현황 조사와 등재 전략 수립을 순차적으로 완료하였다.

선언서가 닿은 곳을 찾아서

3·1 독립선언서는 1919년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배포되었으나, 어느 기관이 실제 보유하고, 보존 실태가 어떠한지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외 소장 현황을 전수 추적하여 최종적으로 214건의 소장 목록을 완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장 기관과 경위, 해외 전파 경로 등이 정리됨으로써 3·1운동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항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1차 자료 기반이 마련되었다.



3·1 독립선언서(출처: 국가유산청)

학문의 초석에서 외교의 토대로

연구의 성과는 학문적·실무적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다. 학문적으로는 3·1운동 선언서에서 대한 학술 연구의 기반을 형성하였고, 실무적으로는 등재 단계별 추진 및 대응 전략과 후속 사업 로드맵을 수립하여, 유관기관과의 공감대 형성과 등재 신청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번 전략 연구는 기록유산 등재의 출발점이며, 실제 신청까지는 추가적인 기관 간 협력과 국내 및 국제 심사 대응이 뒤따라야 한다. 광복 80년의 해에 시작된 이 연구는 3·1 독립선언서가 대한민국의 기록을 넘어 인류 보편의 평화 기록으로 공인받는 긴 여정의 첫 단계인 셈이다.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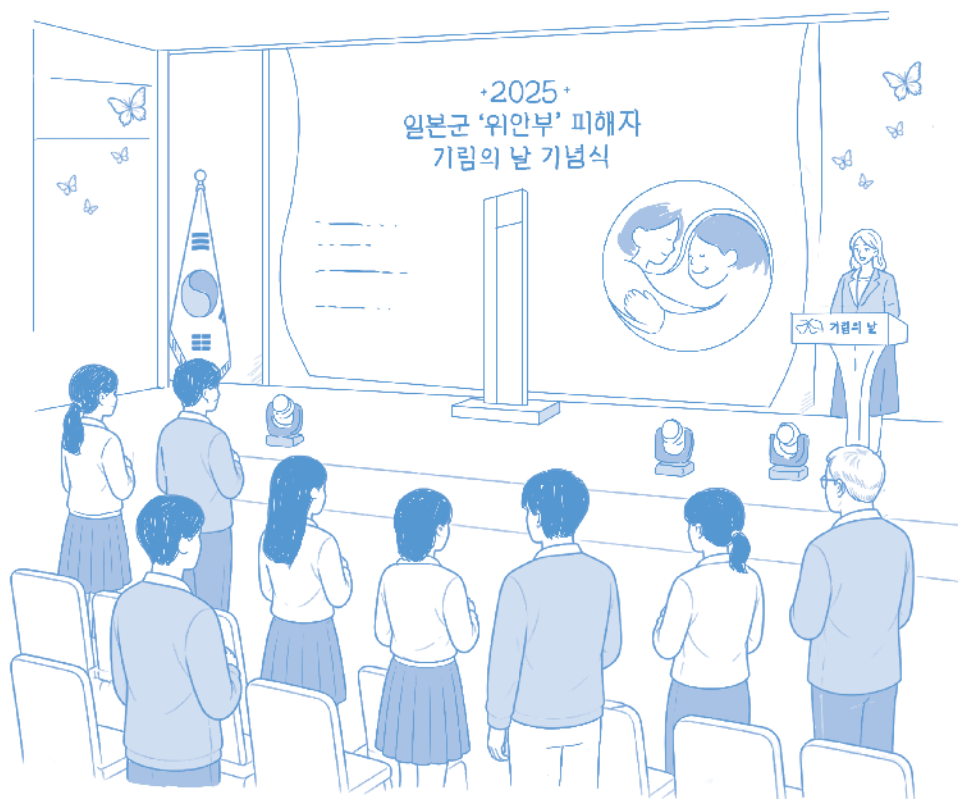
용기와 연대로 되찾은 빛

성평등가족부(당시 여성가족부)는 2025년 8월 14일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기림의 날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하는 날로,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광복 80년을 맞아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함께 성찰하는 자리로 구성되었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분들이 보여주신 용기와 인권의 외침이 오늘의 연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기념식에 참석한 모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공연

기념식을 역사 · 인권 · 교육의 장으로

광복 80년을 맞은 이번 기념식은 추모를 넘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대한민국 광복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고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인권 감수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념식 장소로 안중근의사기념관을 선정한 것도 이러한 취지와 맞닿아 있다. 일제의 침략에 맞선 독립운동의 상징적 공간에서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연결하였다. 또한 정의와

평화를 소망했던 안중근 의사의 정신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자 하였다.

기억과 연대로 이어진 기념식

기념식은 연극 〈다녀왔습니다〉로 시작하여 2인극 기림공연, 주제영상, 대통령 영상메시지, 기념사, 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 합창공연 〈Going Home〉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 청소년 작품 공모전 접수작 및 수상작

접수 작품	총 616점(미술 · 디자인 536점, 영상 · 음악 80점)
시상 내역	총 24점(국무총리상 2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2점, 여성가족부장관상 20점)
국무총리상 수상작	(미술 · 디자인) 노수아(한국방송통신대) 만화 〈진정으로 필요한 것〉 (영상 · 음악) 김현준(배재대) 영상 〈그분들의 기억, 잊히지 않은 증언〉

특히 <202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616점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24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기념식 당일 인증근의 사기념관 기획전시실에 전시되었으며, 이후 지하철 역사 등 오프라인 공간과 청소년 공모전 누리집, 여성가족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유되었다.

기림의 날, 그 기억의 지속성

광복 80년의 해에 열린 여덟 번째 기림의 날은 ‘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는 사업이 추모를 넘어 역사와 인권 교육의 장으로 확장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청소년 공모전과 전시가 함께 이루어지며 미래 세대의 역사 교육에 중요한 토대가 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번 기념식은 특정 세대와 집단을 넘어,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한 계기였다. 인권과 평화, 인간 존엄은 미래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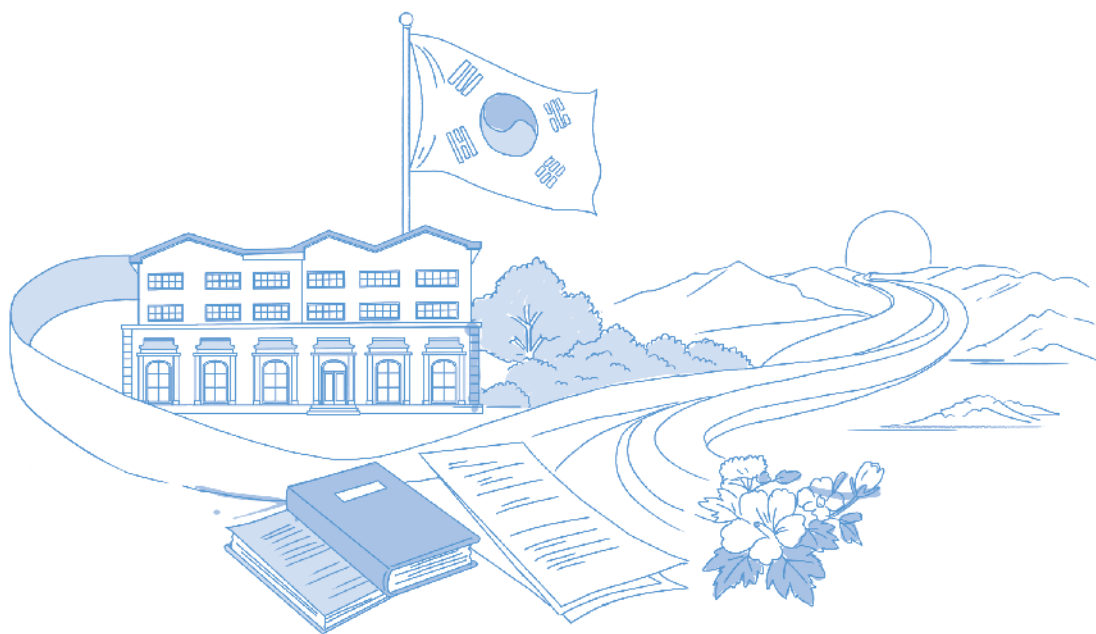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

4 독립 관련 정부 기념식 광복을 향한 여정

국가보훈부는 2025년 광복 80년을 맞아
네 개의 역사적 기점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하는
정부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을 시작으로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까지, 광복을 향한 여정의 각 장면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연결하며, 역사 속 이야기를 오늘의 말로 다시 전했다.



기념식장에 올려 퍼진
‘대한독립만세’라는 함성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참가자 인터뷰 중 —

영상 속 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던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참가자 인터뷰 중 —

독립의 장면을 하나의 이야기로

국가보훈부가 주관한 독립 관련 정부 기념식은 우리 독립운동의 주요 장면을 되새기는 자리였다. 특히 2025년의 기념식들은 광복 80년이라는 맥락 위에서 기획되었다. 임시정부 수립, 6·10 만세운동, 학생독립운동, 순국선열의 날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의 흐름을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하고, 각 기념식의 주제가 다음 기념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기념식 연출 또한 미래 세대가 역사에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힙합 뮤지컬, 그래피티 영상, AI 기술 재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냈다.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대한이 민국을 만나다〉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4월 11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대한이 민국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렸다. 주제에는 1919년,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대한’과 ‘민국’이 만나 국호 ‘대한민국’이 정해진 역사적 의미를 담았다. 기념식은 3·1운동 만세 재현 공연으로 시작하여 임시현장 낭독,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여정을 담은 주제공연, 기념사와 기념공연으로 이어졌다.

● 4개 기념식 개요

기념식	일시	장소	주제	주요 프로그램
제106주년 임시정부 수립	4. 11.(금) 11:00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대한이 민국을 만나다〉	- 여는 공연(3·1운동 재현) -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현장 낭독 - 주제공연 〈임시정부 오디세이〉 등
제99주년 6·10만세운동	6. 10.(화) 10:00	서울 중앙고등학교 일민체육관	〈우리의 대한 모두의 독립 하나 된 만세〉	- 그래피티 아트 활용 주제 영상 - 힙합 뮤지컬 〈재판정의 불꽃〉(비와이 〈만세〉) - 선언서 낭독 - 국악 기념공연, 만세삼창 등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11. 3.(월) 11:00	광주 학생 독립운동기념탑	〈환하게 밝힐 내일을 꿈꾸며〉	- AI 학생독립운동가 재현 여는 영상 - 주제공연 〈빛나는 발걸음을 따라서〉 - 기념공연(가수 켄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11. 17.(월) 15:00	육군사관학교	〈대한민국 빛낼 이 너와 나로다〉	- 여는 공연 〈프로젝트 넵코*〉 *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 등 19인이 참가했던 비밀첩보작전 - 기념공연 〈새벽이 온다〉 - 독립유공자 포상(5명) - 대합창 〈대한이 살았다〉 등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 〈우리의 대한, 모두의 독립, 하나 된 만세〉

6월 10일,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이 서울 중앙고등학교에서 ‘우리의 대한, 모두의 독립, 하나 된 만세’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6·10만세운동은 3·1운동, 학생독립운동과 함께 3대 독립만세운동 중 하나로서, 1926년 6월 10일 순종 장례일에 학생들이 주도했던 독립 만세운동이다. 기념식은 만세운동의 배경을 그래피티 아트 영상으로 재현한 주제영상과, 당시 청년들의 각오를 전하는 힙합 뮤지컬 〈재관정의 불꽃〉으로 색다르게 막을 열었다. 이어서 학생대표 3인과 함께한 선언서 낭독, 기념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 〈환하게 밝힐 내일을 꿈꾸며〉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의 발원지인 광주에 위치한 학생독립운동기념탑에서 독립유공자 유족과 참가 학교 후배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당시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학생, 청년들의 용기 있는 정신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오늘의 학생들이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담아 기획되었다. 광복 80년 주제공연 〈빛나는 발걸음을 따라서〉는 AI 기술로 재현한 주요 학생 독립운동가들(박준채·정남균·전충식·최복순)의 독립운동 모습을 영상으로 선보였으며, 가수 켄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를 노래하며 오늘의 청년세대와 선열들의 정신을 잇는 특별공연으로 무대를 장식했다.



제106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임시정부 오디세이〉 공연



제99주년 6·10만세운동 기념식(6·10만세의 노래 제창)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한민국이 빛낼 이, 너와 나로다〉

11월 17일,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대한민국이 빛낼 이, 너와 나로다〉가 정부기념식 최초로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주제 ‘대한민국이 빛낼 이 너와 나로다’는 광복군 군가인 〈독립군가〉의 가사를 인용한 것으로, 광복 80년 주제어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의 의미를 계승했다. 여는 공연인 〈프로젝트 냅코〉로 선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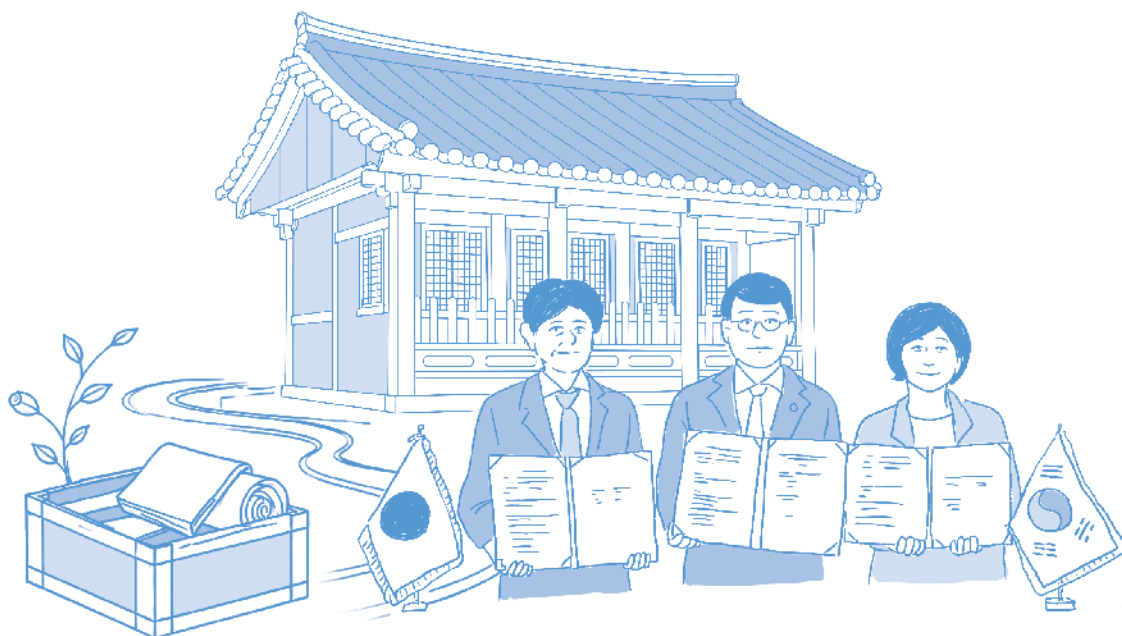
의 독립의지를 전달하였고, 기념공연 〈새벽이 온다〉와 대합창 〈대한이 살았다〉가 이어졌다. 이어서 95명의 독립유공자 포상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5명의 유족에게 직접 포상이 전달되었다. 또한 기념식에는 광복군의 정신을 이어 조국을 지켜나갈 사관학교 생도들도 함께하여 그 의미를 더하였다.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국무총리 기념사)

5 일본 소재 한국 문화유산 환수·복원 관월당이 돌아온 이야기

국가유산청은 일본 가마쿠라 고덕원(高德院)이
소유·관리하던 조선 후기 목조건축물인
관월당(觀月堂)의 해체 부재를 2025년 5월 국내로 반입하고,
6월 23일 <관월당의 기증과 보존·활용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여
관월당을 공식 반환받았다. 이번 귀환은 온전한 건축문화유산
한 동 전체가 국내로 돌아온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약 100년간의 타향살이를 마친 관월당은
향후 조사·연구와 복원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관월당의 귀환은 오랜 기간에 걸친 협의와 한·일 양국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뜻깊은 성과입니다. 이는 문화유산을 매개로
상호 존중과 공감의 가치를 실현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 최웅천 국가유산청장 —



한 · 일 문화유산 협력 심포지엄 개최

16년간의 귀환 여정

국가유산청은 관월당 반환에 있어 반출의 불법성에 근거한 사법적 환수나 긴급매입 방식이 아닌, 일본 소장자와의 협의를 통한 자발적 반환을 추진하였다. 2009년 한 · 일 불교교류협의회를 계기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10년에는 관월당 반환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부 협의 과정에서 일본 내 반대 여론이 형성되며 2011년 협의가 중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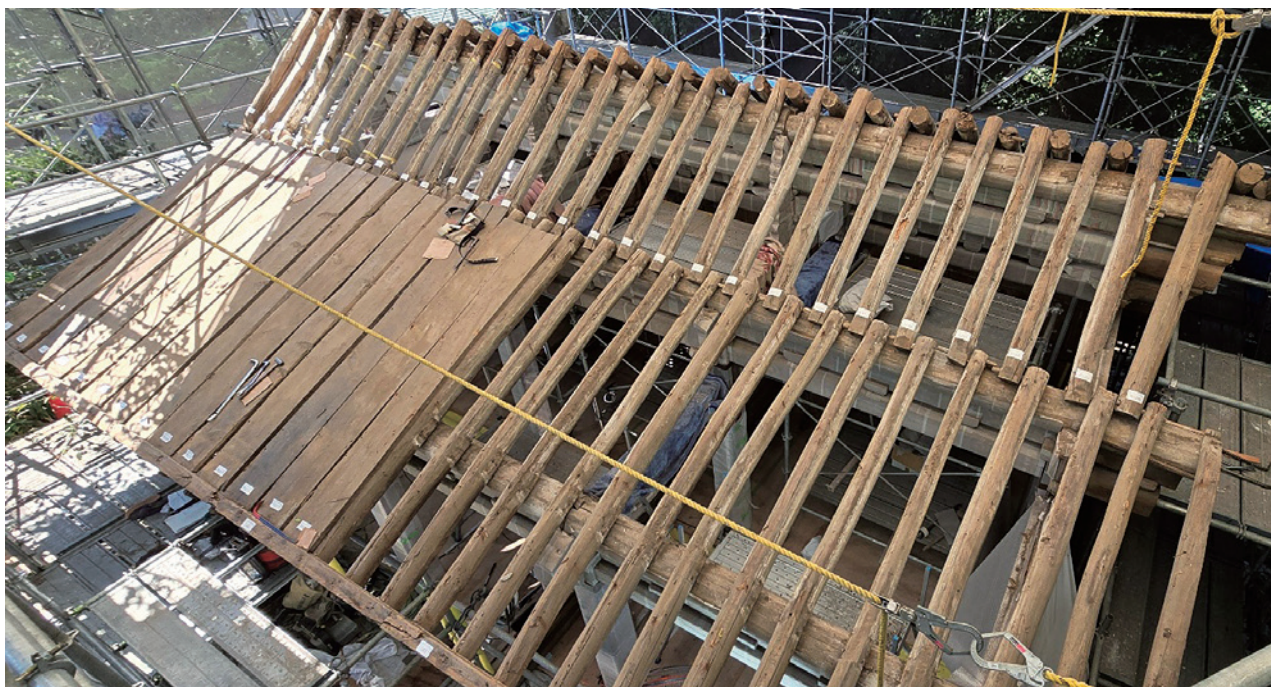
국가유산청(당시 문화재청)은 이 경험을 통하여 소장자와의 직접 협업을 통한 상호간 신뢰 구축과 양국 간 문화유산 협력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2019년 고덕원 주지 사토 다카오가 반환 협상 재개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상이 재개되었다. 이

후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고덕원이 약 6년간 한 · 일 공동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관월당의 단청 기록화, 보존처리, 정밀실측 등을 단계적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다.

국내로 돌아온 관월당의 의미

관월당의 귀환은 건축문화유산 반환의 새로운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1995년 경복궁 자선당 유구는 기단과 초석만 반환되었고, 2012년 매입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은 미국 워싱턴 D.C. 현지에서 활용 중이다. 이 두 사례와 달리 관월당은 기와부터 목재 부재까지 포함한 건물



관월당을 해체한 모습

한 동 전체가 국내에 반입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다. 조선 후기(18~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왕실사당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10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2025년 6월 24일 언론공개회 및 7월 23일 해체 부재 보관 현황 공개가 이루어지며 관월당의 귀환은 MBC, 연합뉴스TV, SBS, JTBC 등 국내외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관월당 반환사례는 BTN(불교방송) 특집 다큐멘터리 <돌아온 관월당, 100년의 문을 열다>로 광복절인 8월 15일 방영되며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다. 광복 80년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진 이번 귀환은, 단순한 문화유산 반환을 넘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복원과 활용, 새로운 여정의 시작

관월당 부재는 현재 파주 소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 보관되어 체계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025~2026년 부재 정밀 조사 후 설계를 거쳐 2029년 복원을 완료하고, 이후 다큐멘터리 제작·홍보 등 다양한 활용사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약 100년 만에 돌아온 관월당이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고 국민과 만나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추진 경과(2009~2026)

시기	주요 내용
1997년	• 목원대 김정동 교수, 저서 〈일본을 걷는다〉를 통해 고덕원 소재 관월당 국내 최초 소개
2009년~2010년	• 한·일 불교교류협의회를 통한 반환 논의 시작 → 원칙적 합의 • 세부 협의 중 언론 기사화로 일본 내 반대 여론 형성
2011년	• 고덕원, 소통 및 협의 일체 거부로 1차 시도 중단 • 국가유산청, 고덕원과의 직접 '협업'을 통한 상호 신뢰구축 전략으로 방향 전환
2016년	• 공동 조사·연구 제안(무응답)
2019년	• 고덕원 주지 사토 다카오, 반환협상 재개 의사 표명 → 협상 라인 공식화
2019년~2023년	• 한·일 공동 협업 프로젝트: 관월당 연구·조사, 단청 기록화 및 보존처리, 정밀실측 등 순차 진행
2024년	• 관월당 해체·보양·운송 실시(6~8월), 관월당 석재·기와 국내 반입(12월) • 일본 내 이동·해상 운송 비용 일체 고덕원 부담
2025년 3월	• 한·일 문화유산 협력 국제심포지엄 개최(서울대학교)
2025년 5월	• 관월당 목재 국내 반입(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 보관)
2025. 6. 23.	• 〈관월당의 기증과 보존·활용에 관한 약정서〉 체결(장소: 국립고궁박물관) • 체결 주체: 국가유산청·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고덕원
2025. 6. 24.	• 언론공개회 개최(연합뉴스·MBC 뉴스데스크·SBS·JTBC 등 주요 언론 보도)
2025. 7. 23.	• 언론 대상 해체 부재 보관 현황 공개(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2025. 8. 15.	• BTN 특집 다큐멘터리 〈돌아온 관월당, 100년의 문을 열다〉 방영
2025. 12. 23.~ 2026. 1. 26.	• 광복 80년 특별전 〈돌아온 관월당: 시간을 걷다〉(경복궁 계조당) • 개막식에서 사토 다카오 주지에게 대통령 표창 수여(포상금 전액 국외재단 기부)
2026. 3. 15.	• KBS 역사스페셜 〈시간여행자〉 방영을 통하여, 관월당의 100년간의 여정 추적
2026. 5. 18.	• 〈한·일 문화유산 학술교류를 위한 고덕원 기금(1억엔)〉 기부 협약 체결 - 체결 주체: 국가유산청·고덕원·한국전통문화대학교·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 기부자: 고덕원

● 단계별 복원·활용 계획

연도	단계	주요 내용
2024	해체·운송	관월당 해체, 보양, 운송 및 기초조사
2025	조사·연구	부재 정밀 조사, 국제심포지엄 등
2026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HBIM 구축 등
2027	계획	디지털 복원 기본계획, 국제심포지엄 등
2028	복원·활용	1차 복원공사, 디지털 복원 등
2029	복원·관리	2차 복원공사, 아카이브 구축, 국제심포지엄 등
2030	운영·확장	아카이브 고도화, 단행본 간행 등

광복 80년 특별전

〈돌아온 관월당: 시간을 걷다〉

2025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6일까지 경복궁 계조당에서 광복 80년 기념 특별전 〈돌아온 관월당: 시간을 걷다〉를 개최하였다. 전시에서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해체되었던 관월당의 주요 부재와 귀환 과정을 담은 기록을 함께 공개하여, 관월당의 여정을 따라가며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건물의 중심 들보인 종량, 지붕 구조를 받

치는 대공, 지붕 양쪽 끝면을 이루는 박공, 장식적 요소를 더하는 초엽, 그리고 용문·박쥐문 등 다양한 문양이 새겨진 암막새 기와 등 관월당을 구성하는 대표 부재들을 전시하여 각 부재의 기능과 상징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무료관람으로 운영하여 경복궁을 찾는 일반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 개막식이 열린 12월 23일에는 고덕원 주지 사토 다카오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 표창이 전달되었으며, 사토 다카오는 포상금 전액을 국의 소재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하였다.



3D 스캔한 관월당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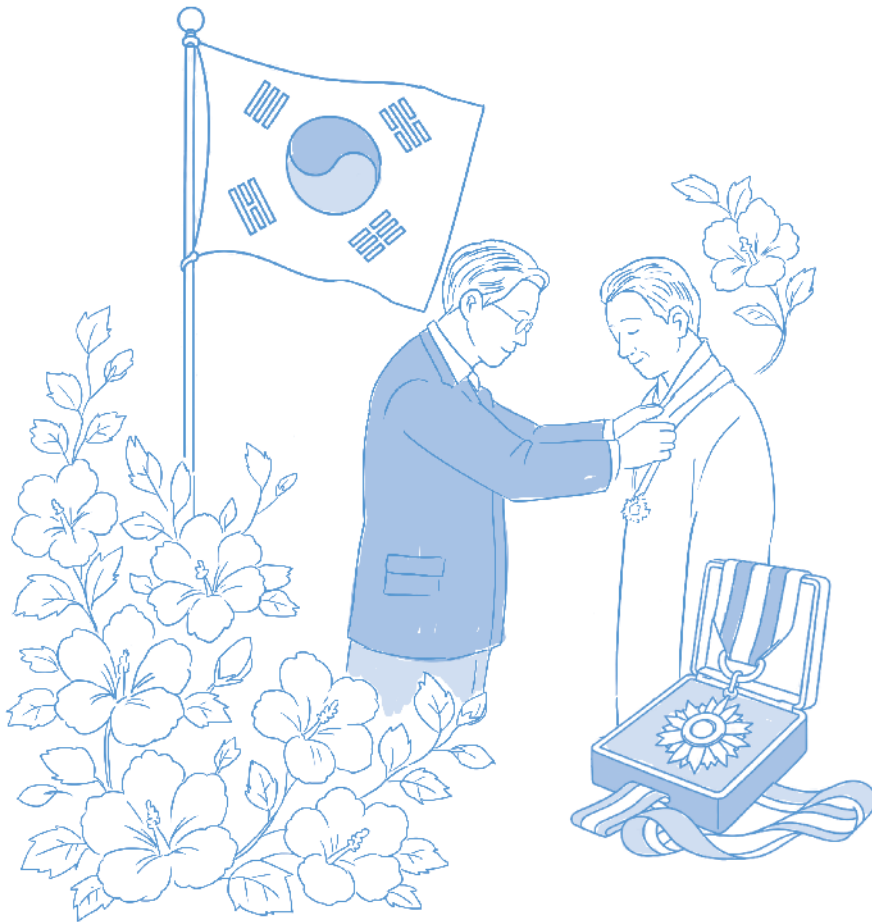


고덕원 주지 사토 다카오에 대통령 표창 수훈

6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및 발굴 포상

502명의 이름을 역사에 새기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미포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한 해 동안
3·1절, 광복절, 순국선열의 날의 계기 포상을 통해
총 502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했다.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유공자들을 찾아내
모두가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 경축사 -

다시 찾는 헌신, 광복 80년에 빛나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그간 독립유공자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간접 지원활동에 대한 포상 기준을 개선하였다. 핵심 내용은 재정기여자에 대해 지원 규모, 횟수, 기간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외국인 독립운동 지원자에 대해 군사 지원, 교육 및 국제 여론 조성 등 활동에 대한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광복절 포상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하였다.

또한 국가보훈부는 2018년 심사기준 개선 이전에 기준 미달로 포상받지 못한 인원과 이전 포상 사례가 있는 독립운동 사건 참여자 중 미포상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국내외 판결문과 수형 기록 등 자료 발굴과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18년 이전 기준 미달 포상자 1,139명 중 651명을 심사 대상으로 발굴하였다. 또한 독립운동 184개 사건 참여자 중 미포상자 1,835명을 조사해 535명의 심사 대상자를 추가로 발굴했다.

국가와 사회가 명예를 전하며

포상은 3·1절(3. 1.), 광복절(8. 15.), 순국선열의 날(11. 17.)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각 계기 포상과 연계하여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행사를 통해 총 155명의 국내외 유족에게 명예와 감사가 담긴 훈장이 전달되었다. 여기에는 대통령,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장, 해외의 재외공관장들도 동참하여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들의 공로를 국가의 이름으로 기렸다.

아울러 방송사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광복 80년 계기 포상의 의미를 더했다. 광복절 계기 포상자인 김술근 지사(애족장)의 독립운동 활동을 조명한 SBS 특별 프로그램 〈프로젝트 K-독립투사 발굴기〉가 8월 15일 방영되었으며, KBS 생방송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도 광복 80년 계기 포상의 의미를 담아 제작, 방영되었다.



광복 80년 계기 정부포상의 의미를 전달한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방송 모습(KBS 생방송)



찾아가는 독립유공자 포상제도 설명회 개최 모습

현장에서 찾는 독립유공자의 발자취

2025년 3월 14일, 국가보훈부는 경남동부보훈지청에서 경상남도 및 소속 기초 지자체 담당자, 문화원 관계자 4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립유공자 포상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현장에서 제도 안내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한 최초의 시도였다.

또한 계기별 집중 발굴을 위해 2027년 창립 100주년을 맞는 신간회와 중부 지방 의병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 발굴과 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다. 향후 20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 2030년 광복군 창설 90주년, 2031년 만주사변 발발 100주년 등 주요 계기별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름과 명예를 이어 나갑니다

광복 80년에 새롭게 발굴되어 포상받은 502명이라는 숫자는 판결문, 수형 기록, 학적부, 해외 언론 자료 등 수많은 사료를 발굴하고 확인한 끝에 찾아낸 이름과 그에 합당한 명예를 이은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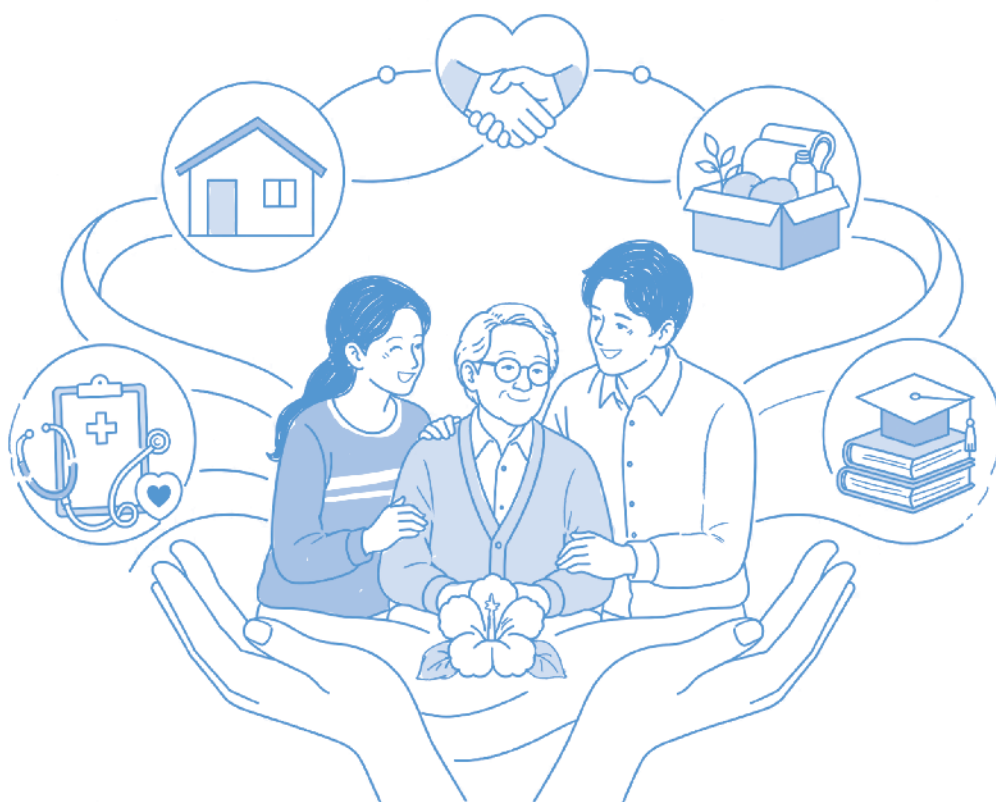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의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현장에서 각계각층과 함께 소통하는 한편,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숨은 명예를 찾기 위한 연구용역에 이르기까지 한 단계 진화된 예우·발굴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서 이번 광복 80년에 있었던 성과의 한편에는 앞으로도 이름을 찾아 명예를 전달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남았다.

●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

포상 계기	포상 인원	포상 일자	주요 포상 내역
합계	502명		1949년 최초 포상 시작, 현재까지 총 포상인원 18,258명 • 건국훈장 11,818명 • 건국포장 1,540명 • 대통령 표창 4,900명
3·1절	96명	2025. 3. 1.	• 건국훈장 40명(애국장 9·애족장 31) • 건국포장 9명 • 대통령 표창 47명
광복절	311명	2025. 8. 15.	개선된 심사기준 최초 적용, 대상 19명 • 재정기여자 18명, 외국인 1명
순국선열의 날	95명	2025. 11. 17.	• 건국훈장 31명(애국장 6·애족장 25) • 건국포장 6명 • 대통령 표창 58명

7 모두의 보훈 기반 민·관 협력 활성화 민·관이 함께 지킨 독립의 후손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민·관 협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 지원으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국가보훈부 —

민·관이 마음을 모아

2025년에는 주거, 생활,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다.

대표적으로 주거 지원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독립유공자 후손 12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수행하였다.

생활 지원 분야에서는 유한재단(생활비), 은행연합회(여름나기 물품), 우리금융지주(생계비), 한국경제인협회·KB금융그룹(소상공인 가게 리모델링), GS리테일(호우 피해 지원), 삼성전자(태블릿 지원) 등이 참여하여 1,000명 이상의 후손

을 지원하였다. 의료 지원 분야에서는 대한암협회에서 독립유공자 유가족 50명의 암 치료비를 지원하였다.

8월 6일에는 우리금융그룹과 업무협약식이, 8월 7일에는 대한암협회 암 치료 지원금 전달식이 개최되었다. 8월 13일에는 KB금융그룹이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명예를 품은 가게〉 리모델링 사업의 현판식을 진행하였다.

● 분야별 지원사업 현황

대상	분야	후원기관	사업 내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환경개선
	생활 지원	유한재단	생활비 지원
		은행연합회	여름나기 물품 지원
		우리금융지주	생계비 지원
		한국경제인협회 KB금융그룹	소상공인 가게 리모델링
		GS리테일	호우 피해 지원
		삼성전자	태블릿 지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립유공자 유가족	의료 지원	대한암협회	암 치료비 지원

보훈의 새로운 지평

2025년 <모두의 보훈 기반 민·관 협력 활성화> 사업은 국가보훈부를 중심으로 기업, 공익재단,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 사업을 통해 민간 기업들은 광복 80년의 의미를 각자의 방식으로 사업에 담아냈으며, 이는 국가보훈의 영역과 활동이 정부를 넘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80년 만에 되살린 합성, 빙그레 <처음 듣는 광복> 캠페인

빙그레는 2019년부터 매년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캠페인을 이어온 기업이다.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식>, <처음 입는 광복>에 이어, 광복 80년에는 국가보훈부와 함께 <처음 듣는 광복>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1945년 8월 15일의 만세 함성이 사진·문헌 기록으로는 남아 있으나 소리로 보 존되지 못했다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되었다. 소리 복원을 위해 독립운동가 후손의 증언, 역사학자의 자문, 참고문헌 등을 기반으로 역사 고증을 수행하고, 이를 AI 기술로 재현하였다.

캠페인 영상(30초)은 국가보훈부·빙그레 유튜브 채널 및 TV 광고를 통해 송출되었으며, 캠페인 전 과정과 주요 인터뷰가 담긴 다큐멘터리 영상은 전국 15개 CGV 극장에서 8월 8일부터 15일 까지 상영되었다. 티켓 예매금액 1,000원 중 815원은 대한적십자사의 독립운동가 후손 돕기 캠페인 사업에 기부되었으며, 다큐멘터리 영상의 상영 시간은 광복절의 상징성을 담아 8분 15초(8·15)로 제작되었다. 8월 14일~15일에는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무료 상영 행사가 열렸다. 해당 영상은 유튜브 공개 열흘 만에 조회 수 600만 회를 넘어섰으며, 이후 대한민국 광고 대상 5관왕을 달성하였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는 복원된 광복의 함성이 서라운드 사운드로 상영되었으며, AI로 구현된 광복의 소리는 백범김구기념관에 기증되어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빙그레 <처음 듣는 광복> 캠페인(출처: 빙그레 공식 홈페이지)





노루페인트 <광복 80년 컬러 캠페인>(출처: 노루페인트 공식 블로그)

광복의 의미를 색으로 표현한, 노루페인트 <광복 80년 컬러 캠페인>

1945년 창립된 노루페인트는 광복 80년을 맞아 국가보훈부와 함께 광복의 의미를 ‘색’으로 재해석한 <색다를 거야, 여든 살 광복(KR0815)> 컬러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캠페인의 시작은 국민 설문이었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이 설문은 AI 언어모델을 활용하여 광복 관련 15개 키워드를 도출하고, 각 키워드에 어울리는 색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은 2030 세대를 대상으로 2025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700명이 참여하였다.

설문 결과, 태극기의 네 가지 색인 하양(민족·평화), 빨강(독립·희생), 파랑(주권·미래), 검정(보훈)이 광복의 기본색으로 선정되었으며, 네 가

지 색의 스펙트럼 중간값에 해당하는 자주색을 ‘통합·화합·균형’의 상징으로 ‘광복 80 자주 KR0815’ 대표색을 개발하였다. 노루페인트는 다섯 가지 색을 자사 기술력으로 조색하여 페인트로 개발하고, 역사적 의미와 색채학적 정보, 색상 견본과 연상 이미지를 담은 <광복 80년 스탠다드 컬러북>을 발간하였다.

8월 11일, 서울지방보훈청 4층 박정모홀에서 <광복 80년 기념 컬러 발표 및 표준화 추진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기본색 4가지 및 대표색 발표와 색채 개발 과정 보고, 캠페인 영상 상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후 독립기념관 태극기 광장에 다섯 가지 광복 컬러를 적용한 대형 태극기 조형물 포토존이 설치되었으며, 독립기념관을 시작으로 대구·광주·제주를 순회한 광복 80년 특별전 <태극기, 바람 속의 약속>에도 노루페인트의 친환경 페인트가 전시 공간에 적용되었다.

도시락 위의 광복 80년, GS25 <광복 도시락 캠페인>

GS25는 2018년 <독립운동가 100인 알리기>를 시작으로 약 8년간 역사·애국정신 고취 캠페인을 이어온 기업이다. 2025년에는 국가보훈부, KB국민카드와 함께 광복 80년 기념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3·1절,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6·10 만세운동을 주제로 한 캠페인에 이어, 8월 6일 <광복 80년 도시락>을 출시하였다.

7첩 반상으로 구성된 도시락 패키지에는 태극 문양에서 착안한 청색·적색 두 가지 디자인이 적용되었으며, 전면에는 윤봉길 의사의 문구를 김구·한용운·윤동주·윤봉길 네 독립운동가의 필체를 각각 살린 '독립 서체'로 새겨 의미를 더했다. 또한 '대한', '독립', '만세', '태극기'로 디자인된 키보드 키캡 4종이 증정품으로 함께 제공되었다. 캠페인 수익금 일부는 광복회를 통해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에, 815만 원은 한국해비타트가 주관하는 <815런>에 기부금으로 전달되었다.



GS25 <광복 도시락 캠페인>(출처: 헤럴드 경제 뉴스, GS리테일 제공)

학생 디자인으로 완성한 건곤감리, 대선주조 <광복 80년 기념 에디션>

부산의 향토기업 대선주조는 2019년부터 매년 제품 상표를 활용해 국가보훈정책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이어왔다. 2025년에는 광복 80년을 맞아 부산지방보훈청과 손잡고 주력 제품 '대선 159'의 광복 80년 기념 에디션을 선보였다.

이번 에디션의 상표 디자인에는 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이 보훈 홍보 서포터즈로 직접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태극기의 4괘(건곤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기존 디자인에 접목하였다. '대선'의 '대(大)' 글자를 태극기의 감(坎)괘를 상징하는 디자인 요소로 활용한 것이 주요 창작 아이디어였다. 완성된 상표에는 '광복 80년, 보훈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문구와 태극 문양이 함께 담겼으며, 제품은 8월 까지 부산 주요 상권에서 한정 유통되었다.



대선주조 <광복 80년 기념 에디션>(출처: 대선주조 공식 인스타그램)

광복 80년, 보훈의 가치를 다시 묻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새 정부의 보훈 정책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금년은 광복 8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일제(日帝)로부터 조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의 정신이 새롭게 다가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70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새 정부의 보훈 정책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살아있는 역사, 지켜야 할 보배들

현재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인 독립유공자는 다섯 분에 불과하며, 그중 두 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보살핌을 받고 계신다. 이렇게 소중한 역사 중 한 분인 오성규(101세) 애국지사께서 수원 소재 보훈원에 계신다. 그는 일제 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중국 만주 봉천 소재 동광중학을 중심으로 비밀조직망을 만들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이석규(100세) 애국지사 역시 일제강점기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독서회를 조직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진행했고 연합군 상륙에 맞춰 봉기를 계획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윤 중 진



이처럼 우리 곁에는 아직도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있으며, 이분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현재 보훈공단은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1600여 병상 운영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보훈요양원은 최신 요양시설과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갖추고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품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공단에서는 중앙(서울)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특별시·광역시에 6개의 보훈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보훈 패러다임

보훈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절실히 느끼는 점은, 보훈 의료 시스템이 국가유공자와 보

훈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동시에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의 책임 있는 역할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보훈공단은 광복 80년 역사 속에서 국난과 어려움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분들, 특히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특성에 맞춘 의료·요양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부상과 질환, 그리고 PTSD 등 정신적 상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구축한 급성기-요양-재활의 통합형 의료 시스템은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앞서 개척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더 나아가 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전염병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이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보훈병원들은 격리병상 운영과 백신 접종 센터 역할을 맡으며 국민 건강의 최전방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 그 가치를 입증했다. 그리고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이다.

보훈공단의 비전인 ‘보훈가족 ·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 복지서비스 전문기관’이 보여주듯, 우리는 국가유공자 · 보훈가족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도 응급의료와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보훈의료의 현황과 과제

현재 보훈공단이 직면한 주요 과제는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진 수급 문제다.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진 공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현장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훈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묵묵히 근무하는 의료진들이 많으며, 이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진료비 정산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한편,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훈, 국가의 약속이자 미래의 희망

국가 보훈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유공자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적 · 경제적 보상이 첫 번째, 둘째는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셋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선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이다. 국가 유공자들이 고령화되면서 그분들이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료복지 서비스야말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분들이 제대로 된 품질 높은 의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은 나라의 국격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오성규 애국지사가 일본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한국으로 와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전주보훈요양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이석규 애국지사의 모습을 볼 때, 보훈의 참된 의미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가 조금 더 지원하고 우리가 더 열심히 보훈가족에게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보훈공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도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3.

광복의 유산을 미래로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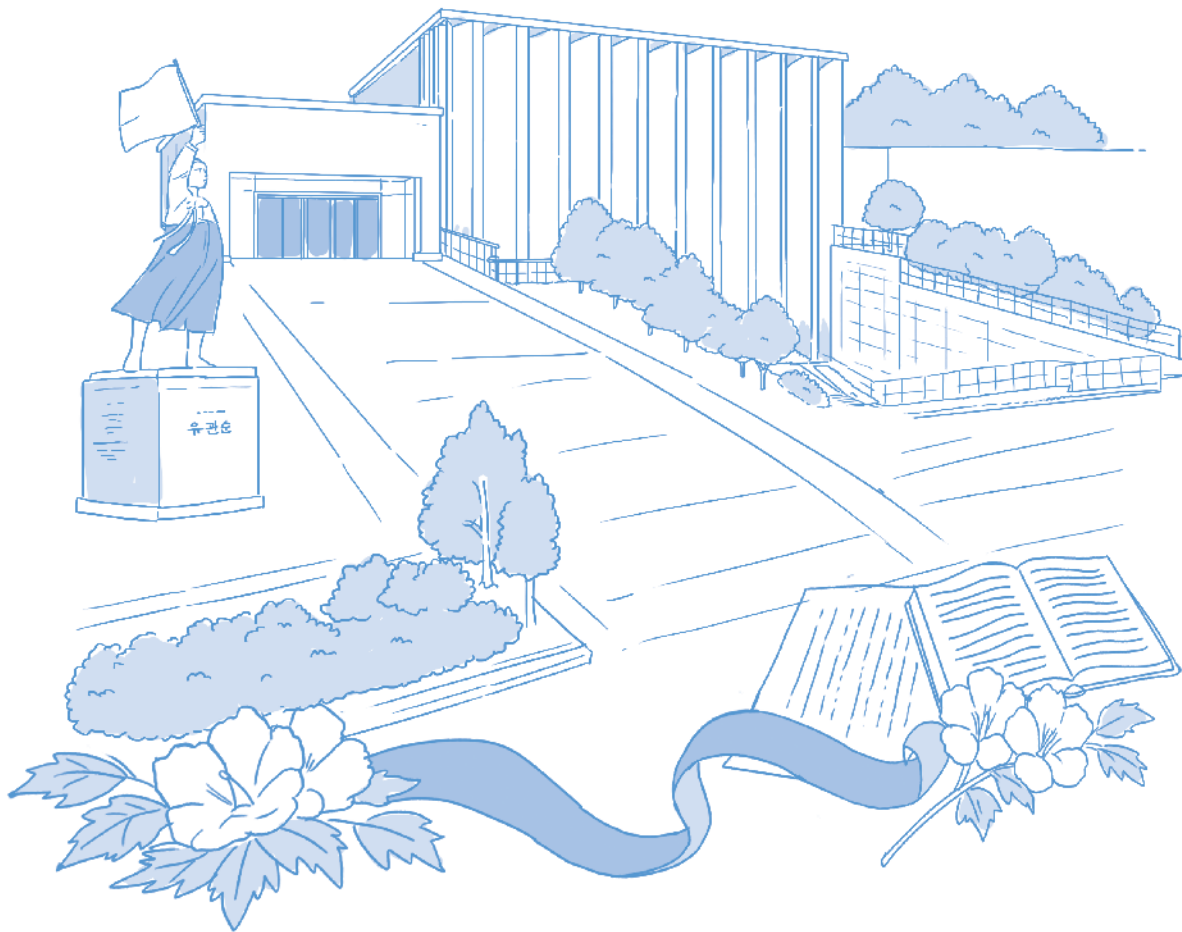
광복 80년이라는 뜻깊은 시점을 맞아 선열들이 남긴 숭고한 정신과 자취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기념사업들로 구성하였다. 기념 공간의 조성 and 디지털 전시, 감사의 메시지와 기념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하였으며, 광복의 정신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미래 세대의 마음 속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 가칭 독립의 전당 건립

다음 세대로 잇는 기억과 추모

국가보훈부는 서대문 독립공원 내
노후·협소한 현 독립관을 대체하는
〈가칭 독립의 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설계를 시작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7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선보일 예정이다.



기억과 추모를 담은 공간을 향하여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어 탄압과 고초를 겪은 역사가 있었다. 서대문형무소 인근 독립관에는 그 숭고한 헌신을 기리고자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 수십년이 흐르면서 독립관은 현재의 문화와 소통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하고, 시설도 노후화되어 독립운동가들의 얼과 혼을 제대로 예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대로 된 예우와 보훈문화 확산을 위하여, 이제 현대적인 위패봉안실 및 미래 세대 체험공간을 갖춘 <가칭 독립의 전당> 건립이 과제로 부각되었다.

독립의 헌신, 다음 세대로 전할 가치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가칭 독립의 전당>은 기존 위패 봉안 기능을 계승하는 한편, 미래 세대와의 소통과 체험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이 기억과 추모, 그리고 소통과 교육이 어우러져,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숭고한 희생과 가치를 미래 세대가 오래도록 기억하고 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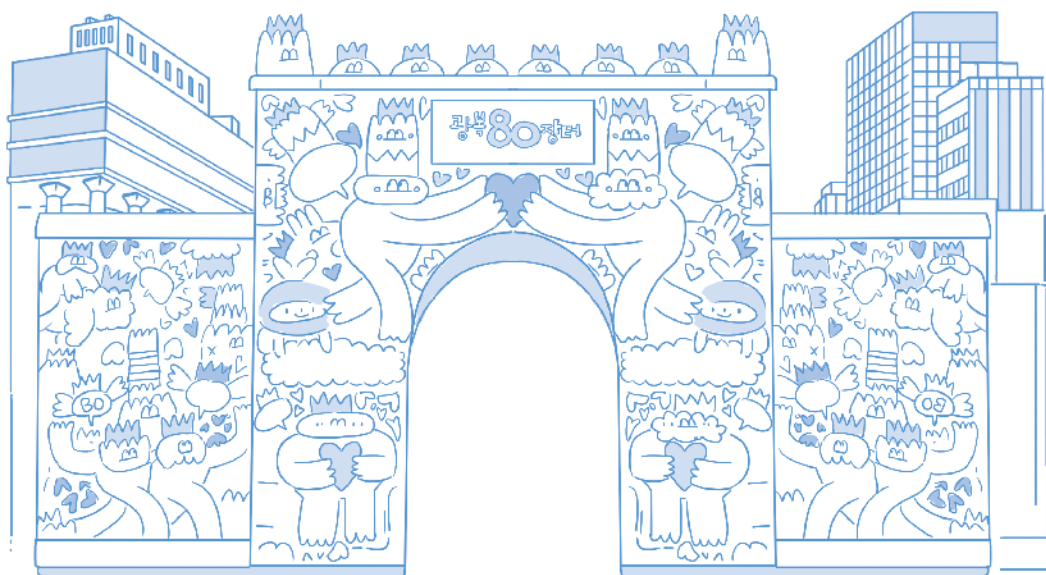


가칭 독립의전당 조감도

2 독립운동가 감사캠페인 <꺼지지 않는 빛>

감사가 문화가 되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적 감사와 존경을 확산하기 위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연중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TV 특별 프로그램, 국민 참여 행사, 라디오 캠페인,
음원 제작, 전국 불업 행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독립운동의 가치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일상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25년은 길고 어두웠던 일제강점기를 지나,
온 국민이 광복이라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 지
80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 강정에 국가보훈부 장관 -

이달의 독립운동, 12개의 이름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기존 인물 중심의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선정하는 대신 사건을 중심으로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했다. 국가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추천을 받은 결과, 총 12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후 선정위원회를 통해 매월 1건씩 총 12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각 독립운동을 소재로 펜 일러스트와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누구나 친숙하게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살아있는 역사가 전하는 이야기

광복 80년 감사 캠페인의 중심인 TV 특별 프로그램 <광복, 마지막 증언>은 생존 애국지사 5인의 생애와 공적을 담았다. 8월 5일 밤 10시에 방영된 1부, <다시 태어나도 광복군>에서는 오성규 지사와 김영관 지사가 광복군에 입대하기까지의 여정과 미국 OSS와의 합동작전, 부부 독립유공자 김학규·오광심의 아들을 통해 전해지는 광복군 활동을 담았다.

8월 16일 밤 8시에 방영된 2부, <이름 없는 청춘 학생독립운동가>에서는 태평양 전쟁기 전단 살포, 학병·징병 반대 등 학생 비밀결사의 투쟁 등을 조명하여 이름 없이 싸웠던 청춘들의 이야기를 오늘의 청춘에게 전달했다.

당일 본 방송은 예능 프로그램의 평균 시청률의 2배를 상회했으며, 지상파 방송 상위 20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애국지사 분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또다시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새겨봅시다’와 같은 시청자 댓글과 함께 반향을 이끌었다.



광화문 <광복80장터> 야간개장 모습



<광복80장터>에 함께한 사람들

● 2025년 이달의 독립운동 목록

월	독립운동	선정 이유
1월	국채보상운동	1907년 일본에 의해 반강제로 진 1,300만 원의 국채를 온 국민이 갚고자 전개한 국권회복운동. 경제적 자립을 위한 민족적 단합의 상징
2월	신간회 창립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조국 독립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 당시 최대 규모 민족운동단체(회원 약 4만 명)
3월	3·1운동	일제 식민 지배에 저항한 전 민족적 만세운동.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원동력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4월 11일 수립. 1945년 광복까지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기능
5월	근우회 창립	1927년 5월 창립된 전국적 여성운동조직. '여성의 공고한 단결과 지위 향상'을 강령으로 식민 지배 해방 운동 전개
6월	6·10만세운동	1926년 학생 중심의 민족독립운동. 이후 신간회와 광주학생항일운동의 발판
7월	광복회 조직	1915년 7월 대구에서 결성된 항일독립운동단체. 독립군 양성, 군자금 모금, 친일 세력 처단 등 무장 독립운동 전개
8월	일장기 말소 사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손기정 선수 기사에서 일장기를 삭제한 사건. 일제 식민 통치에 대한 저항의 상징
9월	한국광복군 창설	1940년 9월 충칭에서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 대일 선전포고 발표
10월	한글날 제정	일제의 감시·탄압 속에서도 한글을 지키기 위한 학자들의 노력. 1926년 '가가날'로 시작, 1928년 '한글날'로 개칭
11월	광주학생독립운동	1929년 11월 3일 광주 학생 주도의 전국적 만세운동.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이자 일제강점기 최후의 전국적 항일운동
12월	13도 창의군 결성	1907년 12월 경기도 양주에서 조직된 최대 규모 연합 의병부대(1만 명). 서울진공작전 전개



심산 김창숙 선생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헌정공연 현장

일상에서 만나는 광복

2025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광복80장터>가 개최되었다. <광복80장터>는 1월 이달의 독립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을 소재로 기부바자회 형식으로 기획되었으며, 대규모 만세운동이 벌어진 전국 장터를 본뜬 매장과 체험관으로 구성되었다. 국민봉사단 80명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 스포츠 스타를 포함한 33명의 인플루언서가 함께한 이 행사에는 약 10만 명이 방문하였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펼쳐진 국민참여 행사를 통해 감사는 무거운 의식이 아니라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일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었다.

광복을 향한 감사는 음악으로도 이어졌다. 광복 80년 기념 음원 프로젝트 <꺼지지 않는 빛(Keep

The Light)>은 7월부터 9월까지 11회에 걸쳐 제작과정이 공개되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로 빌보드 핫100 1위에 오른 <골든(Golden)>의 작곡가 이재(EJAE)가 작곡에 참여하였으며, 공개된 11개의 영상은 누적 조회수 300만 회를 기록하며 광복의 정신을 널리 퍼뜨렸다.

한편, YTN 라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이달의 독립운동> 에피소드를 라디오 콘텐츠로 제작·송출하며, 하루 3~4회씩 독립운동의 가치를 전파로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요 도시별 봄여행사를 통해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감사 분위기를 조성하고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전국적 참여를 확산하였다.

매달 다르고 새롭게 이어지는 연중 캠페인

광복 80년의 감사캠페인은 8월 15일 하루만의 기념이 아니라, 1년 내내 일상 속에서 감사의 말을 널리 전했기에 더욱 특별했다. 국채보상운동 재조명, 대한광복회 결성 110주년 기념식, 심산 김창숙 선생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헌정공연, 대구형무소 순국 독립운동가 216인 추모식 등

달마다 다른 이름이 불리고,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다.

감사는 반복될수록 문화가 된다. 광복 80년의 감사캠페인은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문화가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었다.

● 전국 불오행사 현황

일자	기관	행사명	주요내용
7. 14.	대구	내일로 달리는 광복 스피릿	대구 3호선 모노레일 외부 래핑 홍보
8. 1.~9. 14.	강원 서부	독립유공자 시 사진 전시회	강원 지역 독립유공자 시 사진 복원 및 전시
8. 9.~8. 16.	서울	블록으로 쌓은 광복의 길	독립운동가 블록 특별전
8. 13.	제주	독립유공자 연극	제주도 생존 애국지사(강태선) 이야기
8. 15.	경기 동부	빛으로 힘차게 나아가리	축하공연, 홍보 부스 운영 및 영상 제작
	강원 동부	강원함 타임캡슐 봉입식	타임캡슐 봉입식, 독도 인근 향해 퍼포먼스
	충북 북부	광복절 경축 기념행사	경축사, 만세삼창, 축하공연
	경남 서부	책으로 만나는 광복 80년	진주문고와 협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8. 28.	경기 북부	이 땅에, 되찾은 봄	광복 80년 청소년 시 낭송 경연대회
9. 8.	전북 서부	생존 애국지사 이벤트	생존 애국지사(이석규) 감사, 축하 이벤트
11. 2.	대구	대구형무소 순국 독립운동가 추모 행사	대구형무소 순국 독립운동가 216인 추모식 및 공연
11. 15.	서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행사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3 광복 80년 기념키트 및 타임캡슐 제작 5만 2천 명이 만든 미래의 편지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정신이 미래 세대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광복 80년 나라사랑 수업키트〉 보급과
〈광복 100주년을 향한 타임캡슐 봉입〉 사업을 추진하였다.
수업키트는 전국 8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개월간 보급되었으며, 타임캡슐 봉입식은 독립운동 등
역사가 서린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주관 자율 행사로 순차 개최되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마음에 새기고,
광복의 의미를 잊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봉입식 학생 대표 '임나현' 학생 —

손으로 익히는 광복의 언어

〈나라사랑 수업키트〉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인지·정서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놀이와 만들기, 역할극 등 체험 중심 학습활동으로 설계되었다. 국가보훈부가 기념키트를 만들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설명’이 아닌 ‘경험’을 통해 역사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는 것이었다. 이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만들고 체험하며 광복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3종류의 학생용 교구와 교사용 수업자료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독립문에 마음을 담아요〉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몸으로 독립문을 표현하고, 자신만의 독립문 우드 아키텍처를 만드는 활동이었다. 두 번째 프로그램 〈타임머신을 타고 빛을 찾아 떠나요!〉는 80년 전 광복의 순간으로 상상 여행을 떠나 ‘우리나라 꿈나무’를 직접 꾸미는 활동이었다. 세 번째 프로그램 〈나라를 지켜줘서 고마워요〉는 사진 관찰과 역할극, 포일 아트 액자 만들기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몸으로 느끼는 활동이었다. 놀이이면서 역사이고, 만들기이면서 배움인 시간이었다.



광복 80년 미래를 밝히는 나라사랑 수업키트 구성



나라사랑 수업키트 수업사진

신청은 국가보훈부 학습용 누리집 ‘나라사랑배움터’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접수 시작 2분 만에 마감되었다. 한 담임 교사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광복절의 의미와 나라사랑 마음을 길러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2045년을 향해 봉인된 시간

〈광복 100주년을 향한 타임캡슐〉 사업은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학생들이 현재 자신의 생각과 다짐을 담은 편지, 사진 등을 20년 후인 2045년 광복 100년을 맞이할 자신 또는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다. 타임캡슐 전면에는 광복 80년 엠블럼을, 명판에는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계승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새겼으며, 디자인은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시물을 본 따 제작되었다.

2025년 8월 14일,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에서

타임캡슐 봉입식이 개최되었다. 타임캡슐 봉입식에 참여한 한 학생은 “광복 100주년 타임캡슐 사업에 삼일공고가 선정되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뜻깊은 일에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양산시청소년회관에서 봉입한 타임캡슐 내부사진

미래 세대가 있는 독립의 정신

이 사업이 특별한 이유는 미래 세대가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념사업은 과거를 돌아보지만, 기념키트와 타임캡슐은 미래를 향한다. 오늘의 아이들이 독립의 의미를 몸으로 익히고, 그 다짐을 20년 후의 자신에게 전달함으로써 광복의 정신을 이어 나가는 것이다.

2045년 광복 100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들이 스물여덟이 되는 해에 타임캡슐이 열린다. 전국 100개교에 봉인된 타임캡슐이 세상으로 나올 때, 독립의 정신이 80년을 넘어 100년까지 이어졌음을 오늘 캡슐에 마음을 담은 그날의 청년들이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 타임캡슐 사업 참여 학교

일자	학교명
서울 · 경기	이화여고(서울), 배재고(서울), 오산고(서울), 보성고(서울), 삼일공업고(수원)
강원	춘천고, 춘천여고, 강원생명과학고, 삼일중 · 고, 철암중
대전 · 충청	대전고, 대전대신고, 공주 영명고, 아산 이순신고, 단재고
대구 · 경북	경북고, 신명고, 대구 계성고, 포항중앙고
부산 · 경남	개성고, 동래고, 동래여고, 창녕여고
광주 · 전라	광주제일고, 광주송일고, 순천여고, 고창고, 목포정명여고
기타 기관	해군1함대(강원동부), 양산시청소년회관(울산), 청소년차오름센터

4 국가관리기념관 디지털전시관 재개관

기념관의 새 패러다임의 전환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계기로

주요 국가관리기념관을 대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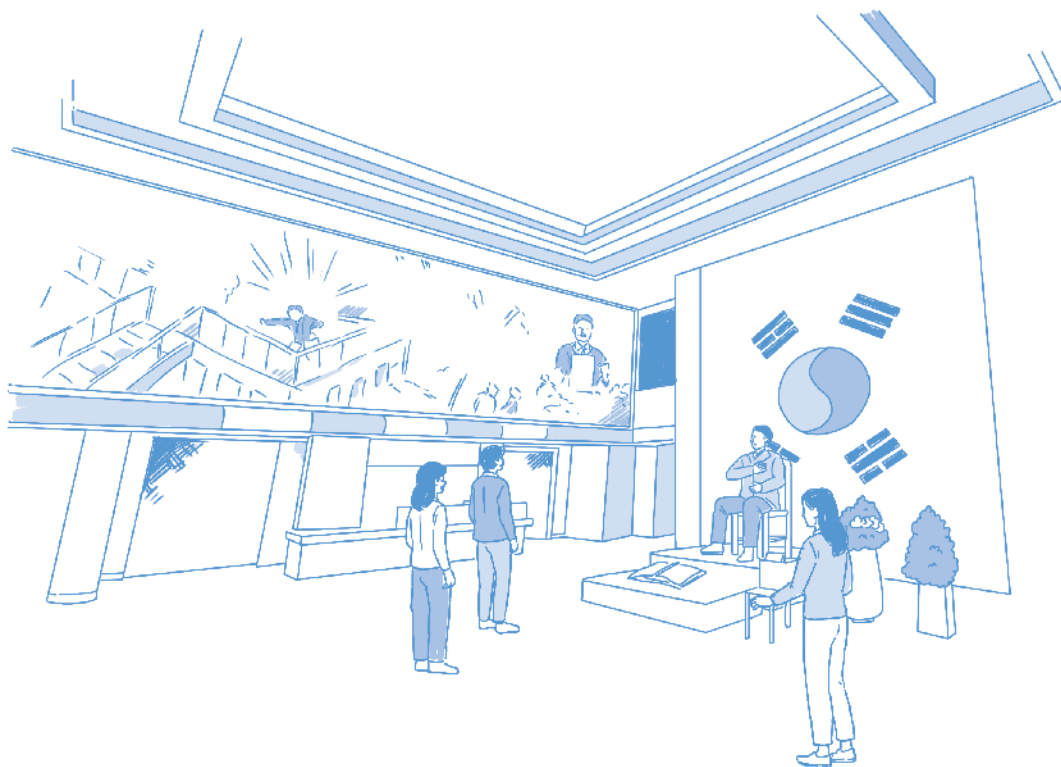
디지털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을 추진했다.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된 이 사업은

2024년에 사전 준비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을 시작으로,

안중근의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순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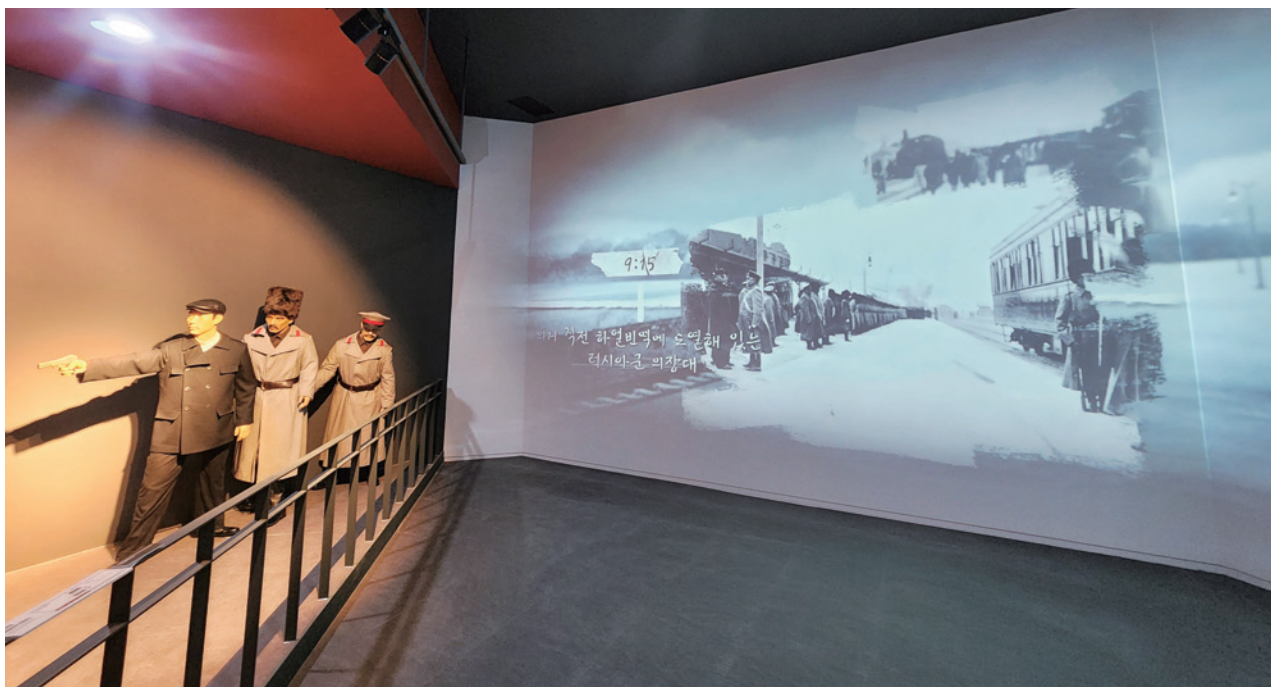


주요 기념관에 대한 디지털 전시 공간 조성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를 넘어, 현대적인 소통방식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를 기억·계승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



재단장한 안중근의사기념관(하얼빈의거)

정에서 동으로, 새단장한 4개의 공간

이번 사업은 정적이던 기존 패널·그래픽 중심의 전시를 LED월, 실감형 영상, 증강현실(AR), 터치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동적 콘텐츠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은 제2전시실 입구와 영상관, 사인 그래픽을 새롭게 단장했고, 안중근의사기념관은 참배홀에 안중근의사 유묵 영상을 송출하는 대형 LED월 설치, 1~3전시실의 전시 그래픽물 전면 교체 및 3전시실의 하얼빈 의거 등 주요 전시물을 디지털화하였다. 유엔평화기념관은 로비와 환영의 공간 포토존, 부산항 디오라마, 실감형 영상까지 방문객을 전혀 다른 경험의 세계로 안내하도록 재구성되었고, 백범김구기념관에서는 백범일지의 기록을 디지털 아카

이브로 구현해냈으며, 2층 전시관을 전면 개편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청청사의 내부 모습과 주요 인물·사건을 다루는 증강현실(AR) 체험시설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새롭게 단장한 공간에서 함께한 사람들

각 기념관 재개관식은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기념관장, 유족 대표 등이 함께 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재개관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명노승 기념사업회장과 유족 윤주경 전 의원, 전성수 서초구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 안중근의사기념관 재개관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황식 송모회 이사장과 유

영렬 기념관장, 유족 등 50여 명이 자리했다. 백범김구기념관 재개관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박유철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장과 김미 기념관장 등 유족 및 관계자 100여 명이 함께했다. 특히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의 개막식에는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김정훈 국제 평화 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준승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오은택 부산시 남구청장과 놀란 바크하우스 주부산미국영사관 영사가 자리하며 유엔 참전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기렸다.

또한 개관을 계기로 국가관리기념관 재개관 기

념 이벤트 <옥에 티를 찾아라!>가 진행되었다. 기념관 콘텐츠의 오류를 시민이 직접 발견해 제보하면, 이를 검토·수정하는 국민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된 이벤트 결과, 총 258개 사례 접수, 최종 22건이 수정되어 새롭게 방문하는 국민들의 재미를 더했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생애와 독립운동 역사를 현대적 방식으로 기억·계승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보훈기념관의 색다른 전달·소통 방식을 보여주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몰입형 영상전시)



백범김구기념관(디지털 아카이브)



유엔평화기념관(환영의 공간 포토존)



안중근의사기념관(법정 투쟁)

● 기념관 별 주요 개편 사항

기념관	재개관일	주요 개편 공간	디지털 전시 주요 내용
매한윤봉길 의사기념관	2025. 2. 24.	- 제2전시실 입구 - 영상관 - 사인 그래픽	- 제2전시실 입구 · 영상관 · 사인 그래픽 전면 개편 - 몰입형 영상 도입으로 전시 공간 재구성
안중근의사 기념관	2025. 2. 26.	- 참배홀(로비) - 하얼빈 의거 - 법정 투쟁 - 동양평화론	- 로비에 대형 LED월 설치, 대한독립 혈서태극기 및 안중근 의사 유묵 영상 상시 송출 1~3전시실 그래픽 전면 교체 3전시실, 하얼빈의거부터 법정투쟁까지의 과정을 실감 영상 및 디지털 콘텐츠로 개편
유엔평화 기념관	2025. 3. 19.	- 로비 - 환영의 공간(포토존) - 부산항 디오라마 - 실감형 영상관	1층 로비 원형 구조에 조명 추가 재구성 - 포토존 3면(좌 · 우 · 후면) LED월 설치, 유엔 참전국 · 참전 용사 영상 송출. 참전국 관람객 방문시 해당 국가 국기 맞춤 화면 설정 가능 - 부산항 디오라마, 1950년대 부산항 영상과 감응형 장치 도입(관람객 움직임 반응 재생) - 실감형 영상관, 기존 일부에서 천장 · 벽(3면) · 바닥 등 5면 전방위 영상으로 확대. 중부전선 전투현장 체험
백범김구 기념관	2025. 4. 7.	- 백범일지 아카이브월 - 디지털 북 키오스크 - 임시정부 총칭청사 AR - 대장정 키오스크	2층 상설전시실에 대형 터치모니터 기반 <백범일지> 아카이브월 설치. 백범일지에 언급된 인물 250명 · 사건 223건 · 장소 84곳 검색 가능 <백범일지> 디지털 북 키오스크: 책장을 직접 넘기며 읽고, 국문 · 영문으로 내용 열람 가능. 임시정부 총칭청사 내부 모습 · 주요 정보 · 인물 · 일화를 증강현실(AR)로 체험 - 백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 대장정 키오스크: 이동 경로와 주요 사건 확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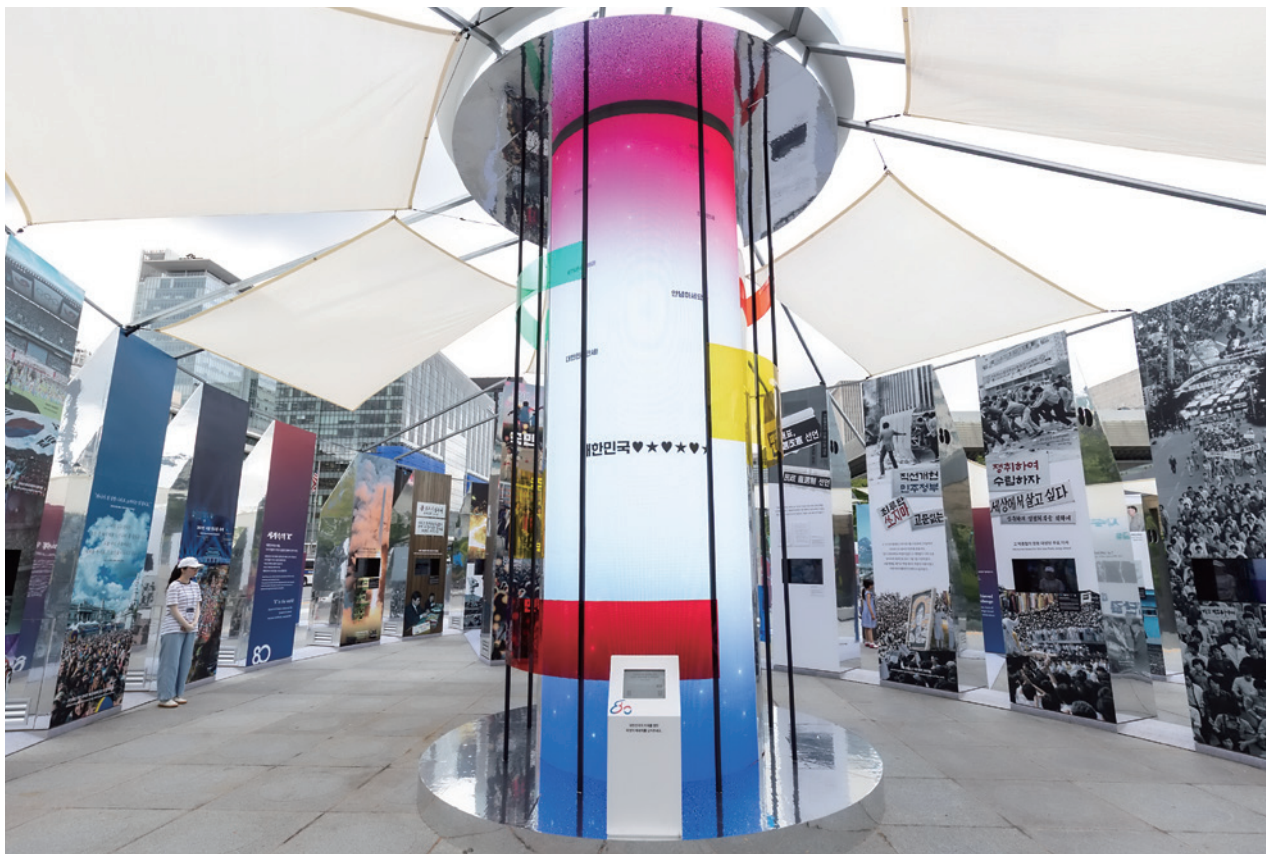
제2절

충무로 주차장 Sejongna Parking Lot
충무로지하 109 (T. 2290-5565)

자랑스러운 80년
대한민국의 여정

1.

국가 발전의 궤적을 마주하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걸어온 80년의 격동의 시간 속에 축적된 변화와 성취를 되짚어보고, 국가 발전의 흐름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한 기념사업들로 구성하였다.

광복 이후 현재까지의 국가기록물 전시와 통계자료의 발간, 시대상을 담은 전시 등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국민 누구나 대한민국 80년의 여정을 입체적으로 마주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 광복 80년 국가기록 특별전 <빛으로 이어진 80년의 기록> 광화문광장에 펼쳐진 광복 80년의 기록

2025년 8월 23일부터 9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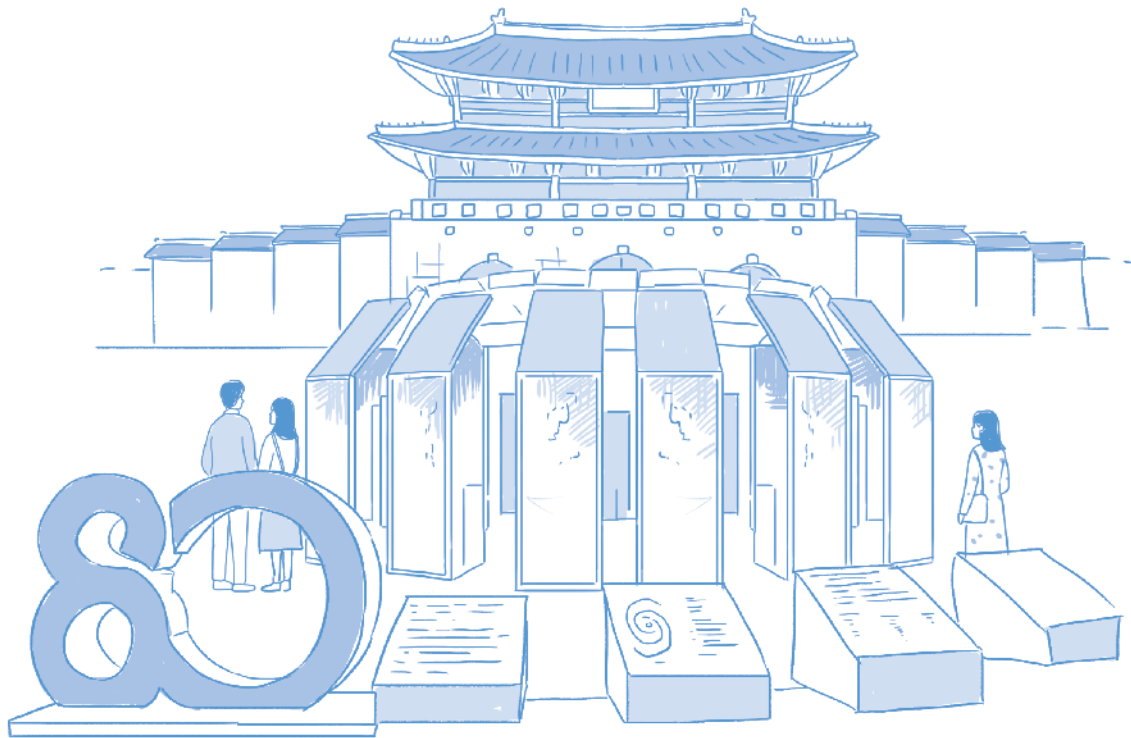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주최한 광복 80년 기념 국가기록 특별전

<빛으로 이어진 80년의 기록>이 열렸다.

이번 전시는 광화문광장에 광복 이후 80년의 대한민국 역사를 상징하는

80개 기둥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LED 영상과 160여 점의 기록물을 선보였다.



광화문광장을 찾는 많은 국민과 외국인들이
광복 이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록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

80개의 기둥, 80년의 기록

전시는 프롤로그, 5개의 전시공간, 에필로그로 구성되었다. 광복의 순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쟁과 분단, 경제성장과 민주화, 세계 속의 K-컬처까지 80년의 흐름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하였다. 광화문광장에는 광복 80년을 상징하는 80개 기둥 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되었으며, 영상·사진·문서 등 160여 점의 기록이 함께 전시되었다.

특히 1945년 ‘미국의 소리(VOA)’ 한국어 방송, 1948년 총선거 기록, 피난민 인터뷰 음성, 파독 간호사 관련 기록, 대통령 직선제 선언 영상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주요 장면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공개되었으며, 일부 자료는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다. 이번 특별전에는 국가기록원뿐 아니라 37개 기관이 참여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주요 기록물을 함께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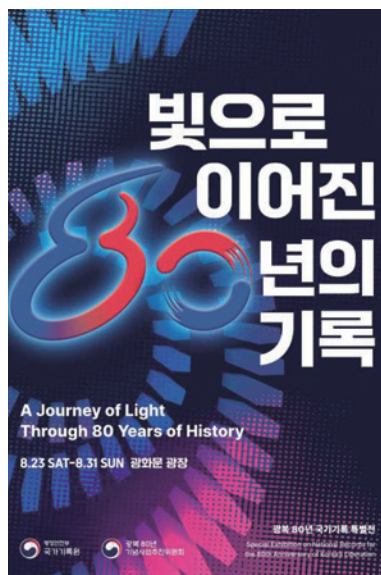
● 전시 구성

구분	주요 내용
[프롤로그] 그날의 환희	1945년 9월 9일 구 조선총독부 항복조인식 영상 - 일왕 패전 선언 전 ‘미국의 소리(VOA)’가 송출한 일본의 항복 사실을 알리는 한국어 방송
[1부] 이제, 우리나라	-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현장(강원도 춘천) - 제헌의회가 제정· 공포한 제헌헌법(사본)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식 장면
[2부] 갈라진 운명, 하나의 꿈	- 분단과 전쟁, 평화를 향한 노력 1950년 유엔한국위원회 위원 조지 모브슨(George Movshon)과 김해 피난민 수용소 피난민의 인터뷰 음성 최초 공개
[3부] 도전이 이뤄낸 성장	-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첨단산업으로 발전해온 경제성장 과정 1960년대 독일로 떠나는 광부·간호사의 모습, 파독간호사 이현순의 메모
[4부] 광장에서 일상으로	- 국민의 참여로 역동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과정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대통령직선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 관련 기록
[5부] 세계 속의 ‘K’	- 문화·첨단기술·스포츠·푸드·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 인정을 받는 대한민국의 힘 소개 - 문체부·과기부·행안부 등 15개 부처의 ‘세계 속의 K 역량’을 보여주는 영상 전시
[에필로그] 우리 함께 앞으로	인터랙티브 월(Interactive Wall)을 통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는 체험형 공간

광장에서 만난 대한민국 80년

이번 전시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걸어온 80년의 역사를 기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에 조성된 야외 전시 공간을 따라 걸으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마주할 수 있었다. 특히 에필로그 공간에는 관람객이 직접 희망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인터랙티브 월을 조성하여 과거의 기록과 오늘의 참여가 이어지는 체험형 전시로 구성하였다. 국내 주요 언론사는 물론 미국의 'The Epoch Times' 등 내·외신 언론이 광화문광장의 이 전시를 세계에 전했다. 또한 광복 80년 기념 <기록 사랑 공모전(8. 1 ~ 9. 30)>이 동시에 운영되어, 전시장을 찾지 못한 이들도 기록의 가치를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80년 동안 이어져 온

광복의 빛을 기록으로 선보인 이번 전시는 기록이 단순히 보존된 자료를 넘어 역사가 지나온 시간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다.



〈빛으로 이어진 80년의 기록〉 전시 포스터



전시 입구 포토존 전경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빛으로 이어진 80년의 기록> 전시 전경

● 주요 기록물

자료명	형태	내용
일본의 항복 소식을 알리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1945)	음성	• 1945년 8월 15일 오전, 일왕의 패전 선언 전 미국의 국영 라디오에서 송출한 일본의 항복 사실을 알리는 한국어 방송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1948)	사진·영상	•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에 따라 진행된 춘천지역 투표소의 투표 진행 모습
피난민의 모습과 피난민 인터뷰 (1950)	사진·음성	• 유엔한국위원회 위원 조지 모브슨이 김해 피난민 수용소에서 피난민 2명을 인터뷰한 음성 최초 공개
한국 간호사들의 독일 파견 (1966)	사진	• 1966년 1월 30일, 128명의 간호사 독일 파견 환송식 모습
대한뉴스 - 대통령직선제 선언 (1987)	영상	• 대통령직선제 실시를 포함한 시국 수습책을 담은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선언' 발표 소식을 전하는 대한뉴스 영상
파독간호사의 기록 (2013)	문서	• 월급봉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땀방울과 피눈물의 기록' 이라고 말한 파독간호사의 메모

2 <통계로 본 광복 80년,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발간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의 증거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소는 광복 80년을 맞아 매년 발간해 온
 <한국의 사회동향> 보고서를 광복 80년 특집편으로 격상하여
 <통계로 본 광복 80년,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발간하였다.
 광복 이후 80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를 통계로 정리한 자료집으로,
 <광복 70년 사회변화 통계집> 발간 이후 10년 만에 다시 펼쳐낸 것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광복 이후 8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뤄온
 각 분야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장(場)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안형준 통계청장 -

숫자가 증명한 성장의 기록

〈통계로 본 광복 80년, 한국의 사회동향 2025〉 자료집은 광복 이후 80년간 한국 사회의 변화를 12개의 영역에 걸쳐 통계로 정리하였다. 이는 80년간 사회변화 함의 분석의 연속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차 자료집을 통해 한국 사회 변화상의 특징을 도출하였으며, 보완된 최종 자료집에서는 주요 이슈 관련 분석 등 정책적·학문적 시사점이 추가되어 발간되었다.

제5회 사회동향 포럼 ‘광복 80년 한국 사회의 성과와 전망’

통계집 발간과 함께, 2025년 8월 27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제5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이 개최되었다. 주제는 ‘광복 80년 한국 사회의 성과와 전망’이었으며, 온·오프라인을 포함하여 약 500명이 참여하였다.

포럼은 통계청장의 개회사와 한준 연세대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하여, 2개 세션으로 구성된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1세션은 경제·소득·소비·자산, 인구·가구·가족, 교육·훈련·노동 분야를, 2세션은 건강, 여가, 주거·교통, 환경 분야를 다루었다.



〈제5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발표집 표지



한준 교수 기조연설



장관 안형준: 안녕하세요. 통계청장 안형준입니다.

〈제5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에서 영상으로 개회사를 전하는 통계청장

● 분야별 주요 통계 지표

분야	주요 지표(1)	주요 지표(2)	시사점
경제	- GDP: 1953년 477억 원 → 2024년 약 2,557조 원 (약 53,000배 증가) 1인당 GNI: 67달러 → 약 36,000달러	3차 산업 GDP 비중 1996년 이후 50% 이상 지속 확대 2024년 주요 수출품: 반도체(18.7%), 자동차(9.3%)	- 전쟁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 - 현재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AI·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대응 필요
인구	- 총인구: 1949년 2,019만 명 → 2024년 5,181만 명 (향후 감소 전망) - 수도권 인구 비중: 1955년 18.3% → 2024년 50.8%	합계출산율: 1960년 약 6명 → 2024년 0.75명	-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항아리형으로 전환 - 수도권 집중 심화와 인구 감소 시대 진입 동시 진행 중
가구·가족	- 평균 가구원수: 1970년 5.2명 → 2023년 2.2명 1인 가구 비율: 1975년 4.2% → 2024년 36.1%	평균 초혼연령: 1990년 남 27.8세·여 24.8세 → 2024년 남 33.9세·여 31.6세	-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를 넘어 이제는 1인 가구가 주류로 부상 - 결혼·출산 지연 및 기피 확산으로 가구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진행 중
건강	- 기대수명: 1970년 62.3세 → 2023년 83.5세 (21.2년 증가) - 비만 유병률: 1998년 26.0% → 2023년 37.2%	자살사망률: 1983년 8.7명 → 2011년 31.7명(최고치) → 2023년 27.3명(인구 10만 명당)	의료보험 보편화로 기대수명이 크게 향상됐으나, 만성질환 증가·고령자 자살률 급증 등 새로운 건강 과제 대두
교육	- 비문해율: 광복 직후 78% → 1970년 7.0% - 고등교육 이수율: 1998년 22.5% → 2023년 54.5% (OECD 평균 41.0% 상회)	- 초등 취학률: 1970년 92% → 이후 100% 달성 - 디지털 기기 보급: 2021년 247만 대 → 2023년 424만 대 (2년간 약 1.7배)	세계적 수준의 인적자본 축적에 성공.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와 AI·디지털 전환이라는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교육 혁신이 과제
노동	고용률: 1963년 52.0% → 2024년 62.7%	임금근로자 비중: 1963년 31.5% → 2024년 77.1%	-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 취업형태 다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재설계 필요
주거·교통	- 주택보급률: 2010년 100.5% → 2023년 102.5% - 아파트 거주 비율: 2008년 43.9%로 1위 → 2023년 52.4%	- 자동차등록대수: 2024년 약 2,630만 대 - 교통사고 사망자: 1990년 12,325명 → 2024년 2,521명(대폭 감소)	- 양적 부족 문제는 해소. 그러나 질적 주거복지와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교통 안전은 크게 개선됐으나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대응 필요
여가·웰빙	- 오락·스포츠·문화 소비지출 비율: 1970년 2.5% → 2024년 8.1% 2024년 하루 평균 여가시간: 4.3시간	- 연차휴가 소진율: 2017년 58.2% → 2023년 78.0% - 평균 연차휴가일수: 2017년 8.5일 → 2023년 13.1일	- 소득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여가의 질이 향상 - 소득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여가·문화 소비 격차가 확대
소득·소비	- 근로자 가구 실질 총소득: 1970년 대비 2024년 10.4배 증가 - 소비자물가 등락률: 1980년대 이전 높고 불안정 → 이후 안정화	- 처분가능소득 빈곤율: 2011년 이후 지속 하락(재분배 효과) - 지니계수: 시장소득 악화에도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개선 추세	-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실질소득이 크게 향상됐으나 외환위기 이후 불평등 확대 - 복지 확대를 통한 재분배 효과가 커지고 있으나 지속적 개선 노력 필요
환경	상수도 보급률: 1950년대 약 10% → 2000년대 중반 이후 90% 이상	- 아황산가스 농도: 1990년의 1/10 미만으로 개선 - 미세먼지(PM10): 1995년 기준 초과 → 2010년대 중반 이후 기준 충족	- 급속한 산업화로 악화됐던 환경이 정책 강화로 점진적으로 개선 - 기후변화·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 의제 대응이 새로운 핵심 과제로 부상
사회통합	- 삶의 만족도: 2003년 20.4% → 2022년 43.3% → 2024년 40.1% - 행복감: 2013년 6.3점 → 2024년 6.8점(10점 기준)	- 계층 상승 가능성에 부정적 인식: 국민의 70% 이상 - 빈곤층 상승 가능성 인식: 한국 56.9%	생활수준 향상으로 삶의 만족도는 개선 추세이나, 사회이동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높음
범죄·안전	전체 범죄 발생비: 1976년 대비 2023년 94.0% 증가 (형법범죄 142.9% 증가)	- 교통사고 사망자: 2000년 이후 지속 감소 - 자연재해 인명피해: 2000년대 이후 태풍 등 100명 미만 유지	교통사고·자연재해 사망은 크게 줄었으나 강력범죄와 재산범죄는 증가 추세

Time Line	구분	발표자 및 주제
13:00~13:10	개회	인사말: 통계청장(개회사)
13:10~13:40	기조연설	한준 연세대학교 교수
13:40~15:20 (발표+토론)	제1세션	좌장: 한준(연세대 교수) 주제1 - 경제·소득·소비·자산 분야: 오성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제2 - 인구·가구·가족 분야: 최선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제3 - 교육·훈련·노동 분야: 한효정(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황선재(충남대 교수),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5:20~15:40		휴식
15:40~17:20 (발표+토론)	제2세션	좌장: 김진(국가통계연구원 원장) 주제1 - 건강 분야: 김동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제2 - 여가 분야: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주제3 - 주거·교통 분야: 이재춘(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주제4 - 환경 분야: 김종호(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이희길(통계청 안동사무소 소장), 박시내(국가통계연구원 과장), 신인철(서울시립대 교수)



〈제5회 한국의 사회동향 포럼〉 종합토론 현장

데이터로 기록한 80년

광복 80년의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통계로 본 광복 80년, 한국의 사회동향 2025〉 통계집은 감동 대신 근거를, 서사 대신 데이터를 통해 광복 80년의 이야기를 풀어내었다. 광복 80년의 통계와 분석을 포함한 이 자료집은 이후 파생 연구들의 토대로, 다음 광복 90년과 광복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3 광복 80년 국립중앙도서관 80년 전시

〈나의 꿈, 우리의 기록 - 한국인의 책장〉

2025년, 광복 80년이자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80년을 맞이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80년간 수집·보존해 온 국가장서를 공개하는
특별전 〈나의 꿈, 우리의 기록 - 한국인의 책장〉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가문헌을
시대와 매체의 변화 흐름에 따라 조망하였다.



소수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책이
백성을 위하는 위민(爲民), 책과 함께하는 여민(與民),
스스로 기록하고 표현하는 시민(市民)으로 성장하는 이야기를 전시에 담았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국민의 꿈과 기록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 국립중앙도서관 -



〈나의 꿈, 우리의 기록 - 한국인의 책장〉 전시실 내부

80년 역사가 담긴 책장을 열다

전시는 시대별 책장(5부 18개), 주제별 책장(5개), 특별부스(T1 책장)로 구성되었다. 또한 관람객이 직접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배치하였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주요 자료 10종 중 특히 주목할 것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공개되는 〈동의보감〉 원본을 비롯하여, 최초로 원본을 선보이는 보물 〈석보상절〉 및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이다.

T1 책장은 세계적인 e스포츠팀 소속 선수 최현준(Doran), 문현준(Oner), 이상혁(Faker), 이민형(Gumayusi), 류민석(Keria)이 직접 선정한 애독서를 담아 청년세대의 감성과 가치관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전시는 보는 것에만 머물지 않았다. 관람객은 전

시장 내 키오스크를 통해 직접 ‘나만의 책장’ 이미지를 만들고 SNS에 공유할 수 있었다. 총 851명이 이 체험에 참여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80년을 기억했다. 도서관을 직접 찾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는 실제 전시 현장을 VR로 구현해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부스 T1의 책장

● 전시 주요 자료

주요 자료명	전시 포인트	주요 내용
〈동의보감〉 (1613)	국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16년 만에 원본 공개)	조선 의관 허준이 중국·조선 의서를 집대성한 의학서(1613년 내의원 간행)
〈석보상절〉 (1447)	최초 원본 공개	- 세종의 명으로 수양대군이 편찬 - 최초의 한글 금속활자 인쇄본
〈상고정본자비도량참법〉	최초 원본 공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보물
〈규합총서〉 (조선후기)	한글 여성 백과사전	- 빙허각 이씨가 한글로 쓴 여성 백과전서 - 아름다운 궁체 행서체로 필사
〈무정〉 초판본 (1920)	한국 최초 근대 장편소설	- 최남선 서문 수록 - 초판 1만 부 이상 판매(총 8차 재간행)
〈해방문학선집〉 (1948)	김환기 표지 그림 · 김용준 삽화	- 김동리 · 염상섭 등 9인 단편 수록 - 표지는 김환기의 백자 향아리 그림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55)	윤동주 유고시집 초판본	- 정음사 1955년 판 〈서시〉, 〈자화상〉, 〈별 헤는 밤〉 등 31편 수록
〈전태일 평전〉 (1983)	한국 현대 노동운동의 상징적 서사	- 조영래 집필 1980년대 불온서적 지정에도 대학가에서 광범위하게 유통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1985)	5·18 광주민주항쟁 기록	- 황석영 편집 ‘넘어 넘어’로 불리며 저항운동 상징
〈소년이 온다〉 (2014)	한강 작품(노벨문학상 수상작) (20여 개 언어로 번역)	5·18을 다룬 작품 - 노벨위원회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으로 평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곳

국립중앙도서관은 1945년 개관 이후 광복, 전쟁,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의 시간을 거치며 우리나라의 지식과 기록을 수집·보존해 왔다. 이번 특별전은 80년의 축적을 처음으로 시대의 서사로 엮어 국민 앞에 제시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

다. 이번 전시를 통해 도서관은 과거를 보관하는 장소인 동시에 과거를 현재와 연결하는 공간임을 보여주었다. 광복 이후 이어져 온 기록 역시 국민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 할 공동의 자산임을 전시는 조용히 전하고 있었다.

2.

미디어로 80년의 서사를 널리 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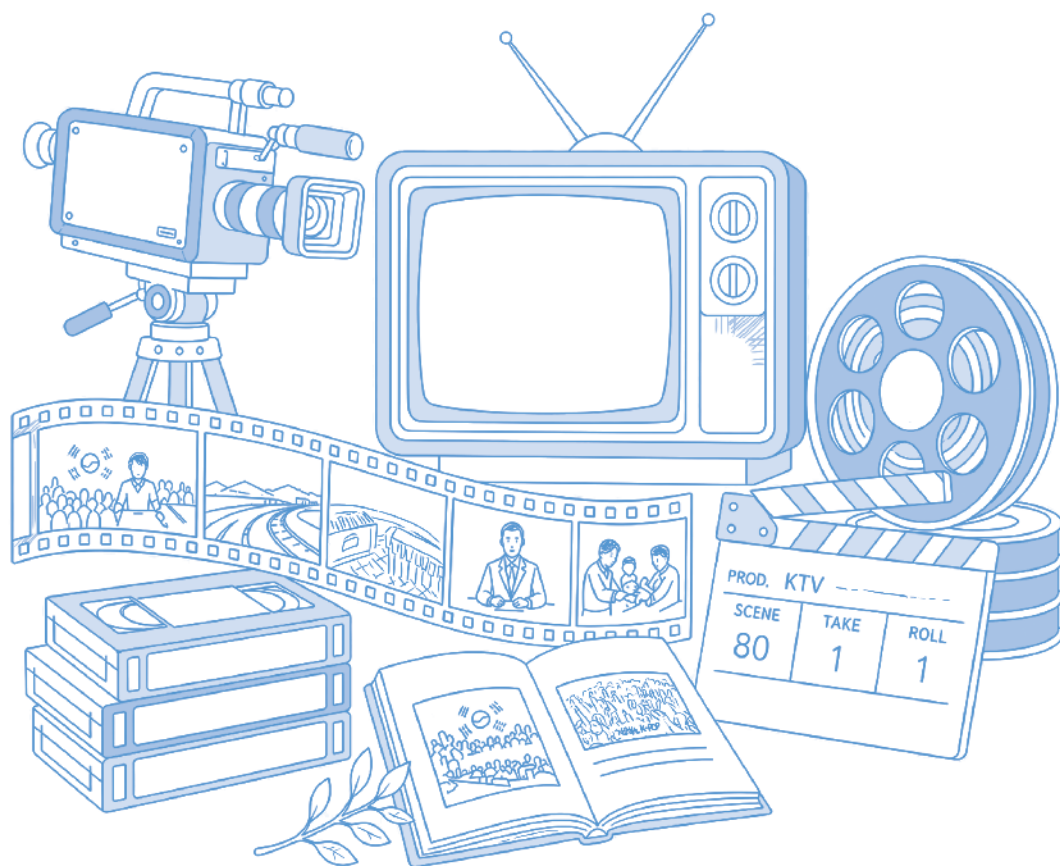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쌓아온 80년의 이야기를
영상과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폭넓게 전하기 위한 기념사업들로 구성하였다.
광복 80년 특집 프로그램 제작과 홍보영상 콘텐츠,
공익광고 제작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통해
시대의 기록을 친숙한 언어와 감각적인 화면으로 풀어내어,
국민 모두가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게 하였다.

1 광복 80년 KTV 대기획 시리즈 제작

화면이 기억한 80년의 빛나는 역사

광복 이후 80년간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선 경제, 되찾은 민주주의, 세계를 놀라게 한
문화 등 빛나는 역사를 기록해왔다.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한국정책방송원(KTV)은 그 기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조망하는 총 58편의 대기획 시리즈를 엮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불굴의 정신과 긍정, 희망, 위기 극복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되돌아보며, 국민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 한국정책방송원(KTV) -

빛나는 시간들: 대한민국 영광의 20장면

특집 프로그램 <빛나는 시간들: 대한민국 영광의 20장면>은 1945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 역사·문화·경제 분야의 결정적 순간 20가지를 20편의 다큐멘터리로 구성하였다. 해외 취재를 기반으로 기획·제작 자문단, 다양한 출연자를 포함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를 통해 역사적 인사이트와 감동을 전달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출연진으로는 사회자 한석준 아나운서, 김현식 문화평론가, 박연미 경제평론가, 은동진 강사가 참여하였으며, 내레이션은 성우 김상현이 맡았다. ‘프롤로그 토크쇼(1편) → 다큐멘터리 20편(연대기) → 에필로그 토크쇼(1편) → 종합편(1편)’의 서사 구조로, 일반 국민들이 흐름을 파악하기 쉽도록 제작하였다.

광복의 유산, 80년의 조각들

데이터 다큐멘터리 <광복의 유산, 80년의 조각들>은 인구·경제·문화 3개 주제로 80년간의 방대한 데이터를 체계화하여 총 3편, 각 20분 내외 분량의 영상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모션그래픽과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복잡한 통계자료를 직관적으로 전달하였다. 대한민국의 성장과 저출생·고령화 등 현대 사회의 당면 과제를 동시에 조명하며 시대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아 완성도 높게 제작하여 ‘2026 케이블 TV 방송대상 작품상(교양부문)’을 수상하였다.



<광복의 유산 80년의 조각들 - 문화편> AI로 영상화한 백범 김구 선생



<빛나는 시간들: 대한민국 영광의 20장면> 프로그램 구성

구성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
1부	8·15 광복, 평화와 번영의 시작	11부	세계로 향한 스포츠 파워
2부	산업의 쌀, 쌀물이 나오던 날	12부	금빛 연대, IMF의 빛을 희망으로
3부	기적의 도로, 경부고속도로의 시작과 완공	13부	KTX가 바꾼 대한민국 시간지도
4부	사막에 세운 한국의 꿈	14부	G20 서울의 날: 위기에서 리더십으로
5부	지하철 1호선에서 스마트 시티까지	15부	반도체 강국의 출발선, 64K D램
6부	대한민국 마이카 시대 ‘포니’	16부	K-pop, 80년의 시간 위에 서다
7부	수출 100억 달러, 기적의 설계도	17부	세계를 사로잡는 K-콘텐츠의 힘
8부	평화를 향한 재화: 이산가족의 약속	18부	불가능을 쏘아 올린, 우주 강국의 출발
9부	전파를 타고 세계를 잇다	19부	K-방산! 평화의 꽃을 피우다
10부	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도약	20부	오! 필승 코리아의 붉은 물결



〈광복의 유산, 80년의 조각들〉 프로그램 구성(3편)

구성	주제	주요 내용
1편	인구	광복 직후와 현재의 인구 피라미드 비교, 출생률, 사망률 변화, 교육·문맹률 등을 돌아보고 저출생 시대를 돌파할 방법을 고민
2편	경제	광복 당시부터 현재까지 GDP 변화와 수출입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경제 성장 조망 및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발전 방향을 조망
3편	문화	광복 이후 올림픽 메달 수, 월드컵 성적 변화, 한류의 성장 그래프와 영화·드라마 수출액 그래프를 통해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조명



〈그때 그리고 지금, 新문화영화〉의 장면



그때 그리고 지금, 新문화영화

다큐멘터리 〈그때 그리고 지금, 新문화영화〉는 1950년부터 2004년까지 제작된 기존 문화영화의 형식을 계승하되, 2025년 현재의 시대상과 국민의 삶을 새롭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 속 국가 기록영상의 성격을 지녔던 과거 문화영화를 오늘의 시선으로 재해석하여, 광복 이후 80년 동안 변화해온 대한민국의 생활문화와 사회모습을 동시대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장면

을 유사한 구도와 연출로 교차 배치하여 시대의 변화를 직관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일상과 문화, 기술과 가치관의 변화가 한 편의 시청각 아카이브처럼 이어지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짜장면, 태극기, 여가문화, 디지털 기술 등 국민의 생활 가까이에 있는 소재들을 통해, 거대한 역사적 서사보다는 ‘당대 사람들의 감각과 기억’을 담아내는 데 집중하였다. 에필로그에는 AI가 작사·작곡한 음악을 활용하여 미래 세대



〈그때 그리고 지금, 新문화영화〉 프로그램 구성(30편)

번호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
1편	시대가 담긴 짜장면 한 그릇(1부) 1960~70년대 100원 → 현재 1만원의 짜장면 가격 변화로 돌아보는 물가사	16편	같이 일구다, 기계가 바꾼 농업 농기계 변천사와 스마트팜 등 농업 발전사
2편	시대가 담긴 짜장면 한 그릇(2부) 오징어게임으로 화제가 된 우리 전통놀이 가치 조명	17편	시간이 빛은 술, 다시 쓰는 전통주의 역사 하나의 문화가 된 전통주의 매력 조명
3편	우리의 꿈 우주로 1958년 최초 국산 로켓부터 우주개발 역사	18편	삶의 마지막 인사, 장례 전통 장례에서 디지털 추모·웰다잉까지
4편	국민 체조에서 러닝 크루까지 '함께 움직이는 즐거움'의 변화	19편	K-공예, 일상에 스며들다 전통 공예의 현대적 재해석
5편	결혼, 시대를 넘어 영원한 약속 혼례문화 변천사	20편	역사, 새로운 언어로 기억하다 광복 80년을 맞아 MZ세대에 역사를 묻고 새로운 세대의 역사 기념법 조명
6편	커피, 시간의 향기를 담다 개항기 도입부터 '커피 공화국'까지	21편	사라져가는 동네 목욕탕 이야기 시대변화에 따른 목욕문화 조명
7편	직업의 가치관 재발견 AI 시대 손노동 가치 탐구	22편	광복 80년, 태극기의 시간 지난 역사 속 국민과 함께한 태극기의 순간을 조명
8편	시대를 비추는 거울, 패션 K-패션 발전사	23편	만화의 추억, 종이에서 디지털까지 K-웹툰의 위상과 성장 가능성 전망
9편	다시 찾아온 트로트의 봄 최근 트로트 열풍의 이유와 매력 탐구	24편	초고령사회를 사는 젊은 노인 시니어 문화의 새 흐름 조명
10편	추억과 꿈을 팝니다! 오일장 전통시장의 현대화	25편	우리 시대의 집, 아파트 최초 아파트부터 미래 주거까지 전망
11편	마당의 개에서, 마음의 가족으로 반려견 문화의 변화 조명	26편	느리지만 소중했던 우리의 연결 방법 집배원·공중전화에서 현재까지
12편	방앗간에서 밀키트까지 식문화 변천사	27편	신라 천 년 세계를 잇다, 경주 APEC 정상회의 20년 만에 다시 개최하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의 노력 조명
13편	빛을 캐던 사람들, 광부 파독 광부부터 도계광업소 폐광(2025. 6.)까지	28편	기후 변화가 그려낸 새로운 한반도 아열대화·사계절 변화
14편	6·25전쟁, 잊혀진 영웅들 참전용사 헌신 추모(발발 75주년)	29편	온누리에 풍성한 보름달, 추석 시대에 따라 달라진 추석 풍경
15편	사진관, 시대를 인화하다 흑백 필름에서 AI 복원까지	30편	문화유산, 디지털로 미래 유산이 되다 문화유산의 디지털 헤리티지 기술 조명



〈광복 100년, 미래로 보내는 타임캡슐〉 방송장면

에 전하는 메시지를 더함으로써, 과거의 기록을 현재의 시선으로 다시 읽고 미래로 연결하려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의미를 영상 언어로 풀어냈다.

광복 100년, 미래로 보내는 타임캡슐

연말 특집 다큐멘터리 〈광복 100년, 미래로 보내는 타임캡슐〉은 광복 80년의 의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망하고, 광복 100년을 향한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기획된 다큐멘터리이다. 프로그램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걸어온 변화와

성취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2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와 미래 세대에 남겨야 할 과제를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영상 자체를 하나의 ‘타임캡슐 봉인 과정’처럼 구성하여 과거의 기록과 증언, 데이터와 인터뷰를 단계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연출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단순히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대한민국을 미래 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기록 작업에 함께 참여하는 듯한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AI·기후위기·공동체·민주주의·문화유산 등 미래 사회의 주요 의제를 함께 다루며, 광복 80년이 과거를 기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미래 세대에 보내는 메시지를 타임캡슐에 담는 모습



〈광복 100년, 미래로 보내는 타임캡슐〉 프로그램 구성(2편)

번호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1	과거의 편지 폐허에서 희망으로	광복 80년 전쟁의 폐허부터 고난과 위기를 극복해온 대한민국의 기록과 유산을 우리의 교훈으로 타임캡슐에 봉인하는 내용
2	미래로 전달 희망에서 약속으로	앞으로 20년 후를 전망하며 광복 100년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전할 다짐과 희망을 타임캡슐에 담아 보내는 내용

화면이 남긴 찬란한 80년 유산

광복 80년을 계기로 국가의 역사 기록을 영상 콘텐츠로 정리하고 국민과 공유한 이번 사업은 공공 방송콘텐츠가 기념방송 편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아카이브 자산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해당 콘텐츠는 방영 종료 이후에도 KTV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다.

이를 통해 제작된 영상 기록은 광복 80년의 의미를 담은 공공 콘텐츠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화면에 새겨진 80년의 유산은, 이제 아카이브가 되어 다음 세대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될 것이다.

2 민속아카이브센터 미디어큐브 영상 전시 《되찾은 빛, 이어질 노래 아리랑》

아리랑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2012년 등재)으로,
일제강점기의 저항과 광복의 기쁨, 전쟁의 극복,
산업화 · 민주화의 공동체 정서까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장면마다 함께해 온 문화유산이다.
광복 80년을 맞아 국립민속박물관은 아리랑의 변화상을 통해
민족적 고난의 극복, 전통의 창의적 계승,
사회 화합과 미래지향적 발전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영상전시를 기획하였다.



광복 80년을 맞아 우리 곁에 함께 해온 아리랑의
다채로운 모습과 의미를 조명하는 이번 영상 전시를 통해
‘되찾은 빛’에서 미래의 ‘이어질 노래’로 아리랑의 가치를 만나길 바랍니다.

— 국립민속박물관 —

35점의 기억이 만들어낸 하나의 노래

국립민속박물관이 전시의 소재로 아리랑을 선택한 이유는 그 가락 속에 있다. 일제강점기 고난과 저항,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슬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공동체의 정서를 아리랑의 변화상을 통해 소개하였다.

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수십 년에 걸쳐 수집·보존해 온 민속아카이브 자료 35점을 활용해 미디어아트 영상 1편을 제작·상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미디어큐브는 영상이 사방 벽면을 감싸는 몰입형 구조로, 관람객이 아리랑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시청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전시 자료는 오세화, 손장연, 헨리G. 웰본 등의 기증 및 수집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하였다. 전시 안내용 패널을 설치하고 전시에 소개되지 않은 아리랑 관련 사진, 영상, 음원, 발간 자료는 민속아카이브 정보센터 정보검색대를 통해 더 자세히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리랑, 우리 삶과 함께한 노래

전시에는 경복궁 중건 당시 조선 사람들의 노동요부터 나운규 감독의 영화 <아리랑>,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이 부른 투쟁가, 전쟁 속에서 그리움과 상실을 달래던 노래, 그리고 월드컵 응원가로 확장된 현대의 아리랑까지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아리랑의 다양한 모습을 영상으로 구현하였다. 특히 노동과 유희, 저항과 투쟁, 일상 회복과 공

동체 연대 등 시대별 사회상과 정서가 아리랑의 변화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담겨 있음을 보여주며, 아리랑이 단순한 민요를 넘어 국민의 기억과 정서를 함께해 온 노래였음을 조명하였다. 또한 지역 생활문화 속에 남아있는 ‘아리랑 시장’, ‘아리랑 거리’ 등의 사례와 2002년 월드컵 거리응원 장면 등을 통해 아리랑이 시대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계승·확장되어 왔음을 함께 보여주었다.

기억이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의 공간

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이 보유한 민속아카이브 자료를 미디어아트로 재구성해 관람객에게 제공했다. 단조롭고 정적인 기록 보관소로 여겨지던 쉬운 아카이브가, 미디어아트와 만나는 순간,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의 공간으로 변화했다. 35점의 자료가 단순히 ‘전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감각과 언어로 ‘재탄생’하여 관람객에게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국립민속박물관 파주는 경기 북부의 유일한 국립박물관으로서, 이번 전시를 통해 수도권 내 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광복 80년의 의미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아리랑의 역사적 변화상을 광복 80년의 서사와 연결한 이번 전시는 무형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을 잘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 영상전시 주요 활용 자료



모내기

농촌 노동 현장
노동요로서의 아리랑 맥락 자료



나운규 사진

영화 <아리랑>(1926) 감독 나운규 관련 자료
일제강점기 아리랑의 저항적 기능 대표 자료



아리랑 고개 이발소

아리랑 지명이 붙은 생활공간 풍경
지역 일상 속 아리랑 정착 양상 조명



부산 광복로 아리랑거리

광복로에 형성된 아리랑 거리
광복과 아리랑의 결합 상징 공간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월드컵 거리 응원 현장
집단 화합의 매개로 변화한 아리랑의
현대적 모습



목계월 · 제자들

명창 목계월과 제자들
아리랑 구전 전승 및 보존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울동과 함께 아리랑 부르기

국립민속박물관 교육 행사 장면
미래 세대 아리랑 전승 활동



시장풍경 / 빨래하는 여인네

일제강점기 전후 서민생활상
아리랑이 깃든 일상의 맥락 자료



6·25 참전용사 흑백사진 / 독립문

전쟁과 독립의 역사적 맥락 자료
그리움과 회복의 아리랑 서사 뒷받침

3 광복 80년 기념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다큐멘터리로 담아낸 못다 한 광복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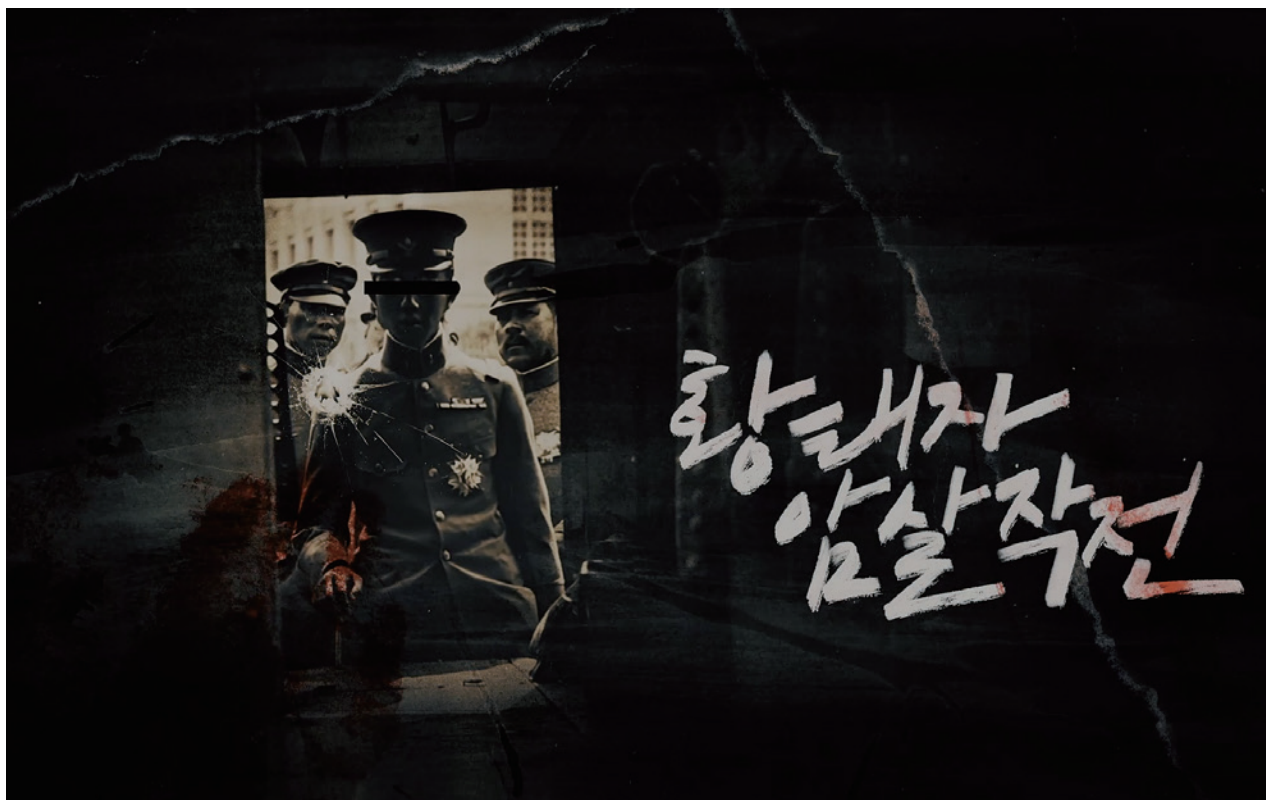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광복 80년을 주제로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익 방송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였다.

광복 80년 특집 <황태자 암살작전>은 유럽에 남아있는
독립운동 기록을 발굴·조명하였으며, <IF: 미완의 예술>은
AI 기술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예술가들의 미완성 작품을 복원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였다.



광복 80년을 맞은 지금, 단절된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다시 잇는
이 다큐멘터리가 기술과 예술의 조화 속에서
진정한 감동을 전하길 바랍니다.

- CNTV -



〈황태자 암살작전〉 타이틀 사진

파리에서 발굴한 유럽 독립운동의 기억, 〈황태자 암살작전〉

광복 80년 특집 〈황태자 암살작전〉은 1921년 프랑스를 방문한 일본 황태자 히로히토를 둘러싸고 실제로 추진됐던 비밀 암살작전을 추적하며, 그동안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프랑스 독립운동을 조명한 작품이다. (주)시네온티브이가 제작하여 AsiaN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다.

제작 과정에서 1921년 당시의 실제 필름, 사진, 보도자료 등 다양한 사료가 새롭게 발굴되었으며, 유럽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찰 기록과 신문 기사, 미공개 문서 등을 기반으로 사건의 전말을 치밀하게 재구성하였다. 암살작전에 참여한 한

인들의 후손을 직접 찾아 증언과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의 구체적인 행적을 추적함으로써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려졌던 해외 독립운동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복원하였다. 아울러 AI 기반 영상복원 기술을 활용해 저해상도 기록물을 고화질로 되살림으로써 당시의 현장감과 시대적 분위기를 생생하게 구현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조명이 부족했던 유럽 지역 독립운동을 구체적 서사와 영상 기록으로 남겼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의의를 지닌다.

AI로 복원한 세 예술가의 미완성작,

〈IF: 미완의 예술〉

〈IF: 미완의 예술〉은 일제강점기 때 단절된 예술가들의 꿈을 AI 기술로 복원하고, 현재의 예술가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예술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기획된 3부작 다큐멘터리이다. (주)씨엔티브이가 제작·방영하였으며, 배우 이상엽이 내레이션을 담당하였다.

‘이들이 광복 이후에도 창작을 이어갔다면 어떤

작품을 남겼을까’라는 질문을 전제로, 나혜석·한용운·채동선 세 인물의 예술적 맥락을 AI가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방송과 연계해 전시회도 개최하였다. 화면에 구현된 복원 작품들을 전시 공간으로 옮김으로써, 광복 80년 방송 콘텐츠를 전시·문화 분야로 확장하였다.

● 〈IF: 미완의 예술〉 프로그램 구성

구분	부제	주요 인물	세부 내용
1부	사라진 선(線), 다시 태어난 예술	나혜석 (한국 최초 여성 서양화가)	• 미완의 회화를 AI로 복원하여 광복 이후의 가상 작품 재현
2부	잊힌 목소리, 다시 쓰는 시(詩)	한용운 (독립운동가·시인)	• AI가 복원한 가상 시 〈광복 이후의 님의 침묵〉 재해석
3부	잊힌 선율, 되살아난 혼	채동선 (작곡가)	• AI 분석으로 신곡을 완성하여 채동선음악당 무대에서 연주



〈IF: 미완의 예술〉 타이틀 사진

광복 80년, 방송으로 빛낸 11월: 우수 다큐 방영의 달

방미통위와 KCA는 11월을 ‘우수 다큐 방영의 달’로 지정하여 두 프로그램의 시청 기회를 집중 확대하였다. 웹 포스터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전자신문·뉴스1 등 언론매체에서 보도되었고, 〈미디어 이슈&트렌드〉 70호에는 우수 다큐 방영의 달 특집 리포트가 수록되어 행사 내용과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

시청률 경쟁의 틀을 벗어나 제작된 두 편의 공익 콘텐츠는 ‘광복 80년’이라는 국가적 기념사업의 의미를 국민에게 심도 있게 전달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공공콘텐츠의 모범사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기록될 것이다.



〈2025 우수 다큐 방영의 달〉 포스터



〈황태자 암살작전〉 메이킹필름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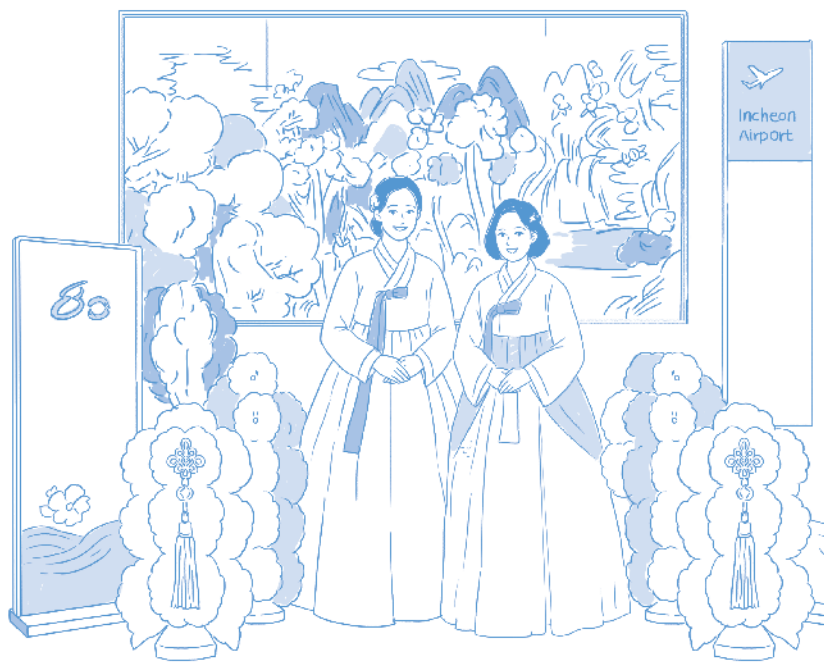
〈IF: 미완의 예술〉 메이킹필름 장면

4 광복 80년 기념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인천공항 홍보

인천공항에서 맞이한 〈광복, 팔순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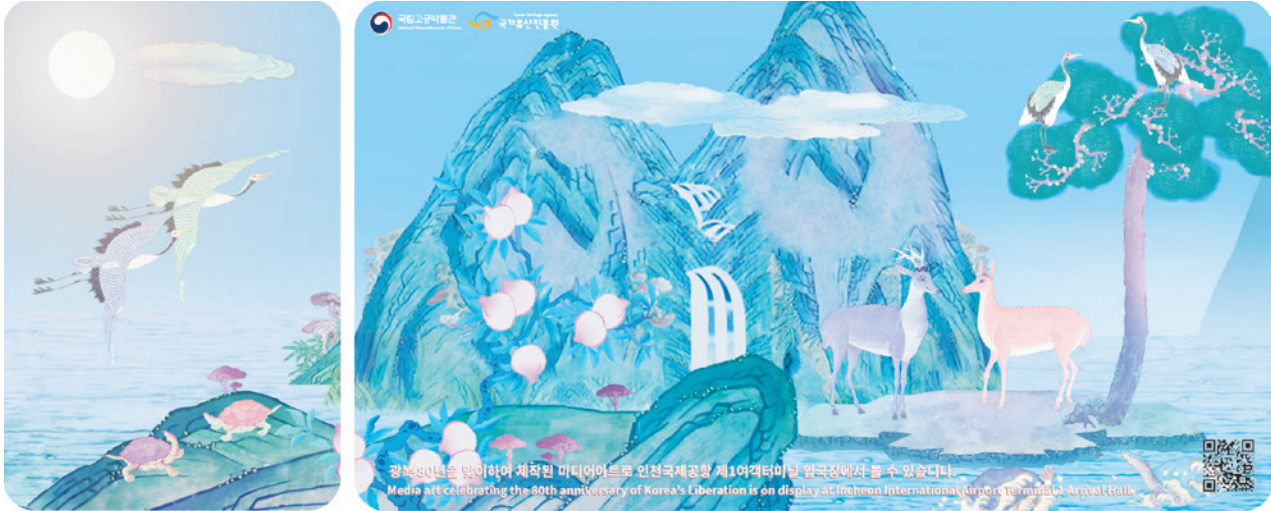
국립고궁박물관은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하여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영상 콘텐츠 〈광복, 팔순잔치〉를 제작하고
2025년 8월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미디어월에 공개하였다.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 입국장 무빙워크 구간에
대형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광복 80년의 의미와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전달하고자 하였다.



〈광복, 팔순잔치〉는 광복의 기쁨을 새로운 시대의 시각으로 풀어낸 미디어아트입니다.
조선시대 궁중 연회에 사용되었던 ‘십장생도’와 ‘모란도’를 새롭게 연출하여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광복 80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 국립고궁박물관 · 국가유산진흥원 —



광복 80년 기념 영상콘텐츠 활용한 홍보협업(항공기 탑승권)

십장생도와 모란도를 현대 미디어아트로

〈광복, 팔순잔치〉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십장생도’와 ‘모란도’를 소재로 하여 장수 · 풍요 · 국가 안녕의 의미를 담은 영상 콘텐츠이다. 광복 80년을 ‘팔순잔치’라는 경축의 언어로 표현한 것은 이러한 전통적 상징체계를 현대적 색감과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영상의 구성은 어둠에서 점차 밝아지는 연출로 광복을 시각화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잠에서 깨어 생동감 있게 활동하는 동물들의 모습이 입국장을 지나는 여행객들을 맞이하고, 영상의 뒷부분에는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모란꽃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광복의 기쁨과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표현하였다.

전통이 빚어낸 광복의 빛깔

사업은 2025년 2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5월에 애니메이션 주제를 확정하고, 전문 일러스트 작가와 협업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7월에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엔틀러 미디어월에서 사전보고회를 열어 보완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후 8월 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전통문화 미디어월에 콘텐츠를 정식 공개하였다.

‘전통문화 미디어월’은 한국에 도착한 방문객이 비행기에서 내려 가장 처음 마주하는 공간으로, 자동길(무빙워크)을 따라 설치된 대형 전광판에 전통문화 소재의 고화질 영상을 상영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찾은 내외국인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달하였다.

8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국가유산 방문자센터에서 영상 콘텐츠 공개 기념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영상 속 ‘십장생도’와 ‘모란 병풍’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이 설치되

었으며, 현장 안내판의 QR코드를 활용하여 참여자에게 전통문화상품을 증정하는 등 현장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였다.

다양하게 펼쳐낸 광복 80년 콘텐츠

인천공항 미디어월 상영 이후, 콘텐츠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산되었다. 8월 23일, 제주항공과의 협업을 통해 항공기 기체 외부에 콘텐츠 디자인이 래핑되었으며, 같은 디자인을 적용한 국제선 항공권도 발행되었다. 항공기 래핑 과정 영상은 온라인에 게시되었고 2026년 2월 기준 약 5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공항 외에도 경북구역 5번 출구에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연결되는 이음길 미디어월에서도 동일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금천구청 1층 로비 LED월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도 제공되었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되어 디지털 공간에서의 접근성도 높였다.



인천공항 포토존에서 가족이 사진찍는 모습

광복 80년, 미래 세대 및 세계와 함께하는 한국의 유산

국가유산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는 특화된 입지를 살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현대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미디어아트로 광복 80년의 의미를 선보였다. 이번 사업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 역할을 통해 우리 역사의 가치를 미래 세대 및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가 정체성과 문화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고 보여진다.



광복 80년 기념 영상콘텐츠 활용한 홍보협업(항공기 래핑)

5 광복 80년 공익광고 <다른 시대, 같은 마음>

시대가 변해도 연결되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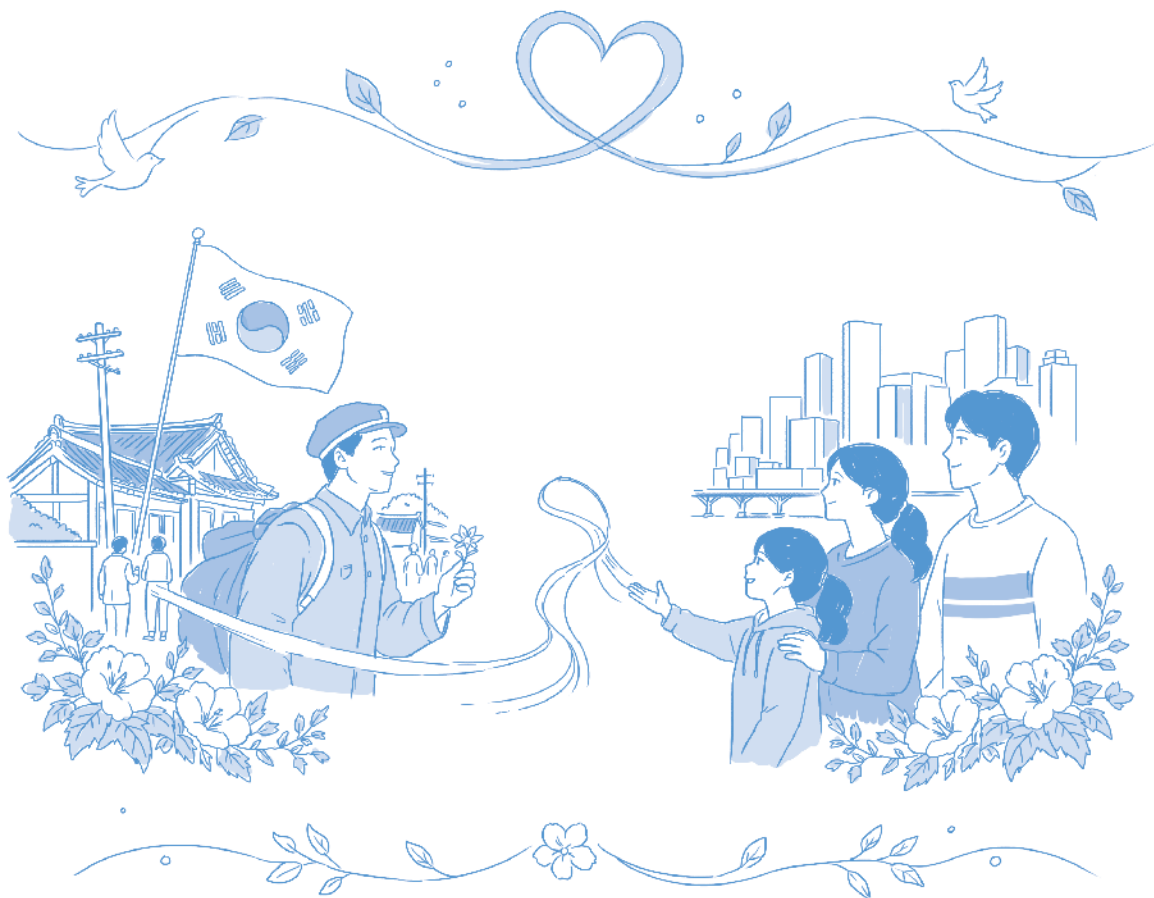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광복 80년을 맞아 공익광고 <광복 80년-공동체 의식>편을 제작하였다.

광고에는 시대가 변해도 이어지는 나라를 향한 마음을 핵심 메시지로 담았다.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송출되었으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과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도 상영되었다.



수많은 선열들의 나라를 향한 헌신은 사라지지 않고

8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광복 80년, 대한민국의 미래는 계속 이어집니다.

- 광복 80년 공익광고 내레이션 -

공동체 의식을 광고의 주제로

광고의 주제 ‘공동체 의식’은 국민 제안,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되었다.

4월부터 5월까지 제작사 선정 및 주요 촬영지인 파주를 중심으로 촬영이 진행되었으며, 6월부터 8월까지 광고가 송출되었다. 광고는 지상파·중편·케이블 등 120개 방송채널에 약 2만3천 회, 온라인 매체를 통해 약 440만 회 이상 송출되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는 국무총리와 이종찬 민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상영되었고, 8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에서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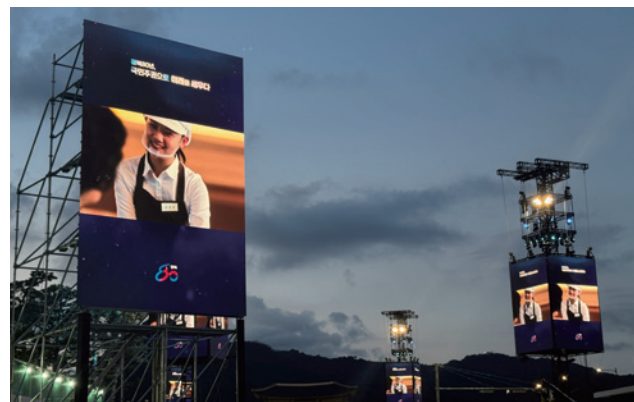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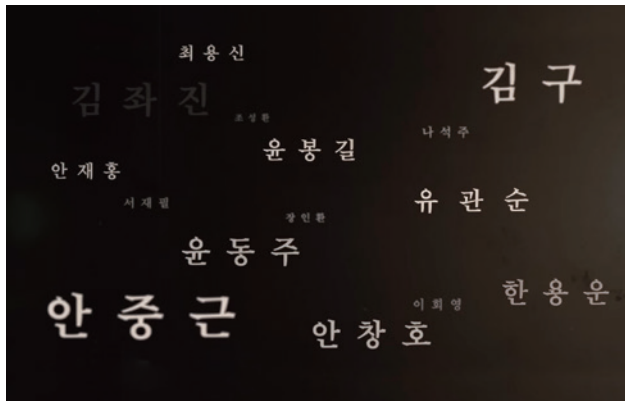
독립운동가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30초 분량의 광고는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으로 시작된다. 안중근·유관순·윤봉길·김구·윤동주·한용운 등의 이름이 화면을 채운 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국민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김구 선생의 안경,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 등을 매개로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며 마지막에 AI 기술로 재현된 독립운동가의 모습이 등장한다. 독립운동가와 동명이인의 국민을 나란히 보여주며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이라는 핵심 카피를 시각화하였다. AI 기술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정지된 사진 이미지가 아닌 움직이는 형태로 화면에 구현했으며, 배우 최수종이 재능기부를 통해 내레이션에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AI로 재현한 독립운동가와 오늘을 사는 시민을 나란히 배치하는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 이 광고는, 기술과 서사를 결합하여 역사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광복의 가치를 일상 속에서 다시금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다.

● 광복 80년 공익광고 송출 결과

송출 매체 및 행사	세부 내용
방송 채널 송출	• 지상파·중편·보도채널·케이블 등 120개 방송채널 총 23,853회 송출(2025년6~8월)
온라인 매체 노출	• 유튜브·티빙·웨이브 등 온라인 방송매체 / 약 440만 회 노출
SNS·유튜브 게재	• 코바코 SNS(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및 공익광고협의회 유튜브 채널 게재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	• 2025년 7월 21일 출범식 현장 상영(국무총리·이종찬 민간위원장 참석)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 2025년 8월 15일 광화문광장〈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현장 스크린 상영
언론 보도	• 연합뉴스·뉴스1 등(2025. 6. 16. 광고 제작 보도)

● <다른 시대, 같은 마음> 공익광고 스틸컷



〈중부매일〉 수록 기고문

광복 80년

광고로 보는 한국사회



조선(朝鮮)의 마음은 어딘(어떤) 마음인가
 선(善)한 마음인가, 악(惡)한 마음인가 둥근 마음인가,
 모진 마음인가 살려는 마음인가 죽으려는 마음인가
 그 마음이 가는 곳은 어디(어디)인가 공장(工場)인가 농촌(農村)인가
 농촌이라면 그곳의 조선의 마음은 엇딘(어떤) 마음인가.

신문광고에 담긴 해방의 기쁨과 혼란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35년 동안의 일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했다. 민족 정체성을 되찾는 순간이었지만 한국사회는 해방의 기쁨과 혼란이 공존했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자유를 체감했지만 통화 팽창에 따라 물가 상승이 극심했고 식량 상황도 불안정했다. 1945년 10월 5일에 미군정은 ‘미곡(米穀)의 자유시장’ 정책을 공포해 식량 유통의 제한을 완화했지만, 쌀과 옷 같은 기본 생필품조차 부족해 배급을 타려고 줄 서는 일상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광복 직후의 신문광고는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을 계몽하는 통로 기능을 했다.

“박진(朴震) 경성(京城)에 왔습니다. 좌기(左記) 주소(住所)로 연락(連絡)해야 주소/ 서울시 봉래정(蓬萊町) 일정목(一丁目) 금광호텔 전화 ② 4272”

(조선일보, 1945년 12월 5일)

박진 씨는 자신이 서울에 왔다고 금광호텔로 연락하라는 신문광고를 냈다. 스마트폰은 커녕 집에도 전화가 없던 시절의 동화 같은 풍경이다. 당시의 제약회사나 식품회사 광고에서는 태극기 이미지나 ‘광복’이란 카피로 해방의 감격을 표현했다.

해방을 알리는 독립의 증표, 체신국의 ‘태극기 우표’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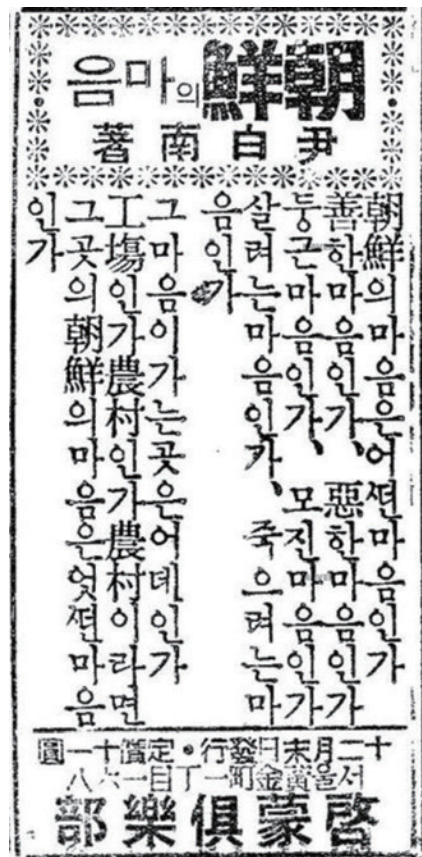
체신국의 ‘태극기 우표’ 광고에서는 ‘태극기 우표 독립 기념으로 발행’이란 헤드라인을 써서 광복의 기쁨을 알렸다. 보디카피는 이렇다.

“우리나라 독립을 기념하여(기념하여) 우표(郵票)도 일본 색채를 일소하고 국운을 상증(상징)한 새 우표가 나온다 - 체신국에서는 요지음(요즈음) 도안(圖案, 디자인)의 완성을 어더(얼어) 지난번 비행 편으로 미국예(예) 보내여(보내어) 인식(인쇄)하게 되었는데(됐는데) 이 우표는 이조(李朝) 광무(光武) 6년 이희황제(李熙皇帝) 칭경식(稱慶式, 기념 축하 행사) 기념으로 제정되었든(제정됐던) 것으로 마침 한일합방 관계(관계)로 한 번도 해빛(햇빛)을 보지 못하였던(못했던) 것을 기본으로 하여(하여) 수정한 것이다. 중앙에 태극기를 그려노코(그려놓고) 네 귀에 무궁화꽃(꽃)을 배치한 아담하고 깨끗한 것인데 가격은 위선(우선) 10전 5전의 두 가지다.”

해방 넉 달 만에 광고에 소개된 태극기 우표는 일제 강점기 때 금지됐던 태극기를 다시금 당당히 드러낸 상징물의 하나였다. 광복 직후의 불안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붙이는 태극기 우표는 독립의 확인서나 마찬가지였다.

광복 직후에 나온 수많은 출판물과 선언문이 말로 써 독립을 노래했다면, 태극기 우표는 그 노래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대중이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해방의 기념품이자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향한 참여의 매개물이었다.

지금 다시 이 광고를 살펴보면, 단순한 우표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 ‘우리가 우리임을 입증하려 했던’ 치열한 몸짓이었다. 태극기 우표 광고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 자존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공동의 약속을 전하는 작은 깃발이었던 셈이다. 해방의 감격을 개인적 환희로 끝내지 말고 ‘우리 것’을 되찾자는 계몽적 메시지도 많았다.



계몽구락부의 ‘조선의 마음’ 광고(조선일보, 1945년 12월 23일)

서원대학교 교수

김 병 희



대립의 혼란 속 나라를 위한 희망의 외침, 계몽구락부의 '조선의 마음' 광고

계몽구락부의 '조선(朝鮮)의 마음'(1945) 책 광고에서는 제목과 저자 이름을 헤드라인으로 쓰고 질문하는 형식의 카피 전략을 구사했다. 보디카피는 이렇다.

“조선(朝鮮)의 마음은 어떤(어떤) 마음인가 선(善)한 마음인가, 악(惡)한 마음인가 둥근 마음인가, 모진 마음인가 살려는 마음인가 죽으려는 마음인가 그 마음이 가는 곳은 어디(어디)인가 공장(工場)인가 농촌(農村)인가 농촌이라면 그곳의 조선의 마음은 어떤(어떤) 마음인가.”

12월 말일 발행에 책값은 11원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책이 출간되기 전에 예고 광고를 했다. 조선의 마음을 되찾기를 강조한 139쪽의 수필집은 초판 이후 1946년에 3판을 출간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윤백남(尹白南, 1888~1954)은 광복의 격랑 속에서 이 책을 썼다. 이

수필집은 '2천만 우리 농민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사회적 선언이었다. 작가는 일제의 수탈로 폐해진 농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자며 새로운 농촌 건설, 행복한 삶을 위한 자기완성, 민족의 일치단결, 그리고 정신의 재건을 촉구했다. 독자에게 직접 말하는 듯한 문체로 농민과 서민에게 호소한 이 수필집은 좌우 이념이 대립하던 해방 공간에서 당시의 정치 선동 구호와는 다른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지금 다시 이 책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되찾자는 절박한 외침이 메아리로 되돌아온다. 저자가 강조했던 희망의 정신은 한국 사회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계속 되새겨야 할 유산이다.

광고로 되짚어보는 해방 공간

광복 직후의 혼란한 상황에서 신문광고는 당시의 사회상을 압축한 작은 거울이었다.

당시의 광고에서는 소비마저도 민족적 자부심으로 연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상품 판매라는 광고의 목적을 넘어서 광복을 기념하는 해방 공간의 매개체로 작용했다. 사람들은 가난과 불안 속에서도 광고를 보며 ‘우리 것’을 갈망했다.

광복의 기쁨이 일상적 풍요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광고에는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 우리가 광복 이후의 광고를 다시 읽는다는 것은 단지 80여 년 전의 상품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방 공간의 사회 문화를 촘촘히 읽어내기 위해서가 아니겠는가?

“
지금 다시 이 광고를 살펴보면,
단순한 우표가 아니라
혼돈 속에서 ‘우리가 우리임을
입증하려 했던’ 치열한
몸짓이었다. 태극기 우표 광고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
자존과 희망,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공동의 약속을 전하는
작은 깃발이었던 셈이다.

”



3.

문화강국의 자긍심을 높이다



광복 80년을 거치며 대한민국이 여러 분야에서 일궂은 성취를 돌아보고, 오늘에 이른 국가적 위상을 국민이 자랑스럽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념사업들로 구성하였다. 특별전시와 기념품 발행, 박람회와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풍성한 콘텐츠를 통해 문화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1 광복 80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I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

광복 80년을 맞은 2025년 8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대한제국실에서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이 개막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사편찬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전시는 단순한 유물 전시가 아닌, 다양한 시기와 장소에서
독립을 향해 헌신한 이들의 기록을
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광복 80년,
다시 찾은 얼굴들



안중근,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안창호,
이 다섯 분은 모두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기에,
남아있는 사진에서 우리는 이분들의 미소를 볼 수 없었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볼 수 있게 된 환한 미소는 그토록 바랐던
조국의 광복을 맞이한 감동의 순간을 관람객에게 전할 것입니다.

— 국립중앙박물관 · 국사편찬위원회 —

독립운동의 흔적을 되살린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전시물로
는 실물이 처음 공개된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
85점이었다. 이 카드는 일제강점기 경찰이 수감
자와 감시 대상자의 신상 정보와 수배 이력을 관
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3·1운동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다. 1980년대 초 치안본부
(현 경찰청)에서 발견된 6,264매의 카드는 2018
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현재 국사편
찬위원회가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출품된 카드에는 유관순 열사의 수감 중
유일한 사진을 포함해,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며
점차 수척해진 안창호 선생의 모습이 담겨 있었
다. 또한 이름조차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
동가들의 얼굴도 공개되어, 독립을 향한 치열한
삶과 시대의 흔적을 생생하게 전했다.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 영상 포스터

복원영상
바로가기



안중근



유관순



이봉창



윤봉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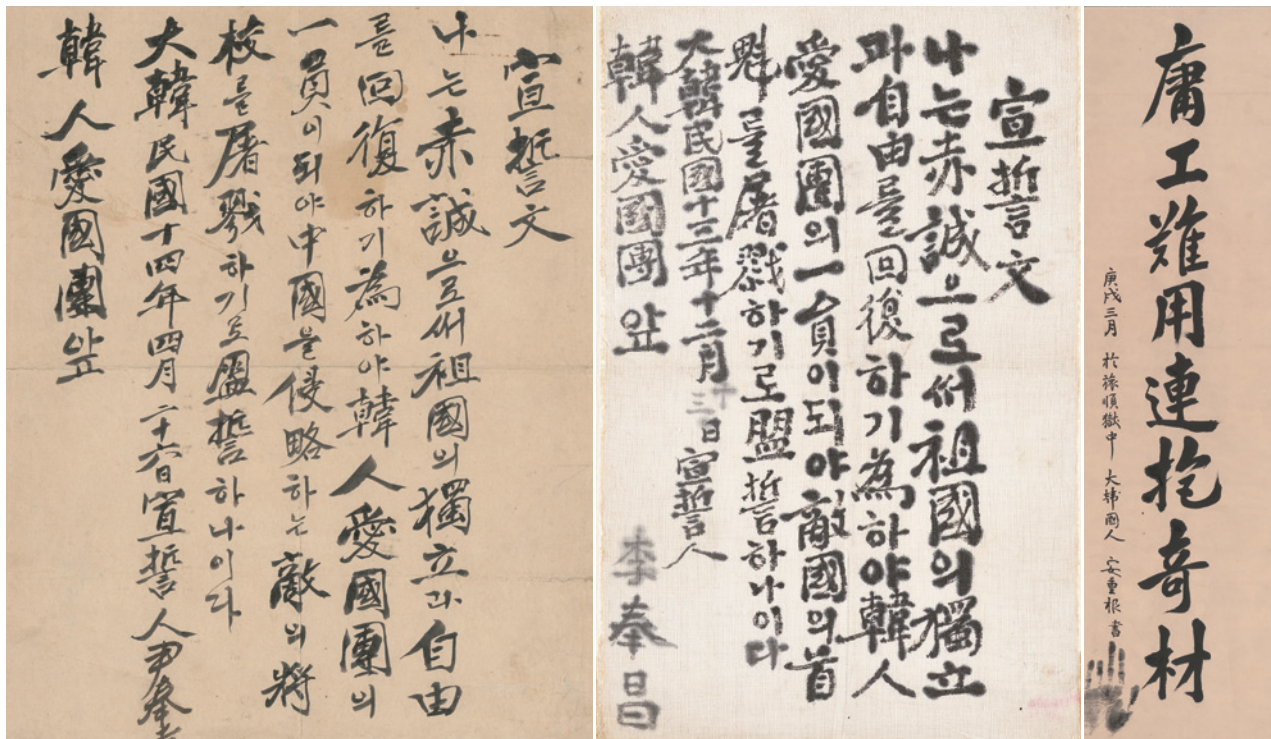
안창호



전시영상 바로가기

● 전시 주요 자료

주요 전시 자료	주요 내용
데니태극기 (보물)	•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182×262cm) • 고종이 조선의 외교 고문 오웬 데니(Owen N. Denny)에게 하사(1890년 무렵 제작) • 1981년 후손 윌리엄 랠스턴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2021년 보물로 지정)
안중근 의사 유묵 (보물)	• 안중근 의사가 뤼순 감옥에서 남긴 글씨 • 〈庸工難用 連抱奇材(용공난용 연포기재)〉 '재주가 서투른 목수는 아름답드리 나무나 진기한 나무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뜻으로 인재기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
이봉창·윤봉길 의사 선서문 (보물)	• 한민애국단의 일원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 회복을 위해 목숨 바칠 것을 맹세한 두 의사의 친필 선서 기록
일제강점기 인물카드 85점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 일제강점기 경찰이 수감자·감시대상의 신상 정보를 기록한 카드 • 1980년대 치안본부에서 국사편찬위원회로 이관 • 총 6,264매(4,855명), 2018년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 최초의 실물 출품 전시
독립운동가 5인 AI 복원 영상	• 광복을 보지 못하고 순국한 독립운동가 5인(안중근·유관순·이봉창·윤봉길·안창호)의 얼굴을 AI 기술로 복원, 광복을 맞이한 환한 미소로 연출한 영상



〈광복 80주년, 다시 찾은 얼굴들〉 ‘윤봉길 의사 선서문’(좌), ‘이봉창 의사 선서문’(가운데), ‘안중근 의사 유묵’(우)

감시를 목적으로 제작된 기록은 80년의 시간을 거쳐 독립운동의 실상을 증언하는 역사적 사료로 되살아났으며, 관람객들은 이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마주할 수 있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 ‘데니태극기’, 디지털로 다시 펴력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개막에 맞춰 열린마당 실감형 전광판에 영상 콘텐츠로 구현한 데니태극기를 공개하였다. 또한 같은 영상이 신세계와의 협업을 통해 명동 ‘신세계스퀘어’에도 게시되었다. 특히 ‘신세계스퀘어’에 게시된 영상에는 디

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초대형 데니태극기가 명동 하늘에 펴력이는 듯한 시각 효과를 구현했으며, 광복절인 8월 15일에는 하루 종일 데니태극기 게양 영상이 상영되었다.

전시에서는 데니태극기 외에도 안중근 의사의 옥중 유묵, 이봉창·윤봉길 의사의 선서문 등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주요 독립운동 자료가 함께 공개되었다. 또한 전시실에서는 안중근·유관순·이봉창·윤봉길·안창호 등 다섯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AI 기술로 복원한 영상도 상영되어, 광복을 보지 못하고 순국한 이들의 모습을 새로운 시대의 기술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전시는 과거의 기록을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연결하며, 광복 80년의 의미를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명동 신세계스퀘어에서 ‘데니태극기’ 상영하는 모습

2 광복 80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Ⅱ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

1936년 8월 9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사람의 가슴에는 일장기가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 두 발이 밟고 달린 42.195킬로미터는
나라를 잃은 조선 민족이 세계를 향해 존재를 선언한 역사였다.

광복 80년을 맞아 국립중앙박물관이 펼친 두 번째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는
손기정(1912~2002) 선수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발자취를 조명하는 전시였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과 월계관, 청동투구를 비롯해
손기정의 삶과 여정을 보여주는 전시품 18점이 한 자리에 전시되었다.



나라를 가진 민족은 행복하다.

제 나라 땅에서 구김살 없이 달릴 수 있는 젊은이는 행복하다.

과연 그들을 막을 자가 누구인가.

— 1983년 손기정 자서전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서문 중에서 —

족패천하(足霸天下):

두 발로 세상을 제패하다

전시 제목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는 1947년 백범 김구 선생이 손기정과 그의 제자 서운복 선수의 보스턴 마라톤 우승을 축하하며 써준 휘호 ‘족패천하(足霸天下)’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전시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을 시작으로, 광복 후 ‘KOREA’팀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석권, 1988년 서울 올림픽 성화 봉송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하며 우리에게 희망을 전달했던 손기정의 여정을 통해 광복 80년의 의미를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금메달, 월계관, 청동투구에 담긴 이야기

전시는 주제 영상 〈승리의 길〉로 시작한다. 1부 ‘나는 KOREA에서 온 손기정이오’에서는 박물관 소장품인 손기정 기증 청동투구(보물)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월계관, 우승상장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자리에 전시되었다. 이 네 점의 동시 전시는 광복 80년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에 처음 공개된 자료들이 관람객을 맞았다. 우승 직후인 1936년 8월 15일, 손기정이 ‘KOREA 손기정’이라는 한글 이름으로 직접 서명한 자필 사인 엽서가 최초 공개되었다. 또한 1936년 뉴욕타임즈 기사와 잡지, 베를린 올림픽 화보도 처음으로 세상에 나왔다. 특히 뉴욕타임즈 기사는 손기정이 한국인임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독립 정신과 민족 정체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귀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 손기정 기증 금메달



손기정 기증 월계관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 손기정 기증 고대 그리스 청동투구

한 자료로 평가받았다.

2부 ‘KOREA팀, 세계를 제패하다’는 광복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손기정을 중심으로 한 ‘KOREA’팀이 1947년과 1950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를 연이어 석권하며, 혼돈기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준 한국 마라톤의 역사를 조명했다. 그리고 아웃트로(OUTRO)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성화봉송자로 나선 노년의 손기정을 만난다. 베를린의 금메달리스트가 반세기가 지난 후 고국의 하늘 아래에서 다시 달린 그 순간까지 담아낸 이번 전시는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광복 80년을 온전히 담아냈다.

● 전시 구성

구분	전시 주제	주요 내용
INTRO	‘승리의 길’	1936년 일장기를 달고 달려야 했던 청년 손기정, 1947년, 1950년, 태극기와 KOREA의 이름으로 세계를 제패한 그의 제자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의 성화 봉송주자로 나선 노년의 손기정의 모습을 AI 영상 기술로 영광의 순간을 재현
1부	‘나는 KOREA에서 온 손기정이오’	- 베를린 올림픽 ‘금메달 · 상장 · 월계관 · 청동투구(보물)’를 한자리에 동시 전시 (2011년 이후 최초) 1936년 8월 15일 ‘KOREA 손기정’ 한글 친필사인 엽서 최초 일반 공개 1936년 뉴욕타임즈 기사, 잡지, 베를린 올림픽 화보 최초 공개
2부	‘KOREA팀, 세계를 제패하다’	- 광복 후 손기정을 중심으로 한 ‘KOREA’팀의 1947년, 1950년 보스턴 마라톤대회 연속 석권 자료 전시 - 혼돈기 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준 한국 마라톤 역사 조명
OUTRO	‘1988년 서울 올림픽 희망의 불꽃을 들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성화봉송자로 나선 노년의 손기정 기록 전시 - 베를린의 금메달리스트가 반세기 후 고국에서 최초로 열린 올림픽에서 다시 달린 장면 전시



이봉주 선수와 함께한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

현재로 이어지는 빛나는 발자취: 손기정에서 이봉주까지

손기정의 베를린 올림픽 우승 기념일인 8월 9일에는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와 시민대표 러닝크루 'prrc1936'이 전시를 빛냈다. 이들은 손기정 선수와 제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전시를 관람하며, 일제강점기 억압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지켜낸 손기정 선수의 빛나는 여정을 체험하였다. 이어서 다음날인 8월 10일에는 관람객이 전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참여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손기정의 뒤를 이은 레전드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오늘날의 러닝 문화를 주도하는 시민대표 러닝크루, 일반 관람객까지, 전시를 통해 모두

가 한자리에 모여 손기정 선수의 멈추지 않는 민족정신을 되새겼으며, 이는 그의 정신이 과거의 발자취에서 현재로 이어져 나아가 앞으로의 미래를 향한 희망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

광복 80년, 달리기로 다시 읽다

손기정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지만, 그의 달리기는 한 사람의 승리에 머물지 않았다. 광복 이후에는 제자들을 이끌며 보스턴 마라톤을 두 차례 제패했고,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는 성화 봉송 주자로 고국의 땅을 다시 달렸다.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는 이러한 손기정의 긴 여정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은 전시였다.

광복 80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전시는 손기정 개인의 일대기를 넘어, 광복 이후 우리 민족이 걸어온 80년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식민지 시대의 아픔 속에서도 세계를 향해 달렸던 발걸음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전의 역사로 이어졌으며, 관람객들은 전시를 통해 시대를 관통한 손기정의 정신과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길 수 있었다.

3 광복 80년 특별전시 <우리들의 이순신> 전란 속 공동체를 지킨 정신

광복 80년과 이순신 탄신 480주년이 겹친 2025년,
국립중앙박물관은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개최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최초로 열린 이번 전시는
전란 속에서 공동체를 지켜낸 이순신의 삶과 정신을 통해
공존, 평화, 연대의 가치를 조명하였다.
전시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2026년 3월 3일까지 96일간 개최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 역사상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전시 가운데
최대 관람객을 기록하여(40만여 명) 우리 문화유산 전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병법에서,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이 좁은 길목을 지키면, 천 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 우리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

— <난중일기>, 1597년 9월 15일(명량대첩 전날) —

왜 이순신인가

이번 전시는 이순신의 승리와 시련, 성찰과 사후의 기억까지를 연속적인 서사로 엮어 총 4부로 구성하였다. 영웅의 신화에 머무르지 않고, 이순신이 직접 남긴 기록을 중심으로 인간 이순신의 내면과 시대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명한 것이 전시의 핵심이다. 전시에는 총 369점의 전시품이 출품되었으며, 국내외 45개 기관 및 개인 소장가의 협조를 받아 사상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다. 특히 <난중일기>를 비롯한 이순신 종가 유물 20건 34점의 진본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공개되었다.

또한 임진왜란의 침략국인 일본 다이묘 가문이 보관해 온 유물이 국내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이는 임진왜란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서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 귀중한 자료로, 화해와 협력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자 하는 전시기획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의 이순신〉 전시 포스터

● 전시 구성

구성	전시 주제	주요 내용
프로로그	이순신의 바다	폭풍 전야, 전쟁이 임박한 순간의 이순신의 결의를 보여줌
제1부	철저한 대비, 그리고 승리	- 임진왜란 이전 이순신의 철저한 전비(戰備) 과정과 한산도 대첩으로 이어지는 조선 수군의 전술 체계를 소개 - 삼도수군통제사로서 한산도에 진을 경영했던 지휘관 이순신의 면모를 조명
제2부	시련과 좌절의 바다를 넘어	- 백의종군과 칠천량 패배를 거쳐 명량대첩의 기적, 그리고 노량해전으로 이어지는 절망과 재기의 서사를 다룸 - 노량해역 출수 유물, 일본·스웨덴 소재 유물 등을 통해 전쟁의 전개를 입체적으로 보여줌
제3부	바다의 끝에서 나를 돌아본다	- 노량해전에서 생을 마감한 이순신의 시선으로 그의 삶 전반을 조명 - 출생부터 임진왜란 이전까지의 이력을 반추하며, 전쟁 영웅 이전의 인간 이순신의 내면(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염려 등)을 <난중일기>를 통해 살펴봄
제4부	시대가 부른 이름	- 이순신 사후 조선·근대·현대에 걸쳐 시대가 기억한 이순신을 추적함 - 각 시대가 필요로 한 이순신의 형상화 과정 및 그의 정신이 지닌 현재적 의미와 보편적 가치를 조명함
에필로그	우리들의 이순신	이순신에 대한 평가, 이순신이 기억한 함께한 사람들, 우리들의 이야기로 마무리



〈인간 이순신을 말하다〉 강연·토론회 개최 모습

● 전시 주요 자료

자료명	의의
〈난중일기〉(국보)	· 임진일기(1592)~무술일기(1597), 이순신의 친필 기록
〈임진장초〉(국보)	· 이순신이 임금에게 올린 장계 61편을 후대에 베껴 엮은 첩
〈서간첩〉(국보)	· 이순신이 외가 친척에게 보낸 편지 모음, 친필 확인 가능
〈이순신 장검〉(국보)	· 1594년 4월 태귀련·이무생이 제작, ‘三尺誓天 山河動色, 一揮掃蕩 血染山河’ 명문 새김
〈징비록〉(국보)	· 류성룡의 임진왜란 회고록
정왜기공도병	· 6쪽 2틀 구성,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두 기관에 분리 보관되던 병풍이 이번 전시에서 처음 재결합되어 전시
노량해역 출수 지자총통편	· 각각 국립광주박물관과 해군사관학교 박물관 두 기관에 분리 보관되던 파편이 이번 전시를 통해 동일 총통임을 확인
일본 다이묘 가문 소장 유물	· 투구, 창, 금박장식투구, 울산왜성전투도 병풍 등 국내 최초 공개

기록에서 영상으로 펼친 이순신의 시간

전시는 기록 중심의 절제된 연출을 바탕으로,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 영상 콘텐츠 10건을 함께 구성하였다. 도입부의 실감형 영상은 전쟁에 임하는 이순신의 결의를 바다 이미지와 함께 전달하였으며, 조선 수군의 전술을 시각화한 무기 운용 영상, 〈난중일기〉 원문과 전투장면을 쉽게 풀어낸 정보 영상,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순신을 다룬 인터뷰 영상 등이 이어진다. 에필로그 영상 〈우리들의 이순신〉은 이순신의 죽음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이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조선에서 현대, 그리고 세계로 확장되는 이순신의 기억을 담아냈다. 여기에 관람객의 얼굴 위에 이순신이 느껴졌을 감정의 단어를 입히는 디지털 콘텐츠와 전시장 전체에 구현된 바다의 사운드시케이프가 더해져, 관람객은 단순히 유물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이순신의 내면과 시대를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배움공간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 다양한 세대가 이순신의 삶과 정신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란의 시대를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

전시는 관람에서 끝나지 않았다. 1월 16일 강연·토론회와 1월 22일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이순신의 정신과 기록,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날에 갖는 의미를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시를 통해 유물을 보고, 학술행사를 통해 기록을 고찰함으로써 이 전시를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닌 지적 공론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번 특별전은 위인을 기념하는 자리를 넘어, 기록 속 인간 이순신을 통해 오늘의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전시였다.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이순신의 결단과 책임의식은 광복 80년의 시간을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용기를 전해주었다.



〈이순신의 재발견〉 학술 심포지엄 전경

4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군

광복 80년, 군이 전한 메시지

광복 80년을 맞이한 2025년, 대한민국 국군은
기념식장과 연병장을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광복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누었다.
10월 1일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전국 각지에서 열린 군 음악회,
전군 최대 규모의 지상군 페스티벌, 사진 공모전, 서울 ADEX 2025 국방홍보관까지,
국군이 마련한 다양한 행사마다 독립의 역사가
오늘의 강군으로 이어진다는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독립군과 광복군의 투쟁이 없었다면 광복 80년 역사는 불가능했습니다.

오늘의 강군은 그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 대통령 기념사(YTN 생중계 자막) —

계룡대에서 열린 국민의 축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2025년 10월 1일,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거행되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을 주제로 진행된 대통령 참석 행사였다.

이번 행사의 특징 중 하나는 국민대표 77명이 장병들과 함께 동반 입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국민대표, 행사 참여 장병, 모범 장병이 기념 오찬 테이블에 함께 자리하였으며, 군·정부 인사, 국회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의 군대’라는 행사 취지를 구체적으로 구현했다. 식전 행사에서는 열병과 의장 시범이 진행되었으며, 기념식에서는 대통령의 기념사와 훈·포장 수여가 이루어졌다. 식후 행사에서는 민군 합동 태권도 시범과 광복 80년 엠블럼을

부착한 블랙이글스의 곡예비행이 펼쳐졌다. 행사 전후로 AI 응원가, 댄스챌린지, 국군응원(#MyHERO77) 이벤트 등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 행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로서 의미를 더했다.

선물로 기억되는 광복, 군 음악회 연보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군의 메시지는 음악을 통해서도 전달되었다. 국방부,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주관한 음악회가 연중 네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각 행사는 6·25전쟁 75주년 및 광복 80년을 함께 기리는 의미를 담았다.

6월 30일 롯데콘서트홀에서는 국군교향악단 주관으로 호국 음악회가 열렸다. 6·25전쟁 75주

●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개요

일시	• 2025년 10월 1일(수) 09:20~12:35
장소	• 계룡대 대연병장
주제	•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강군
주관/주최	• 국방부 /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
행사 병력	• 998명
초청·참관인	• 3,501명(정부·국회 51명, 지자체장 21명, 국민대표 77명, 전쟁영웅·유가족·보훈·예비역 단체 421명, 외국군·대사 178명 등)
주요 순서	• 식전행사(열병·의장시범) → 기념식(대통령 기념사·훈포장 수여) → 식후행사(민군통합 태권도 시범·블랙이글스 곡예비행) → 기념 오찬
홍보·이벤트	• AI 응원가·댄스챌린지, #MyHERO77 SNS 이벤트, 국군의 날 공식 브랜드·메이킹 영상



광복 80년 기념 육군사관학교 군악연주회 포스터

년과 광복 80년을 함께 기념하는 이 공연에서는 베르디의 레퀴엠이 무대에 올랐다. 국군교향악단이 연주하고, 노이오페라코러스와 위너오페라합창단이 합창에 참여했다. 7월 18일 KBS홀에서 열린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는 광복 80년과 국방부 군무지원단 창설 36주년을 기념하

는 자리였다. 8월 15일 광복절 당일에는 대전중앙로역 특설 무대에서 육군 군악의장대와 함께하는 보훈음악회가 열렸다. 대전광역시와 대전지방보훈청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 음악회는 광복절 밤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10월 15일에는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 특설 무대에서 육사 군악대 정기연주회가 광복 80년을 기념해 개최되었다.

렌즈로 담은 강군의 자부심, 광복 80년 사진 공모전

국방홍보원(국방일보)은 현대로템과 함께 광복 80년을 계기로 <승리하는 국군, 자랑스러운



군 음악회 연보 행사 개요

일자	행사명	장소	주요 내용
2025. 6. 30.(월)	국군교향악단 호국 음악회	롯데콘서트홀	6·25전쟁 75주년 · 광복 80년 기념 공연 - 베르디 레퀴엠(국군교향악단, 노이오페라 코러스, 위너오페라합창단)
2025. 7. 18.(금)	국방부 군악대대 정기연주회	KBS홀	광복 80년 · 국방부 군무지원단 창설 36주년 기념 공연
2025. 8. 15.(금)	광복 80년 기념 보훈음악회	대전중앙로역 특설무대	- 육군 군악의장대 공연 - 대전광역시 · 대전지방보훈청 공동 주관
2025. 10. 15.(수)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정기연주회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 특설무대	- 광복 80년 기념 공연 - 지휘 정영호, 소프라노 이한나 출연



국군교향악단 호국음악회 공연 현장

《K-방산》사진 공모전을 공동 개최했다. 공모전은 전국의 장병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105일간 총 87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그 중 20여 편의 우수작을 국방일보 지면에 소개하였으며, 현대로템 방산 홍보물 제작시에도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국방일보는 광복절 당일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광복절 행사 홍보 지면을 운영하는 등 인쇄 매체를 통한 광복 80년 메시지를 전달했다.

광복의 메시지가 더 넓은 무대로, 지상군 페스티벌과 ADEX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계룡대 활주로에서

〈2025 지상군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육군이 주최하는 전군 최대 규모의 군 문화 축제로, 계룡군 문화축제와 함께 3개 테마, 57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다. 이 가운데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4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독립기념관과 연계하여 운영된 〈나라 사랑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부스에는 5일간 1,300개의 체험 물품을 준비하여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했다. 개막식에서는 광복 80년 엠블럼을 부착한 블랙이글스의 특수비행을 선보였으며, 광복 80년 기념 홍보부스를 통해 행사장 전체에 태극기 물결이 조성되어 나라 사랑 분위기가 시각적으로 구현되도록 했다. 그 외 통합 포스터 제작·배포, SNS 홍보 콘텐츠 업로드, KFN 광고 등의 홍보 활동도 9월 중 함께 실시하였다.

● 지상군 페스티벌 프로그램 개요

구분	프로그램	세부 내용
홍보부스	독립기념관 연계 체험 부스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에어쇼	개막식 특수비행	광복 80년 엠블럼 부착 블랙이글스 특수비행
전시	기념 홍보부스	광복 80년 기념 홍보 전시 운영
홍보	SNS · KFN 광고	통합 포스터 제작 · 배포, SNS 업로드, KFN 광고 집행

〈2025년 서울 ADEX(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 산업전시회)〉에 대한민국 국방홍보관을 설치하여 광복 80년의 의미와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동시에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홍보관 입구와 전시 패널에 광복 80년 엠블럼을 배치함으로써 방위산업 전시회 방문객들이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복의 역사 위에 선 강군

2025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국군은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광복 80년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누었다. 행사별 형식과 규모는 달랐지만, 각 행사에 일관되게 담긴 메시지는 독립운동의 역사가 오늘의 강군을 있게 한 뿌리라는 것이었다. 이는 광복 80년을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군과 국민이 함께 공유하는 현재의 이야기로 만든 기록이다.



〈2025 서울 ADEX〉 전시 포스터



전시관 전경

5 광복 80년 기념품 발행 및 연계 사업 추진

손에 쥘 광복, 주화·굿즈·우표가 전한 80년의 무게

광복 80년을 맞아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세 기관이 각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념 주화·굿즈·우표를 제작하여 광복 80년 기념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다.

세 사업 모두 사업 초기 단계부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후 광복 90년, 100년 기념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기관 간 공동기념품 추진 선례를 만들어내었다.



2025년은 우리나라가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민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통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기념주화 2종을 발행합니다.

- 한국은행 -

통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광복 80년 기념주화

한국은행은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은화 2종(액면가 각 70,000원)을 발행하였다. 2024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사전 실무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2025년 3월 발행 주제 마련, 디자인 자문 회의를 거쳐 4월 11일 디자인 최종 시안을 확정하였다. 디자인은 과거와 현재 세대의 통합,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림과 광복 80년 엠블럼 및 슬로건을 포함하여 구성되었다. 그러나 광복 80년 엠블럼 확정 지연에 따라 당초 5월로 예정되었던 발행 승인 절차가 잠정 보류되었다가, 7월 21일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엠블럼이 최종 확정되면서 당일 금통위 안건 결재, 7월 24일 금통위 발행 의결이 이루어졌다.

8월 11일부터 9월 2일까지 한국조폐공사·우리은행·농협은행을 통해 구매 예약 접수를 하였으며, 총 14,000장(종별 7,000장)에 27,000여 명이 신청하여 평균 경쟁률 1.95 대 1을 기록하였다. 9월 9일 추첨을 거쳐 10월 28일부터 당첨자에게 개별 교부를 시작하여, 광복 80년 기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광복 80년 기념 굿즈, 폐화폐의 재탄생

한국조폐공사는 기념주화 제조·판매 외에도 기념메달, 기념골드바, 폐화폐 활용 볼펜·달력, 연구용 지폐(하우스노트), 여권 개별봉투 등 다



광복 80년 기념 은화 2종(앞면 사진)

양한 기념품을 기획·제작하였다. 모든 품목에는 광복 80년 엠블럼을 반영하였으며, 2024년 11월부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단과 디자인 및 활용 방안을 사전에 협의하여 완성도와 활용도를 높였다.

기념메달의 발행 수량(금 815장·은 1,945장)과 기념 골드바의 무게(8.15g·19.45g)·수량(각 815장)은 광복절(8월 15일)과 광복의 해(1945년)를 의미하는 수치로 설정하였다. 폐화폐 볼펜과 달력은 화폐제조 과정 중 발생하는 불량화폐 등의 화폐 부산물을 원료로 제작하여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8.2.)> 부상품으로 지원하였으며, 연구용 지폐(하우스노트)는 스탬프 투어 부상품으로 활용하였다.



광복 80년 기념굿즈 폐하페 볼펜 2종



광복 80년 기념 우표 전시

광복의 정신을 담은 광복 80년 기념우표

우정사업본부는 2024년 2월부터 준비를 시작하여 광복 80년 기념우표(1종) 52만 5,000장을 출시하였다. 우표에는 고 윤용하·정인보 선생이 작사·작곡한 〈광복절 노래〉의 가사를 담았으며, 이는 광복의 환희와 슬픔, 결의를 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기념사업위원회 출범 이전에 인쇄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우표 자체에는 광복 80년 엠블럼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안내카드와 날짜 도장에는 부분적으로 반영하였다. 날짜 도장은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우체국에서 기념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다.

세 기관의 협력이 남긴 것

한국은행의 기념주화 1만 4,000장은 평균 1.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한국조폐공사의 다양한 기념 굿즈는 〈광복 80년 기념 전시 스탬프 투어〉,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 등 광복 80년 연계 행사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인기리에 배포되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의 기념우표 52만 5,000장은 전국 우체국을 통해 배포되었다.

세 기관 모두 2024년 말부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디자인과 활용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 결과, 향후 광복 90년, 광복 100년 기념사업에도 적용 가능한 기관 간 공동 기념품 추진 선례를 만들어내었다. 광복의 의미를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기념품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하였다.

6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계기 광복 역사 조명 프로그램

대한민국 청소년, 역사를 품고 미래를 열다

2005년 시작된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올해로 제21회를 맞았다.

성평등가족부, 경상북도, 안동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2025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64,168명이 참가하였다.

주제는 ‘대한민국 청소년, 역사를 품고 미래를 연다’였으며,

광복의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멘토 강연, 공모전, 경연대회 등이 운영되었다.



광복 80년에 열리는 제21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가
우리 역사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다양한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 신영숙 성평등가족부 차관 —

독립운동의 도시 '안동'

이번 박람회의 개최지로 경북 안동이 선정된 배경에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하였다. 성평등가족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안동을 선택하였으며, 경상북도·안동시 간의 공동 주최 체계를 구축하였다.

2024년 10월 박람회 주관기관으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선정 완료하였고, 2025년 2월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박람회 개최를 안내하였으며, 5월까지 세부 계획 수립과 홍보를 마쳤다. 재정경제부, 교육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20개 이상의 부처와 기관이 후원·협조에 참여하였다.

6만 청소년에게 특별하게 기억될 광복

이번 박람회는 행사 컨셉을 광복 80년 기념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나라사랑마당>을 포함한 6개 주제별 체험 공간과 국립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특별 부스 등 200여 개의 체험 활동 공간이 운영되었다.

<나라사랑마당>은 광복 80년 기념을 위해 특별 구성된 공간으로, 남북한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한 인생네컷 무인 사진 발급기, 독립운동가 소개 부스 등이 운영되었다. 또한 국가보훈부와 보훈교육연구원이 운영한 <광복 80년 AR 프로그램 체험>과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통일미래 첨단 기술 활용 체험>도 함께 배치되어 역사·기술 연계 콘텐츠를 제공하였다.

박람회에서는 사흘간 개막식·기념식, 멘토 특강, 대토론회, 경진대회, 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병행 운영되었다. 첫째 날, 개막식과 기념식, 청소년 북콘서트, 버스킹 공연으로 문을 열었고, 둘째 날에는 교육 뮤지컬 <블랙홀>, AI 윤리 활동 선포식, 전국 청소년 힙합 댄스 경연대회, 청소년 정책 현장 포럼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에도 대한민국 청소년 대토론회,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경진대회,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폐막식으로 사흘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박람회 개막 전 사전 이벤트로는 <나만의 선언문> 작성 캠페인을 진행해 박람회 참가 전 청소년들이 광복의 의미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박람회 마지막 날에 개최된 <대한민국 청소년 대토론회>에서는 청소년특별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현장 스케치



<나라사랑마당> 통일메시지 달기 체험 부스



독립운동가 소개 부스 현장

의 위원과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안전·보호’를 주제로 의견을 교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7개 팀이 본선 심사를 받았다.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장관상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상이 수여되었다.

청소년과 역사의 만남

박람회 홍보는 행사 이전부터 현장, 이후까지 다층적으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채널에서는 광복

80년을 강조한 스폿 영상이 SNS를 통해 게재되었고, KTX 내 광고영상, 정부 청사 영상 및 게시판 홍보, 안동 시내 가로등 배너·현수막·보드광고 등이 병행되었다. 5월 30일에는 여성가족부 블로그 정책기자단 활동 후기가, 7월 23일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민참여단 활동 후기가 게재되어 현장 기록으로 남았다.

이 박람회는 청소년들이 광복 80년을 맞아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참여의 장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 박람회 주요 일정

일자	주요 내용
5. 22.(목)	• 개막식 및 청소년의 달 기념식(청소년 육성·보호 유공 정부포상 수여) • 멘토 특강: 김소정PD <도전하는 자세의 중요성> • 청소년 북콘서트(청글넷) • 버스킹 공연 • 가상현실 피구경기(XR 피구 HADO)를 비롯한 디지털 역량마당
5. 23.(금)	• 멘토 특강— 이선호 과학소통가 <행복한 융합형 인재가 되는 법> • 교육 뮤지컬 <블랙홀>(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예방) • AI 윤리 활동 선포식 • 전국 청소년 힙합 댄스 경연대회(예선·결선) • 청소년 정책 현장 포럼
5. 24.(토)	• 멘토 특강— 박세미 희극인 <꾸준한 노력과 도전의 중요성> • 대한민국 청소년 대토론회(주제: 안전·보호, 청소년특별회의 위원 참여)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경진대회 본선(예선 통과7개 팀) • 경북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발대식 • 경상북도 청소년 페스티벌 • 희망 토크 콘서트(주동근 작가) • 폐막식

7 2025 대한민국 과학축제

〈과학문화 팝업 별별잡화점〉

2025년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별난 과학, 별난 경험을 모은 곳’이라는 주제로

체험형 팝업 행사 〈별별잡화점〉이 서울 성수동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아 대한민국 과학기술 80년의 역사를

실생활과 연계된 체험 방식으로 소개하는 코너가 함께 운영되어,

관람객들이 지난 80년 동안 과학기술을 통해 이룬 발전과

그 역사적 의미를 일상과 연결된 체험을 통해

더욱 친숙하게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과학축제 팝업행사를 통해

광복 80년 계기 과학의 달의 의미를 느끼고,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을 더욱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정우성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

별난 과학이 모인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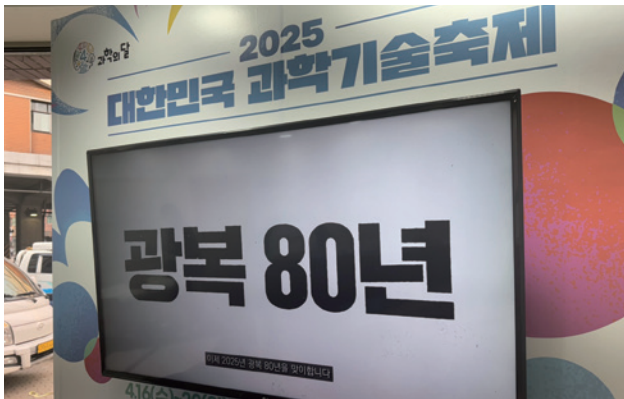
〈별별잡화점〉은 홍보·체험·특별전시 3개 코너로 구성되었다. 입구에서 과학기술문화 캐릭터 ‘디로와 라노’가 관람객을 안내하였고, 방문객은 세 공간을 돌며 ‘과’, ‘학’, ‘의’, ‘달’ 스탬프를 모두 완성하면 〈행운의 별별 잡기(럭키드로우)〉에 참여하여, ‘디로와 라노’ 캐릭터 굿즈 1종을 랜덤으로 받을 수 있었다.

홍보 코너 〈별별라운지〉에서는 과학의 날과 4월 과학의 달의 유래를 소개하고, 다양한 과학기술 기관의 마스코트를 굿즈로 만나볼 수 있었다.

체험형 부스 코너인 〈별별실험실〉은 AI 이미지 생성형 플랫폼을 활용한 ‘나만의 과학의 달 그리기’, 대중에게 생소한 ‘정부출연연구소’를 카드게임을 통해 알아갈 수 있는 ‘몽땅뚝딱 연구소’ 등의 체험존으로 구성되었다.

특별전시 코너인 〈별별보물창고〉에서는 광복 80년 간의 과학기술 주요성과를 연대기 형식으로 벽면에 전시하고, 해당 내용과 관련한 퀴즈 맞추기 및 과학계에 전하고 싶은 국민 메시지 작성 공간 등이 운영되었다.

주요 코너명	주요 내용
별별라운지	- 과학축제 홍보존 - 과학기술문화 캐릭터 ‘디로와 라노’가 관람객을 맞이하며, 과학의 날·4월 과학의 달의 유래 소개 - 다양한 과학기술 기관 마스코트 굿즈 전시
별별실험실	- 과학축제 체험형 부스존 - AI 이미지 생성형 플랫폼을 활용한 ‘나만의 4월 과학의 달 그리기’ - 카드게임으로 정부출연연구소를 소개하는 ‘몽땅뚝딱 연구소’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별별보물창고	- 과학축제 특별전시존 - 광복 80년 기념 과학기술 연대기 전시 - OX 퀴즈 키오스크, 국내 과학계 응원 메시지 작성 공간 등 운영



행사장 내 광복 80년 기념 영상 상영 모습



〈별별잡화점〉 관람객 참여 모습

핫플레이스에서

미래 세대와 함께한 별난 과학 경험

강연장이나 전시관이 아닌, 2030 세대가 일상적으로 찾는 성수동 팝업 공간에서 과학을 소개한 이번 행사는 기존 과학문화사업과 구분되는 새로운 시도였다.

〈별별잡화점〉은 ‘별난 과학, 별난 경험을 모은 공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과학기술을 어렵고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문화와 놀이의 방식으로 쉽고 친숙하게 풀어내고자 기획되었다. 과학기술 문화 캐릭터와 굿즈, AI 이미지 생성 체험, 카드

게임 등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관람객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과학을 경험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이색적이면서도 무겁지 않은 일상 속 놀이 문화로서 과학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기획하여 2030 세대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촉진하였으며, 광복 80년과 연계한 과학기술 주요 성과 전시와 메시지 공간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의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성수동 〈별별잡화점〉 행사장 전경



특별전시존 전경



광복 80년 기념 메시지월



과학기술 연대기 전시

〈서울신문〉 수록 기고문

광복 속에 피어난 우리의 빛



광복 80년 전야제가 8월 14일 많은 국민과 예술인의 뜨거운 참여 속에 막을 내렸다. 이 행사는 지난 80년, 제 자리에서 조용히 빛을 보태 오늘의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국민 모두에게 헌정된 무대였다. 흥례문광장에 모여든 우리는 빛이었다.

K-컬처의 눈부신 성장, 마침내 문화 해방을 맞이하다

왜 문화로 광복을 기념했을까. 모든 국민이 문화 속에서 함께 웃고 즐기며 광복의 의미를 기념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 그토록 염원했던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로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자축하고, 앞으로는 ‘문화로 행복한 국민’을 만들어야 한다는 다짐을 새기기 위함이었다.

무대를 바라보며 새삼 확인한 것은 광복은 주권 회복만이 아니라 문화 해방이었다는 사실이다. 억눌렸던 말과 노래, 금지되던 책과 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 80년은 한국 문화가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스로 이야기를 확장해 온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 길을 눈앞에서 봐 왔다.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6개 부문을 거머쥐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핫100,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며 K-pop의 저력을 보여 주었고 클래식에선 임윤찬이 벤텔 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으로 연주 해석의 지평을 넓혔다. 스크린과 무대만이 아니다. 한강은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는 기념비적 사건을 기록했으며, 한국 예술가들의 전시를 주요 미술관과 비엔날레에서 연이어 조명 받는다. 이제 한글 등 한국 문화의 뿌리가 일상 속 매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K-pop의 역동성과 한국 설화·민화의 상징인 호랑이·까치, 갯 등을 자연스럽게 결합해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섞어 냈다. 호랑이와 까치를 형상화한 굿즈를 사기 위해 국립중앙



전(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이 정 우

박물관 앞에 줄 서 있는 진풍경은, 전통 모티프가 현대 대중문화와 만나 세계 관객의 취향을 사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일상을 연결하는 문화의 힘, 국민이 행복한 나라

이 지점에서 김구 선생이 남긴 말을 떠올린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 문화의 힘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그 행복을 세계에 나누게 한다는 통찰은 80년이 지난 오늘 더욱 선명하다. 우리의 성과가 뿌듯하지만 진정한 ‘문화의 힘’은 단순한 수치와 물량적 성과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우리가 걸어야 할 진정한 ‘문화강국’의 길은 나와 가족의 일상에 연결되는 문화, 그로써 국민이 행복해지는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다.

문화예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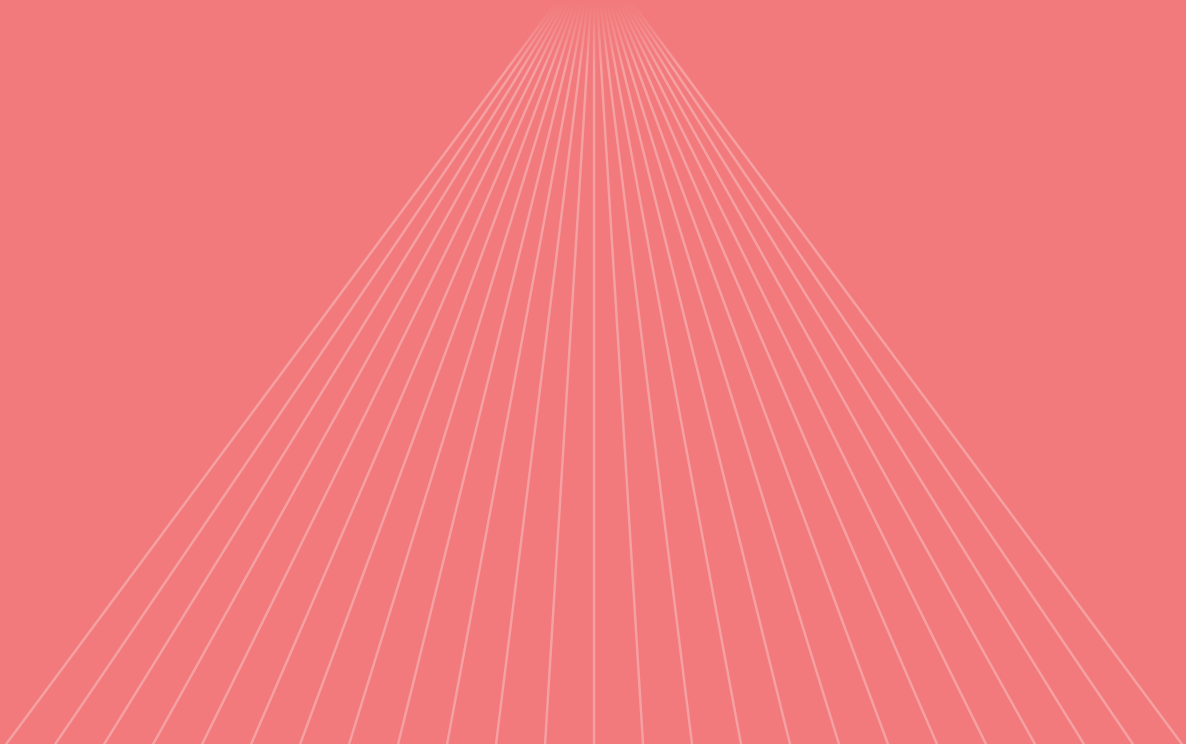
확인한 것도 결국 연결의 힘이었다. 한 곡의 합창이 낯선 이들을 이웃으로 만들고, 한 편의 춤이 서로의 마음을 열어 준다. 전야제를 비춘 빛은 잠깐이었지만, 국민 마음에 자리 잡은 빛은 오래간다. 그 빛은 다음 공연의 예매로, 동네 합창단의 연습으로, 아이의 첫 미술관 방문으로 이어질 것이다.

다음 과제는 우리 문화가 품은 다양한 이야기를 세계 무대에서 더 넓게 연결하는 일이다. 대도시든 지역 소도시든 모든 시민이 일상 속에 문화를 쉽고, 넓게 향유하게끔 하는 것이다.

전야제가 끝난 광장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빛으로 길을 찾아 나섰다. 문화도 그렇다. 수많은 작은 문화의 빛이 모여 앞을 환히 비춘다. 앞으로의 광복 90년, 100년을 더욱 밝히기 위해 다양한 크기와 색을 가진 예술인, 문화 향수자들이 뿔어내는 문화의 빛들을 더 멀리, 더 촘촘히 이어 붙이는 일에 힘쓰겠다.

광복의 감격은
모두가 함께할 때 더욱 빛났다.
국내외 모든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의 오늘을 당당히 외쳤다.
이 장에는 광복의 의미를 함께 나눈 순간들과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희망의 함성이 담겨있다.

3장



제3장 모두의 빛

하나 된 축제, 미래의 비전

제1절 모두가 하나 되는 빛의 축제

1.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다
2. 문화예술공연으로 광복의 가치를 꽃피우다
3. 국민 일상 속 보훈 문화를 넓히다

제2절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1. 국외 독립운동 거점을 복원하여 역사를 지키다
2. 글로벌 네트워크로 광복의 의미를 전파하다
3.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비전을 제시하다

제1절

모두가 하나 되는
빛의 축제

1.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다



광복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로 확장하고,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념사업들로 구성하였다.
경축식과 전야제, 드론쇼와 시민 참여 무대 등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광복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1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

2025년 8월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두 개의 행사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경축식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가 거행되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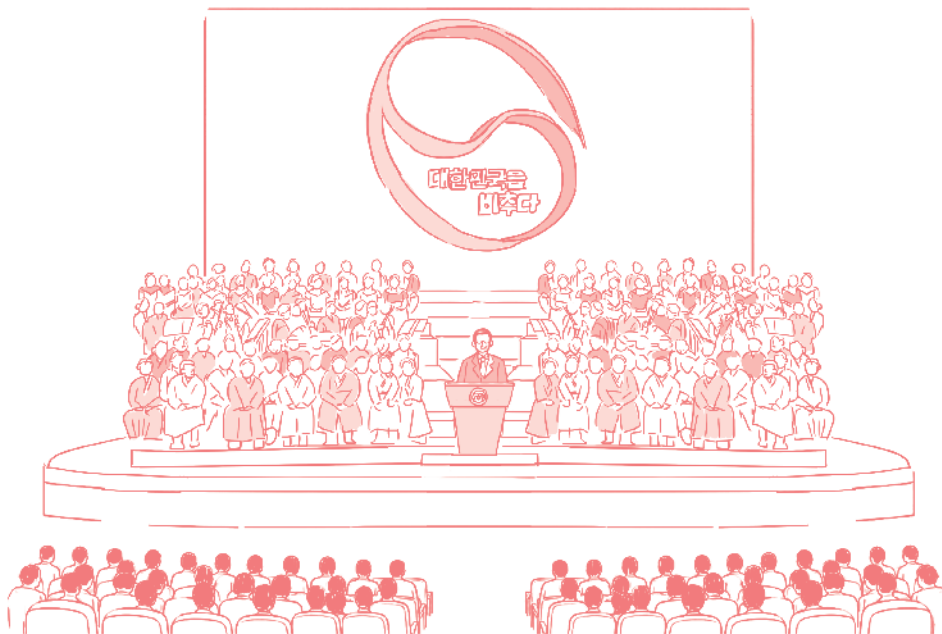
같은 날 저녁에는 광화문광장 야외무대에서 국민주권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열렸다.

두 행사 모두 광복 80년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누고

대한민국의 발전상 및 민주주의 회복력을 대내외에

선포한다는 공통된 목적 아래 기획되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복의 순간과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80년의 발전상과 함께 K-민주주의 회복력을 대내외에 선포할 계획입니다.

- 행정안전부 -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

경축식은 2025년 8월 15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했다. 광복 80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단상에는 80개의 태극기가 비치되었으며, 오케스트라와 세대별 연합합창단 등 전 출연진이 단상을 채운 상태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행사는 여는 공연, 주제 영상,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및 경축 공연, 만세 삼창 등으로 구성되었다.

경축 공연은 ‘내가 꿈꾼 우리나라, 함께 빛난 80년’을 주제로 80년 대한민국의 시간을 보여주는 노래들을 국악, 미디어아트, 대합창 등 다양한 구성으로 선보였다. 이어 AI 기술로 재현한 1946년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대통령 경축사

김구 선생의 만세 장면이 스크린에 상영되었다. 안중근 의사의 외교손녀 최수아, 지청천 장군의 증손자 지영환의 다짐에 이어, 참석자 전원이 함께 만세를 외치며 경축식의 마무리를 장식하며 80년의 시간 동안 쌓아온 위대한 역사와 위용을 보여주었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국민주권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오후 8시, 광화문광장 야외무대에서 국민주권대축제가 거행되었다. 행사는 3부 구성으로 대형 LED 타워와 원형 회전무대 등 새로운 무대 장치가 활용되었다.

행사 1부 ‘함께 찾은 빛’에서는 여는 영상과 길놀이 공연이 진행되었다. 이어서 광복 80년 기념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의 공연과 치어리딩 공연, 가수 이은미의 〈화합의 광장〉 무대가 진행되었다. 2부 ‘빛의 바람’에서 진행된 국민임명식은 이 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이었다.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광복 80년의 의미를 담아, 주권자인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국민대표 80인이 직접 바람을 담아 작성한 ‘빛의 임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3부 ‘빛나는 우리’에서는 광장의 국민을 담은 영상을 시작으로, 스트릿댄스팀 ‘더 스토리즈’의 댄스와 대한민국 대표 태권도 시범단 ‘태권한류’의 태권무가 무대를 채웠다. 이어 가수 이승환, 정은지, 산들, 이즈나 등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축제의 분위기 속에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경축식 프로그램

구성	주제	주요 내용
여는 공연	‘아리랑 랩소디’ (작곡 이지수)	• 어린이의 노래와 작곡가의 연주 협연, 국악 · 오케스트라 · 합창 • 광복 후 80년간 성장해 온 대한민국의 위대함 표현 • 독립유공자 후손 80명이 단상에 입장
기념사	—	• 이종찬 민간위원장 기념사 낭독 • 독립영웅들이 꿈꾼 문화강국, 정신과 문화 힘을 키울 것을 응원, 광복 80년을 축하하는 기념사 연설
주제영상	‘함께 찾은 빛’	• 광복 후 80년 동안 발전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으로 구성
독립유공자 포상	—	• 경축식장에서 독립유공자 고(故) 이은숙 님의 후손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포상 직접 수여(훈장1, 포장1, 대표3)
경축사	—	• 대통령 경축사 • 광복 80년 의미, 세계 선도국가 도약,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나라, 국민주권의 가치 등을 강조하는 약 25분간의 경축사 연설
경축 공연	‘내가 꿈꾼 우리나라, 함께 빛난 80년’	• 80년 대한민국의 시간을 보여주는 노래 • 〈광야(광복)〉 → 〈사계(산업화 시대)〉 → 〈상록수(민주화 시대)〉 → 〈그곳에 올라(오늘날의 대한민국)〉 구성
만세삼창	AI 리마스터 영상, 독립유공자 후손 선창	• 1946년 1주년 광복절 김구 선생 만세 장면을 AI로 재구현 • 안중근 의사 외교손녀 최수아, 지청천 장군 증손자 지영환 다짐멘트 후 참석자 전원 만세삼창

두 무대가 전한 하나의 메시지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주권대축제는 각각 다른 공간과 형식으로 광복 80년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누었다. 세종문화회관에서는 AI로 재현한 김구 선생의 만세 장면과 독립유공자 후손의 다짐 및 만세삼창이 이어졌고, 광화문광장에서는 국민대표 80인이 주권자로서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진행했다.

경축식의 만세삼창과 대축제의 국민임명식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독립은 8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국민주권대축제 프로그램

순서	주제	세부 내용
1부	함께 찾은 빛	- 여는 영상: “80년의 시간, 우리는 늘 이곳에 있었다”라는 주제로 광화문광장의 역사적 상징성 표현 - 길놀이 공연: 락 공연에 우리 전통 풍물·서양 무용이 어우러져 광복의 순간을 표현한 박두진 시를 가사로 한 곡 〈해야〉 공연 - 광복의 노래: 광복 80년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아’ 공연, 치어리딩 공연 - 화합의 광장: 가수 이은미 공연, 참석자 합창
2부	빛의 바람	- 주제 영상: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 및 역사적 정통성 표현 - 국민 인터뷰: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 영상 상영 및 국민 현장 인터뷰 진행 - 국민임명식: 국민대표 80인이 주권자로서 대통령을 직접 임명 - 대합창: 전 출연진 ‘다시 만난 세계’ 합창 및 댄스
3부	빛나는 우리	- 브릿지 영상: 광장의 국민의 밝은 모습을 담은 영상 상영 - 축하공연: 스트리트 댄스·태권무 복합 공연 및 가수 축하공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단상에 오른 독립유공자 후손들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축하공연

2 광복 80년 전야제 <우리는 빛이다>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린 문화예술 축제

2025년 8월 14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광복 80년 전야제 <우리는 빛이다>가 개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적 자긍심과
광복 80년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각계 주요 인사와 국민 1,009명이 사전신청을 통해 현장에 참여했으며,
TV와 SNS를 통해 전국에 중계되었다.
지난 80년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온 국민 모두가
그 자체로 ‘빛’이라는 메시지와 앞으로의 미래 또한
함께 밝혀가자는 의미가 행사 전반에 담겼다.



광복 80년을 맞이해 준비한 이번 전야제가
‘우리는 빛’이라는 메시지처럼, 서로의 존재를 빛으로 느끼고
문화로 함께 연결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국립합창단이 〈거룩한 함성〉을 제창하는 모습

광화(光化):

경복궁에 울려 퍼진 광복 80년의 이야기

이번 전야제의 무대 연출 주제는 ‘광화(光化)’였다. 하나둘 광장으로 모인 광복의 빛들이 온 천하에 발산되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담아 이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AI 기술과 미디어 파사드, 레이저 연출 등이 더해져 경복궁 흥례문 광장은 전통과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거대한 무대가 되었다. 공연은 광복 이후 80년의 역사를 노래, 무용, 영상으로 엮어내며, 과거의 기억과 오늘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성되었다.

오프닝에서는 국립무용단과 국립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80년 역사 속 대한민국을 빛낸 순간과 인물들을 소환했다. 이어 1막부터 4막까지는 광복 직후의 희망, 민주주의를 향한 열정, 문화강국으로의 성장, 화합의 꿈 등 시대별 주제를 중심으로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3막에서는 서울

예술단과 하모나이즈가 창작 뮤지컬 〈운동주, 달을 쏘다〉와 우리 가요 명곡 무대를 선보이며 문화강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표현하였다. 5막에서는 국민 인터뷰 영상과 미디어아트 퍼포먼스를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미래비전을 담아냈다. 피날레에서는 K-pop 아이돌 그룹인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와 프로미스나인의 공연으로 광복 80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80년 역사를 빛낸 사람을 만나다〉의 백범 김구 모습

광장을 가득 채운 빛의 동행단

이번 전야제는 국민 누구나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참석 희망자는 8월 5일부터 7일까지 문체부 누리집 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빛의 동행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전신청이 가능했다.

경복궁 흥례문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단순한 관람객을 넘어 광복 80년의 의미를 함께 만

들어가는 참여자로서 행사에 함께하였다.

행사에 앞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팬덤 플랫폼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한 사전홍보도 진행되었다. SBS 계열 5개 채널에서 총 64회에 걸쳐 40초 홍보 영상이 송출되었으며, 행사 당일과 이후에는 전야제 방송이 별도로 편성되어 방영되었다.



광복 80년 전야제 <우리는 빛이다> 행사 프로그램

구성	주제	주요 출연진	주요 내용
오프닝	80년의 빛, 80년의 걸음, 다시 찾은 빛	국립무용단, 국립합창단	80년 역사 속 대한민국을 빛낸 순간과 사람들을 조명하며 광복의 기쁨 표현
1막	새로운 나라, 희망의 빛	서도밴드, 역사어린이합창단	광복 직후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노래
2막	열정으로 빛낸 우리나라	댄스크루 범접, 아이돌 하이키	불굴의 의지·도전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운 국민의 열정과 자긍심을 춤으로 표현
3막	세계를 빛낸 우리 문화	서울예술단, 하모나이즈	창작 뮤지컬 <윤동주, 달을 쏘다>와 우리 가요 명곡으로 문화강국 발전상 표현
4막	내일을 향한 화합의 빛	인순이	모든 차이를 넘어 화합하는 대한민국의 꿈 표출
5막	빛의 합성	국민 참여 퍼포먼스(인터뷰 영상), 미디어아트 퍼포먼스	국민 인터뷰 영상과 미디어아트 퍼포먼스로 미래 비전 제시
피날레	다시 함께 미래로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프로미스나인	K-pop 아이돌 공연으로 광복 80년 기념 및 축하



국립무용단이 <다시 찾은 빛>을 주제로 공연하는 모습

특히 온라인과 방송을 연계한 홍보를 통해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국민들도 함께 전야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는 빛이다’라는 메시지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하였다.

빛으로 기억하고 문화로 잇는 광복 80년의 밤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열린 이날 전야제는 국악 · 뮤지컬 · K-pop ·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예술 무대였다. 전통 악기의 섬세한 선

율과 현대 뮤지컬의 역동적인 무대, K-pop 퍼포먼스의 에너지, 그리고 빛과 영상이 교차하는 미디어아트가 한데 모여 ‘광복’이라는 역사를 ‘노래 · 춤 · 이야기’로 재조명했다.

현장의 열기와 시청자의 반응이 동시에 빛을 발한 이번 전야제는 ‘우리는 빛이다’라는 메시지를 전국에 확산시키며 광복 80년을 맞는 기쁨을 함께 나누며, 대한민국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나아가 광복의 의미를 기념식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 참여형 문화행사로 확장함으로써, 기억과 미래를 문화로 연결한 새로운 기념 모델을 제시하였다.

3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국회 잔디광장을 수놓은 광복 전야 보훈과 K-컬처가 만난 국민 축제

2025년 8월 14일 오후 8시 15분,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가 개최되었다.
국가보훈부, 국회, 광복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보훈의 가치와 K-컬처를 접목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국민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고, 약 3만 명의 시민이 참석하였다.



광복 80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전야제에 참가한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길 기대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광복 80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

보훈과 K-컬처가 만난 밤

‘대한이 살았다’라는 주제는 3·1운동과 임시정부로부터 이어진 독립정신이 국민들의 역량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음을 되새기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대한’으로 계승하여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린 행사는 순국선열들의 헌신을 기리는 헌정곡을 중심으로 한 K-pop 공연의 뮤직 페스티벌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공연은 헌정 공연과 본 공연, 특별 연출로 구성되었으며, 총 11팀의 아티스트가 참여하였다. 공연의 시작은 가수 알리의 헌정곡 ‘진달래 꽃이 피었습니다’였으며, 알리와 매드클라운이 함께 행사

주제곡 ‘대한이 살았다’를 선보인 후 크라잉넛이 ‘신독립군가’로 헌정 공연을 마무리했다. 이후 강산에 밴드, 거미, 형석×메이트리, 다이나믹듀오, VIVIZ, 10CM, 폴킴, 싸이 등이 출연하여 축제 분위기를 북돋았다.

공연 중간에는 국회의사당 외벽 전체를 스크린으로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가 함께 펼쳐졌다. 파사드에는 광복 이전의 독립운동사와 광복 이후 80년간 있었던 6·25전쟁, 민주화 등 위기극복과 승리의 역사가 표현되었다. 또한 드론 수백기가 안중근·유관순·윤봉길 등 독립영웅들의 얼굴을 여의도와 한강 밤하늘에 그려내는 대규모 드론쇼가 함께 진행되어 국민의 빛이 모이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행사 프로그램

순서	출연진	주요 내용
오프닝	—	<광복 80년> 오프닝 VCR 상영
헌정 공연	알리	헌정곡 <진달래 꽃이 피었습니다>
	매드클라운	1곡
	알리 x 매드클라운	주제곡 <대한이 살았다> 합동 무대
미디어 파사드	—	<히어로> 미디어 파사드 상영 및 드론 퍼포먼스
헌정 공연	크라잉넛	<독립군가> 헌정곡 외 2곡
유해봉환행사 VCR	—	유해봉환행사 관련 VCR 상영
축하공연	다이나믹듀오 / 폴킴	
미디어 파사드	—	<우리나라> 미디어 파사드 상영
축하공연	형석 x 메이트리 / 메이트리 / VIVIZ / 거미 / 강산에	
미디어 파사드	—	<날으는 홍범도가> 미디어 파사드 상영
축하공연	싸이	
엔딩	—	불꽃놀이 퍼포먼스

화면 너머로 전해진 광복 축제의 열기

국가보훈부는 8월 5일 사전 보도자료를 배포해 행사 취지와 출연진을 안내했다. 행사 당일에는 MBC가 특별편성으로 전야제를 방송하였으며, 국회방송, MBC 등 주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관련 영상과 게시물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국회 잔디광장은 물론 주변 일대까지 공연을 보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로 가득 차며 광복 80년 전야제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 열기를 보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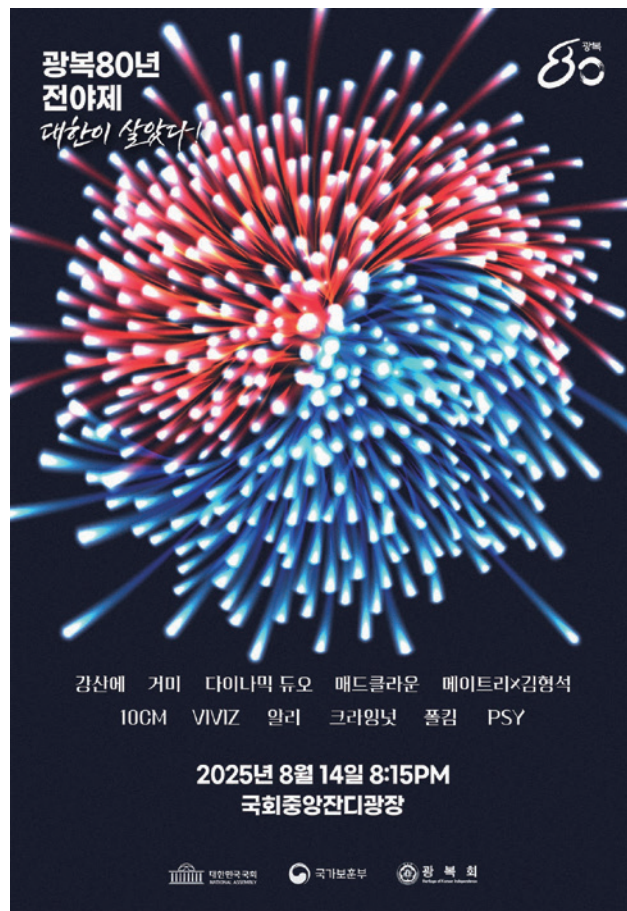
었다.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국민들도 방송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함께 했다. 또 국가보훈부가 기획하고 제작해 국민에게 배포한 ‘보훈봉’은 국가기관이 제작한 첫 번째 응원봉으로, 광복 메시지와 태극기 디자인을 함께 담아 의미를 더했다. 보훈봉을 들고 국회 앞에 선 3만 명의 빛은 언론 보도와 온라인 영상 등을 통해 광복 80년의 전야를 상징하는 한 장면으로 남았다.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드론쇼 '광복 80'



전야제 축제의 열기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포스터

국회 잔디광장에 펼쳐진 광복 80년 전야의 빛

행사 당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는 당초 예상인원의 두 배가 넘는 3만여 명이 모였다. 원로급 가수과 아이돌이 한 무대에 서고, 국회의사당 외벽에 독립의 역사가 빛으로 투사되었으며, 드론이 독립영웅의 얼굴을 밤하늘에 그렸다. 보훈의 가치를 K-컬처와 접목하여 결합한 방식으로 기획된 이 전야제는 광복은 80년 전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우리에게 살아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

독립운동가분들께서
우리가 오늘 즐기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두가 당신 안에 있던
조국을 위한 뜨거운 마음
덕분입니다.

- 유튜브 중계 댓글 중 발췌

”

4 광복 80년 경축 드론쇼

하늘에 새긴 독립영웅의 얼굴들

2025년 한 해 동안 국가보훈부는
전국 6개 도시에서 광복 80년 경축 드론쇼를 개최했다.
1,000대 이상의 드론을 활용해 독립운동가의 얼굴과
광복 80년의 서사를 하늘에 형상화하였으며,
기존 공연·행사·축제와 연계하여 국민들이 보훈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1,000대 이상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공연과 축제가 하나로 어우러진 이번 행사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나눌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 국가보훈부 -

6개 도시의 밤하늘이 기록한 광복 80년

드론쇼는 연중 6회차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매 회차마다 해당 지역의 주요 행사·축제와 연계하여 운영되었다.

1회차(6월 7일, 독립기념관)에서는 〈한국 문화 박람회(K-컬처박람회)〉와 연계하여 K-pop 아 이콘과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함께 구현하는 드론 형상이 연출되었다. 총 123,459명이 참여하여 6회차 중 가장 많은 관람 인원을 기록했다.

6월 13일에는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와 함께 두 번째 쇼가 펼쳐졌고, 71,000명이 함께 했다.

8월 10일 광안리 해변에서는 오후 8시와 오후 10시에 드론 쇼가 열렸다. 광안리의 야경을 배경

으로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떠오른 장면은 이후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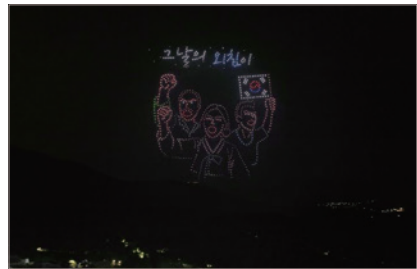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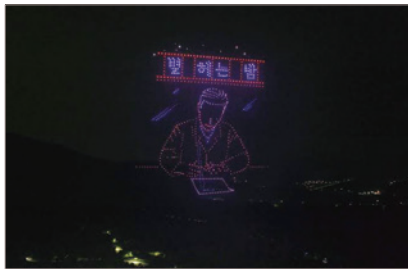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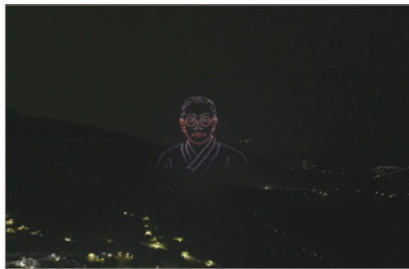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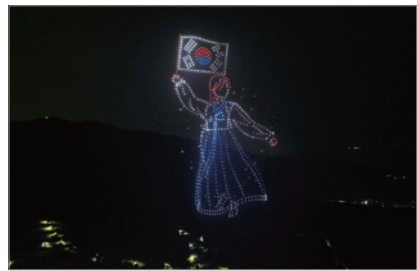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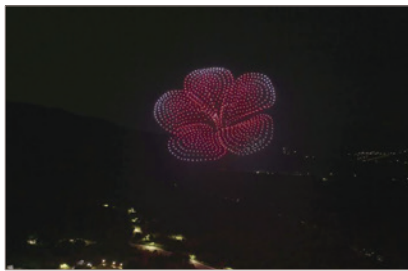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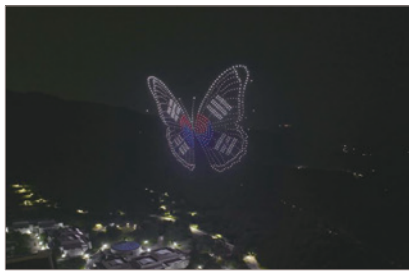
4회차와 5회차는 광복절 전날과 당일인 8월 14일~15일에 각각 국회의사당과 광화문 하늘에서 진행되었다. 4회차는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5회차는 〈광복 80년 국민주권대축제〉와 연계되어 행사 참석자들이 공연 중 드론쇼를 함께 관람했다.

6회차는 11월 15일 세종 국가보훈광장에서 광복 80년 피날레 〈빛나라 대한민국 - See You 2105〉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으며, 1945년부터 2105년까지, 광복 160년을 향한 서사를 2,105대의 드론으로 연출하며 연간 사업의 마무리를 장식했다.

● 지역별 드론쇼 시행 개요

회차	일시	장소	시간	주요 내용 및 연계 행사
1회차	6. 7.(토)	독립기념관	21:00~21:15	• K-pop · 독립운동가 형상, 〈K-컬처박람회〉
2회차	6. 13.(금)	하남 미사경정공원	21:20~21:30	• 〈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
3회차	8. 10.(일)	광안리 해변 일원	20:00~20:15 22:00~22:15	• 광안리 M드론라이트쇼
4회차	8. 14.(목)	국회의사당	20:30~20:45	•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5회차	8. 15.(금)	광화문	20:30~20:45	• 〈광복 80년 국민주권대축제〉
6회차	11. 15.(토)	세종 국가보훈광장	19:40~19:55	• 광복 80년 피날레 〈빛나라 대한민국 - See You 2105〉 (1945년~2105년 서사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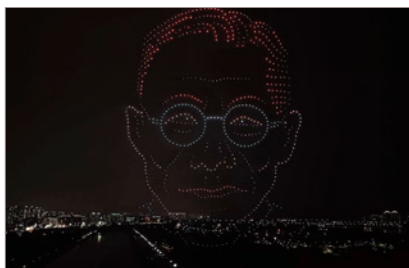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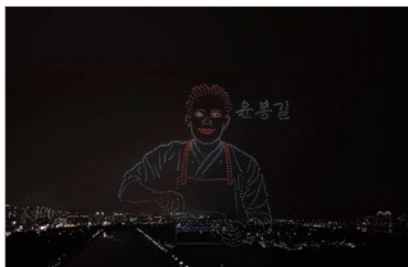
● 드론쇼 구현영상



1회차 독립기념관

2025. 6. 7.(토) 21:00~2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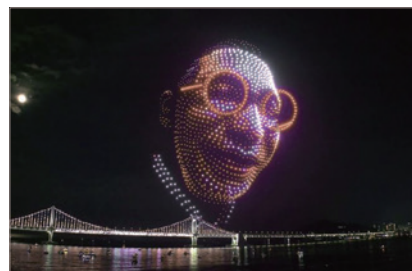
K-컬처박람회 연계



2회차 하남 미사경정공원

2025. 6. 13.(금) 21:20~2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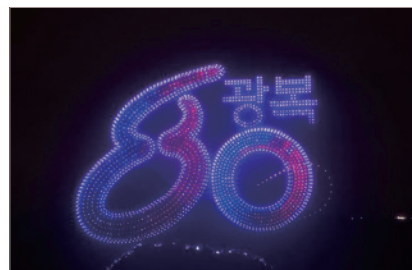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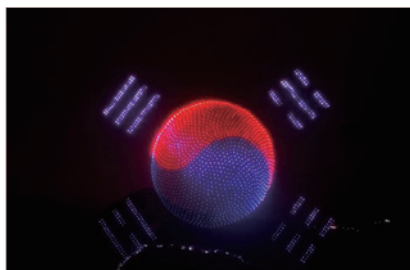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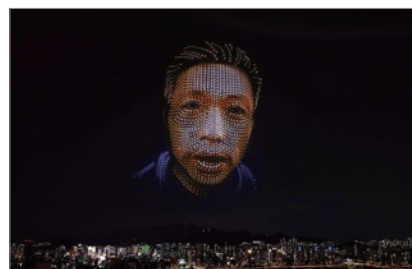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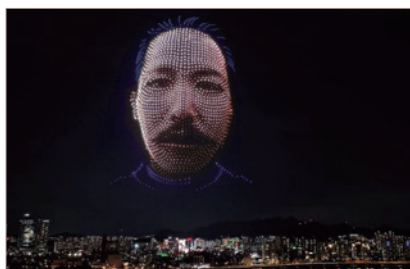
코리아 메모리얼 푸드 페스타 연계



3회차 광안리 해변 일원

2025. 8. 10.(일) 20:00~20:15, 22:00~2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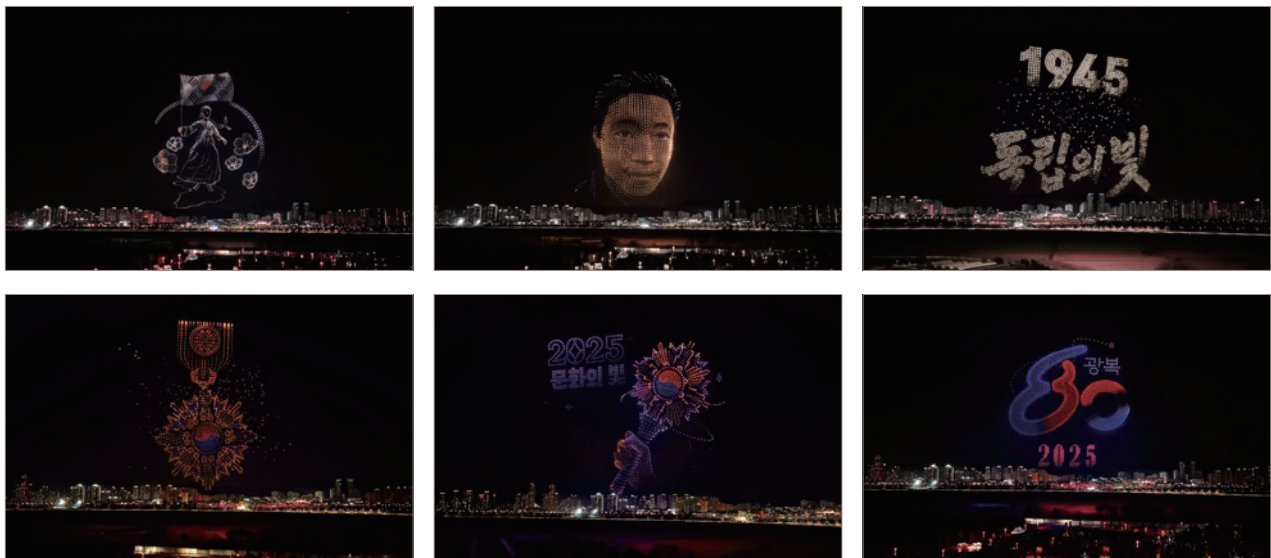
광안리 M드론라이트쇼 연계



4·5회차 국회의사당 및 광화문

2025. 8. 14.(목)~8. 15.(금) 20:30~20:45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및 국민주권대축제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연계



6회차 세종 국가보훈광장

2025. 11. 15.(토) 19:40~19:55

광복 80년 피날레 <빛나라 대한민국 – See You 2105>

드론이 수놓은 빛, 일상으로 이어지는 광복과 보훈

드론쇼는 광복 80년 사업 주제와 엠블럼, 독립운동가의 모습과 광복의 역사 및 대한민국의 상징 등을 빛의 예술로 구현했다. 또한 유튜브와 SNS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통해 관련 영상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특히 인스타그램 영상 누적 조회수는 1,000만 뷰를 넘어서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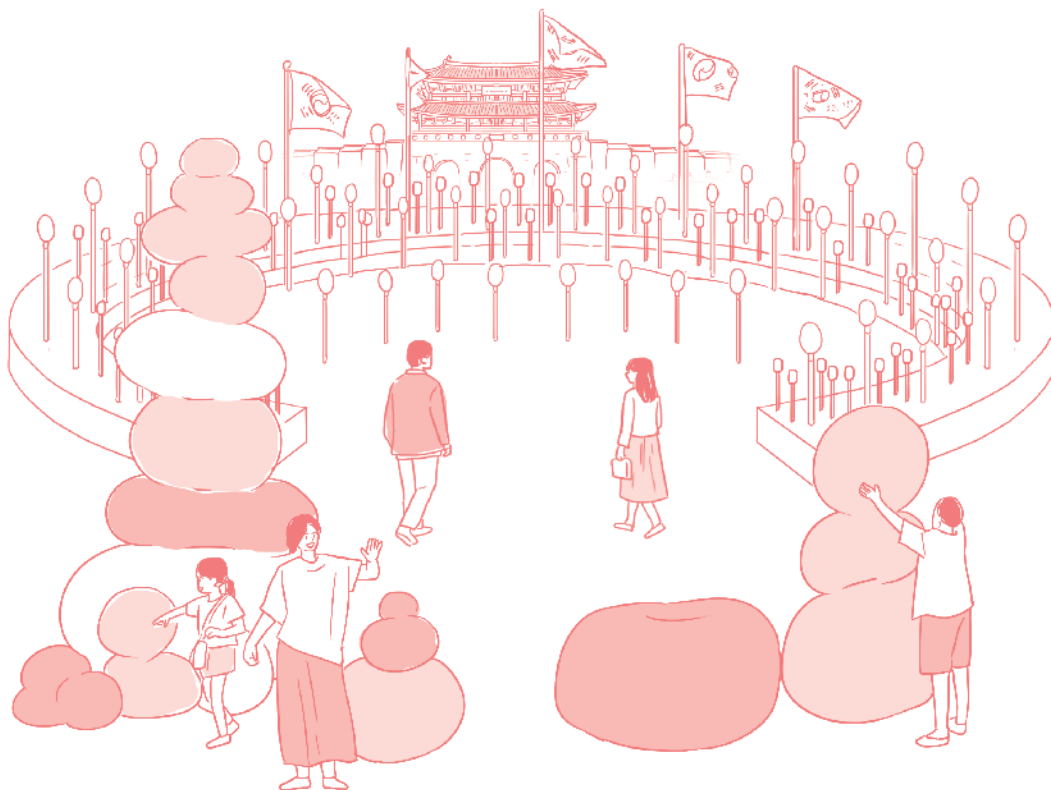
수천 대의 드론이 대한민국 곳곳의 밤하늘을 수놓을 때마다 1945년 광복의 순간과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뜻과 이들에 보답하고자 하는 보훈의 가

치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이어 나가자는 울림이 퍼져나갔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에 함께 하고 있다는 인식도 되새길 수 있었던 광복 80년의 밤들이었다.

5 광복 80년 기념 미디어 아트쇼 〈80개의 빛, 하나 된 우리〉

2025년 8월 15일부터 9일간 광화문광장에서 광복 80년 기념 빛 축제
〈80개의 빛, 하나 된 우리(80 LIGHT, WE ARE ONE)〉가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광화문 외벽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와
광장 내 인터랙티브 체험공간을 결합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문화적 성취가 독립운동 정신 위에서 이루어졌음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다.



광복 8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빛으로 구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광복의 환희를 만끽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

광화문 외벽을 캔버스로

이 축제의 핵심은 광화문 외벽 80m 전체를 디지털 스크린으로 활용하여 독립운동과 1945년 광복 이후 현재까지를 빛으로 표현한 미디어 파사드였다. 매일 밤 8시부터 10시까지 30분 간격으로 4회 상영되었으며, 각 회차는 약 20분 분량의 4부 구성으로 편성되었다.

미디어 파사드 영상은 광복절인 8월 15일 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 행사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미디어 파사드는 광복 8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영상으로, AI로 구현한 광복의 기쁨을 만끽하는 독립운동가들의 모습과 국민들이 직접 작성한 감사 메시지를 담아 제작되었다. 메시지는 행사 전인 7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국민의 감사 메시지> 이벤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시민이 만든 축제의 현장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일대에서는 빛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과 포토 공간이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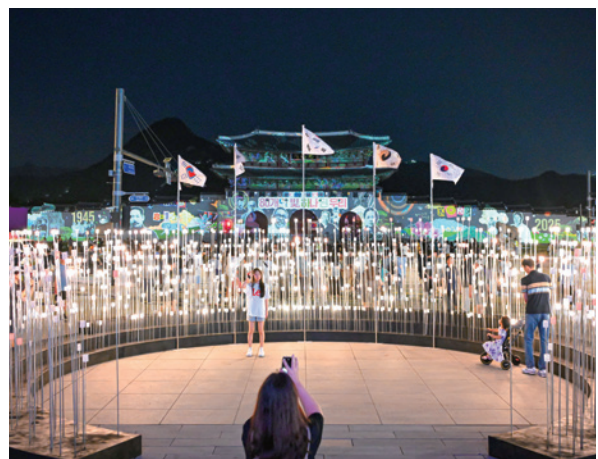
마당 중앙에는 약 12m 높이의 거대한 탑과 다양한 조형물로 구성된 인터랙티브 체험공간 <광복의 탑>이 조성되어, 이곳에 방문한 국민들이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을 직접 남길 수 있었다. 또한 ‘데니 태극기’와 ‘진관사 태극기’ 등 과거와 현재의 태극기를 815개의 빛 조형물로 감싸는

포토 공간 <광복의 꽃: 광화>도 함께 마련되어 시민들이 광복의 의미와 가치를 빛과 체험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립운동 정신 위에 선 성취의 축제

9일간 광화문 외벽을 채운 미디어 파사드, 육조마당의 <광복의 탑>과 <광화 포토존>, 국민들이 직접 전달한 감사 메시지까지, 행사는 기술, 전시, 국민 참여를 결합한 방식으로 광복 80년의 의미를 전달했다.

미디어 파사드로 AI가 구현한 독립운동가의 얼굴이 광화문 외벽에 투사되고, 311명의 독립유공자 이름이 외벽을 수놓은 장면은 광복 80년 기념 사업이 광화문이라는 공간에 남긴 기록이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문화가 독립운동 정신 위에 서 있다는 이 행사의 기획 의도는, 9일간 광화문 앞에 모인 30만 명의 발걸음으로 확인되었다.



미디어 파사드 배경으로 사진찍고 있는 시민들

● 미디어 파사드 영상 구성

구분	사진	주제	주요 내용
1부		80개의 빛, 하나 된 우리	광복 80년 상징 브랜드 · 슬로건 · 키메시지를 현대적 팝아트 방식으로 표현
2부		빛으로 새겨진 영웅들: 광복을 향한 불굴의 의지	-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AI 기술로 생생하게 구현 · 연출 - 이번 광복절 계기 포상 독립유공자 311명의 이름 광화문 외벽 투사
3부		독립운동가에게 전하는 감사의 마음 한 줄	국민이 SNS를 통해 사전 작성한 독립운동가 감사 메시지를 모션그래픽 방식으로 광화문 외벽에 투사
4부		80개의 빛, 하나의 강	광복부터 6·25 전쟁 · 민주화 운동 · K-문화강국까지 대한민국 80년의 역사를 파노라마로 연출

김태욱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인터뷰

광복 80년 기념행사와 비하인드 스토리, 〈현장감과 감동 관점〉



“광복의 역사는 몇몇 위대한 이름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자신의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광복을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복은 ‘계속 실천되는 가치’입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워킹그룹
위원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광복 80년은 다른 해보다 위원님께 더 많은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광복 80년이
위원님께는 어떤 의미로 기억되시는지요?**

광복 80년은 제게 단순한 기념의 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되찾은 빛을 지금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를 묻는 아주 절실한 시간이었습니다. 광복은 말 그대로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그런데 8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 빛은 1945년 8월 15일 하루에만 머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 빛을 위해 싸웠고, 누군가는 그 빛을 지키기 위해 견뎠고, 또 누군가는 그

빛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이번 광복 80년을 준비하며 그 빛이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지금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특히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소중한 시기에 대한민국은 역사의 소용돌이 같은 무거운 시간을 지나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광복 80년이라는 역사적 시간과 국민주권이라는 현재적 과제가 한 해 안에서 겹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광복 80년은 지나간 역사를 기념하는 시간이기보다, 오늘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존엄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김 태 욱



그날의 빛이 오늘의 광장으로 이어지고, 오늘의 광장이 다시 미래의 빛을 향해 열리는 순간. 저는 광복 80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복 80년에 국민임명식, 경축식, 국악 칸타타 등 여러 가지 기념사업을 총괄하셨는데, 전체적인 소회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시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과 워킹그룹 위원으로 참여했고,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국민주권대축제,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의 총감독과 총연출을 맡았습니다. 또 국립부산국악원의 광복 80년 기념 국악 칸타타 〈홀(屹); 들풀처럼, 불꽃처럼〉을 연출하기도 했으니, 한 해에 이렇게 큰 역사적 현장들에서의 역할을 연이어 맡는다는 것은 제게 벅찬 영광이었고, 동시에 뼈를 깎는 부담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기획자·연출가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국민으로서 역사 앞에서 있다는 느낌이 컸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기념행사를 보는 국민이 아니라, 행사 안에 들어와 있는 국민’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보다, 국민들이 그 순간을 어떻게 체감할 것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80년을 쌓아오고 지켜온 대한국민의 위대한 시간과 국가의 위용, 품격과 예우를 중심에 두었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광복 이후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온 국민들에 대한 존중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화려함보다 품격이 중요했고, 무대의 크기보다 한 장면이 지닌 역사적 무게가 중요했습니다.

국민주권대축제와 국민임명식에서는 ‘광장’을 새롭게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광화문광장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국민의 뜻이 모였던 곳이고, 시민들이 서로를 확인하며 시대를 움직였던 곳입니다. 저는 그 광장을 넓은 광장, 즉 廣場을 넘어 국민 각자의 빛이 모이고 퍼져나가는 光場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국악 칸타타 〈홀(屹); 들풀처럼, 불꽃처럼〉은 또 다른 결의 작업이었습니다. 그 작품에서는 박차정이라는 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통해, 이름 없이

사라져 간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을 불러내고 싶었습니다.

결국 모든 작업의 주안점은 하나였습니다. 광복 80년을 과거의 기념으로 달아두지 않고, 오늘의 국민이 자기 삶 속에서 다시 느끼는 현재의 감각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큰 에너지를 모으는 것. 그것이 제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큰 방향이었습니다.

행사를 총괄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돌파해 나가셨는지요?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간과 설득이었습니다. 총감독으로 본격 참여한 시점이 행사 한 달여 전이었기 때문에, 이미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직 광복 80년과 국민주권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지점들이 보였습니다.

국가 행사는 한 사람의 상상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비롯한 관계 부처, 방송사, 대행사, 경호, 안전, 기술, 무대, 출연진까지 수많은 주체가 함께 움직입니다. 각자의 기준과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총감독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장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의미를 바라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왜 그래야 하는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장면이 왜 광복 80년에 필요한지, 이 공간이 왜 국민주권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는지, 이 음악이 왜 이 순간의 정서와 연결되는지 계속 말했습니다. 때로는 매우 지쳤고, 때로는 좌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득하지 못하면 좋은 장면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돌파의 방법은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산과 시간, 안전과 의전, 현실의 제약을 모두 고려하되, 그 안에서 광복 80년의 품격과 국민주권의 감동만큼은 끝까지 지키려고 했습니다. 현장은 늘 타협을 요구하지만, 연출은 그 타협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중심을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사의 관객들은 행사를 보고, 느끼고, 즐기면 되는데, 행사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behind story)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생각나는 것이 있으신지요?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은 광화문광장의 공간을 둘러싼 설득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대형 행사처럼 정면에 프로시니엄(proscenium,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 형태의 무대를 세우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광화문광장에서 그렇게 한 방향으로만 바라보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맞는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광장은 본래 모두가 함께 서는 장소입니다. 누군가는 앞에 있고 누군가는 뒤에 있는 극장이 아니라, 국민이 같은 하늘 아래 하나의 마당, 한 지점을 바라보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하나의 거대한 마당으로 해석하고 싶었습니다. 국민이 어느 곳에 서 있든 같은 장면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구조, 무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한가운데 놓이는 구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대한 스크린으로 시야를 가리는 방식도 배제하려 했습니다. 더 많은 국민이 광화문광장의 공간 자체를 느끼며 참여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안으로 기존 행사에서 흔히 쓰지 않았던 세로형 스크린을 세우는 방식을 고민했습니다. 광장의 시야를 막지 않으면서도 멀리 있는 시민들이 장면을 볼 수 있게 하는 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방식이어서 우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행사가 단지 이번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광화문광장처럼 다중 인파가 모이는 공간에서 국가적 행사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설득의 시간이 참 길고 어려웠지만, 결국 광장의 본래 가치에 더 가까운 형식을 만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보훈부와의 협업으로 진행한 청와대 상공에서의 드론쇼는 경호와 안전을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조율 과정과 협업에 있어 당연히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이 단순한 태극기

한 장면 띄우는 기술 연출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청와대 상공에서 펼쳐지는 마지막 드론쇼가 될지도 모른다는 역사성이 있었고, 그 하늘 위에 국민주권과 광복 80년의 빛을 새기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사성을 설명하고 또 설명했습니다. 하늘 위의 빛 하나에도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80명의 국민대표를 모시는 과정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대통령께 국민임명장을 드리는 장면은 이 행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무대에 오르는가’가 아니라, ‘그분들이 정말 이 나라의 다양한 삶을 대표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나이, 직업, 지역, 삶의 이야기, 사회적 의미를 두고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누군가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었고, 누군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였으며, 누군가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찾는 과정 자체가 국민임명식의 보이지 않는 본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임명장 역시 단순한 소품으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뜻이 담겨야 했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도 계속 논의했습니다. 그 장면이 지나치게 의전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위에 있고 국민이 아래에서 올려드리는 장면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명하고 대통령이 그 뜻을 받는 장면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80명의 대표들이 직접 자신들의 이야기로 한글자 한글자 광복 80년을 기념하며 대통령

에게 임명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가장 오래 남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광장의 바람, 새벽 리허설의 숨소리, 국민대표들의 떨리는 손, 노래를 따라 부르던 시민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현장의 감동은 거대한 장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장치들 사이로 스며드는 사람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광복 80년 기념행사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시지요?

저는 이 행사가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크고 화려했던 행사’로만 기억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다양한 노래들과 음악, 춤, 이야기, 쇼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바라는 기억은 그보다 조금 더 안쪽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날을 떠올릴 때,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었구나”라고 느꼈으면 합니다. 광복 80년의 주인공은 특정한 무대 위의 누군가가 아니라, 그 광장에 모였던 국민들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는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나라였고, 국민임명식은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광복 80년 기념행사가 국민들에게 이렇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되찾은 빛을 기념한 날이 아니라, 그 빛을 다시 함께 밝히기로 한 날. 그리

고 그 빛이 광장을 떠나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오래도록 남는 날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광복 80년과 기념사업, 그리고 광복 100년의 준비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광복 80년을 준비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기념은 하루에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8월 15일 하루의 행사가 아무리 크고 아름다워도, 그 하루를 가능하게 하는 기억의 축적이 없다면 감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광복 100년은 20년 뒤 갑자기 준비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고민하고 돌아보고 내다보며 준비해야 합니다. 독립운동의 역사, 지역의 기억,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삶,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언어까지 차근차근 쌓아가야 합니다.

특히 저는 아직 충분히 불리지 못한 이름들, 충분히 돌아보지 못한 시간들, 충분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의 역사는 몇몇 위대한 이름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자신의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광복을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광복은 ‘계속 실천되는 가치’입니다. 독립운

동가들과 선조들이 되찾은 빛을 우리는 민주주의로, 문화로, 연대로, 일상의 존엄으로 계속 밝혀야 합니다.

광복 100년을 맞을 때,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빛을 물려받았고, 그 빛을 부끄럽지 않게 지켜냈다.

이제 너희의 빛으로 더 멀리 나아가라.”

그 마음으로 광복 80년의 현장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앞으로도 오래 제 안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2.

문화예술공연으로 광복의 가치를 꽃피우다



광복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음악과 연극, 무용과 영상 등 다양한 문화예술 기념사업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였다. 무형유산 특별공연, 역사 뮤지컬 갈라쇼, 국악 무대와 다큐멘터리 영화 등을 통해 광복의 가치를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현장에서 생생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 광복 80년 기념 특별공연 <광복, 빛의 씨앗들> 무형유산의 울림으로 되살아난 광복의 기억

광복 80년을 맞아 국립무형유산원은
얼쑤마루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특별공연 <광복, 빛의 씨앗들>을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광복’과 ‘무형유산’을 접목한 기획으로,
일제강점기 수난의 역사를 건디며 계승되어 온 전통예술을 통해
민족의 저항과 연대, 광복의 의미를 생생히 전달했다.



무형유산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이자,
국민과 소통하고 연대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무형유산이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살아 있는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립무형유산원 -



〈광복, 빛의 씨앗들〉 제주해녀 향쟁민요 공연모습

일제강점기를 견디며 계승된 전통예술의 가치

이번 공연은 광복 8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수난의 역사 속에서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정신과 무형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검무, 해녀향쟁민요, 판소리 열사가 등 일제강점기의 기억을 담고 있는 무형유산 종목들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 수난과 향쟁, 그리움과 염원, 그리고 광복의 기쁨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무대 위에 구현하였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었으며, 관람 예약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2025년 1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3월부터 8월까지 스토리라인 설정, 프로그램 구성 및 출연진 섭외, 홍보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순서	프로그램	출연진	주요 내용
도입	〈시일야방성대곡〉 낭독	-	• 국권 침탈의 절망을 표현한 낭독으로 공연 시작
항쟁 ①	판소리 〈유관순 열사가〉	정순임	• 유관순 열사의 삶과 독립 의지를 판소리로 표현
항쟁 ②	삼일절 노래	전주판소리합창단	• 3·1운동의 정신을 합창으로 재현
항쟁 ③	일제강점기 묘사 작창 판소리	소리꾼 정은혜	• 일제강점기 현실을 작창 판소리로 전달
항쟁 ④	항일검무	춤꾼 서정숙	• 검무를 통해 항일 저항의 의지를 표현
항쟁 ⑤	동래야류 할미과장	동래야류보존회	• 탈놀이의 민중적 해학으로 억압 속 생명력을 표현
항쟁 ⑥	제주민요 및 해녀항쟁민요	제주민요보존회	• 제주 해녀들의 항일 투쟁을 민요의 가락으로 전달
염원	몽금포타령 (서도민요)	김광숙	• 고향을 그리는 서도민요로 광복을 향한 염원 표현
피날레	풍구소리	전 출연진	• 전 출연진이 함께하는 군무, 합창으로 광복의 기쁨과 연대 표현 • 전 출연진 및 관객의 태극기 만세삼창 퍼포먼스 재현



〈광복, 빛의 씨앗들〉 동래야류 할미과장 공연모습

수난에서 광복으로 이어지는 무대

공연은 국권 침탈의 절망을 표현한 <시일야방성대곡> 낭독으로 시작해, 유관순 열사와 항일 민중의 외침을 담은 판소리와 탈놀이로 이어졌다. 이어 제주 해녀와 여공들의 항일 투쟁을 표현한 민요와 서도민요를 통해 민중 저항의 흐름을 풀어냈으며, 전 출연진이 함께하는 군무로 광복의 희망과 연대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피날레에서는 관객들에게 태극기를 배포하고 함께 만세를 외치는 참여형 퍼포먼스를 더해, 단순한 관람을 넘어서는 역사체험의 장을 마련하였다.

공연에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정순임 보유자, 서도소리 김광숙 보유자를 비롯해 제주민요보존회, 동래야류보존회, 전주판소리합창단, 정은혜 소리꾼, 서정숙 춤꾼 등이 참여했다. 다양한 무형유산 종목 전승자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며 민족적 애환과 예술적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였다. 8월 15일 304명, 8월 16일 294명 등 이틀간 총 598명이 감동을 함께했다.

씨앗이 꽃이 되다, 무형유산이 여는 새로운 가능성

무형유산을 토대로 광복의 의미를 새롭게 선보인 이번 공연은 광복 80년을 계기로 향후 국가 기념사업과 무형유산 공연이 새롭게 융합될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광복 80년을 계기로
향후 국가 기념사업과
무형유산 공연이 새롭게
융합될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광복, 빛의 씨앗들> 판소리 정순임 보유자 공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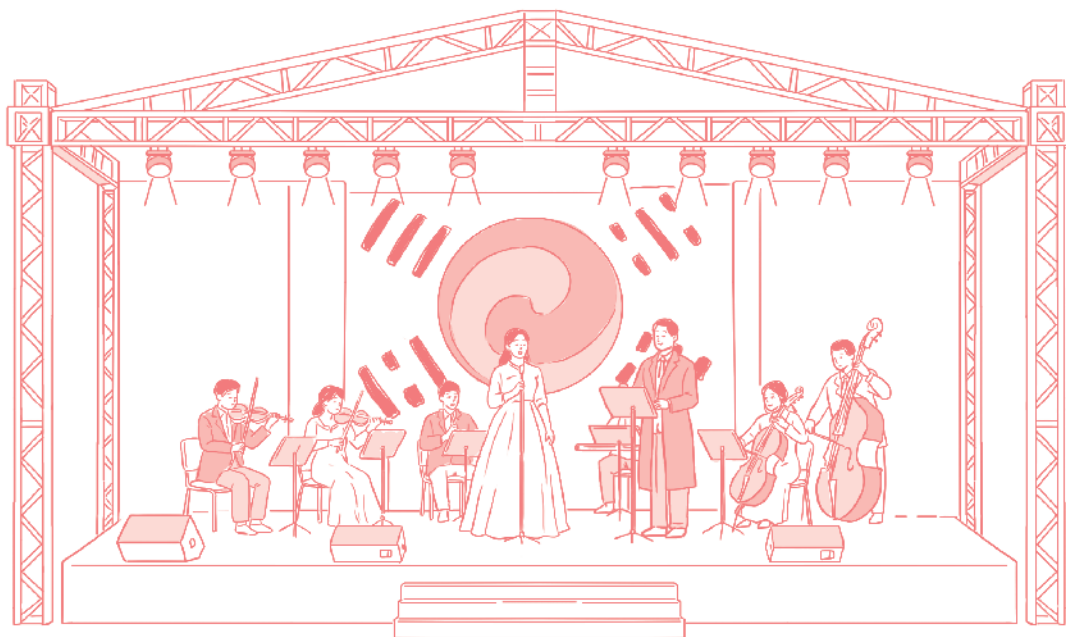


항일검무 공연모습

2 광복 80년 기념 역사 뮤지컬 갈라쇼

노래가 된 독립, 5천 명이 함께 되새긴 광복의 의미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저녁,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광복 80년 기념 역사 뮤지컬 갈라쇼가 열렸다.
뮤지컬 배우 10인이 조선의 독립을 주제로 한
역사 뮤지컬 〈백범〉, 〈위치〉, 〈신흥무관학교〉를 비롯해
〈영웅〉의 대표 넘버를 선보였으며,
역사학자 심용환이 해설을 맡아 각 곡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했다.



박물관이 무대로 변한 광복의 밤

이번 공연은 국립중앙박물관이 박물관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여 국민에게 광복 80년의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주요 레퍼토

리로 구성된 뮤지컬 〈백범〉, 〈위치〉, 〈신흥무관학교〉는 모두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개최된 바 있는 작품들로, 박물관 공연장의 축적된 콘텐츠를 야외 공간으로 확장해 선보였다는 점



〈국립중앙박물관 역사 뮤지컬 갈라쇼〉 특별공연 현장 전경



전체 출연진, 뮤지컬 〈위치〉 '나의 소원' 부르는 모습

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조선 독립을 주제로 한 기존 역사 뮤지컬 작품들에서 주요 곡들을 선별해 한 무대에 모으는 갈라쇼 형식을 통해 독립운동의 다양한 인물과 장면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날 공연에서는 조선 독립을 주제로 한 역사 뮤지컬의 대표 넘버 총 17곡이 연속적으로 무대에 올랐다. 뮤지컬 〈백범〉은 백범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며 이어온 독립운동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며, 〈위치〉는 윤봉길 의사를 중심으로, 한인에국단의 활동과 홍커우 의거를 배경으로 독립운동가들의 투쟁을 그린 작품이다. 〈신흥무관학교〉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했던 신흥무관학교를 배경으로, 그곳에서 훈련받으며 독립군으로 성장해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여기에 뮤지컬 〈영웅〉의 대표 넘버까지 더해지며 독립운동의 상징적 인물과 장면들을 보다 폭넓게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였다.

갈라쇼 형식을 통해 각 작품의 주요 장면들이 하나의 흐름 안에서 연속적으로 펼쳐졌으며, 곡 사이마다 더해진 역사학자 심용환의 해설은 뮤지컬 장면들이 담고 있는 역사적 맥락을 소개하고, 인물과 사건의 의미를 인문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관객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립운동의 현장을 무대로 꽃피우다: 국민과 함께 완성한 역사공연

박물관 야외광장에서 5,000여 명의 관객과 함께한 이번 공연은 뮤지컬을 통해 조선 독립운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국민이 함께 호흡하며 역사 이야기를 함께 나눈 박물관 공연의 대표 사례로 남을 것이다.

3 광복 80년 기념 국악 공연I

〈빛을 노래하다〉

2025년 8월 14일과 15일,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광복 80년 기념공연 〈빛을 노래하다〉가 열렸다.
공연은 광복을 상징하는 여섯 가지 주제(화합, 기억, 희생, 소망, 미래, 빛)를
국악 선율로 풀어 광복 80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지난 역사를 아우르는 치유와 공감의 무대로 구성되었다.



자랑스러운 국악으로 해석한 광복이 새로워서 좋았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 〈빛을 노래하다〉 관람객 —



국립국악원 기념공연 〈빛을 노래하다〉 포스터

광복 이후 80년의 희로애락을 담은 국악

국립국악원은 2025년 2월부터 4월까지 공연 추진방향을 기획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이 걸어온 과정에서 국민들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되, 많은 이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곡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방향이었다. 5월에는 세부 스토리라인과 작품 구성, 편곡 작업이 진행되었다. 광복을 상징하는 여섯 개의 키워드(화합 · 기억 · 희생 · 소망 · 미래 · 빛)로 장면을 나누고, 창작관소리 〈열사가(烈士歌)〉의 사설을 정리하여 편곡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 6월에는 출연자 섭외 및 홍보준비, 7월에는 영상 제작 및 티켓 오픈, 8월 무대 셋업 및 리허설을 거쳐 공연이 완성되었다.

하나로 연결되는 여섯 장면의 흐름

공연은 광복을 상징하는 이미지들로 구성된 오프닝 영상으로 시작되어, 여섯 개의 주제에 따라 전개되었다. 각 장면 사이에는 윤동주 · 안중근 · 윤봉길, 여성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 관련 영상이 삽입되어 역사적 배경을 전달했다.

〈시(詩), 기억을 노래하다〉 무대는 2025년 서거 80주년을 맞은 윤동주 시인에게 바치는 헌정 무대로 기획되었다. 음악그룹 ‘구이임’은 윤동주의 대표작 〈서시〉, 〈새로운 길〉, 〈풍경〉 세 편을 국악 선율에 얹어 선보였다. 〈열사, 희생을 노래하다〉 무대에서는 일제강점기 열사들의 삶과 행적을 판소리로 풀어낸 창작관소리 〈열사가〉를 바탕으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대목과 윤봉길 열사의 홍커우공원 의거 대목을 재구성한 관현악 협연곡이 연주되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샌드아트 기법으로 두 열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선보였다.

〈대한, 미래를 노래하다〉 무대에서는 7인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형무소에서 불렀던 〈대한이 살았다〉를 조명하는 영상을 선보였고, 이어 소리꾼 김주리와 현음어린이합창단이 〈대한이 살았다〉, 〈천리길〉,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강산〉 노래를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열사가 연주 모습

창작악단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마지막으로 <광복, 빛을 노래하다>에서는 “내가 원하는 나라는 높은 문화의 힘이 있는 나라”라고 한 백범 김구 선생의 글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출연자와 관객이 함께 부르며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다양하게 구성하여 관객의 폭넓은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복 80년 기념공연 <빛을 노래하다>는 국악이 단순한 전통 예술을 넘어, 지난 80년을 증언하고 미래를 노래하는 우리 문화의 저력을 보여준 의미 있는 무대였다.

91명의 목소리가 전한 빛의 노래

광복절 전야와 당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의 객석에는 각계 주요 인사와 국민 896명이 자리를 채웠다. <열사가> 등 국악의 전통성을 재해석한 작품부터 <아름다운 강산> 등 대중적인 곡까지



국립국악원 <대한이 살았다> 무대 모습

● 공연 프로그램 구성

주제	프로그램	주요 출연진	주요 내용
화합	<판놀음> (이준호 작곡)	창작악단 · 민속악단	광복절의 기쁨을 판의 형식으로 펼쳐내는 첫 번째 무대
기억	<서시> <새로운 길> <풍경> (구이임 작곡)	구이임 (노래: 구민지)	- 윤동주 서거 80년 헌정 무대 - 윤동주의 시 3편을 국악 선율에 얹어 독립과 광복에 대한 염원을 조명
희생	<열사가> (사설정리 박근희, 장태평 편곡)	창작악단 · 고준석 (협연)	- 창작판소리 열사가 중 안중근 · 윤봉길 눈대목 사설을 재구성한 관현악 협연 - 샌드아트 기법 영상과 동시 연출
소망	진도씻김굿을 위한 악가무 협주곡 <제석거리> (이정호 작곡)	창작악단 아쟁(이태백), 무가(김나영), 지전춤(강은영), 장구(김태영)	살아있는 자들의 재복과 영화를 빌고 조상에게 축원하는 제석거리를 통해 광복 80년을 맞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축원
미래	<대한이 살았다> <천리길>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강산>	창작악단 김주리 · 현음어린이합창단	- 나라 사랑의 마음이 담긴 노래들을 젊은 소리꾼과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 관현악과 협연 7인의 여성 독립운동가가 형무소에서 부른 <대한이 살았다> 합창
빛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	김주리 · 고준석 현음어린이합창단	백범 김구 선생의 글을 바탕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소망하는 마무리 무대

4 광복 80년 기념 국악 공연Ⅱ

〈흙(屹); 들풀처럼, 불꽃처럼〉

2025년 8월 15일과 16일, 부산콘서트홀에서

국악 칸타타 〈흙(屹); 들풀처럼, 불꽃처럼〉 공연이 개최되었다.

공연은 부산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의 삶을 중심으로

광복 80년의 상징성과 의미를 국악으로 되새기며,

부산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박차정 의사의 삶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삶을 기리는 이번 공연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고귀한 애국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의 장이 될 것입니다.

— 이정엽 국립부산국악원장 —

펜 대신 총을 쥐고 전장을 누볐던 삶

박차정 의사는 감수성 풍부한 문학소녀였으나, 일제강점기의 부조리한 현실을 계기로 사회운동에 참여한 인물이다. 1930년 서울 여학생 만세시위를 조직하며 형무소에 투옥되었고,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의열단, 조선혁명간부학교, 조선의용대의 핵심 간부로 활동했다. 2025년은 박차정 의사의 탄생 115주년이자 서거 81주기이며 동시에 광복 80년을 맞는 해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여성 시인, 여성 작곡가 등과의 협업을 통해 박차정 의사의 삶을 국악 칸타타 형식으로 담아내었다.

음악과 문학의 경계를 허문 협업

공연은 죽음의 문턱에서 남편 김원봉의 품에 안겨 고향의 봄을 떠올리는 박차정의 회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서곡을 비롯해 〈일어서라 폴아〉, 〈희망가〉, 〈새 세상은 오리라〉 등 다양한 곡들로 구성되어 서사를 전개하였다. 박차정 의사의 강한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의 여정을 담아낸 이번 공연을 위해 부산 지역 대표 문화예술 기관들이 협업하였으며, 총 187명의 인원이 무대에 참여하였다. 공연에는 2,731명의 관람객이 함께 하며 박차정 의사의 치열한 삶과 독립을 향한 끈질긴 투쟁의 여정을 깊이 있게 되새겼다.

부산에 울려 퍼진 광복의 기락

공연은 여성 독립운동가 박차정 의사의 삶을 다채롭고 입체적인 무대 연출로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선사하였다.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연주단(기악단·성악단)과 함께 클래식부산 합창단, 부산시립합창단 등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예술 저변 확대에도 기여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조국 독립을 위해 들끓처럼 꺾이지 않는 의지와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른 영웅의 삶을 국악 칸타타로 조명함으로써, 광복 80년의 의미를 관객 모두와 함께 나눈 뜻깊은 무대가 되었다.



국악 칸타타 대형 전광판 포스터



박차정과 김원봉의 사랑의 세레나데 '함께 돌아가리' 공연 모습

5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제작

전쟁은 끝났는가, 극장에서 마주한 질문

광복 80년을 맞은 2025년 8월,
광복회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가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이 전국 영화관에서 개봉되었다.
96분의 상영 시간 동안 약 6만 명의 관객이 독립전쟁의 역사와
국군 정통성에 관한 질문을 마주했다.



독립군

: 끝나지 않은 전쟁

2025.08.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년의 의미를 새기게 되길 기대합니다.

- 대통령, 시민 초청 상영회 -

홍상 하나가 던진 질문, 영화의 시작

2023년, 육군사관학교 교정에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전쟁 영웅들의 홍상을 철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이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봉오동·청산리 전투로 상징되는 독립군의 항일 무장투쟁이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임에도, 냉전과 분단의 구조 속에서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이 영화의 출발점이었다.

2024년 9월 기획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 이 영화는, 역사학자·군사전문가·독립운동가 후손·고려인 관련 인사들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국내외 사료와 영상 자료를 엮어 구성했다. 주요 장면에는 AI 영상 기술을 활용하여 역사적 현장감과 몰입도를 높였다. 2025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외 인터뷰 촬영을 진행하고, 6~7월 편집 및 후반 작업을 거쳐 2025년 8월 13일 개봉의 막을 올렸다.

네 개의 장으로 엮은 독립전쟁의 기록

영화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96분간 독립전쟁의 역사를 다룬다.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과 독립군에 있음을 조명하고, 이어 산포수 출신 평민 홍범도 장군의 삶과 봉오동·청산리 대첩의 전개 과정을 통해 독립군 세력이 하나로 결집되어 가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담아냈으며, 강제이주와 유해 귀환에 이르는 서사를 연대기적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귀환하는 마지막 장면은, 독립군의 정신이 오늘날 국군으로 이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국내 고려인 동포 단체관람

극장 밖으로 이어진 상영

2025년 8월 13일, 영화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에서 동시에 개봉되었다. 시사회에는 이종찬 민간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박홍근 국회의원(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개봉 나흘 뒤인 8월 17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시민들을 초청하여 서울에서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대통령의 직접 관람은 광복 80년 기념 영화로서의 상징성을 더했다. 또한 국회 중앙잔디광장 야외 텐트 상영 등 시민 초청 특별 상영 행사도 이어졌다.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전국 학생감상문 공모전 시상식



영화 구성

구성	제목	주요 내용
1장	국군의 뿌리를 찾아서	-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구한말 의병 · 만주 독립군 · 임시정부 광복군에 있음을 조명 - 친일 잔재 청산의 역사적 과제 제시
2장	평민 영웅, 홍범도의 삶	- 산포수 출신 평민 홍범도 장군의 생애 추적 - 정예 부대 및 전술 조명, 부인 · 아들을 잃는 개인적 희생 기록
3장	봉오동 · 청산리 전투와 통합의 길	- 독립군 단체 통합 및 민주공화국을 위한 무장투쟁의 동력이 된 3 · 1운동의 열기 - 임시정부의 명을 받은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 · 청산리 대첩 승리 과정 서술
4장	시련과 영원한 귀환	- 자유시 참변의 비극과 카자흐스탄 강제 이주 이후 동포들의 삶 조명 - 홍범도 장군 유해 귀환 과정을 통해, 현대 국군으로 이어진 독립군의 정신 상징적 제시

관람객들은 “독립전쟁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했다”, “기존 다큐와는 다른 대작의 느낌”이라는 반응을 남겼다. 학교와 군(국방부)에서도 단체상영이 이루어졌으며,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 사회에서는 모국에 대한 유대감이 강화되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영화의 감동은 극장에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감상문 공모전이 진행되었다. 영화를 관람한 학생들이 독립전쟁의 의미를 직접 글로 표현하는 이 행사는 국회의장상·광복회장상·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상 등이 시상되었으며 2025년 12월 24일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2026년 1월부터는 러닝타임 60분 버전이 제작되어 학교·회사·동호회·시민단체 등 단체관람에 도움을 주었다.

광복 80년을 계기로 제작된 이 영화는 진정한 독립은 통일로 완성된다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고취하고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깊은 의의를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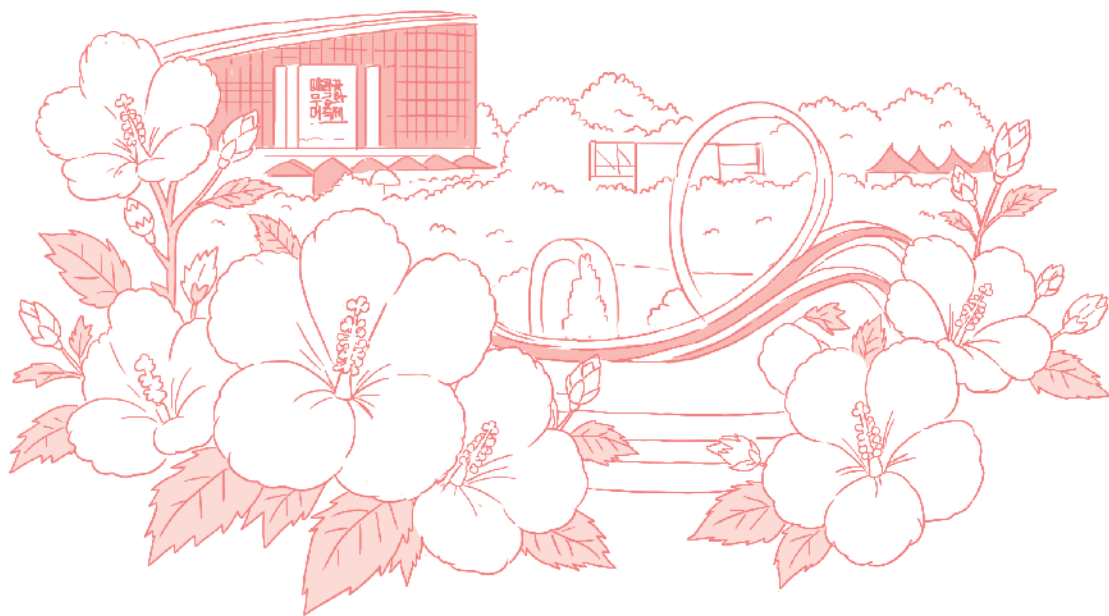


2025년 8월 17일 대통령 내외, 시민들을 초청하여 함께 영화를 관람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6 광복 80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

함께 피는 무궁화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는 1991년부터
무궁화가 가장 아름답게 피는 시기인 광복절 전후에 개최되어 온 행사다.
2025년에는 광복 80년을 맞아 ‘광복 80년, 함께 피는 무궁화’를 주제로
7월부터 8월까지 중앙행사(국립세종수목원)와
지역행사(수원·홍천·완주·장성)가 개최되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일간 약 3만 7천 명의 국민이 축제에 참여하여,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광복 80년을 맞아, 무궁화가 지닌 상징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고
자랑스러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 —

나라꽃을 더 가깝게

중앙행사는 개막식, 우수분화 품평회, 전시, 체험·문화행사로 구성되었으며,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진행되었다. 특히 8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무료입장과 야간 개장을 통해 관람객들의 방문 편의를 높였다.

개막식에서는 개회선언, 시상식, 뮤지컬 갈라쇼에 이어 〈형형색색 무궁화 드론쇼〉가 밤하늘에 펼쳐졌다. 우수 분화 품평회에는 전국 13개 시·도와 47명의 민간 육종가가 참여하여 900여 점의 분화가 출품되었으며, 수상작은 행사 기간 중 전시로 이어졌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한지 무궁화 태극기 만들기〉, 〈우리나무 무궁화 분화 만들기〉, AI 포토부스, 〈무궁화 오락실〉 등이 다채롭게 운영되었다.

전국으로 피어난 무궁화

무궁화에 대한 친근감을 제고하고 나라꽃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산림청은 중앙행사와 별도로 전국 4개 지역에서 지역 무궁화 행사가 개최되도록 지원하였다. 행사는 7월 26일 강원 홍천을 시작으로,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는 전남 장성에서 지역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어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경기 수원에서 지역 무궁화 축제가 개최되었으며, 8월 30일 전북 완주에서의 행사로 마무리하였다. 행사 이후, 나라꽃 인식도 조사에서 ‘보통’ 이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 비율이 축제 이후 대폭 상승했다.



〈광복 80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 개막식 전경

● 주요 프로그램

구분	날짜	세부 내용
개막식	8.14.(목)	- 테마: 광복 80년, 함께 피는 무궁화 - 개회선언·시상식·뮤지컬갈라쇼·형형색색 무궁화 드론쇼 - 참석 주요인사: 산림청장, 세종시장, 무궁화 협단체장
우수분화 품평회	8.14.(목)~8.17.(일)	13개 시·도, 2개 단체, 47명의 민간 육종가 참여 900여 점 분화 품평 및 재배 기술 공유 - 수상작 전시 연계
전시 행사		- 우수분화 품평회 출품 분화 900여 점 전시 - 무궁화 홍보관 역사 전시 - AI 무궁화 역사 해설 - 무궁화 박사와 함께하는 무궁화 바로알기 교육
체험·문화 행사		- 한지 무궁화 태극기 만들기 - 우리나무 무궁화 분화 만들기 - AI 기술을 활용한 포토부스 - 무궁화 오락실 - 나라꽃 퍼즐 맞추기 - 한복 무료 대여(야간개장시) - 무궁화 스피드 퀴즈

나라꽃 친밀도를 높인 광복 80년 축제

이번 대축제는 세종 중앙행사 및 전국 4개 지역 행사를 통해 나라꽃으로서 무궁화의 가치를 보다 많은 국민과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다.

축제 전후 나라꽃 인식도의 상승은 이 축제가 광복 80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국민이 나라꽃 무궁화를 직접 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이번 대축제는 세종 중앙행사와 전국 4개 지역 행사를 통해 나라꽃 무궁화의 가치를 보다 많은 국민과 공유하고, 광복 80년의 의미를 생활 속 문화행사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산림청 · 지자체 ·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 민간단체

가 함께 참여한 민관 협업 방식은 관람 중심의 전시행사를 넘어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통합형 축제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특히 전국에서 출품된 900여 점의 무궁화 분화와 역사·문화 전시, 체험 프로그램은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였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전시와 체험 콘텐츠는 전통 소재인 무궁화를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로 이어졌다.

축제 전후 나라꽃 인식도의 상승은 광복 80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국민들이 나라꽃 무궁화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데 이번 행사가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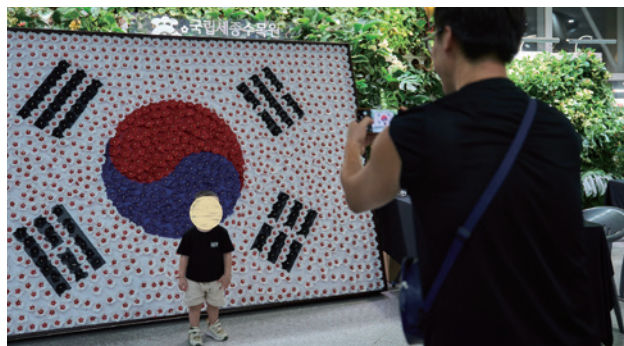
〈광복 80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 무궁화 분화전시 전경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수상작



무궁화 홍보관 역사전시 부스



한지 무궁화 태극기 만들기 포토존

3.

국민 일상 속 보훈 문화를 넓히다



걷고 달리고 함께 즐기는 친숙한 활동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일상의 경험으로 풀어내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기념사업들로 구성하였다.

도보 행진과 마라톤, 비행 행사와 스포츠 연계 프로그램, 콘텐츠 공모와 사적지 탐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함께 이루어졌으며, 보훈의 가치가 일상 곳곳의 장면 속에 살아 숨 쉬며 국민과 한층 가까이 자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 8.15 광복대행진

국민과 함께 거리에서 되찾은 광복

2025년 8월 15일, 광복회 주최의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대행진〉이 개최되었다.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광복대행진 행사를 다시 열고,
세대 간에 독립운동의 정신을 공유하는
국민 참여형 퍼레이드로 새롭게 기획되었다.



오늘 이 자리는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광복 100년의 비전에 후손들이 동참하고 기여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 이종찬 민간위원장 —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대행진〉 출발지 전경(탑골공원)



대열 선두의 행진 모습

광장에서 되살리는 독립의 정신

이 사업은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기획되었다. 첫째, 광복 80년을 맞아 세대 간 역사인식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퍼레이드 행사의 기획과 운영이 필요했다. 둘째, 올바른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새 시대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지속·발전시켜 나갈 대표적인 참여형 기념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었다. 셋째, 국민주권 국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홍보 효과를 고려했다.

행진의 슬로건은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이었다. 참가자들은 ‘내가 좋아하는 독립운동가’ 초상화 사진 피켓을 들고 거리를 걸었다. 독립운동가 80인의 캐리커처 피켓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고, 국방부 기수단과 군악대, 한복을 입은 연극배우들이 행진 대열 속에 함께했다. 독립군가와 압록강 행진곡 등 30여 곡의 음원이 행진 내내 거리를 채웠다. 구경하던 시민들과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고 행진에 눈길을 주었다.

815에서 1945로, 숫자에 담긴 역사의 의미

이번 행사의 참가자 모집은 사전접수 815명, 현장 참가 목표 1,945명으로 설계되었다. 815는 광복절인 8월 15일을, 1945는 광복의 해를 상징하며, 두 숫자를 합치면 ‘19450815’, 광복의 날이 완성된다. 참가자 한 명 한 명이 광복의 숫자를 채우는 역사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를 담은 기획이었다.

홍보는 광복회, 국가보훈부의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채널, 광복회TV, 운영사 SNS 채널 등을 통해 15~30초 분량의 사전 홍보 영상을 제작·배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8일 전인 8월 7일에는 광복회관 3층 강당에서 사전 언론설명회를 개최하여 행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또한 대행진 포스터와 리플릿 1,000부를 제작·배포하고, 독립운동가 AI 사진 1,000부도 제작하여 행진에 참가하는 국민들이 독립운동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광복의 의미를 공감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 행사 프로그램

시간	행사 내용	장소
15:00~16:30	행사 현장 안내 및 참가자 등록	탑골공원
16:30~17:10	대열 정렬, 사전 공연, 이종찬 민간위원장(광복회장) 환영사	탑골공원 서문 밖 도로
17:10~18:30	국민과 함께하는 대행진	탑골공원 → 청계천 남로 → 광화문광장
18:30~19:00	만세삼창, 해산	광화문광장

● 주요 연출 요소

연출 요소	주요 내용
대열 구성	국방부 기수단 · 군악대(선두) → 독립운동 후손 지도자 그룹 → 광복군 복장 착용자 → 독립운동가 분장 연극배우 → 후손 · 시민 본대
피켓	'내가 좋아하는 독립운동가' 초상화 사진 피켓 - 독립운동가 80인 캐리커처 & 말꽃 피켓
연극배우 배치	- 의병 · 독립군 · 양복 등 1910~1945년 시대 특별 의상 착용 - 독립운동 노래 등 거리 공연
독립운동 노래	국기가, 독립군가, 압록강 행진곡 등 약 30곡
참가자 복장	한국광복군 제2지대장 모자(OSS 침투훈련 착용) + 광복 80년 공식 티셔츠
진행용 차량	광복 80년 디자인 차량, 선두 · 후미 배치

탑골공원에서 광화문까지, 1.6킬로미터의 도보 행진

행사는 오후 3시 탑골공원에서 행사 현장 안내 및 참가자 등록으로 시작되었다. 오후 4시 30분부터 대열 정렬, 사전 공연, 환영사가 진행되었으며, 오후 5시 10분에 출발 신호와 함께 대행진이 시작되었다. 행진 대열에는 광복회를 비롯한 보훈단체와 일반 국민 등 약 1천여 명이 함께 하고 있었다.

행진 경로는 탑골공원 팔각정을 출발해 탑골공원 서문, 삼일도로, 청계천 남로를 지나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 이르는 1.6킬로미터 구간이었다. 오후 6시 30분, 광화문광장에 도착한 참가자들은 만세삼창으로 대행진을 마무리했다. 이후 개인 · 소규모 포토존과 단체 포토존에서 기념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웹사이트 소통 공간을 통해 광복 정신 메시지를 남기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행진을 완주한 참가자에게는 완주 인증 굿즈로 금속 뱃지가 증정되었다.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기쁨의 행진

2025년의 광복대행진은 오랜 단절 끝에 거리 위에서 다시 시작된 행진이었다. 1,031명의 발걸음이 서울 도심 1.6킬로미터를 채웠고, 독립군가와 태극기 물결이 탑골공원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졌다. 광복 80년을 맞아 오랜만에 추진된 이번 행진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거리 위에서 함께 기억하는 새로운 기념 방식의 가능성을 국민 앞에 증명했다.



광화문광장에 도착한 참가자들이 만세삼창 하는 모습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대행진〉 탑골공원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모습

걸어서 만나는 독립운동, 3만 명의 발걸음

2025년, 국가보훈부는 전국 5개 도시에서
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잇는
보훈 탐방길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를 운영했다.
3월 서울에서 시작해 대구, 부산, 대전을 거쳐 10월 광주까지,
총 6회에 걸쳐 개최된 이번 사업에는 3만여 명이 참여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나치만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 -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서울 3개 길 소개



서울 제3길 지도

일상 속에서 만나는 보훈정신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국민들이 보훈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며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보훈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존 보훈 탐방길과 다르게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지역 축제, 예를 들어 〈치맥 페스티벌(대구)〉, 〈나이트레이스(부산)〉, 〈0시 축제(대전)〉 등과 걷기, 캠핑 등 외부 활동을 연결했다. 또 외부 활동으로 발생하는 걸음 수를 모아 기부금으로 적립하고 기념 리워드(보보 패스포트, 완주 스탬프 등)를 제공하는 방식까지 결합함으로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 속에서 독립운동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다섯 개의 도시, 광복 위를 걷다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2025년 3월부터 10월 까지 전국 5개 도시(서울·대구·부산·대전·광주)에서 6회 개최되었다. 각 도시의 지역 독립 운동사를 담은 탐방 경로를 개발하고,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하여 독립운동 사적지를 걷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가장 먼저 3월 23일 서울 백범광장에서 5,000여 명이 모인 걷기대회로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서울 시민들의 걷기 명소인 남산에 조성된 코스를 활용하여 백범광장에서 안중근 기념관, 3·1운동 기념탑, 이준 열사 동상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걸었다.

7월 4일 대구에서는 대표 지역 행사인 〈치맥 페스티벌〉과 연계해 1,000여 명이 청라언덕에서 3·1만세운동길을 거쳐 이상화·서상돈 고택으로 이

어지는 독립운동길 걷기 투어에 참여했다.

8월 2일 부산에서는 <2025 나이트레이스 in 부산>과 연계해 1,000여 명이 부산진일신여학교, 백산기념관, 부산근현대역사관을 잇는 버스 투어에 참가했다.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서울썸머비치>와 연계해 3개 코스에

걸쳐 1만 5,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준 열사 집터에서 여성독립운동가의 길로 이어지는 1코스, 이상의 집에서 윤동주 하숙집, 윤동주 시인의 언덕으로 이어지는 2코스, 마지막으로 대한문에서 미국 공사관, 육영공원 옛 터, 배재학당, 증명전으로 이어지는 3코스가 운영되었다.

8월 8일부터 16일까지 대전에서는 <2025 대전

● 개최 도시별 행사 개요

지역	일시	장소	연계 행사 및 내용	행진 경로 / 코스
서울	3. 23.	백범광장 일원	- 출범 걷기대회 - 남산 걷기 명소 활용 - 참여: 약 5천명	백범광장 → 안중근기념관 → 3·1운동기념탑 → 이준열사동상
	7. 19. ~ 8. 8.	광화문광장 일원	<서울썸머비치> 연계 - 참여: 약 1만 5천 명	(1코스) 이준열사 집터 →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옛 터 → 여성독립운동가의 길 (2코스) 이상의 집 → 윤동주 하숙집 → 윤동주 시인의 언덕 (3코스) 대한문 → 미국 공사관 → 육영공원 옛 터 → 배재학당 → 증명전
대구	7. 4.	두류공원 일원	<치맥 페스티벌> 연계 - 참여: 약 1천여 명	청라언덕 → 3·1만세운동길 → 이상화·서상돈 고택
부산	8. 2.	광안리 일원	<2025 나이트레이스 in 부산> 연계 - 참여: 약 1천여 명	부산진일신여학교 → 백산기념관 → 부산근현대역사관
대전	8. 8. ~ 8. 16.	중앙로 일대	<2025 대전 0시 축제> 연계 815걸음 걷기대회, 광복 퍼레이드 등(4천여 명 참여) - 보보 패스포트·스탬프 증정, 팝업스토어·버스킹 공연 등	인동만세로광장 → 대흥교(야간 운영)
광주	10. 18. ~ 10. 19.	고려인 마을 패밀리랜드 캠핑장	<고려인의 날> 축제 연계 - 투어와 캠핑 결합 - 참여: 1천여 명	고려인문화관 → 문빅토르미술관 → 홍범도공원

0시 축제)와 연계하여 4,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다. 대전 지역 최초로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인동만세로광장에서 대흥교까지 815 걸음을 걷는 코스로 구성되었다. 걷기 행사 후에는 <0시 축제> 행사장에서 보훈음악회, 거리 공연, 광복 퍼레이드, 임시정부 팝업스토어, 광복 80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에게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티셔츠, 가방, 완주 인증 패스포트 등이 증정되었다. 마지막으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광주에서는 <고려인의 날> 축제와 연계해 1,000여 명이 고려인문화관, 문빅토르미술관, 흥범도 공원을 잇는 투어와 패밀리랜드 캠핑장을 활용한 캠핑에 참여하였다.

3만여 명의 국민과 함께한 보훈

2025년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의 총 참여 인원은 3만여 명으로, 2024년 대비 750% 증가한 인원이다. 이는 지역 보훈역사와 지자체 관광자원을 연계한 통합 브랜드 재편, 걷기, 캠핑 등 외부 활동과의 결합, 지역 대표 축제와의 연계, 걸음 수 기부 적립 및 기념 리워드 제공 등의 참여 유인책이 결합한 결과이다.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이 지향한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의 방향성에 맞게 국민들이 보훈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보훈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서울 백범광장 인근 행사 모습



대구 행사 서상돈 고택 전경



부산 행사 진일신여학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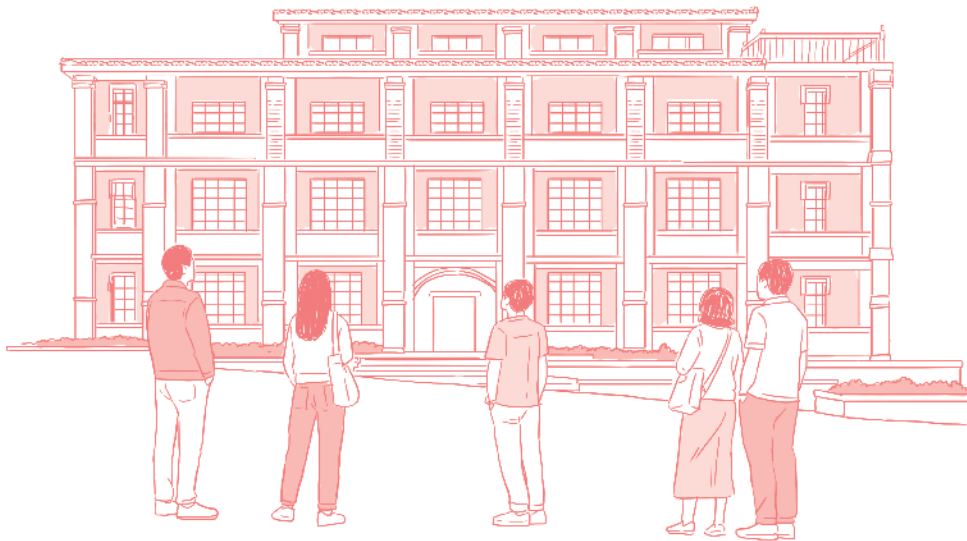


광주 행사 고려인마을 흥범도 장군 동상 앞

3 중국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사적지 탐방Ⅰ

시안에서의 노래, 다시 울리다

광복 80년과 한국광복군 창설 85주년을 맞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2025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중국 시안에서 중국 내 독립유공자 유가족·후손과 교민을 대상으로
전시·세미나·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가 진행된 시안은 광복군 총사령부가 위치했으며,
1940년 광복군이 항일가극 <아리랑>을 공연한 역사의 현장이다.



한국광복군은 일제강점기, 온 겨레의 염원이었던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운 항일무장세력입니다. 이번 기념행사들이
우리 국민과 중국 교민들에게 한국광복군의 활동과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현 독립기념관장) —

광복군의 땅, 시안에서 보낸 3일간의 기록

문화예술 행사는 2025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에 걸쳐 중국 시안에 위치한 개원대극장과 섬서사범대학에서 세미나, 교육 체험, 공연, 학술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은 <제2회 임시정부기념관·중국 내 임시정부청사 세미나>로 시작되었다. 중국 내 임시정부청사(자싱, 하이옌, 류저우, 충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 기관의 중점 사업을 공유하고, 자료 수집 및 연구 등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교육체험큐브 콘텐츠 전시 개막식과 항일가극 공연이 이어졌다. 개원대극장에서는 교육체험큐브 <한국광복군, 그들의 이야기>를 운영하며, 한국광복군의 성립, 군복, 식량, 훈련, 선전 활동 관련 실물 자료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1940년 시안에서 실제로 공연된 항일가극 <아리랑>을 모티브로 한 창작극 <아리랑, 승리의 노래>가 무대에 올라, 중국 내 독립유공자 유가족·후손과 교민 등 466명이 관람했다.

마지막 날에는 섬서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에서 한·중 공동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중



시안 섬서사범대와 한·중 공동 학술회의 개최 모습



교육체험큐브 전시 관람 모습

국·타이완의 학자 20명이 참가해 ‘한국광복군과 중국항일전쟁: 시안에서의 한·중 공동항일투쟁’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이어져야 할 교류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의 광복군이 첫 발을 떼고 활동했던 중국 시안에는 우리 독립운동의 기억이 남아있다. 그곳에서 펼쳐진 임시정부와 광복군과 관련된 역사·문화 교류사업은 높은 호응을 받았다. 현지 참가자들의 지속적 사업 요청은 문화예술 교류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었다.



제2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중국 내 임시정부청사 간 교육협력 세미나 기념사진

● 문화예술 프로그램 세부 일정

일자	시간	프로그램	세부 내용
9. 18.(목)	10:00~16:00	제2회 임시정부청사 교육협력 세미나	• 중국 내 임시정부 청사(자싱, 류저우, 충칭 등) 관계자 참여 • 각 기관 중점 사업 공유, 자료 수집 · 연구 교류 협력 방안 논의 • 장소: 개원대극장
9. 19.(금)	10:00~21:00	교육체험큐브 오픈식 〈한국광복군, 그들의 이야기〉	• 중국 내 독립유공자 후손 · 교민 대상 광복군 창설 · 군복 · 식량 · 훈련 · 선전 활동 관련 실물 자료 관람 및 체험
	19:20~21:30	항일가극 공연 〈아리랑, 승리의 노래〉	• 1940년 한국광복군이 시안에서 실제로 공연했던 항일가극 〈아리랑〉을 모티브로 한 창작극
9. 20.(토)	10:00~17:00	한 · 중 공동 국제학술대회 (섬서사범대 역사문화학원)	• 한국 · 중국 · 타이완 학자 20명 참가, 10개 주제 발표 • 주제: 한국광복군과 중국항일전쟁-시안에서의 한 · 중 공동항일 투쟁



뮤지컬 〈아리랑, 승리의 노래〉 공연 장면

4 중국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사적지 탐방Ⅱ

한국광복군의 발자취를 걷다

2025년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7박 8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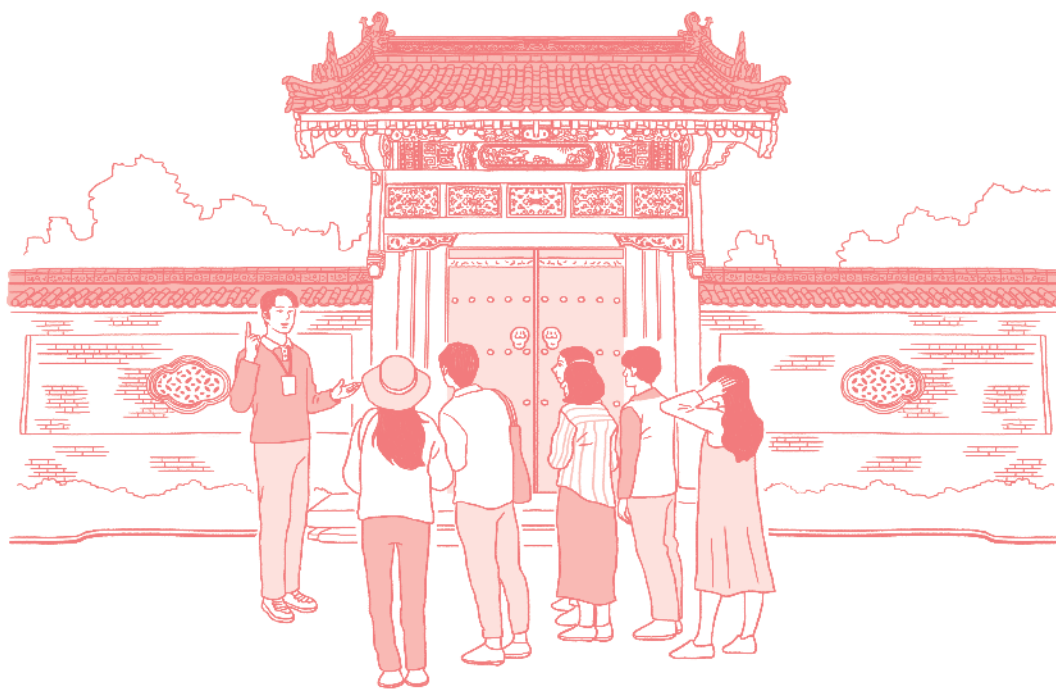
대한민국 국민 탐방단 48명은 중국 난징 · 충칭 · 청두 · 시안 4개 도시에서

한국광복군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사적지를 탐방했다.

올해 프로그램은 광복 80년과 한국광복군 창설 85주년을 맞아

‘한국광복군’을 주제로 광복군의 발자취를 따라 직접 이동하며

역사를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중국의 4개 도시를 모두 가볼 수 있게 되어 소중한 경험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광복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국 머나먼 땅에서 신념과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고
독립을 위해 애써주신 많은 선열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 〈2025 국외 사적지 탐방〉 참가자 —

역사를 걷기 위한 사전 준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국민들이 대한
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
고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한국
광복군’을 주제로 한 이번 탐방은 참가자들이 광
복군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 역사를 생생히 이
해하도록 구성하였다.

탐방단에는 2개 팀 총 48명이 참여했으며,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으로 참가자 선서·사적지 탐방
전 사전교육·조별 합동 활동 등을 함께 하며 참
가자들이 임시정부와 광복군에 대해 더 잘 이해
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한편 현지에서의 원활
하고 안전한 탐방을 위해 외교부 및 현지 총영사
관과 소통·협조 체계도 갖추었다.

난징에서 시안까지, 광복군의 발자취를 따라

탐방 일정은 난징(1~2일차), 충칭(3~4일차), 청
두(5일차), 시안(6~7일차)의 순서로 이루어졌
다. 탐방 장소마다 임시정부 전문 해설사의 설명
과 후손들의 생생한 증언을 청취하고, 이역만리
에서 독립을 위해 헌신한 한국광복군을 기리며
헌화 및 참배 등이 진행되었다.

한편 탐방 기간 중에는 총 3회의 세미나 프로그
램이 운영되었다. 1일차에는 한국광복군 관련 조
별 주제 발표, 4일차에는 <도전! 임정 골든벨>, 7
일차에는 <한국기념 서명포 만들기>가 각각 진
행되었다. 6일차에는 시안에서 열린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업에 합류하여 중국 내 독립유공자
유가족·후손 및 교민과 함께 교육체험큐브 콘텐
츠 전시 <한국광복군, 그들의 이야기>를 체험하



국외 사적지 탐방 5일차 쓰촨대학(김규식 활동지)



국외 사적지 탐방 3일차(행영 -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과 장제스 면담지)



국외 사적지 탐방 2일차 복성신촌(대한민국 임시정부 주화대표단 본부)

● 사적지 탐방 일정

일자	지역	주요 탐방지 및 활동
1일차(9.14.)	인천 → 난징	- 항일항공열사기념관 · 묘지, 총통부세 - 세미나: 조별 주제 발표
2일차(9.15.)	난징	- 교부영(뤄양군교 한인특별반 졸업생 거주지 터) - 복성신촌(임시정부 주화대표단 본부) - 목장영(한국특무대독립군 본부 터) - 남기개(임시정부 요인 거주지 터) - 강소반점(한국광복군 복원 선언지) - 동관두(한인 학생훈련소 사무소 터) - 난징성 · 회청교
3일차(9.16.)	난징 → 충칭	- 연화지 임시정부 청사(임시정부 충칭청사)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 행영(임시정부 요인과 장제스 면담지)
4일차(9.17.)	충칭	- 가릉빈관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전례식장 터) - 남천집중영(광복군 초모활동지) - 토교촌(임시정부 요인 거주지) - 세미나: <도전! 임정 끝판벨>
5일차(9.18.)	충칭 → 청두	- 쓰촨대학(김규식 활동지) - 중앙군관학교 청두분교(남교장 · 북교장)
6일차(9.19.)	청두 → 시안	-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터, 한국청년전지공작대 본부 터 - 임시정부 군사특파단 활동지 - 활동: 교육체험큐브 콘텐츠 전시 <한국광복군, 그들의 이야기> 체험 및 항일가곡 <아리랑, 승리의 노래> 공연 관람
7일차(9.20.)	시안	- 한국광복군 제2지대 기념비공원, 두곡진(제2지대 본부 터) - 미타고사(제2지대 OSS 훈련지), 시안사변기념관 - 활동: 한국기념 서명포 만들기, 해단식(수료증 수여, 우수팀 시상 등)
8일차(9.21.)	시안 → 인천	시안국제공항 출발 → 인천 귀국

고 항일가극 <아리랑, 승리의 노래>를 관람했다. 탐방 후 각 조는 사적지 현장을 담은 릴스 영상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였고, 그 결과물은 개인 SNS 등을 통해 공유되었다. 탐방 이후 참여자 설문 분석 내용은 기념관 소식지 <독립신문>에 게재되었다.

역사의 현장을 직접 걸어본 이들의 기록

탐방을 마친 참가자들은 7박 8일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겼다. 여기에는 한국광복군 창설일에 맞춘 일정과 프로그램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내용과 함께, 기념관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이 주

요 여행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겼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간직했던 독립의 열망과 의지를 이역의 땅에서 직접 확인한 기쁨과 감회가 솔직하게 묻어났다. 이 모든 기록들은 단순한 숫자나 문장만으로 나타낼 수 없는 소중한 체험의 증거들이었다.

탐방 참가자들의 기록들은 역사를 교실이 아닌 현장에서 접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었다.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흔적을 찾는 사적지 탐방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이 지향한 ‘임시정부와 광복군 역사의 계승과 공유’라는 목표를 역사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였다고 보여진다.



국외 사적지 탐방 7일차 한국광복군 제2지대 기념비공원

5 8.15km 통일 마라톤 우리가 만드는 평화

2025년 11월 16일 오전 8시 30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4,100여 명의 시민이 모였다.
통일부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2025 평화 통일 마라톤〉이 ‘광복 80년, 우리가 만드는 평화’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광복 80년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출발하여
통일대교를 지나 남북출입사무소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통해
참가자들이 분단의 현장을 직접 달리며
평화 통일의 의미를 체감하도록 기획되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통일대교를 지나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달려갈 수 있어 즐거웠고,
가족들과 함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의미 있었습니다.

- 〈2025 평화 통일 마라톤〉 참가자 소감 -



〈8.15km 통일 마라톤〉식전무대 모습



4천여 명의 참가자가 준비운동하는 모습



출발지점 설치 모습



참가자 출발 모습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한 평화 기원

이번 마라톤은 역사적 의미가 부여된 세 개의 코스로 구성되었다. 하프 코스(21.0975km)는 임진각 평화누리를 출발하여 통일대교를 건너 남북출입사무소까지 이어지는 특별 구간으로, 일반 국민이 평소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민간인통제구역을 통과하는 코스였다. 광복 코스(8.15km)는 광복의 역사적 숫자를 거리에 담았

으며, 시민 코스(5km)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남북 접경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서 분단의 현실과 평화의 가치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행사는 참가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폭넓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열띤 호응 속 준비된 행사

행사는 7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11월까지 마라톤 관련 전문가 및 관계기관과의 자문·협의를 거쳐 준비되었다. 행사 홈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하여 행사의 주제와 내용, 일정별 주요 프로그램과 기념품 등을 홍보하였고, 언론 대상 사전 보도자료 배포, 마라톤 동호회 홈페이지 및 SNS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참가 신청은 사전 신청 개시 이틀 만에 조기 마감되었으며, 추가 신청까지 포함해 최종 4,100여 명이 모집되었다.



〈8.15km 통일 마라톤〉 시상식

분단의 현장을 넘어 평화를 향해

대회와 함께 평화통일 체험공간, 광복 80년 기념공간, 축하공연, 평화누리 캠핑장 등 부대 행사도 운영되어 참가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완주 메달, 기념품, 간식 패키지가 제공되었으며, 구간별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통일부 장관 상장이 수여되었다.

〈2025 평화 통일 마라톤〉은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달리기를 통해 분단의 현장을 시민의 발로 직접 밟아보는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통일부는 이번 행사가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체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 참여형 행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 마라톤 코스별 개요

코스 구분	거리	참가 인원	내용
하프 코스	21.0975km	1,100명	• 민간인통제구역 내 남북출입사무소까지 달리는 특별 구간 • 일반 시민이 평소 출입하기 어려운 구역을 통과
광복 코스	8.15km	2,000명	•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거리에 담은 구간
시민 코스	5km	1,000명	•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구간

6 손기정 평화 마라톤

베를린에서 고양으로, 기억을 달리다

2025년 11월 16일 오전 9시, 고양종합운동장에 13,534명의 시민이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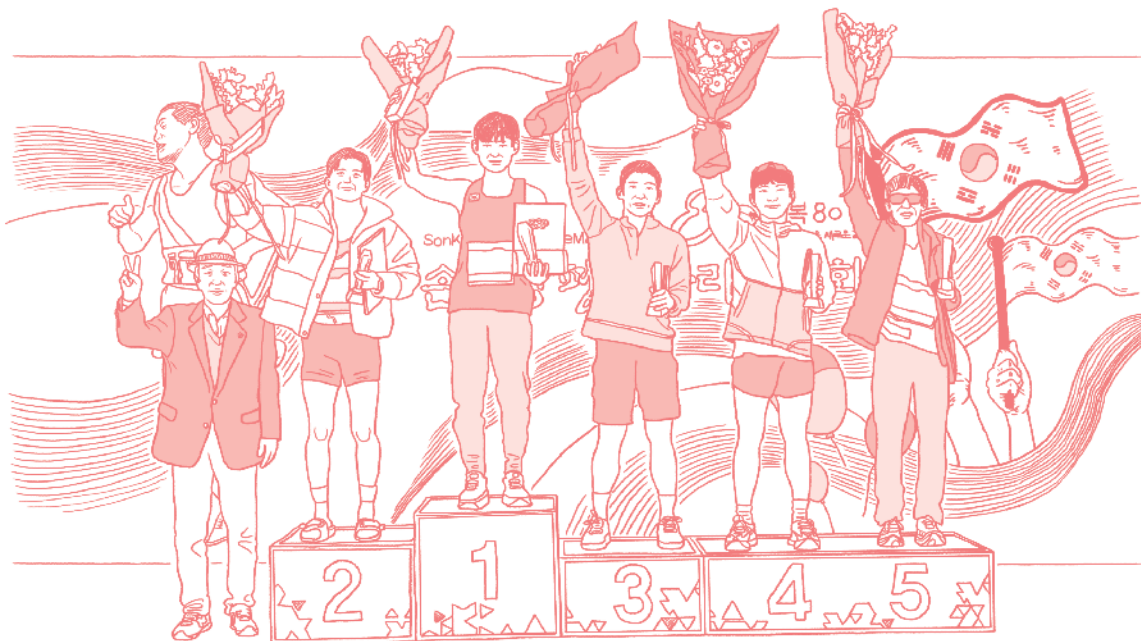
손기정기념재단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양특례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이 후원한 <2025 손기정 평화 마라톤대회>가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손기정 탄생 113주년과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제패 89주년을 동시에 기념하는 이번 대회는

많은 국민들이 함께 달리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광복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였다.



1936년 8월,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을 제패하여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 선수는
일제강점으로 민족의 자신감을 잃어가던 시기에
우리 민족의 큰 자랑이자 위안이었으며, 민족적 자긍심과 자신감을 고취시켜
국난극복의 상징적인 인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 손기정기념재단 -



〈2025 손기정 평화 마라톤대회〉 1만 3천여 명이 운집한 대회 전경

손기정 선수의 도전 · 평화 정신을 계승하여

1936년 8월 9일, 손기정 선수는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베를린의 결승선을 넘으며 우승을 손에 쥐었다. 당시 시상대에서 고개를 숙인 채 우승자에게 수여된 묘목으로 일장기를 가린 그의 모습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현실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민족의 의지를 세계에 알리며 스포츠를 통해 희망과 자긍심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복 80년과 손기정 탄생 113주년, 베를린 올림픽 제패 89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손기정 선수의 도전정신과 평화정신을 계승하는 데 의미를 두었으며, 더 나아가 우리 미래 세대에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등 광복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하는 계기로 추진하게 되었다.

‘광복은 자유다’, 제2자유로 코스를 둘러싼 험난한 준비

대회를 기획한 손기정기념재단은 올해 슬로건 ‘광복은 자유다’와 가장 부합하는 대회 코스로 ‘제2자유로’를 선정했다. ‘자유로’라는 이름 자체가 대회의 의미와 부합하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임진각 일대 자유로 코스에서 대회가 열린 점도 선정 이유로 작용했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제2자유로 통제 전례가 없고 제1자유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 우려 등으로 인해 장소 협의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경찰청은 정부 주관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충분한 안전대책 마련과 시민 안내 강화, 민원 최소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갔다.



〈2025 손기정 평화 마라톤대회〉 국적정정 서명운동 안내표지판



‘손기정 선수 국적 정정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

두 달여에 걸친 협의 과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자유로를 달린다’는 상징을 대회에 담아내기 위한 모든 관계기관의 노력이 집약된 시간이었다. 그 과정을 거쳐 대회는 예정대로 고양종합운동장을 출발점으로 하여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

1만 3천여 발걸음이 함께한 축제

대회 당일에는 마라톤과 함께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운영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주목을 받은 프로그램은 ‘손기정 선수 국적 정정 서명운

동’이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공식 기록에 일본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손기정 선수의 국적을 한국인으로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에 서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참가자와 방문객이 서명에 참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 외에도 기록 포토존, 축하공연, LED 아치, 광복 80년 기념공간 부스, 터치버튼 행사 등이 함께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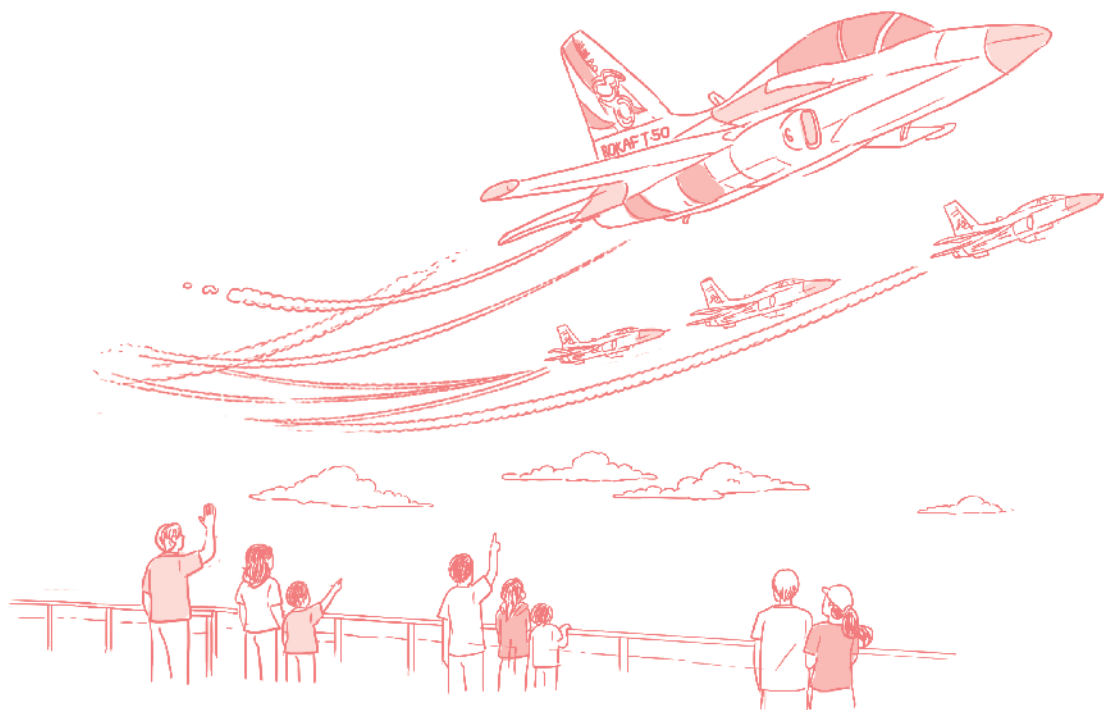
〈2025 손기정 평화 마라톤대회〉는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국민 참여형 생활체육 행사로서, 스포츠를 통해 광복 80년의 의미를 기념하고, 국민의 자긍심 고취와 평화정신의 확산을 촉진하는 시민 참여의 모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아울러 ‘손기정 선수 국적 정정 서명운동’을 연계하여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국적 정정을 위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함으로써 국민들이 광복 80년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2자유로 코스를 달리는 모습

7 광복 80년 공군 에어쇼 되찾은 하늘, 다시 날아오르다

5월부터 9월까지, 국내 최대 항공우주 축제인
〈스페이스 챌린지(Space Challenge)〉가 전국 5개 공군기지에서 개최되었다.
올해는 특히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의
T-50B 항공기에 광복 80년 기념 엠블럼을 부착하였으며,
광복 80년 체험 및 홍보 부스도 함께 운영되어
광복 8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광복 80년 기념 엠블럼을 부착한 블랙이글스가
광복절 창공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되찾은 겨레의 빛이 다시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 국방일보 -



〈광복 80년 공군 에어쇼〉 전투기와 태극기

전국 5개 기지를 순회한 광복 80년 공군 에어쇼

광복 80년 공군 에어쇼 〈스페이스 챌린지 2025〉는 전반기(5~6월)와 후반기(9월)로 나뉘어 권역별 5개 부대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었다. 전반기 행사는 5월 17일 수원기지를 시작으로, 5월 24일 광주기지와 6월 22일 원주기지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어 후반기는 9월 14일 김해기지와 9월 21일 서산기지를 마지막으로 에어쇼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오전과 오후 각 1회씩 총 2회의 블랙이글스 특수비행(각 80분)이 진행되었으며, 수송기 탑승 체험(200명), 블랙이글스 사인회, 문화예술 공연, 의장대 시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었다.

각 기지 행사장에는 지역 보훈지청과 협업하여 광복 80년 체험 및 홍보 부스가 운영되었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의 보훈 핀 버튼 만들기〉와 〈태극기 그리기〉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참여를 이끌었다. 또한 광복 80년 관련 퀴즈 이

벤트도 함께 진행되어 참여자들에게 광복 80년을 홍보하고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전달했다.

광복 80년 엠블럼을 새긴 항공기

이번 에어쇼의 광복 80년 연계 핵심은 블랙이글스 T-50B 항공기에 대한 광복 80년 기념 엠블럼을 부착한 것이었다. 예비기를 포함한 전체 9대 항공기의 수직 꼬리날개 좌우 측면에 엠블럼을 부착하여, 오전·오후 특수비행 내내 관람객들에게 광복 80년의 상징을 선보였다.

국방일보는 광복 80년 기념 엠블럼의 최초 공개를 전면 기사로 다루었다. KTV, EBS, KFN을 비롯한 방송과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뉴시스 등 전국 20개 이상의 언론도 이번 행사를 보도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 축제와 연계하여 하늘과 지상에서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광복 80년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전달하였다.

● 개최 일정

구분	일시	장소	비고
1회차(전반기)	2025. 5. 17.(토)	수원기지	수도권 권역 개최
2회차(전반기)	2025. 5. 24.(토)	광주기지	호남 권역 개최
3회차(전반기)	2025. 6. 22.(일)	원주기지	강원 권역 개최
4회차(후반기)	2025. 9. 14.(일)	김해기지	경남 권역 개최
5회차(후반기)	2025. 9. 21.(일)	서산기지	충남 권역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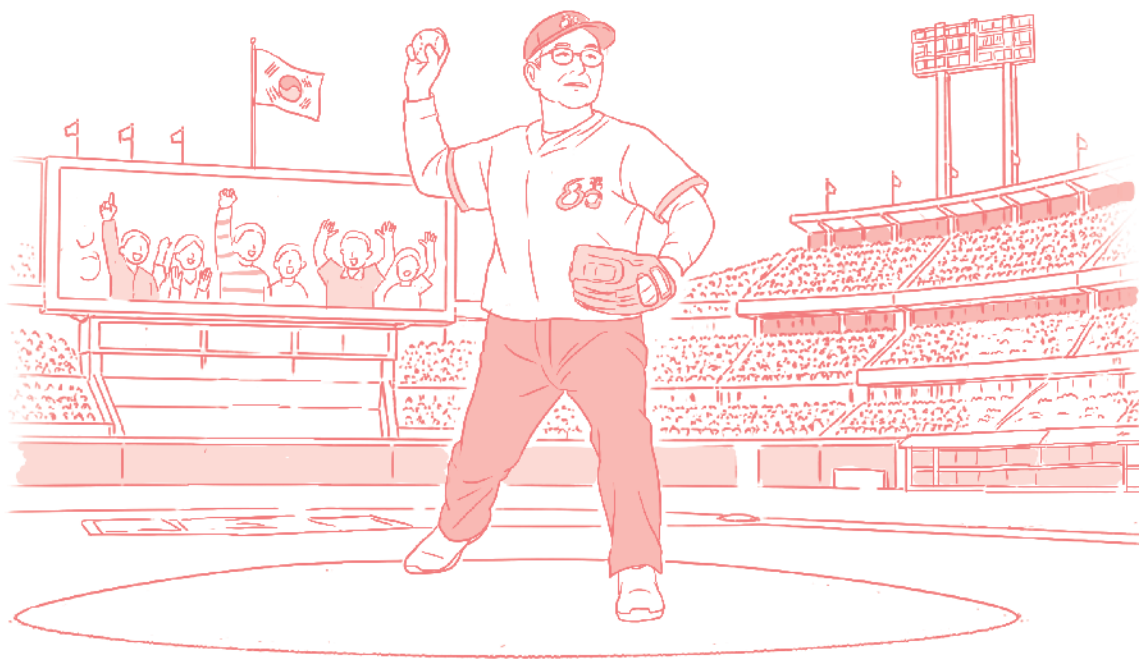
프로그램 세부 일정

순서	시간	세부 내용
입장	08:30~09:00	
식전행사	09:20~10:00	• 군악대 공연, 의장대 시범
개회식	10:00~10:10	• 국민의례(약식)
블랙이글스 특수비행(오전)	10:10~11:30	• 지상 세레머니 포함
체험 부스	11:30~	• 고무동력기 · 폼보드 전동 비행기 날리기 • 광복 80년 핀 버튼 만들기 · 태극기 그리기 · 퀴즈 이벤트
블랙이글스 사인회	12:00~12:30	
문화예술 공연	12:40~13:00	
의장대 시범	13:30~13:50	
블랙이글스 특수비행(오후)	14:00~15:20	• 지상 세레머니 포함
수송기 탑승 체험	15:00~15:30	• 200명 탑승
군악대 공연	15:20~15:40	
퇴장	15:40~16:00	

8 독립운동가 후손 프로야구 시구

마운드 위에서 되새긴 80년: 독립운동가 후손과 함께한 특별한 순간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전국 5개 프로야구 구장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시구·시타와 애국가 제창 행사를 진행했다. 광복 80년을 맞아 프로야구라는 일상적인 스포츠 무대를 통해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독립운동가 후손의 존재와 역사적 의미를 보다 많은 국민과 공유하고자 기획된 행사였다.



광복 80년을 맞아 프로야구 시구, 애국가 행사에
독립운동가 후손 등을 초청함으로써
국민들과 함께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독립에 대한 염원을 기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고척구장 광복 80년 기념 독립운동가 후손 프로야구 시구 모습
(키움 대 KT 경기)

전국 5개 구장에서 진행된 시구와 애국가 제창

8월 15일 당일, 잠실·고척·사직·창원·문학 5개 구장에서 행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경기 전 각 구장의 전광판에는 독립운동가의 얼굴과 이름이 표출되었으며, 사회자 멘트와 안내방송을 통해 광복 80년의 의미를 관중에게 전달했다. KBO 및 각 구단 공식 SNS와 홈페이지에는 행사 내용이 사전 게시되었고, 광복 80년 기념 사업 공식 엠블럼과 주제가 구장 곳곳에 활용되었다.

잠실·고척·사직·창원 4개 구장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보훈단체 인사가 시구자·시타자로 나섰으며, 문학구장에서는 1919년 인천 독립만세운동의 발상지인 인천창영초등학교 야구부가 마운드에 서서 애국가를 제창하였다. 창영초 야구부의 애국가 제창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과 광복 80년 기념의 의미를 연결하는 상징적 장면으로 남게 되었다.

일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역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시구와 애국가라는 상징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현재의 국민이 독립운동가 후손과 함께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가까이에서 체감하게 한 자리였다. 국가보훈부와 각 지방 보훈청, 공군본부가 협조했으며, 7월 말까지 대상자 섭외와 구단 협의를 마치고, 8월 초 참여자 명단을 확정했다.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전국 5개 구장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문학구장 인천창영초등학교 야구부, 애국가 제창하는 모습



잠실구장 광복 80년 기념 독립운동가 후손 프로야구 시구를 위해 입장하는 모습(두산 대 KIA 경기)

역사의 울림:

야구장에서 울려 퍼진 광복 8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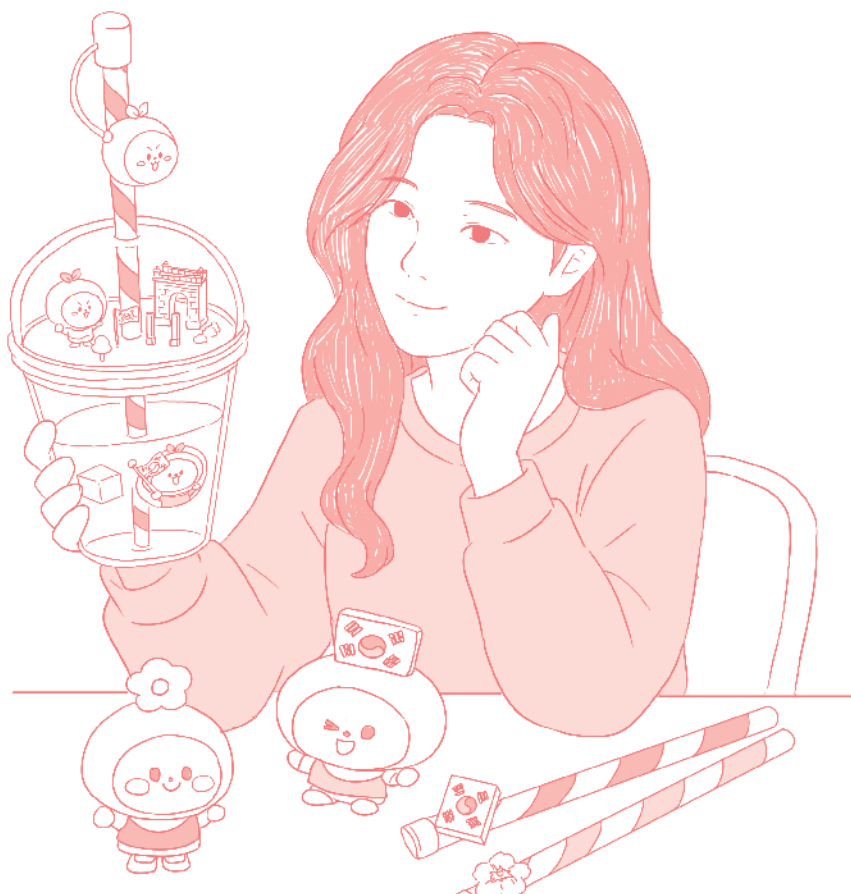
〈광복 80년 기념 시구·시타〉행사는 스포츠 현장이라는 상징적인 이벤트를 통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광복 80년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마주하도록 한 참여형 기념사업이었다. 전국 주요 프로야구 구장에서 추진된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참여를 통해 역사적 의미를 상징적으로 전달하고, 세대를 잇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과 함께한 순간은 야구장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광복 80년의 의미가 뜨겁게 전달된 날이었다.

“독립운동가 후손
프로야구 시구 행사는
시구와 애국가라는
상징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현재의 국민이 독립운동가
후손과 함께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보다 가까이에서
체감하게 한 자리였다.”

9 광복 80년 연계 보훈콘텐츠 공모전

광복의 기쁨을 그린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계기로
이모티콘 · 굿즈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을 도모하였다.
공모 주제는 ‘광복 80년의 기쁨을 형상화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도록 기획되었다.



국민이 직접 보훈문화 확산의 주체가 되는 보훈콘텐츠 공모전을 통해
미래 세대를 비롯한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보훈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

국민이 디자인한 광복

국가보훈부는 2025년 2월부터 3월까지 공모전 사업 기획을 마련하고, 4월 1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모티콘 부문과 굿즈 디자인 부문의 작품을 공모하였다. 이모티콘 부문에 239건, 굿즈 디자인 부문에 209건, 총 448건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6월에는 각 분야의 콘텐츠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심사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부문별 12점씩 총 24점을 최종 심사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이어서 7월에는 당선작을 발표하고 장관상 표창 및 상금을 지급하였다. 당선작은 이모티콘 9점, 굿즈 9점으로 총 18점이다. 이모티콘 부문 대상은 보훈 캐릭터 ‘보보’를 통해

애국심을 일상 속 대화로 표현한 <보보와 함께, 펠-릭!>이 수상하였다. 굿즈 디자인 부문 대상은 ‘보보’와 독립의 상징이 담긴 요소들을 결합한 생활 굿즈 <보보 모니터 피규어& 텀블러>가 선정되었다.

일상 속 보훈을 만나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국가보훈부는 당선작 중 ‘보보’ 이미지를 활용한 이모티콘 16종을 선정하여 ‘카카오톡 움직이는 보보티콘’을 제작하였다. 8월 11일부터 2주간,



<2025 광복 80주년 계기 이모티콘·굿즈 공모전> 포스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배포



굿즈 디자인 대상작(광복 80주년 보보 피규어 텀블러)

국가보훈부 카카오톡 채널 ‘TV 나라사랑’을 친구 추가한 이용자에게 선착순 5만 개를 무료로 배포하였으며, 배포 시작 1시간 반 만에 5만 개 전량이 소진되었다. 이모티콘 배포는 광복절 기념 사업의 내용을 카카오톡이라는 일상의 플랫폼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었으며, 광복 80년과 보훈의 의미를 확산하는데 기여하였다.

광복을 기억하는 새로운 언어

2025년 12월 5일,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2025년 보훈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시상식은 공모전 소개, 수상자가족 축하 영상, 수상작 소개 및 감상, 시상,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축하 순으로 진행되었다. 수상작을 기반으로 한 샌드아트 공연과 굿즈 수

상작 실물 제작·전시도 함께 운영되었다. 이번 시상식은 〈광복 80주년 이모티콘·굿즈 공모전〉을 포함한 2025년 4개 보훈콘텐츠 공모전의 수상자를 통합 시상하는 자리였다. 2025년 한 해 동안 4개의 공모전에 총 6,808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73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이모티콘 5만 개가 배포 시작 1시간 반 만에 소진된 것은 공모전의 수상작이 국민의 일상 속 소통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보급된 ‘보보티콘’은 광복과 보훈의 의미를 국민들의 대화와 디지털 문화 속에서 친숙하게 녹여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는 보훈 콘텐츠가 기념관과 행사장의 경계를 넘어 온라인 대화와 일상 속 소통 공간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보훈의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중도일보〉 수록 기고문

별과 시, 그리고 광복 80년의 빛



“광복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지켜야 할 ‘별 하나’를 품고,
그 별빛으로 과거를 비추며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광복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여는
불멸의 빛으로 남을 것이다.”

얼마 전 가족과 함께 뮤지컬 〈운동주, 달을 쏘다〉
를 관람했다. 그 깊은 울림으로 이 글을 작성하려
고 한다.

광복 80년이자 운동주 시인 서거 80주기를 맞아
새로운 구성으로 재탄생한 창작가무극 〈운동주,
달을 쏘다〉는 시인 운동주의 삶과 문학을 중심으
로 광복의 꿈을 노래한 청년 운동주의 아름다운
영혼과 순수한 언어를 조명한 뮤지컬 작품이다.

문학으로 나라를 지켜낸 청년, 시인 운동주

무대 위의 운동주는 단순히 문학과 시를 사랑한
청년이 아니었다. 일제 시대의 어둠 속에서 끝내
빛을 붙들고자 했던, 투명하고 단단한 영혼이었
다. 일본 유학 시절, 조국이 빼앗긴 현실 앞에서
그는 무력했으나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첫 악수를 하고 싶다’는 그의 고백처럼, 시를 쓰
는 일은 그에게 있어 자신의 주체성을 지켜내는
일이자, 조국을 위한 처절한 저항이었다.
그의 삶과 그가 쓴 작품들이 주는 울림은 단순한
문학적 감동에 그치지 않는다. 운동주는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한 방식으로 나라를 사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주무관

고 현 수



랑했고 낮은 목소리로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무지 켄은 그러한 시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냈다. 화려한 영웅담 대신, 고요한 목소리로 시대와 맞선 청년의 초상이 오히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덕분에 나는 ‘광복’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날에 되돌아보는 자유와 평화

올해는 광복 80년이다. 광복을 위해 피를 흘린 분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자유를 물려받은 나와 같은 세대가 사회의 중심이 되었다.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은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다.

윤동주의 작품은 그 행간까지도 당대를 살았던 이들이 무엇을 빼앗기고, 무엇을 갈망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말과 글이 통제되고, 국적과 이름조차 바꾸도록 강요받았던 시대에, 그가 목

숨을 걸고 지킨 단어와 그 사이에 숨겨진 마음들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다.

광복 80년을 맞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거창하지 않다. 윤동주가 그랬듯,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살아내는 것, 옳다고 믿는 일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작은 과거를 잊지 않는 ‘역사의식’에서 비롯된다. 역사의식이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오늘의 삶에 비추어 행동하고 선택하는 태도다. 자유와 평화는 한 세대가 피 흘려 쟁취하면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는 무너지고, 망각은 또 다른 위기를 낳는다. 기억을 잃은 민족은 같은 상처를 반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역사를 통해 확인해왔다.

광복은 끝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각자 마음 속에 지켜야 할 ‘별 하나’를 품고, 그 별빛으로 과거를 비추며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광복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여는 불멸의 빛으로 남을 것이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 했던 시인의 눈빛처럼, 우리도 이 땅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평화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제2절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1.

국외 독립운동 거점을 복원하여 역사를 지키다

1장 빛의 시작

2장 기억의 빛

3장 모국의 빛

4장 빛의 확산

5장 빛의 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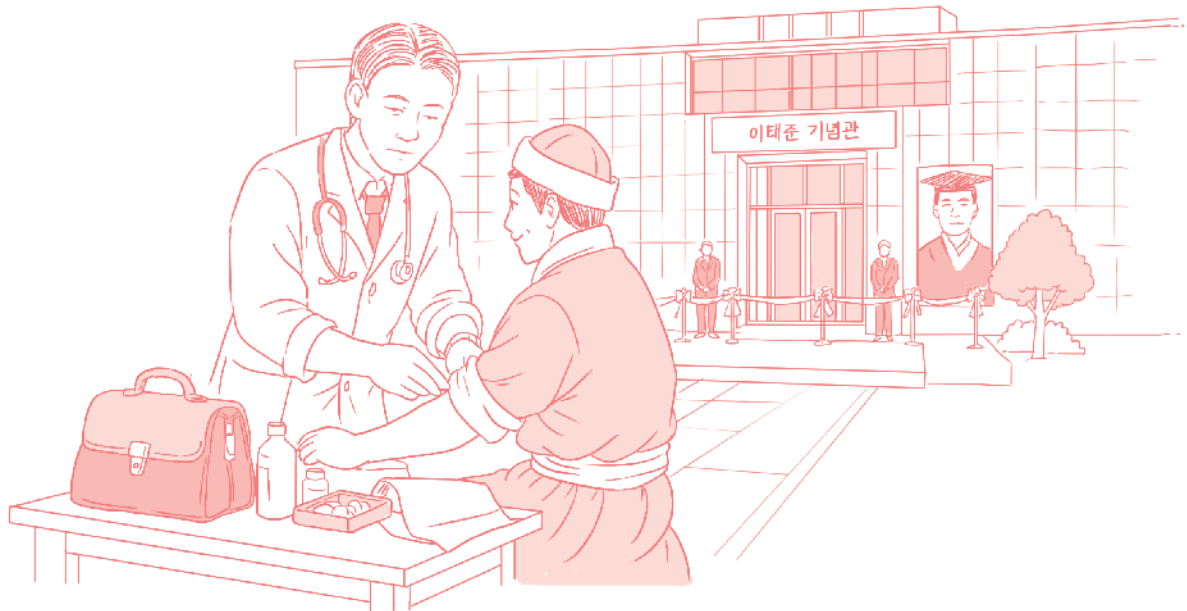
광복 80년을 맞아 머나먼 타국 땅에서 펼쳐졌던 독립운동의 자취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 현장이 품은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기념사업들이 추진되었다.

기념관 개관과 옛 건물의 복원, 현지에서의 공동행사와 전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의 거점을 살아 있는 역사의 무대로서 다시 바라보게 하고, 한민족의 정신이 국경을 넘어 기억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❶ 몽골 이태준 기념관 개관

몽골의 슈바이처, 마침내 그에 걸맞은 공간을 얻다

2025년 9월 4일, 몽골 울란바타르시 자이승에 위치한
이태준 기념공원에서 <이태준 기념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기존의 협소하고 노후화된 기념관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3년 간 추진된 공사와 준비는 광복 80년에 결실을 맺었다.
새롭게 탈바꿈한 기념관의 개관식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과 몽골한인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태준 선생은 한·몽 우호 관계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몽골에서 근대 의료기술로 많은 몽골인들의 전염병을 치료하고
몽골 황제의 어의로 활동하는 등 지금까지도 몽골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 몽골 줄바야르 환경기후변화부 사무차관 —



이태준 기념관 개관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는 주요 참석자들

몽골의 슈바이처, 이태준 선생의 생애

이태준 선생은 1883년 경남 함안 출신으로, 세브란스 의학교를 졸업한 후 김규식 선생의 권유로 1914년 몽골 고륜(현 울란바타르)으로 건너가 동의의국(同義醫局)을 개업했다. 당시 미신적 치료법에 의존하던 몽골 사회에서 이태준 선생은 전염병 치료와 근대적 의술을 펼치며 두터운 신뢰를 쌓았고, 이로 인해 몽골 마지막 황제 보그드 칸의 어의로도 활동했다. 외국인에게 수여된 최고 등급의 몽골 국가훈장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태준 선생은 독립운동가로서, 각지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연계하며 중국과 몽골 사이를 오가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숙식과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이태준 선생은 신한청년당 대표로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김규식 선생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다. 1921년 러시아 백위파 대장에 의해 순국하였으며, 199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기념관은 독립운동으로 나라를 위했던 이태준 선생의 삶을 온전히 담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노후된 목조기념관에서 현대적 전시·교육 공간으로

기존 기념관은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화 되어 전시·교육 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념관 건립이 추진되었다. 사업은 2022년 설계를 시작으로 건물 공사와 전시관 조성 등이 2025년까지 진행되었다. 신축 기념관은 연면적 1,520㎡,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디지털 전시관, 태극홀, 역사전시관, 도슨트 강당 등을 갖춘 지상 2층, 지하 1층의 현대적 시설로 조성되었다.

특히 기념관 내에는 이태준 선생의 AI 복원 영상과 한·몽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교류관이 마련되었으며, 이태준 선생의 구국운동 및 의료 활동을 다양하게 조명하는 콘텐츠가 마련되었다.

자이승 언덕 아래, 새 문이 열린다

2025년 9월 4일 개관식은 기념사·축사, 헌정 영상 상영, 축하공연, 기념촬영, 기념관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관식 자리에서 기념관 건립에 기여한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과 몽골한인회에 대한 국가보훈부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태준 기념관의 개관은 독립운동이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었음을 알리는 한편,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공간이 현지에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존·활용한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새 기념관은 몽골을 찾는 한국인과 현지 몽골인 모두에게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직접 느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준 기념관 개관식 참석자들의 단체 기념사진

2 LA흥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

1932년 미주 독립운동의 중심지가 다시 살아나다

국가보훈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흥사단 옛 본부건물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미주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이 건물은 리모델링 완공 후
미주 전역 독립운동 사적지를 관리하는 거점이자
현지 한인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문화 공간,
지역민과의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인 미래 세대에게 자긍심과 독립운동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지 동포뿐만 아니라 LA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국가보훈부 —



LA홍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 기공식 단체 기념사진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

홍사단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단체로, 청소년 교육과 인재 양성, 독립운동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했다. 1932년 LA에서 최초로 구입한 이 본부 건물은 이후 수십 년간 미주 한인들이 독립운동을 논의하고 민족 역량을 결집하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건물이 노후화된 상황에서 국가보훈부는 2023년 2월, 이 건물을 긴급 매입하여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에 나섰다.

건물 매입 이후 긴급 수리와 부지 안정화 작업, 3D 정밀실측을 통한 건축물 안전성 평가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2024년 1월에는 현지 동포·단체 의견 수렴 간담회와 한인 언론사 설명회를 통해 공간 활용 방향에 대한 지역 공동체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LA 현지 설계업체(2024년 7~9월), 건설관리업체(2025년 1~3월), 시공업체(2025년 9~12월)를 순차적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인 공사 준비를 마쳤다.

2027년을 향하여

리모델링 공사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2월 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완공 후 2027년 중 개관식이 계획되어 있다. 완공된 건물은 본관 복원과 별관 개축으로 구성되며, 부지 578㎡ 규모에 미주 독립운동사적지 관리거점 기능, 교육·문화 공간, 복합커뮤니티 공간을 갖추게 된다.

LA홍사단 건물 리모델링은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보존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해외 독립운동 역사 현장을 교육·문화적으로 활용하는 모델로서 의미를 지닌다.

● 사업 추진 경과

연도	주요 내용
2023. 2. 1.	• LA홍사단 건물 매입
2023. 3. 1.	• LA시 역사사적지 등재
2023. 5.~8.	• 건물 긴급수리 및 부지 안정화 작업
2023. 10.~11.	• 3D 정밀실측을 통한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검사
2024. 1.	• 현지 동포·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및 한인 언론사 설명회
2024. 7.~9.	• 미국 LA 현지 설계업체 공모 및 계약
2025. 1.~3.	• 미국 LA 현지 건설관리업체 공모 및 계약
2025. 9.~12.	• 미국 LA 현지 시공업체 공모 및 계약
2025. 12. 11.	• LA홍사단 리모델링 기공식 개최
2025. 12.~2026. 12.	• 리모델링 공사 진행

3 충청 한·중 공동행사 개최

충청 임시정부청사 개관 30주년 기념식 개최

2025년 8월 11일, 중국 충청 연화지 청사 기념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개관 3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광복 80년과 충청 임시정부 청사 개관 30주년을 기념하여
한·중이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서 공동 학술좌담회·사진전·
우호 음악회·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30년 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문을 연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는
한·중 우호협력의 역사적 증표입니다.

이날을 계기로 향후 30년도 중국 내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를
양국이 함께 잘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도 양국 간 우호 협력의 역사를
잘 알려 나가기를 바랍니다.

— 엄원재 주청두대한국총영사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

충청 대한민국 임시정부 연화지 청사는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가 항저우·창사·광저우 등 여러 지역을 거쳐 마지막으로 충칭으로 이전해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사용한 청사이다. 1994년 6월 독립기념관과 충칭시 인민대외우호협회가 청사 복원 협정을 체결하고, 1995년 8월 11일 복원하여 개관하였다. 연화지 청사는 지난 30년간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장소이자 한·중 우호·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두 개의 기념이 만나는 자리

행사는 기념사와 축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기념관 보존·관리에 기여한 관계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기념 촬영, 전시 관람 순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 이후에는 주청두충영사관과 국가보훈부가 지원하고 독립기념관이 주관한 한·중

공동 학술좌담회가 이어졌다. 좌담회는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와 한·중 교류’를 주제로 한국과 중국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연화지 청사 기념관에서는 주청두충영사관의 지원과 충칭한인회 주관으로 한·중 우호 음악회가 개최되었다. 양국 음악가들이 아리랑, 모리화 등 한·중 양국의 전통 음악을 번갈아 연주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를 더하였다.

또한 한국의 천안 독립기념관과 중국의 충칭 연화지 청사에서 각각 한·중 공동사진전도 개최되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충칭 청사 측이 제공한 중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사진 자료전이 10월부터 12월까지, 연화지 청사에서는 독립기념관이 제공한 연화지 청사 복원 과정과 복원 이후 30년 변화 모습을 담은 사진 자료가 8월부터 10월까지 각각 전시되었다.

광복 80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행사는 충칭 임시정부 청사라는 독립운동의 역사적 현장에서 한·중 양국이 독립운동의 의미와 사적지 보존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충칭 한·중 공동행사〉참석자들이 전시회 관람하는 모습



한·중음악회 공연 현장

4 뉴욕 한인교회 독립운동전시관 개관식 및 음악회

맨해튼의 독립운동

국가보훈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2025년 9월 23일,
미국 뉴욕 한인교회 내 독립운동전시관의 개관식을 거행했다.
이어 10월 5일에는 뉴욕 타운홀에서 개관 기념 음악회를 개최하여,
방문객과 동포 및 현지인들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독립운동전시관을 조성하여 광복 80년을 맞아
정식 개관하게 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 국가보훈부 —



뉴욕 한인교회 건물 전경



뉴욕 한인교회 독립운동전시관 내부

‘뉴욕 한인교회’에 독립운동전시관이 자리한 의미

뉴욕 한인교회는 1921년 설립 이후 미주 한인사회, 특히 뉴욕에서의 구심점이자 독립운동의 거점으로 독립운동 관련 소식이 전파되고 독립운동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이다. 이 공간에 2020년부터 독립운동전시관을 조성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2025년 광복 80년을 계기로 정식 개관에 이르렀으며, 뉴욕 한인교회 독립운동전시관은 맨해튼에서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개관 기념 음악회 피날레

개관에 이어 음악회의 선율까지

2025년 9월 23일, 뉴욕 한인교회 독립운동전시관의 개관식이 열렸다. 월드코리안신문, 미주중앙일보, 한국경제, 국민일보 등 국내외 언론이 개관 소식을 잇달아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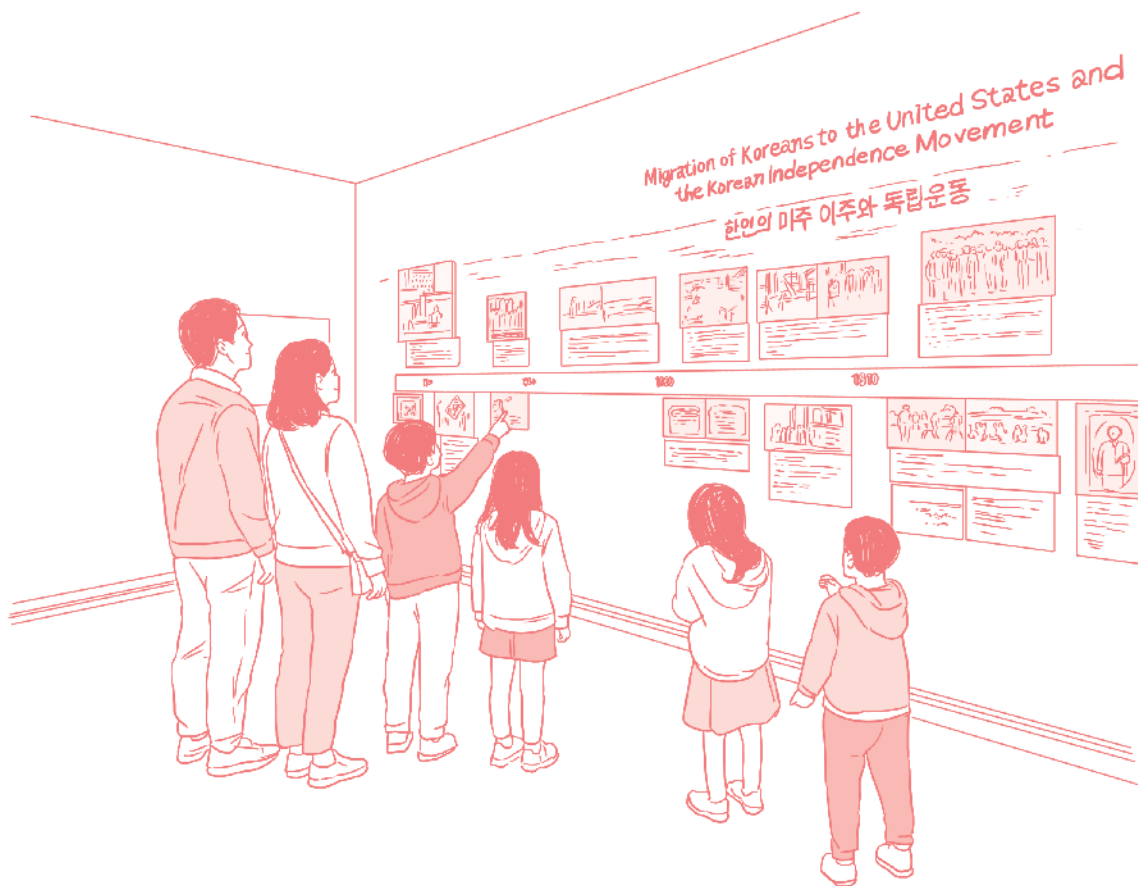
개관식에 이어 2025년 10월 5일, 뉴욕 타운홀에서 개관 기념 음악회가 열렸다. 독립운동의 긴박함과 나라를 되찾은 광복의 기쁨을 주제로 준비한 클래식 음악회로 관람객들이 함께 광복의 환희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뉴욕 한인교회 독립운동전시관은 독립운동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었음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미주 독립운동의 거점이었던 이 건물에 전시관이 들어선 것은 그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계승하려는 노력의 연장선이다.

5 한인의 미주 이주와 독립운동 전시

미국 LA 한인타운, 역사 뿌리교육의 공간이 열린다

교육부는 미주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
뿌리교육 강화를 위해, 로스앤젤레스한국교육원(이하 LA한국교육원)
1층에 <한인의 미주 이주와 독립운동 전시관>을 조성했다.
전시관은 광복 80년을 앞두고 전시물을 전면 개편하여
2025년 3·1절을 계기로 재개관했다.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에서 독립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이민사 전시관의 재개관을 통해 한인 청소년들이 조국을 잊지 않고,
역경을 극복한 민족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강전훈 LA한국교육원장 —



새 단장한 한인미주 이민사 전시관

역사적 뿌리교육의 공간으로

이 전시관은 단순한 기념 시설이 아닌, 미주 한인 동포 2·3세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역사 교육 공간이다.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던 기존 전시실을 한인들의 미주 이민과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것은, 이러한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시관 재개관을 위한 준비는 2024년 8월부터 동포 단체, 지역 인사,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으로 시작되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이루어졌으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전시물 설치 공사가 진행되었다. 전시물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협조를 받아 구성했다.

1903년부터 오늘날까지의 이민사

이번 재개관을 통해 기존 전시를 전면 개편하고, 1945년 이전 미주 한인 이민사 관련 전시를 새

롭게 보강했다. 전시는 독립운동 사적지, 미주 이민사, 뿌리교육을 중심으로 세 구역으로 구성되었으며, 1903년부터 2020년대에 이르는 미주 한인 이민의 흐름을 시간 순서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 LA한국문화원에서 선보였던 미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 사진 자료 30여 점을 상설 전시로 이관·활용함으로써, 미주 곳곳에 남아 있는 독립운동의 흔적과 한인 사회의 역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아울러 한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 전시 내용을 재구성함으로써 미주 한인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뿌리교육 학생들의 재개관식 첫 관람



첫 관람객 한인 어린이들 모습

3·1절에 열린 재개관식

광복 80년을 맞아 2025년 3·1절 당일 개최된 재개관식에서 가장 먼저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은 LA한국교육원의 뿌리교육 한국어반 학생 36명과 학부모들이었다. 학생들은 전시 관람을 통해 3·1절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한지 공예와 캘리그래피 등 연계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하였다. 전시관은 개관 이후 미국 정규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한인 동포 2·3세 대상 뿌리교육, 한국 관련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미주 한인 사회의 이민사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공유하는 동시에,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전시관 구성

섹션	전시 주제	주요 전시 내용
독립운동 사적지	미국 내 한국 독립운동 유적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국외 교류 전시전(2024. 2~4월, LA한국문화원) 전시물 30여 점 이관받아 상설 전시 - 미국 내 한국 독립운동 사적지의 위치와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소개
미주 한인 이민사	1903년~2020년대 미주 한인 이민 역사	1945년 이전 미주 한인 이민사 전시물 신규 설치 - 기존의 해방 이후 이민사 전시물과 연계하여 1903년부터 2020년대까지 전체 이민사를 시간 순서로 구성 - 전시물 다수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독립기념관·국사편찬위원회 등의 협조로 구성
뿌리교육	미주 한인의 힘, 교육	미주 한인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학교를 세우고 한국어·한국문화를 가르쳐온 역사와 활동 소개

● 전시관 활용 사례

일자	내용
상시	미국 정규학교 학생 체험학습
2025. 5. 17.	한인 입양인 대상 뿌리교육 세미나
2025. 5. 27.	대한민국 병무청 재외동포 병무행정 설명회
2025. 8. 21.	대학학점 선이수제(AP) 한국어 도입 재외동포 추진위원회 출범식

〈디지털조선일보〉 수록 기고문

광복 80주년, 독립 역사에서 ‘재외동포’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하얼빈 의거 3일 전 찍은 기념사진(왼쪽부터 안중근, 우덕순, 유동하)

광복 80년을 맞은 올해는 전 세계 흩어져 살아가는 재외동포 사회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이다. 필자는 재외동포 콘텐츠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세계 각국의 동포 사회를 직접 방문하고 그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이어왔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광복 80년을 맞는 지금,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재외동포들의 숨겨진 활약을 되돌아보고자 한다.

안중근 의거, 혼자가 아니었다

1909년 10월, 쌀쌀한 바람이 부는 하얼빈의 한 여관. 거사를 앞둔 안중근 의사 앞에 앓던 얼굴의 소년이 섰다. 30세의 혁명가 앞에 선 17세의 소년. 바로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재외동포 2세 유동하였다.

안중근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으로 향할 때, 현지 언어와 지리에 대한 걱정이 컸다. 절체 절명의 상황 속, 젊은 유동하의 결의는 안 의사에게 매우 큰 힘이 되었다. 이후 유동하는 러시아어로 된 이토 히로부미의 동선 정보를 빼내고,



디지털조선일보 글로벌미디어실 부장

정 세 운

러시아 헌병대의 눈을 피하는 길을 안내했다. 하얼빈에서 안중근의 눈과 귀가 되어 준 것이다. 마침내 10월 26일, 그의 도움으로 역에 잠입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세 번 방아쇠를 당겼다. 우리가 아는 ‘영웅적 개인의 결단’은 실제로는 재외동포의 결정적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독립의 혈맥을 이은

‘보이지 않는 손’

17세 재외동포 2세 유동하. 그는 러시아 땅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조국 광복의 염원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일제 강점의 참상을 목격한 그는 자신의 안위를 뒤로 한 채 위험천만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는 단순한 통역자가 아니었다. 하얼빈 일대의 지리와 러시아 관헌들의 동태를 속속들이 파악하며 안중근에게 현지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 정보원이었다. 의거 당일에는 하얼빈역 주변의 러

시아 경비병 배치와 이토의 정확한 동선을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그의 정보가 없었다면 역사는 지금과 다른 기록을 남겼을지 모른다.

이러한 재외동포의 독립운동은 유동하만의 일이 아니었다. 만주 곳곳의 잡화상들은 낮에는 일본인 고객을 상대하며 일본군 동향을 파악하고, 밤에는 독립군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이중생활을 했다. 도쿄의 한인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일본 본토의 기밀 정보를 수집해 해외 독립운동가들과 연결하는 연락망 역할을 담당했다.

하와이의 땀방울이

독립의 씨앗으로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 하와이 사탕수수밭.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하루 10시간 넘게 고된 노동을 하던 한인들. 이들은 한 달에 3~4달러를 벌어들여 그중 1달러 이상을 매월 독립운동 자금으로 기부했다. 땀벌에서 번 돈의 3분의 1을 조국 광복을 위해 바친 것이다.

하와이 한인사회가 1920년대까지 모은 독립 자금은 약 300만 달러. 현재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금이다. 이 자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운영비가 되었고, 만주와 연해주 독립군의 무기 구입비가 되었으며, 독립운동가 가족들의 생활비가 되었다. 일제의 엄격한 통제로 국내에서는 불가능했던 독립자금 마련이 재외동포의 희생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나라 없는 나라의 알려지지 않은 외교관들

1919년 파리강화회의. 한국 대표단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미국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대한인국민회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인국민회의 안창호와 서재필 등은 미국에서 자금을 모으고 여론을 형성하며 활동을 총력 지원하였고, 대표로 파리에 파견된 김규식은 각국 대표단을 상대로 한국 독립 청원서를 전달하는 등 치열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

이런 재외동포들의 끈질긴 외교 활동이 축적되어 1943년 카이로선언에 “조선의 독립”이 명시될 수 있었다. 나라 없는 민족의 외교관 역할을 자처한 재외동포들이 있었기에 국제사회에서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와이의 자금, 도쿄의 정보, 상하이의 의거, 파리의 외교. 각기 다른 대륙에서 벌어진 이 모든 활동은 흠어진 점이 아니었다. 하와이 노동자의 땀이 상하이 의거의 자금이 되고, 도쿄 유학생의 정보가 파리 외교관의 무기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닌, 보이지 않는 동포들의 거대한 연대, 살아 숨 쉬는 네트워크의 결과였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운영 중인 '재외동포 자료실'에서 찾은 재외동포 독립운동 관련 서적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된 임시정부 대표단(출처: 독립기념관)

광복 80년,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

광복 80년을 맞는 2025년. 우리는 안중근과 윤봉길 같은 위대한 영웅들을 기억한다. 이제는 그들의 뒤에서, 혹은 옆에서 함께 총을 들고, 돈을 보내고, 정보를 전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재외동포들을 함께 호명해야 한다. 그들은 독립운동의 ‘숨은 주역’이자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다행히 정부도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광복 80년을 맞아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연수는 7월부터 8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70여 개국 2,600여 명의 청소년·청년 동포가 참여할 예정이다.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독립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 등을 돌아보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또한 외교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과거 재외동포의 헌신을 기리는 광복 80년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역사는 영웅 개인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의지로 만들어진다는. 광복 80년을 맞아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은 조국 광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재외동포들의 숨은 헌신이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

“

광복 80년을 맞는 2025년.
우리는 안중근과 윤봉길 같은
위대한 영웅들을 기억한다.
이제는 그들의 뒤에서,
혹은 옆에서 함께 총을 들고,
돈을 보내고, 정보를 전했던
수많은 이름 없는
재외동포들을 함께
호명해야 한다.
그들은 독립운동의
‘숨은 주역’이자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

2.

글로벌 네트워크로 광복의 의미를 전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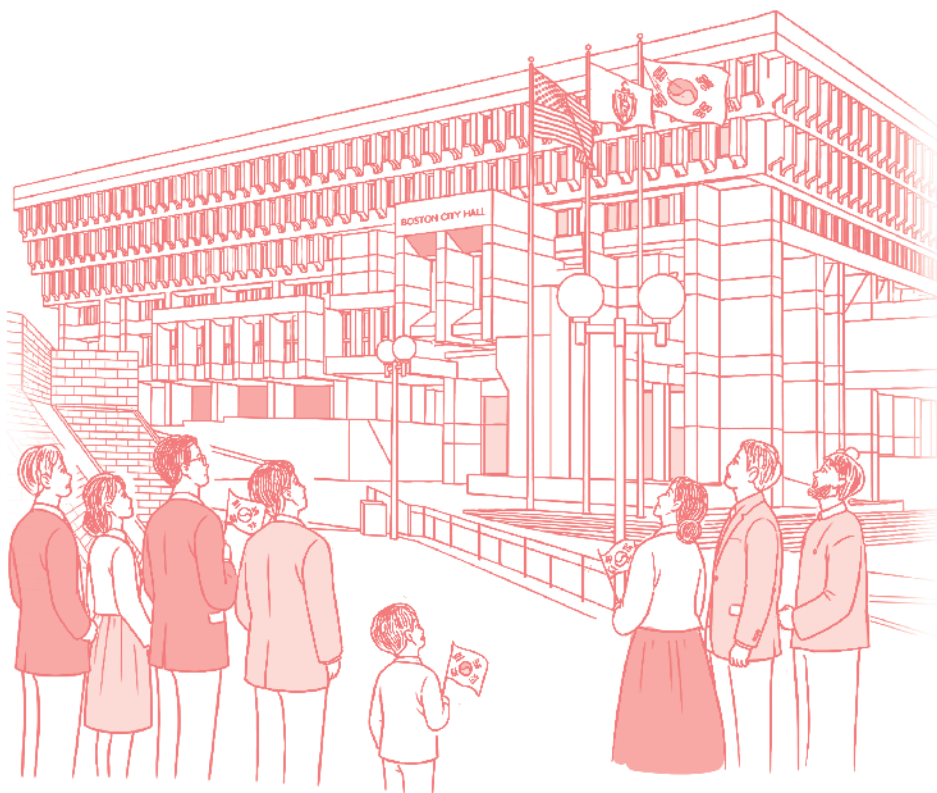


광복 80년의 의미를 국경을 넘어 국제 사회에 폭넓게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재외공관과 문화원, 동포사회와 청년 교류 등 이미 형성된 글로벌 인적·문화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해외 기념행사와 후손 초청, 동포사회와의 교류와 국제 공모전, 국외 전시와 청년 교류 행사 등이 진행되었으며, 광복의 의미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울려 퍼지고,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와 한층 가까이 호흡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하였다.

1 주요 재외공관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

세계 각지에서 기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광복 80년을 맞이하여 외교부는
전 세계 약 60개 주요 재외공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재외동포들은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를 비롯하여
각국의 한인회 및 동포단체와 함께
광복 80년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광복 80년 계기 재외공관의 기념행사 개최 및
동포단체 연계행사를 통해 재외국민과 동포들에게 광복 및
독립운동의 의미를 환기하고 주재국 주요 인사들의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습니다.

- 외교부 -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전하는 외교

행사는 광복 80년을 계기로 독립운동의 의미를 세계 무대에서 환기하고, 독립운동의 현장에 소재한 재외공관의 외교활동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단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재국 인사와 동포, 후손들이 함께하는 살아 있는 외교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출발점이었다.

2025년 7월 각 공관의 세부 계획 접수를 시작으로, 8월 15일 전후에 전 세계 약 60개 공관이 일제히 기념행사를 열었다. 재외공관과 한인회, 동포단체가 공동 주관하였으며, 주재국 인사, 독립유공자 후손, 한국전 참전용사, 재외 특파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특히 각 공관은 지역별 독립

운동의 역사성과 현지 특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광복의 의미를 현지 사회와 공유하고자 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기린 광복 80년

모든 공관에서 공통적으로 대통령 기념사 대독과 K-pop · 한국음식 · 전통공연 등 한국문화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더하여 각 지역은 독립운동의 역사적 맥락과 현지 여건에 맞는 고유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미주 지역의 행사는 특히 다채로웠다. 주재국 시청 광장에 태극기가 게양되었고, 한국의 날이 선



주재국 광장 태극기 게양식

포되었다. 이민 기념우표 전달식이 열렸고, 한국 전 참전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이 수여되었다. 사적지 걷기 대회에서는 AI를 활용한 사적지 안내가 이루어졌고, 독립운동가의 사진과 자료도 전시되었다. 주재국 시청은 광복절 기념 선포문을 채택하였으며, 태극기 동산이 조성된 광장에서 80년 전의 광복은 현재의 언어로 다시 조명되었다.

아주(아시아) 지역에서는 한인타운에 태극기 광장이 조성되었고, AI로 구현된 독립운동가 동영상 상영이 상영되었다. 아울러, 독립운동 사적지 명예관리자 위촉식이 열렸으며, 임시정부 청사 개관 기념식과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한국인 순난자(희생자) 위령비를 찾아 참배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으며, 독립운동 이야기를 담은 현수막

이 현지 거리 곳곳에 게시되기도 하였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카이로 선언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다. 1943년 카이로에서 한국의 독립이 국제사회에 처음 약속된 역사가 80여 년 만에 기념비로 다시 새겨진 것이다.

이번 사업은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던 현장에 소재한 재외공관을 거점으로, 재외국민과 동포, 주재국 인사들이 함께 광복 80년을 기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광복의 기억이 국내를 넘어 세계 각지의 현장 속에서 다시 이어진 것이다.

● 지역별 주요 프로그램

지역	주요 프로그램	
미주(아메리카 지역)	- 주재국 시청 태극기 게양식 - 한국의 날 선포 - 이민 기념우표 전달식 - 한국전 참전용사 대상 평화의 사도 메달 수여식 - 사적지 걷기 대회(AI 안내 병행)	- 태극기 동산 조성 - 독립운동가 사진·자료 전시 - 주재국 시청 광복절 기념 선포문 채택 - 주재국 주요 인사(장관·의원 등) 참석
아주(아시아 지역)	- 한인타운 태극기 광장 조성 - AI 활용 독립운동가 동영상 상영 - 독립운동 사적지 명예관리자 위촉식 - 우리 근현대사 특별 강연 / 임시정부 청사 개관 기념식 및 학술대회	- 한국 영화제 및 사진전 - 한국인 순난자 위령비 참배 - 독립운동 이야기 현수막 제작·게시 - 독립유공자·고려인 후손 참석
중동·아프리카	- 카이로 선언 기념비 제막식(한국학교 교정 내) - 한국에 대한 경험·인식 동영상 제작 및 온라인 홍보 - K-pop·한국음식·전통공연	
구주(유럽 지역)	한인 체육대회(광복절 기념)	K-pop·한국음식·전통공연

2 재외문화원 광복 80년 기념 문화행사

세계인에게 선보인 광복의 의미

2025년, 광복 80년을 맞아 전 세계 18개 재외한국문화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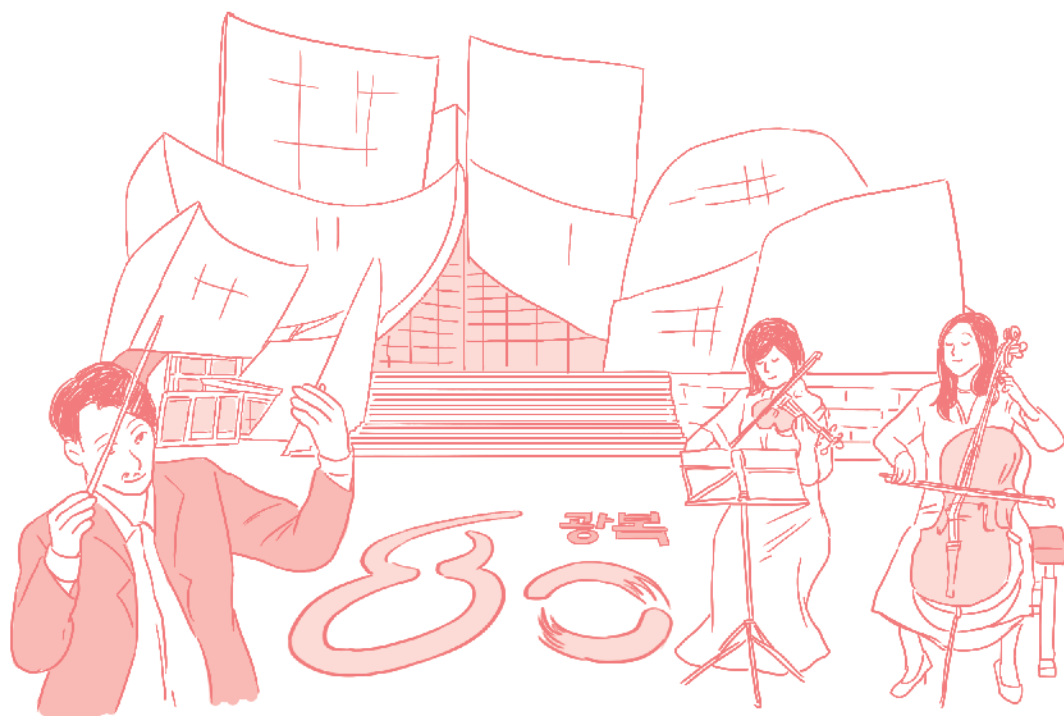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문화행사가 연중 개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각 재외한국문화원이

현지 단체와 협력하여 진행한 이번 사업은 음악회, 뮤지컬, 사진전, 영화 특별상영회,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형식을 통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현지 관객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K-컬처의 확산에 따라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진 한국문화원에서
광복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형태의 문화 형식으로 세계인이 경험하게 하여
대한민국의 역사, 광복의 의미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K-컬처의 공간에서 펼쳐진 문화 행사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는 35개 재외한국문화원을 대상으로 문화행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광복 80년 계기 문화행사 개최 대상으로 LA, 남아공, 영국 등 18개 문화원이 선정되었다. 각 문화원은 현지 공연단체와 기관, 동포사회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념행사를 기획·운영하였다.

LA문화원은 2025년 8월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4개 행사를 현지 공연 단체 및 미주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 등과 협력하여 진행했다. 8월 2일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음악회 <광복: Spirit of Korea>에서는 작곡가 백낙금의 합창 대서사시 <Let My People Go>가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김구·안중근·유관순·안창호·윤동주 등 광복 선열 5인의 삶을 소재로 한 곡으로, LAKM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협연했다. 이어 8월 19일에는 도산 안창호의 삶과 사상을 담은 창작 뮤지컬 <도산> 갈라 콘서트가 같은 공연장에서 개최되었으며, 두 행사에는 총 3,502명이 참여하였다.

프랑스문화원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공동으로 특별전 <평화를 향한 여정>을 기획했다. 8월 1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이 전시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 상하이에서 파리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국제적 흐름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대한민국 임시헌장, 독립청원서 등 핵심 유물과 영상 자료가 전시되었으며, 총 19,396명이 관람했다.

영국문화원에서는 연중 광복 80년 기념 특별상영회가 진행되었다. 한국영상자료원과 협력하여 광복을 주제로 기획한 <동주(2016)>, <영웅(2022)>, <하얼빈(2024)> 등 7편을 상영했다. 특히 <동주>는 영국 수화와 캡션을 갖춘 배리어프



LA문화원 광복 80년 기념 뮤지컬 공연 포스터



뮤지컬 <도산> 공연 현장

리 상영회로 진행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관객과의 대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현지 관객들이 한국 근현대사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남아공 문화원은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인의 삶의 변화를 담은 특별사진전을 개최하였고, 벨기에문화원은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에서 광복 80년 기념식과 추모행사를 진행하였다. 러시아·위싱턴·스웨덴 문화원 역시 공연과 영화 상영, 특별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현지 사회와 공유하였다. 이번 사업은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진 재외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광복 80년의 의미를 공연과 전시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현지 관객에게 전달함으로써 한국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문화 콘텐츠로 확장된 광복의 기억

이번 사업은 K-컬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지금, 재외한국문화원을 거점으로 하여 광복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음악회, 사진전, 영화 상영회 등은 광복과 독립운동이라는 역사적 주제를 문화예술의 언어로 재해석함으로써, 현지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와 가치를 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재외한국문화원은 단순한 문화행사 공간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세계와 공유하는 공공문화외교의 거점으로 기여하였다.



● 문화원별 주요 행사

문화원	행사명	일시	주요 내용
LA	음악회 〈광복: Spirit of Korea〉	8. 2.	• 작곡가 백낙금의 합창 대서사시 〈Let My People Go〉 초연 • 광복 선열 5인(김구 · 안중근 · 유관순 · 안창호 · 윤동주)의 삶을 소재로 구성 • LAKM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합창단 협연 • 월트 디즈니 콘서트를 개최 • 참가자 1,795명
LA	뮤지컬 〈도산〉 갈라 콘서트	8. 19.	• 도산 안창호의 삶과 사상을 담은 창작 뮤지컬 〈도산〉 주요 장면 재구성 공연 • 미주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등 현지 단체 협력
남아공	특별사진전 〈한국인의 삶의 변화 100년〉	8. 16.~ 9. 12.	•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8개 시기 생활상을 담은 사진 컬러 복원 · 전시 • 참가자 1,200여 명
벨기에	광복 80년 기념식 및 이준 열사 순국 118주기 추모식	7. 12.	• 유럽 유일 독립운동 유적지인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 열사 기념관 개최 • 주네덜란드 대사 · 헤이그 시장 · 네덜란드 참전용사회 등 참석
영국	광복 80년 기념 특별상영회	연중	• 〈항거: 유관순 이야기〉 · 〈덕혜옹주〉 · 〈동주〉 · 〈영웅〉 · 〈하얼빈〉 등 7편 상영 • 〈동주〉는 영국 수화(BSL) · 캡션 배리어프리 상영 진행 • 참가자 1,192명, 인스타그램 조회수 17만 건, 언론 보도 24건
프랑스	특별전 〈평화를 향한 여정〉	8. 14.~ 12. 6.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공동 기획 •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 상하이~파리로 이어진 독립운동의 국제적 흐름 조명 •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 대한민국 임시헌장 · 독립청원서 등 핵심 유물 전시 • 참가자 19,396명
러시아	코리아 판타지 공연 / 한국 영화 상영회	8. 15. / 8. 17.	• 광복절 당일 코리아 판타지 공연, 이틀 후 한국 영화 〈팬텀〉 상영
워싱턴	특별 콘서트 〈평화의 멜로디〉	9. 19.~ 20.	• 이틀간 광복 80년 기념 특별 콘서트 개최
스웨덴	한국문화축제 내 광복 80년 특별 부스	8. 24.	• 한국문화축제 행사장 내 광복 80년 기념 특별 부스 운영

3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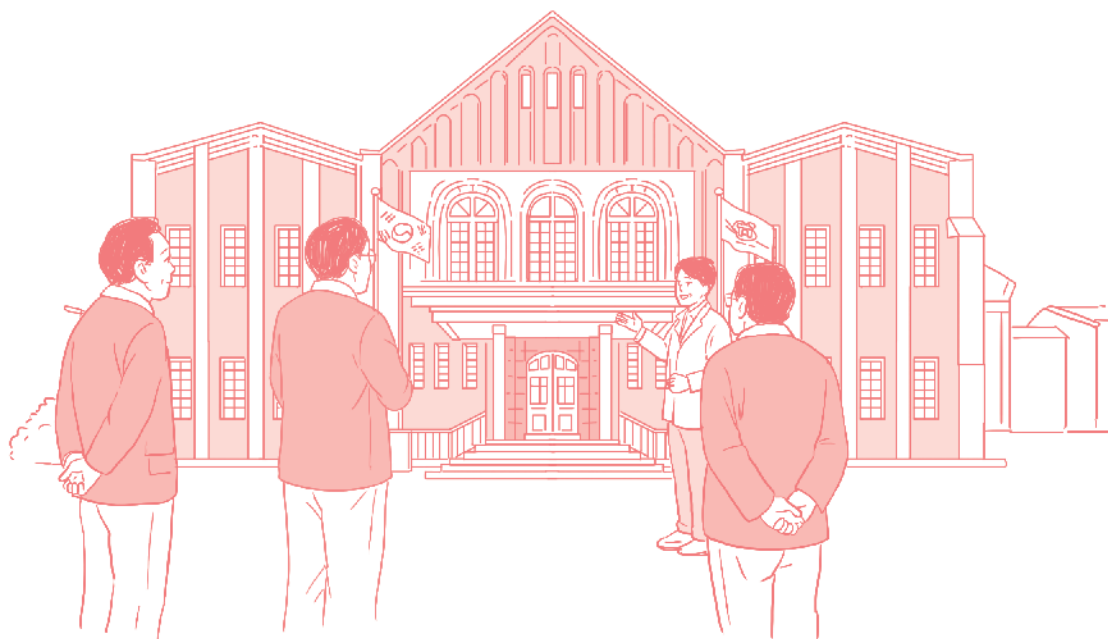
할아버지 나라에서의 6박 7일

광복 80년을 맞아 국가보훈부는

국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26명을 대한민국에 초청했다.

8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초청은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Bright Legacy, Brighter Future)’을 주제로

국내 독립운동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고 선조들의
독립운동 관련 원본 사료를 열람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후손들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독립유공자와 직접적인 교류 경험이 없었던 후손들이
자신들의 뿌리인 선조들의 독립운동 활동과 삶을
직접 보고 듣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라

6박 7일의 여정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주요 역사 현장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8월 11일, 후손들은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며 여정을 시작했다. 이어 8월 12일에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하고, 같은 날 기록물 특별 반출·소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8월 13일에는 DMZ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를 찾아 분단의 현실을 체감했으며, 한식 쿠킹 클래스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8월 14일에는 진관사를 방문해 태극기의 유래를 배우고, 다도와 명상 체험에 참여했으며, 진관사 마당에서 만세삼창을 함께 외쳤다.

● 행사 일정

일자	세부 일정
8. 10.(일)	• 입국
8. 11.(월)	• 오리엔테이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8. 12.(화)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국립대전현충원,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기록물 특별 반출·소개 프로그램 참가
8. 13.(수)	• DMZ(제3땅굴·도라전망대) • 한식 쿠킹 클래스
8. 14.(목)	•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진관사(태극기 유래 안내, 다도·명상, 만세삼창)
8. 15.(금)	• 광복절 중앙경축식 특별초청 • 환송 만찬
8. 16.(토)	• 출국



진관사 태극기 설명 등 체험 후 만세삼창 하는 모습

선조의 기록을 직접 보고 듣다

8월 12일 오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이번 초청의 특별하고도 소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독립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원본 사료 가운데, 이번 초청으로 한국에 방문한 후손들의 선조 21명과 직접 관련된 기록물 21점을 특별 반출하여, 후손들이 직접 열람하고 해설사의 설명을 듣는 시간이 마련된 것이다.

후손들이 직접 보고 듣는 반출 사료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 최재형 선생이 보낸

애국금 수합령 공문과, 신현모 지사가 결성한 청년혈성단의 규약집이 포함되었다. 또한, 김태연 지사가 감사로 참여한 대한민국적십자회 제1회 의회 회록과 이인섭 지사의 친필 회고록이 공개되었다. 멕시코 메리다 거주 독립운동가들의 외국인 등록카드, 3·1운동 당시 제작된 태극기 등도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국가지정기록물 제12호인 대한독립선언서(1919. 3. 18.) 원본이 전시되었다.

● 주요 공개 기록물

독립운동가	사료명
최재형	• 애국금 수합에 관한 공문 제57호 및 애국금수합위원신표(1919. 6. 21.)
신현모	• 대한인국민회 청년혈성단 규약
김태연	• 대한민국적십자회 제1회 의회 회록 초등(1919. 11. 15.)
이인섭 · 김경천 · 박영	• 이인섭 친필 회고록 〈아령과 중령에서 진행되던 조선민족해방운동을 회상하면서〉
하영규	• 경남 하동에 배포된 대한독립선언서(1919. 3. 18.) 〈국가지정기록물 제12호〉
최봉설	• 최봉설(이명 최계립) 가족사진(1956)
이하전	• 이하전이 국민회에 보낸 회원조사표와 서한(1961. 6. 23.)
박춘삼 · 김동순	• 멕시코 메리다 거주 지사들(박춘삼, 김동순)의 외국인 등록카드(1942)
허응숙	• 3·1운동 당시 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태극기
기타	• 정한경 이력서, 민찬호 편지, 염만석 신한민보, 이재수 서한 등 13점



국가보훈부 차관 주최 환송 기념 단체 사진

광복절 경축식 특별초청과 환송 만찬

8월 15일 광복절, 후손들은 광복절 중앙경축식에 특별 초청 받아 가장 앞좌석에서 국민들과 함께 광복의 기쁨을 되새겼다. 이후 저녁에 열린 국가보훈부 주최 환송 만찬에서는 국가보훈부 차관이 정부를 대표하여, 현재의 대한민국이 선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하며 후손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달하였다. 26명의 후손들은 6박 7일의 일정을 마친 뒤, 8월 16일 각자 거주하던 나라로 돌아갔다.

국외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은 대한민국이 독립운동의 역사와 이를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을 소중히 기억하고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선열의 후손들에게 직접 전하는 메시지였다. 아울러,

광복 80년 기념사업이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역사를 잇고 있는 사람들과의 연결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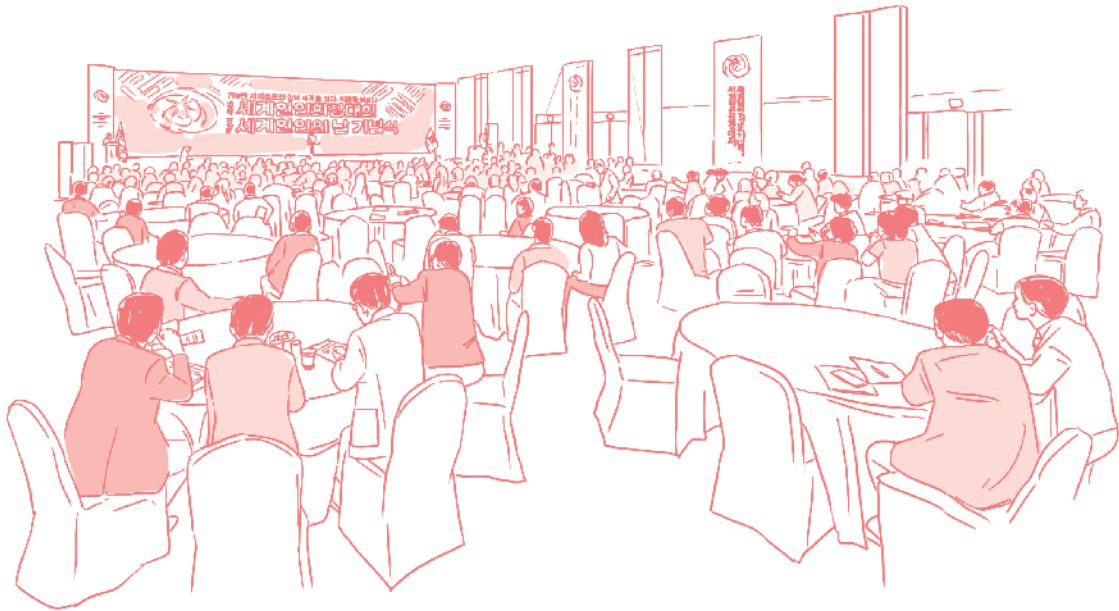


국의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 사진(국립대전현충원 현충문 앞)

4 재외동포사회와 교류하는 광복 80년 I

〈2025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3박 4일간,
전 세계 한인회장 및 한인회총연합회 임원 360여 명을 포함한 420여 명이 서울에 모여
세계한인회장대회와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행사 슬로건은 ‘700만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를 잇다, 미래를 밝히다’였으며,
광복 80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재외동포의 역량을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빼앗긴 국민주권을 되찾은 광복 80년에 여러분과 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느낍니다.

— 대통령 기념사 —

광복의 의미가 담긴 초청장

전 세계 한인회장들에게 배포된 대회 공식 초청장에는 독립운동가 이은숙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 기록을 기반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제작한 ‘광복 이은숙체’가 활용되었다. 공식 포스터와 행사장 포토월에도 광복 80년 로고가 삽입되어 광복 80년의 의미가 시각적으로 잘 전달되었다. 또한 행사장 내외 현수막과 배너, 각종 홍보물에도 광복 80년 상징요소가 함께 활용되어, 전 세계에서 모인 재외동포들이 자연스럽게 광복의 의미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3박 4일간의 대회

대회는 정부와의 대화, 한인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 지자체-동포사회 협업사례 발표, 공통 의제 토론, 지역별 현안토론,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재외동포청 바로 알기 세션도 함께 운영되었다. 행사 마지막 날인 10월 2일에는 제19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본 행사는 광복 80년을 기념해 동포사회와 모국 간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로 기록되었다.

● 대회 프로그램

구분	9. 29.(월)	9. 30.(화)	10. 1.(수)	10. 2.(목)
오전	—	공통 의제 토론	지역별 현안토론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오후	참가자 등록	- 정부와의 대화 - 한인회 운영 우수사례 발표 - 지자체-동포사회 협업사례 발표	- 외교부장관 주최 오찬 - 재외동포청 바로 알기 - 전체회의	—
저녁	개회식 및 환영 만찬	한인회장의 밤	폐회식 및 환송 만찬	—



2025년 세계한인회장대회 기념사진



2025년 세계한인회장대회 개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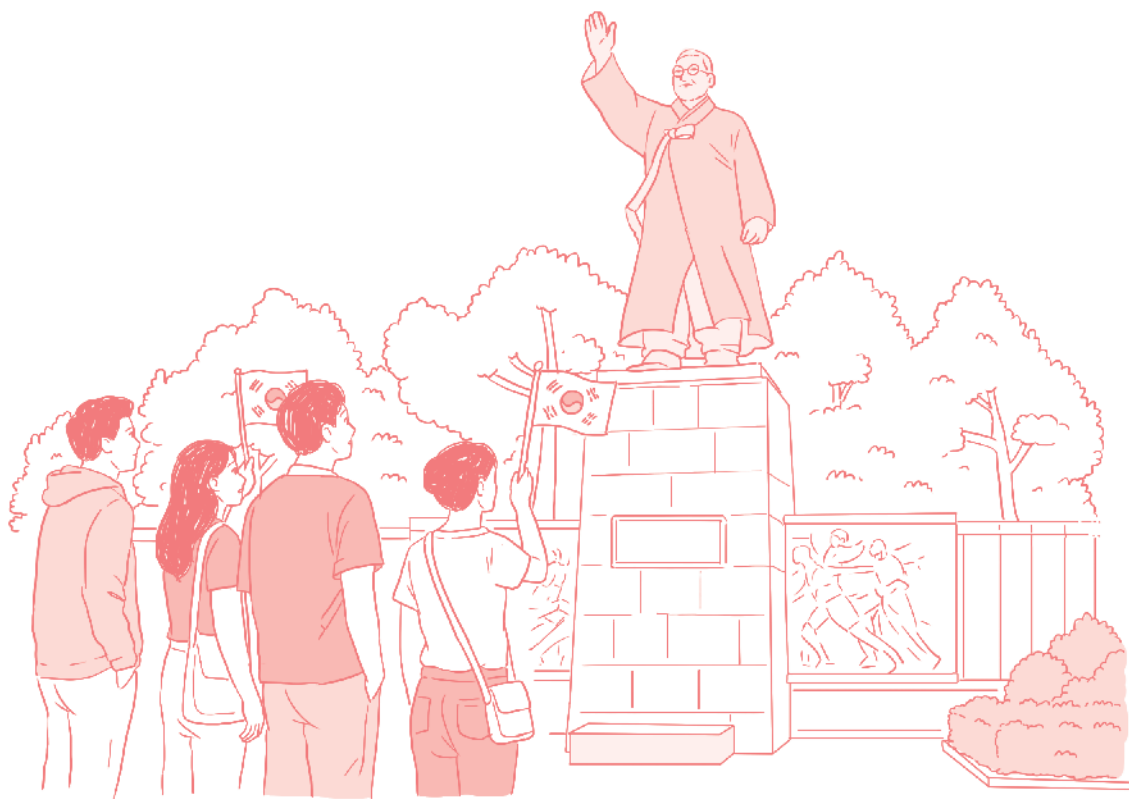
5 재외동포사회와 교류하는 광복 80년Ⅱ

〈2025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

재외동포청은 2025년 6월부터 8월까지 전 세계 70여 개국
차세대동포 2,470명을 모국으로 초청하여 6박 7일간의 연수를 실시했다.

재외동포 청소년 1,667명과 청년 803명이 참여했으며,
국내 청년·청소년 557명도 함께 연수에 참가했다. 광복 연계 프로그램에는
독립운동 관련 역사 현장 방문을 포함한 ‘광복 80년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번 연수는 차세대 동포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새기고, 모국과의 유대감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연수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저력을
직접 보고 들으며 체험해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한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

독립기념관에서 서대문형무소까지, 광복의 현장을 따라 걷다

2025년 연수의 주요 특징은 광복 80년을 계기로 독립기념관, 망향의 동산,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한국 독립운동 관련 현장을 체험 코스에 포함시킨 것이다. 차세대동포들이 선조들의 독립운동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한인 정체성 강화와 광복 80

년의 역사적 의미 전달을 도모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독립운동의 기록과 흔적이 남아있는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대한민국의 역사와 광복의 의미를 보다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은 산업·문화·역사를 아우를 수 있도록 다채롭게 구성되었다. 현대 모터스튜디오 등 산업 현장 방문과 함께 지역 문화체험이 운영되었으며, 참가자 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 연수 프로그램

광복 80년 기념 연계 주요 방문지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천안	독립기념관, 망향의 동산
일반 체험·탐방 주요 코스			
역사·광복 체험	· 창경궁, 종묘, 광화문, 백범광장, 인천 개항장, 개항누리길		
산업·과학 체험	· 현대 모터스튜디오(고양), 인천 바이오클러스터, 삼양라면 공장		
문화·지역 체험	· 전주한옥마을, 백제문화단지, 한지테마파크, 유엔기념공원(부산), 범어사, 오죽헌		
상호교류	· 한복 페스티벌, 미니 올림픽, 장기자랑, 도전 골든벨, 국내 청(소)년과 공동 프로그램		



망향의 동산 묘역을 순례하는 참가자들



2025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 단체사진

6 재외동포사회와 교류하는 광복 80년Ⅲ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2025년 9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전 세계 10개국 한인 정치인 51명이 서울에 모여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에 참석했다. 이 행사는
세계한인정치인협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후원했다.
개회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현 외교부 장관,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 시대에 한인 정치인 네트워크와 한인 정치력 신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이 모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한인 정치인들을 아우르는
글로벌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

광복의 정신이 글로벌 리더십으로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은 기초강연과 분과회의, 종합토론,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정치인들이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참가자들은 글로벌 한인 리더십과 시민사회, AI 시대의 공공소통과 연대, 정책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재외동포사회의 역할과 한인 정치인의 가능성을 함께 모색했다.

포럼 기간 중 참가자들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광복 80년 기념 특별전시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를 관람했다. 해당 전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한 한국인의 사례를 조명한 것으로, 참가자들이 광복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재외동포사회의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번 포럼은 광복 80년의 의미를 역사·문화 체험과 연계하여 전달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을 잇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자리로 이어졌다.

● 프로그램 구성

키워드	세션 주제	주요 내용
포럼 I	한인 정치인들의 도전기	• 미국·캐나다·러시아·CIS지역 정치인 4인 발표, 재외동포 초청장학생 24명 참가
포럼 II	분과회의	• 글로벌 한인 리더십과 시민사회 • AI시대 공공소통과 연대 • 정책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
포럼 III	언어와 정체성의 가교: 한인 정치인의 역할과 기능성	• 미국, 러시아·CIS, 글로벌 3개 분과 지역별 현안 토론
포럼 IV	종합 토론	• 포럼 II·III 논의 내용 바탕 종합 토론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자체회의



제11차 세계한인정치인포럼 폐회식

7 국제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코리아 2025>

광복을 세계의 언어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국제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코리아(Talk Talk Korea) 2025>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2회를 맞이한 이 공모전은

광복 80년을 계기로 '광복 80년 기념 특별분야'를 처음으로 신설하였다.

대한민국 독립의 역사적 의미를 자유와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와 연결해,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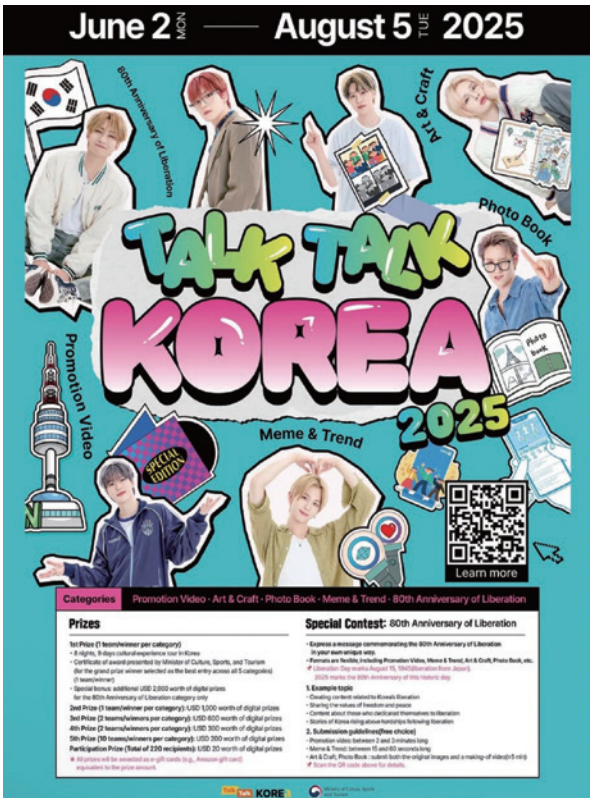
광복 80년 기념 특별 분야를 통해 한국의 역사적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고유한 문화를 잊지 않고
계승·발전시킨 우리의 경험을 세계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채수희 전(前) 문체부 해외홍보정책관 -

108개국 이 그려낸 광복

2025년 공모전은 광복 80년 특별분야, 프로모션 비디오, 아트&크래프트, 포토북, 밈&트렌드의 5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이 중 특별분야는 자유형식으로 운영되어, 영상·디자인·글쓰기 등 다양한 방식의 참여가 가능했다. 접수는 6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108개국에서 총 76,296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27% 증가한 역대 최고 참여율을 기록했다.

심사는 예비심사 → 1차 심사 → 2차 심사 → 온라인 투표(전 세계인 대상 신설) → 최종 심사 순으로 5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총 277개 작품을 시상했으며, 2차 심사·온라인 투표 통과 199개 작품에는 참가상(2025년 신설), 최종 심사 통과 78개 작품에는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별로 상을 수여했다.



〈토크토크 코리아 2025〉 포스터

● 분야별 접수 현황

분야	형식	접수 건수	접수 결과
광복 80년 기념 특별분야	자유 형식	13,022	
프로모션 비디오	2~3분 가로형 영상	16,366	참여국가: 108개국 총 접수: 76,296건 전년 대비: 27% 증가 광복 특별분야: 13,022건
아트&크래프트	그림, 웹툰, 전통공예, 캘리그래피 등	17,356	
포토북	콜라주 기법 포토북	14,231	

올해 공모전에서는 전 분야를 통틀어 최우수 수상자 1인에게 문체부 장관상이 수여되었다. 최우수상은 광복 80년 특별분야 인도네시아 출품작 〈광복절의 빛〉이 차지했다. 시상식은 11월 8일 〈한국문화 큰잔치〉 행사와 연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CKL 스테이지에서 개최되었다.

분야별 1등 수상자 5명에게는 항공권 포함 8박 9일간(11. 6.~11. 14.)의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체험 코스에는 한국 독립운동 관련 지역과 기관 탐방이 포함되어, 광복 80년을 주제로 콘텐츠를 제작한 참가자들이 역사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다채로운 언어로 기록된 광복 80년

공모전 홍보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진행되었다. 홍보모델로 선정된 K-pop 그룹 ‘EPEX(이펙스)’를 활용하여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4개 SNS 채널을 운영하여 조회수 2억 건 이상을 기록했다. 수상작은 국내외 전시와 아카이빙으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국외에서는 베트남·벨기에·인도네시아 재외문화원에서 순차적으로 전시되었다. 또한 본선 수상작 78점은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업을 통해 납본·보존되어 기록으로 남았다.

광복의 역사가 우리말과 글 이외에 다양한 언어로 확장되어 표현된 이번 사업은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와의 문화적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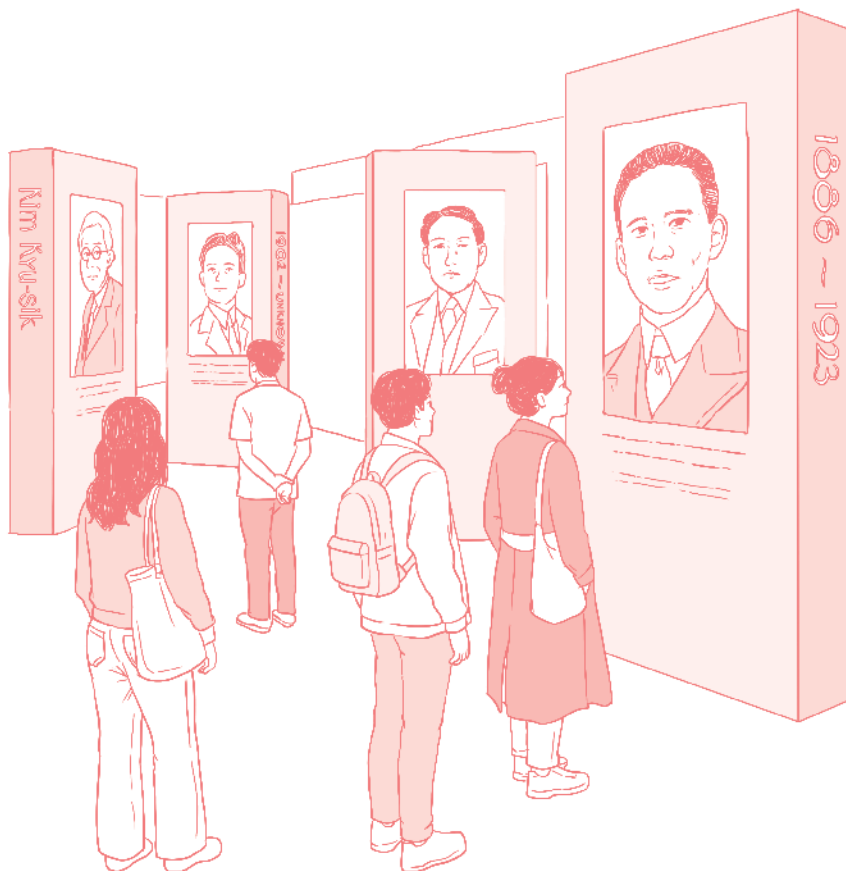


광복 80년 분야 1등 수상작 〈The Light of Gwangbokjeol(광복절의 빛)〉

8 광복 80년 기념 국외교류 전시

평화를 향한 꿈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은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주벨기에유럽연합한국문화원과 공동으로
국외 교류전시 <평화를 향한 꿈(A Dream of Peace)>을 개최했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7년간 독립과 세계 평화를 꿈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유럽 현지에서 알리는 이 전시는,
유럽에서의 임시정부 외교 독립활동을 최초로 조명하는 국외 교류 전시였다.



임시정부기념관이 유럽지역에서 처음 전시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많은 유럽의 시민들이 임시정부가 궁극적으로 꿈꾸었던
평화를 향한 여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현 독립기념관장) —



외교독립활동가를 소개하는 전시장 내부공간

유럽 외교 독립활동의 재조명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럽 내 외교활동과 독립 운동은 국내외에서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 임시정부기념관의 전시 기획은 이러한 역사적 공백을 조명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2025년 2월 전시기획 수립을 시작으로, 3월 주벨기에한국문화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전시 연출 및 콘텐츠 제작 등을 거쳐 6월 18일 전시를 개막했다. 전시 기간 중 온라인 전시 콘텐츠도 준비하여 현지를



전시 프로그램 구성

구분	소제목	주요 내용
프롤로그	국경을 넘고, 넘어서	제1차 세계대전 후 파리강화회의의 소식을 듣고 프랑스 파리로 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럽 내 첫 발걸음을 영상과 유물로 소개
1부	민주와 공화, 자유와 평등	- 임시정부 청사가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자리하게 된 배경 소개 -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인 임시정부 수립과 첫 헌법 <대한민국 임시헌장> 소개 -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인 임시의정원의 주요 활동과 역할
2부	이곳 유럽,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람들	- 파리 한국민대표관, 재법한국민회, 유덕고려학우회, 고려통신사의 활약상 소개 - 유럽 국제회의에 참석했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활동을 독립청원서와 인공지능(AI) 무빙이미지로 구현
3부	평화를 위한 위대한 동행	- 임시정부 독립운동을 지원한 영국·프랑스 한국친우회와 숨은 조력자 조지 루이스 쇼(1963년 독립장) 소개 - 유럽 국가들의 대한민국 독립 지지와 카이로 선언, 임시정부가 연합군과 공동 수행한 군사작전(인면전구공작대·독수리작전) 소개
4부	희망의 나라로	- 광복 후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의 한국 과정, 유럽에서 활약한 요인들의 귀환 소개 - 헌법 정신·정부 구성원·국경일·태극기·애국가 등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정부로의 국가 상징 계승 과정
에필로그	평화를 이어가다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소개 - 관람객이 직접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남기는 체험형 공간 운영



김희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현 독립기념관장) 개막식 환영사

방문하지 못한 국내외 관람객도 디지털 방식으로 전시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전시기간은 당초 2025년 6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예정되었으나, 현지 관람객의 호응에 따라 약 3주 연장되어 9월 26일까지 운영되었으며, 총 1,032명이 전시관을 방문했다.

87점의 유물에 담긴 역사

전시는 총 4부와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유럽에서의 활약상을 담은 유물 87점과 영상, 전시 그래픽 등을 함께 선보였다. 1부에서는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임시현장’을 중심으로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의미를 소개했고, 2부에서는 유럽에서 활약한 독

립운동가들의 모습을 AI 무빙 이미지로 구현하여 역사의 생동감을 전달했다. 이어 3부에서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함께해 준 유럽의 조력자, 연합국과의 공동 수행 군사작전 등의 주제를 다뤘으며, 4부는 광복 후 임시정부 요인들의 귀환과 대한민국 정부로 이어지는 계승의 과정을 조명했다. 마지막으로 에필로그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평화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을 마련하여, 전시의 끝자락에 깊은 울림이 남도록 구성하였다. 전시에 출품된 87점의 유물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독립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등의 협의를 통해 구성되었다. 1919년 파리강화회의의 독립청원서부터 1945년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까지, 87점의 유물은 임시정부가 27년간 유럽에서 이어온 독립과 평화의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브뤼셀로 향한 뜨거운 관심

6월 18일 개막식에는 유정현 주벨기에대사, 벨기에 왕립미술관 큐레이터, 현지 주재 언론인·경제인, 세종학당 학생 등이 참석했다. 7월 5일에는 국가보훈부 국외 사적지 탐방팀 50여 명이 특별 관람을 위해 전시장에 방문했다.

아리랑TV는 김동은 주벨기에한국문화원장 출연 인터뷰를 방영했으며, 벨기에 현지 언론(‘OUT, BE’, ‘VISIT, BRUSSELS’)도 전시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전시 연계 인문학 강연 3편이 운영되었으며, 온라인 강의 서비스 조회수는 총 15,311회를 기록했다.

외교의 도시에 기록된 임시정부의 빛

〈평화를 향한 꿈〉은 광복 80년을 계기로 EU·NATO 본부가 위치한 국제 외교의 도시 브뤼셀에서 임시정부의 유럽 외교 독립활동을 처음으로 유럽 시민들에게 소개한 전시였다. 이번 전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독립과 평화의 가치를 유럽 현지와 공유하며, 광복 80년의 의미를 국제사회와 함께 확장해 나간 사례로 평가되었다.





개막식 리셉션 전경

● 전시 주요 자료

자료명	연도	소장	주요 전시 내용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청원서	1919. 4.	독립기념관 (복제)	임시정부 전권대사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한 청원서. 일제의 불법 침략과 주권 침탈을 폭로하고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
파리강화회의의 한국대표 김규식 명함	20세기 초	독립기념관 (복제)	영문 이름과 파리 한국민대표관 주소 '파리9구 샤토당38번지'가 기재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 4. 11.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복제)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독립운동가 대표29명이 제정 · 공포한 임시정부 첫 헌법. 선포문 · 헌장 10개조 · 정강6개조 포함
구주의 우리 사업 (Our Work in Europe)	1920. 12.	국립중앙박물관 (복제)	파리 한국민대표관 통신국이 유럽 지역 외교활동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행한 보고서
브뤼셀 구국공약회 참석 보고서	1937. 12. 3.	부산광역시립 박물관(복제)	임시정부 주불 외교특파원 서영해가 1937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구국공약회 참석 후 작성한 경과 보고서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1945년	독립기념관 (복제, 국가등록문화유산)	한국광복군 문웅명 이임 시 동료 대원들이 서명해 준 태극기. 자유 · 필승 · 단결과 삼균주의 완성을 다짐
한 · 중 · 영문 중국판 한국애국가 악보	1945. 11. 12.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복제, 국가등록문화유산)	중국 충칭에서 발행. 한국어 · 중국어 · 영어 가사와 애국가 창작 과정, 김구 주석 사진 수록

9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광복 80년 기념행사

한·중 우호의 역사 재조명

외교부는 광복 80년을 맞아 제3회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을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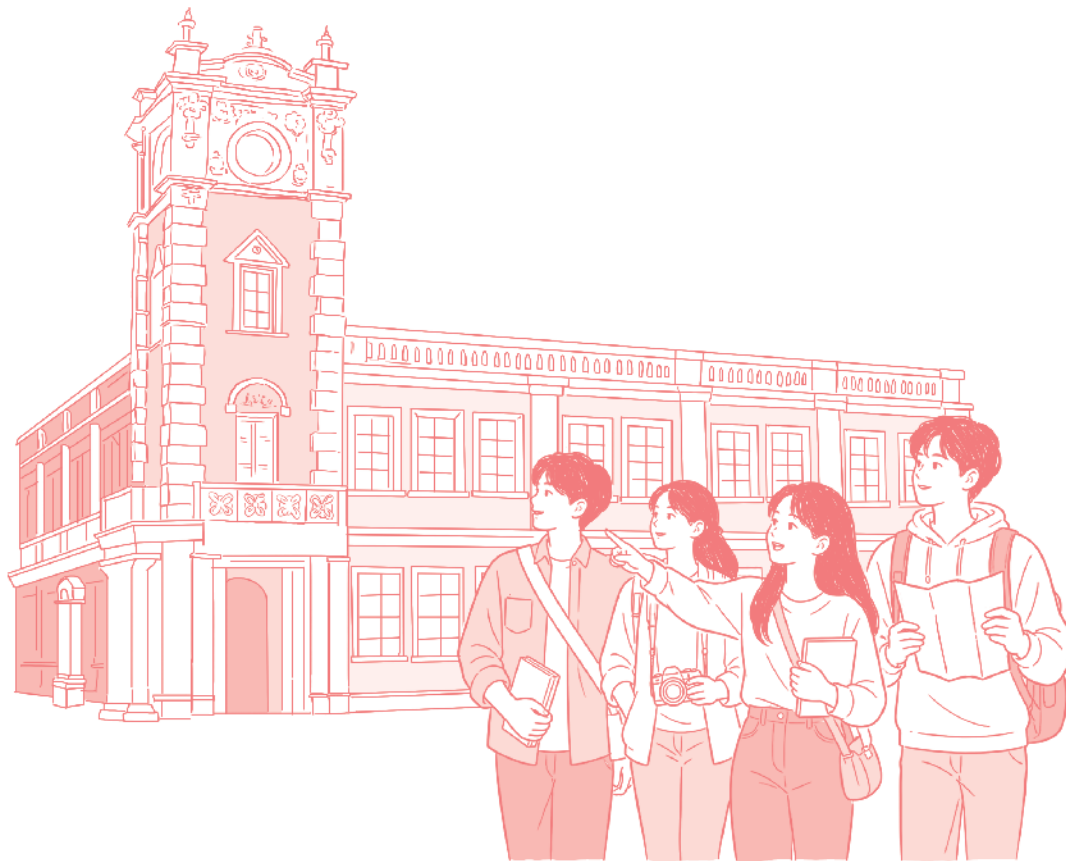
202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국내 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중 청년들 간 직접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어 왔다.

2025년에는 광저우·류저우·창사 등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지를 한·중 청년들이 함께 탐방하며

양국 협력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한국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과거 양국의
역사적 협력을 이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현재의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갈 인연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우호증진단 청년대표 활동 소감 —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광저우 동산백원 방문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류저우 임시정부기념관 전시해설 청취하는 모습

임시정부 이동경로 탐방

탐방지는 중국 내 비교적 덜 알려진 임시정부 활동지로 선정했으며, 이는 한·중 우호 협력의 역사를 보다 구체적인 현장을 통해 재조명하겠다는 기획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동북·중앙아국 심의관을 단장으로 하여 한·중 청년 대표단 10인(한국 7명, 중국 3명)이 광저우 → 류저우 → 창사 순으로 임시정부 활동지를 탐방했다. 첫날 광저우 동산백원에서 임시정부의 흔적을 찾고, 황푸군관학교에서 한·중이 함께 싸웠던 역사를 배우며, 동정진망열사묘역에서 그 싸움의 무게를 느꼈다. 이튿날 류저우에서는 임시정부기념관과 라오레이공관을 방문하고,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한·중 청년 간담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간담회를 통해 교과서 속 역사로 접했던 ‘한·중 우호’를 실제 경험으로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일정인 창사에서는 임시정부기념관 탐방과 함께 광복 80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우호증진단이 바로 잡은 역사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보존 강화에 청년 대표단이 직접 기여한 사례도 있었다. 5월 28일 탐방단이 류저우 임시정부기념관을 탐방했을 당시, 전시관 내 인물 설명이 뒤바뀐 오류를 발견한 것이다. 이에 현장에서 즉시 시정을 요청했으며, 7월 29일 류저우 외사관공실(대외협력·외교 담당 부서)로부터 시정 완료 회신을 받았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데 그치지 않고, 흩어진 우리 역사 기록을 점검하고 바로잡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청년이 기록한 외교의 언어

탐방단은 현장 활동 과정 및 결과를 개인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유했다. 카드뉴스와 릴스, 브이로그, 블로그 게시글 등 약 100건의 콘텐츠가 게시되었으며, 좋아요 수는

2,500여 건에 달했다. 우호증진단 공식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탐방 전 300여 명에서 6월 말 기준 1,200여 명으로 약 4배 증가했다.

발대식과 해단식 콘텐츠도 SNS에 업로드되었다. 발대식(4.30.)은 외교부 1층 모파마루에서 개최되었으며, 정병원 차관보와 광둥 주한중국 대사관 공사가 참석했다. 이어 9월 5일 외교부 서회홀에서 열린 해단식에는 30명의 단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축사와 우수단원 시상, 수료증 수여 등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제1회(2022), 제2회(2024) 우호증진단

수료생들도 함께 참석했으며, 외교부가 위촉한 〈한·중 우호 홍보대사〉 캡틴 따거(유튜브 구독자 약 60만 명)가 영상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청년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과거의 역사적 연대뿐 아니라 오늘의 교류와 미래 협력의 의미까지 함께 체감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이번 사업은 광복 80년을 계기로 한·중 청년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고, 미래 세대의 교류와 공감으로 한·중 우호의 의미를 이어 나간 사례로 기록되었다.

● 탐방 프로그램 일정

일자	지역	주요 방문지 및 활동
5. 27.(화)	광저우	• 동산백원: 임시정부 광저우 활동 관련 사적지 • 황푸군관학교: 한·중 공동 독립운동 역사 현장 • 동정진망열사묘역: 한·중 연대 관련 묘역 탐방
5. 28.(수)	류저우	• 류저우 임정기념관: 임시정부 류저우 활동지 탐방 및 해설 • 라오레이공간: 임시정부 체류 관련 공간 • 한·중 청년 간담회: 류저우 임정기념관 관계자·현지 대학생과 교류 - 탐방 중 전시물 인물 설명 오류 발견, 현장 시정 요청 (7. 29. 류저우 외판 시정 완료 통보)
5. 29.(목)	창사	• 창사 임시정부기념관: 임시정부 창사 활동지 탐방 • 광복 80년 및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행사 참석 • 후난농업대학교 류자명 기념관: 독립운동가·농업과학자 류자명(1894~1985) 관련 공간 ※ 류자명 기념관: 중국이 그를 '한국 독립운동가이자 중국 인민의 친밀한 벗'으로 소개

한일여자고등학교 변규원 학생 수기문

광복 80주년, 우리가 만든 영자신문에 담은 이야기



2025년 광복 80년이 되는 특별한 해를 맞아,
한일여자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이 의미 있는 해를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영자신문을 제작하고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세계에 조명하다

우리는 단순히 광복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을 넘어,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싶었고,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과서에는 주로 큰 사건과 주요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다. 우리가 소개하는 김마리아, 권기옥 선생님은 모두 여성이라는 한계를 넘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다. 특히 이분들의 삶을 영어로 정리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생소한 사료와 전문적인 표현을 번역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깊이 배웠으며, 역사의 숨은 면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 역사의 뜻깊은 의미를 영어로 전달함으로써 세계와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나누며 배우는 광복의 의미

지난 8월 14일, 우리는 직접 만든 영자신문을 들고 마산 창동 거리로 나갔다. 처음에는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실까 걱정이 많았지만 신문을 받으실 때마다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다니 참 대단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큰 보람을 느낄 수

한일여자고등학교 학생

변 규 원



있었다. 단순히 학교 과제를 넘어 시민들과 함께 역사의 의미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 활동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이어서 며칠 뒤 열린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에도 참여했다. 퀴즈 형식이라 재미있게 역사를 배울 수 있었으며, 더불어 활동을 단순한 놀이로만 인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통일 일은 교과서 속 단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직접 맞이할지도 모르는 미래이다.

광복 80년, 미래를 향한 우리세대의 다짐

이번 활동을 통해 역사를 공부하는 일이 단순히 과거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마음 깊이 깨달았다. 또 영어로 역사를 기록하고 알리는 과정에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더 넓은 시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며,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작은 글과 노력을 보탤 것이라는 사실이 내게 큰 자부심으로 되돌아 왔다.

앞으로도 오늘의 배움을 잊지 않고 작은 글과 실천으로도 역사의 의미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 광복 80년을 맞아 우리 세대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그 정신을 현재와 미래에 이어가는 것이다.



한일여고 <HERSTORY> 영자신문

3.

미래 전략을 수립하여 비전을 제시하다



다가올 광복 100년과 그 너머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기념사업들로 구성하였다. 지난 80년의 성과를 깊이 있게 돌아보는 동시에, 다음 시대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그려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략 연구와 국제 포럼,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과 평화·통일 관련 기념행사 등이 추진되었으며, 지난 80년의 성과가 미래 세대의 동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이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비전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 광복 80년 성과 및 광복 100년 대비 미래전략 연구

기념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이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광복 10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지향 및 미래전략〉 연구를 추진하였다.
제국주의와 군국주의가 지배하던 시대, 독립운동가들이 민주공화정을 선언하고
건국강령을 통해 독립 후의 미래상을 준비했던 것처럼,
인구구조 대전환, AI 혁명, 기후위기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다가올 광복 100년을 준비하는 담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045년 대한민국을 상상하다

미래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로 추진되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이재준 선임연구위원을 총괄 책임자로 하여, 한반도경제협력원 조병구 이사장, KDI국제정책대학원 박진 교수,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였다. 연구진은 전문가 의견조사, 국민의식조사, 청년 공론조사, 시나리오 분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치 지향과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등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관련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쳐 미래 과제의 방향성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시민의 힘으로 여는 미래

연구 보고서는 독립운동과 4·19 혁명, 6월 항쟁을 거쳐 촛불로 이어지는 광복 80년의 역사 속에서 시민의 힘이 항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왔음에 주목하였다. 연구에서는

“역량 있는 시민이 설계하는 나라: 전환을 완수하고 번영을 공유하는 대한민국 2045”라는 비전 아래 ‘한국형 전환모델의 창출(미션1)’, ‘새로운 사회계약(미션2)’, ‘전략적 자립(미션3)’을 3대 미션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요지는 AI 확산 등에 따른 시스템 전환 과정에 ‘역량 있는 시민’이 참여하여 전환의 편익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국가는 시민들의 역량을 보장하고 협력의 제도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출발점

〈광복 100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지향 및 미래전략〉 연구는 광복 100년을 대비하여 대한민국의 중장기 국가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기초자료로서 의미를 가진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가 정해진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장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대한민국의 3대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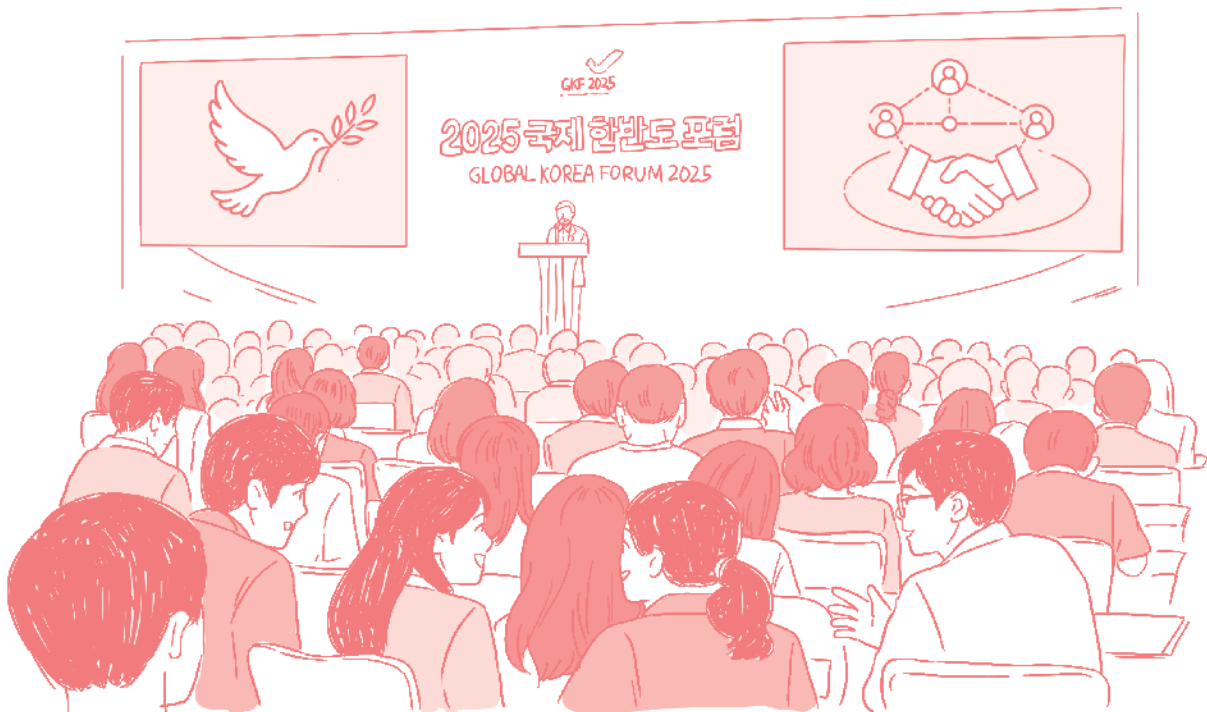
미션	한국형 전환모델의 창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세계질서에서의 전략적 자립
영역	기술 · 생산 · 에너지 · 인구구조 대응 체계 재설계	개인 역량의 공적 보장과 사회적 협력의 제도적 재생산	재편되는 국제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서의 대외 조건 관리
과제	1-1. 생산체제 전환 1-2. 생태 · 에너지 전환 1-3. 인구구조 적응 전환	2-1. 역량 보장 체계 2-2. 강건한 사회 2-3. 전환국가 거버넌스	3-1. 기술 주권 · 경제안보 3-2. 중견국 연대 · 규범 설계 3-3. 한반도 평화 · 협력 기반
핵심개념	전환	역량보장 + 사회계약	전략적 자율성

2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KF)

평화를 묻다, 세계가 답하다

2025년 9월 18일과 19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5 국제 한반도 포럼(Global Korea Forum, GKF)〉이 개최되었다.

통일부가 주관하고 국가안전전략연구원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은
광복 80년 주요 기념사업의 하나로 추진되었으며,
총 7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참석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평화공존 · 공동성장의 한반도’에 대한
비전을 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키고,
우리의 정책에 대해 국내외의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 통일부 —



〈2025 국제 한반도 포럼〉개막식 참석자 기념사진

전문가의 자리에서 국민의 자리로

국제 한반도 포럼은 2010년부터 통일부가 매년 개최해 온 국제회의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해왔다. 특히 이번 포럼은 기존의 전문가 중심 구성에서 벗어나 인문학자·문화계·종교계 인사, 시민단체(NGO), 대학생 등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NGO 참여 별도 세션을 운영하는 등 신정부 국정 과제 중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국가안보전략서〉 발간을 위한 의견 수렴도 병행했다.

광복 80년 계기 독립과 평화의 의미 모색

포럼은 이틀에 걸쳐 플레너리 세션 3개와 분야별 세미나 8개로 구성되었다. 개회식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개회사와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

구원장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대통령의 서면 축사가 낭독되었다.

첫 번째 플레너리 세션에서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민주주의의 위기와 평화공존의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공존 가능성을 연결 지은 논의를 통해 공동체 문제들은 별개의 이슈가 아닌 상호 연동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플레너리 세션에서는 미·중·일·러 4개국 석학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직면한 구조적 과제와 도전을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평화공존의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였다.

세 번째 플레너리 세션에서는 김희중 대주교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의 저자인 채사장 작가가 ‘치유와 화해’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담론의 정서적 기반과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플레너리 세션과 병행하여 분야별 전문가 세미나 8개가 운영되었다. ‘남북 교류협력’, ‘한반도 평화공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 파트너십’,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국가 안보전략’, ‘시민사회 역할’, ‘국제기구 역할’, ‘북한 인도지원·개발 협력’의 다양한 의제가 다루어졌다.

한반도 담론을 세계와 함께

이번 포럼은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의 의미를 기억하는 동시에 아직 완결되지 않은 과제인 ‘한반도 평화’를 국제사회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기도 했다. 이번 포럼은 주요국의 전·현직 외교관, 유엔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국제 공론장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전문가 중심의 논의 구조에서 인문학자, 문화·종교계 인사, 시민단체까지 참여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평화 담론의 저변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광복 80년을 계기로 열린 이 포럼에서의 논의들이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향한 실질적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플레너리 세션 구성

구분	주제	주요 연사	일시
세션1	민주주의 위기와 평화공존의 과제	- 강연: 마이클 샌델(미 하버드대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 대담: 김기정(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9. 18.(목) 10:30~11:50
세션2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공존의 길	- 좌장: 홍현익(前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 - 패널: 프랭크 자누치(미국· 맨스필드재단), 자칭궈(중국· 베이징대), 소에야 요시히데(일본· 게이오대), 게오르기 톨로라야(러시아· BRICS위원회)	9. 18.(목) 13:30~15:00
세션3	한반도 평화를 위한 치유와 화해	- 강연: 김희중(대주교, 前 광주대교구장) - 대담: 채사장(작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저자)	9. 19.(금) 10:30~12:00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1일차 세션 현장



마이클 샌델 교수 강연

● 분야별 세미나 구성

구분	주제	주요 패널	일시
세션1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로드맵	김병로(서울대), 베른하르트 젤리거(한스자이델재단), 임은정(공주대) 등	9. 18.(목) 15:20~16:40
세션2	트럼프 시대 한반도 평화공존의 과제	김연철(前 통일부 장관), 피터 셈네비(스웨덴 한반도특사), 기무라 칸(고베대) 등	9. 18.(목) 17:00~18:20
세션3-1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자 파트너십	존 에버라드(前 주북 영국대사), 람팡알(싱가포르 국립대) 등	9. 19.(금) 13:30~14:50
세션3-2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 방향	최영준(前 통일부 차관), 서보혁(통일연구원), 김성경(서강대) 등	9. 19.(금) 13:30~14:50
세션4-1	국가 안보전략과 평화공존	장철운(통일연구원), 김한권(국립외교원), 전경주(국방연구원) 등	9. 19.(금) 15:10~16:20
세션4-2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	사라 손(셰필드대), 마이클 마이너(하버드대 벨퍼센터), 이영애(참여연대) 등	9. 19.(금) 15:10~16:20
세션5-1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	오준(前 유엔대사), 제롬 김(국제백신연구소), 제임스 히난(유엔인권사무소) 등	9. 19.(금) 16:40~18:00
세션5-2	시민사회 연대를 통한 북한 인도지원 · 개발협력 방안	조성찬(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 이예정(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	9. 19.(금) 16:40~1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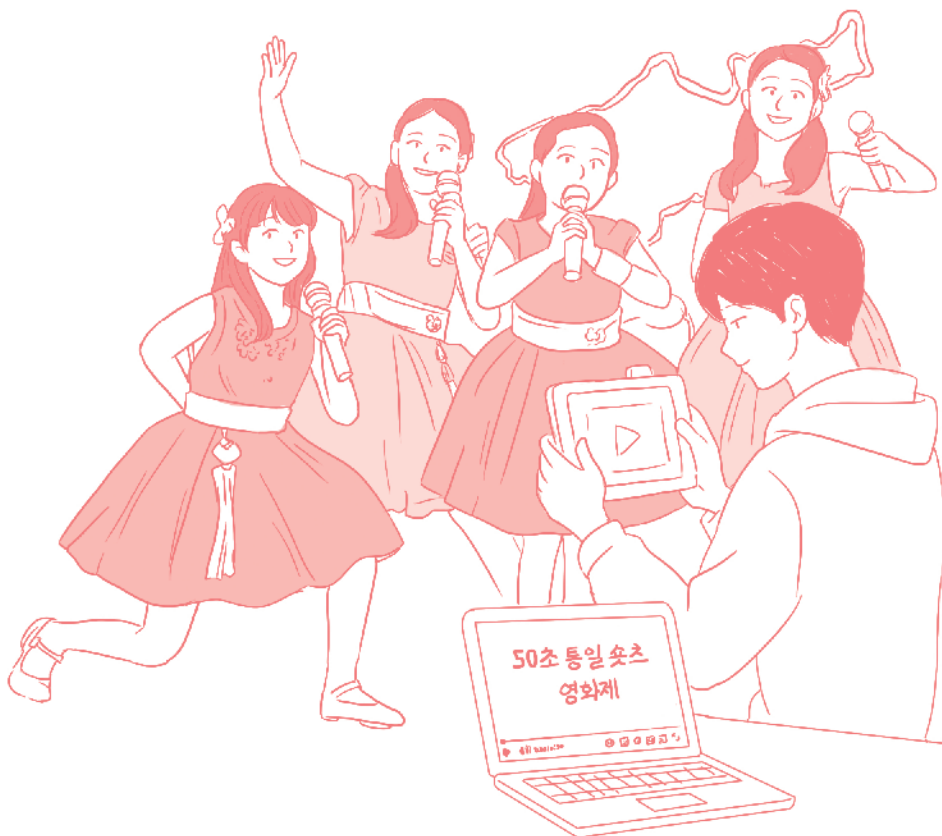


2일자 세션 참석자 기념사진

3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50초의 영상, 한 소절의 노래

국립통일교육원은 2025년 제12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경연대회는 <50초 통일 숏츠(Shorts) 영화제>와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두 개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광복 80년을 맞은 올해는
공모 주제를 ‘광복’, ‘통일’, ‘광복과 통일’ 관련으로 정하여,
독립의 역사와 평화·통일의 과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했다.



짧은 50초 영상에서 통일미래 세대 청소년들의 창의성과 열정,
그리고 통일에 대한 진솔한 시선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 —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백승환 감독과의 대화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시상식 모습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

3월 27일 접수를 시작해 5월 23일 시상식으로 마무리된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행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동일 연령의 청소년들이 ‘광복’, ‘통일’, ‘광복과 통일’을 주제로 50초 내외의 영상을 직접 제작하여 출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영화제에는 총 176편이 접수되었으며, 예선심사, 온라인 국민투표, 결선심사를 거쳐 초·중·고등부 부문별로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 등 총 18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5월 23일 시상식은 제13회 통일교육주간과 연계하여 국립통일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시상에 앞서 수상작 18편이 전체 상영되어 참석자들이 광복과 통일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공감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또한 백승환 영화감독이 초청되어 수상자 및 참석자들과 〈영화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진행했다. 수상작들은 제13회 통일교육주간 공식 누리집 및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유튜브에 공개되었다.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

2014년부터 개최해 온 〈어린이 창작 통일 동요제〉는 올해로 9회째를 맞아, 7월 21일 접수를 시작해 9월 26일 결선 경연 및 시상식으로 마무리되었다. 통일을 주제로 창작된 동요를 초등학교가창팀이 선택하고 직접 경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동요제에는 총 127곡이 출품되었으며, 예선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9팀이 결선 무대에 올랐다.

9월 26일 서초구 로데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결선 경연과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9팀의 결선 경연에서는 ‘개미’, ‘줄넘기’, ‘일기’, ‘메아리’ 등 다양한 소재로 통일을 상상한 창작 동요들이 무대에 올랐다. 심사위원들은 국악과 연계한 동요 등 출품작의 수준이 높았다는 평가를 남겼다.

시상식에는 전년도 최우수상 수상팀 ‘예동중창단’의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수상작은 국립통일교육원 누리집, 제12회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주요 음원 사이트에 등록되고, 뮤직비디오로도 제작되었다.



동요제 대상(다같이 돌아 한반도 한바퀴)



동요제 최우수상(다시 빛나는 날)



동요제 최우수상(두근 공닥 평화통일)



〈제9회 어린이 창작 통일동요제〉 수상자 단체사진

교실로 이어진 광복과 통일의 이야기

올해 행사는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영상과 음악을 통해 창의적이고 참신한 방식으로 광복과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나아가 이번 행사는 지난 역사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청소년 주도의 참여형 콘텐츠 모델을 제시하였다.

“

이번 동요제가 우리 모두에게 광복의 기쁨을 다시 되새기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영환 국립통일교육원장

”

4 나라사랑 태극기 캠페인

태극기로 도시를 물들이다

광복 80년을 맞아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추진했다.
 인천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광화문광장 주변 주요 건물 대형 태극기 게시,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태극기 홍보 영상 제작·송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캠페인이 전개되었다.
 이를 통해 태극기를 단순한 국경일의 상징을 넘어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국가상징으로 확장하고자 하였다.



광복 80년을 맞이해 누구나 일상에서 태극기를 친숙하게 접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준비했습니다.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

인천공항에서 시작된 캠페인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진행된 태극기 달기 캠페인은 인천국제공항을 찾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일상 속에서 태극기와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행정안전부 차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농협은행 부행장이 7월 30일, 인천국제공항에 방문하여 여행객들에게 캠페인 기념품을 직접 나누어 주기도 했다.

캠페인의 기념품으로는 태극 무늬 네임택과 캐릭터 키링 ‘때끼’가 제작되었으며, 제작과 배부에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함께했다.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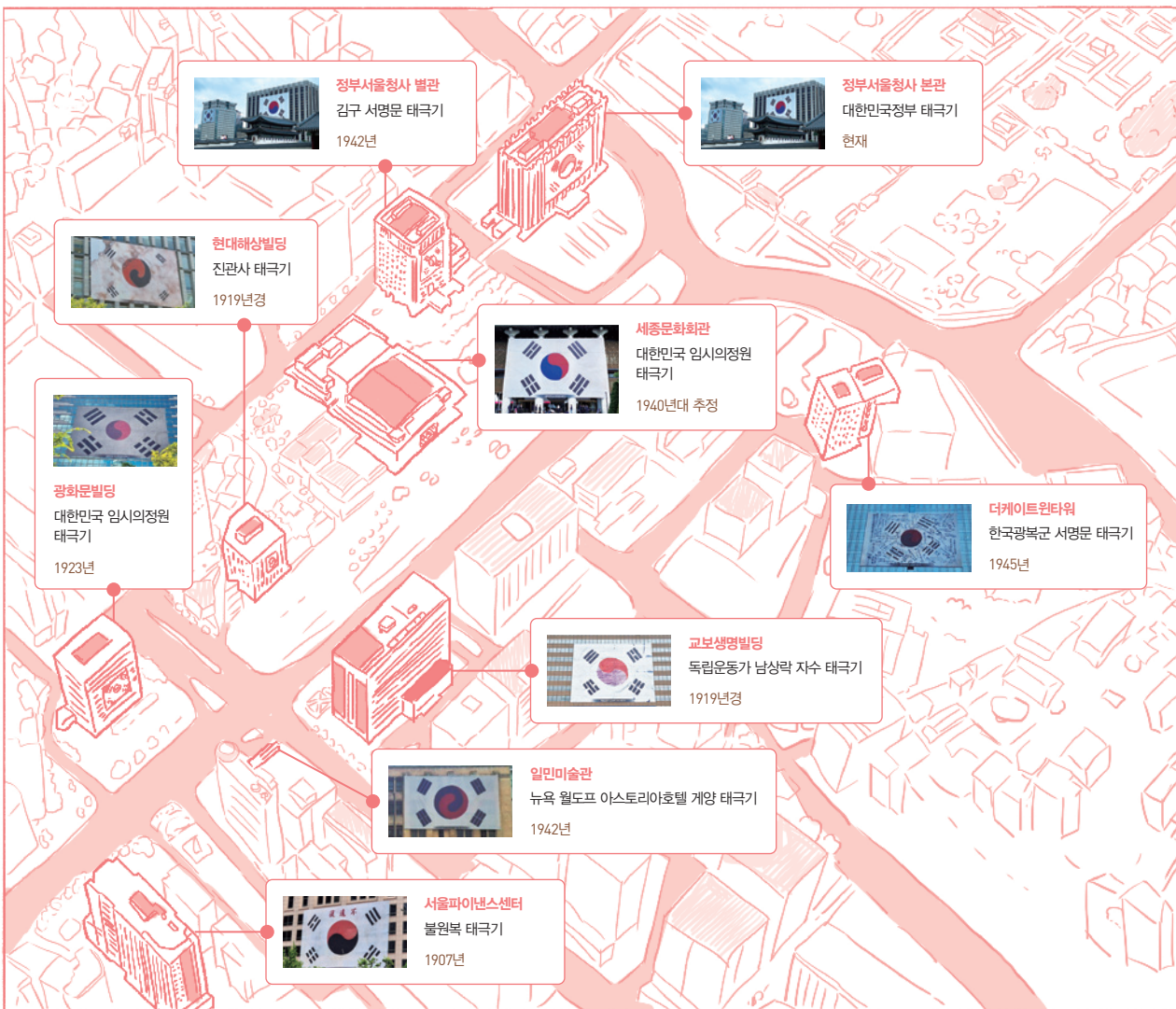
념품은 국무회의에도 소개되었고, 공항 이용객 사이에서 오픈런이 발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일부 기념품은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으며 광복 80년 캠페인을 알리는 매개로 활용되기도 했다.

캠페인 현장에는 증강현실(AR) 포토존도 운영되었다. 왕과 왕비, 공주와 왕자의 전통 복식을 입고 태극기를 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내외국인 방문객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인천국제공항 광복 80년 태극기 달기 캠페인

● 서울 광화문 일대 대형 태극기 게시 배치도



광화문 10개 건물, 8종의 문화재 태극기

8월 11일부터 광복절까지 광화문광장 주변 10개 건물에 대형 태극기가 게양되었다. 현행 태극기 외에도 독립운동 시기의 역사적 태극기 8종이 각 건물 외벽에 재현되었다.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지닌 태극기들이 광화문 일대를 수놓으며, 도심 한가운데에서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적 공간이 조성되었다.

특히 김구 서명문 태극기, 진관사 태극기, 광복군 서명문 태극기 등 독립운동의 역사가 담긴 문화재 태극기들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광복의 역사와 독립운동의 의미를 마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순한 게양 행사를 넘어, 광화문광장 일대를 ‘광복 80년 야외 역사 전시 공간’으로 확장한 상징적 프로젝트였다.

● 게시 태극기 목록



정부서울청사

본관(대한민국정부 태극기) / 별관(김구 서명문 태극기)



세종문화회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1940년대 추정)



현대해상빌딩

진관사 태극기(1919년경)



광화문빌딩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태극기(1923년)



더케이타워

한국광복군 서명문 태극기(1945년)



교보생명빌딩

독립운동가 남상락 자수 태극기(1919년)



일민미술관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호텔 게양 태극기(1942년)



서울파이낸스센터

불원복 태극기(1907년)



광복 80년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 시상식

국가상징, 디자인으로 빛나다

태극기뿐 아니라 무궁화, 국새, 한글 등 국가상징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국가상징, 디자인으로 빛나다’를 주제로 한 국가상징 디자인 공모전이 6월 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40개 작품에 대한 시상식이 8월 7일 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에서 열렸으며, 이후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영등포아트스퀘어에서 수상작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전시를 관람하였고, 이후 온라인 전시로도 이어졌다.

온 도시에 태극기를 휘날리며

태극기 홍보 영상은 2월부터 제작에 착수하여 6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송출되었다. 코엑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신세계백화점 본점까지, 3개 입체 전광판에 아나모픽(입체형) 영상이 송출되었으며, 지하철 내부와 스크린도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편의점 사이니지(디지털 광고 화면)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서도 영상이 상영되었다.

특히 CU편의점, GS편의점, 농협은행 등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극기와 광복 80년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복의 의미를 특정 행사 공간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도시와 생활 공간 전반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초등학생 대상 교육도 함께 추진되었다. 전국 2,870개 초등학교 15만 명의 학생에게 태극기 교재와 교구가 배부되었다. 교재에는 태극기의 의미, 국기에 대한 예의, 제작 방법, 국기 게양일, 애국가, 5대 국가상징(태극기·애국가·무궁화·국새·나라문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교구는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형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문화가족과 재외동포 등에게는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형태의 태극기가 보급되었다.

광복 80년을 맞아 추진된 이 캠페인은, 태극기 게양과 야외전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을 통해 국민이 태극기를 일상에서 친숙하게 접하고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상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5 청소년 통일 어드벤처

27개국 청소년이 함께한 통일 어드벤처, 광복의 의미를 잇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광복 80년을 맞아 재외동포 청소년의 통일관·역사관 함양과
글로벌 통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2025 청소년 통일 어드벤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분단 현장 체험과 독립운동 역사 공간 탐방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외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리며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구축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1일자 통일 골든벨 전경

‘통일 어드벤처’로 다시 태어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광복 80년을 기념해 기존 〈통일 골든벨〉 프로그램을 독립운동 역사 공간 탐방과 분단 현장 체험을 연결하여 행사의 의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획하였다. 행사명을 〈2025 청소년 통일 어드벤처〉로 변경하고, 임시정부기념관 방문을 최종 일정으로 포함시켰다.

해외 참가자는 통일 골든벨 우수 학생, 주니어평통 우수활동 학생, 한류에 관심이 많은 현지 외국인 학생 등 다양한 경로로 선발되었다. 국내 참가자는 〈찾아가는 통일퀴즈 원정대〉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선발이 이루어졌다.

광복의 기억에서 통일의 미래로

행사는 2025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 연천), 파주 DMZ 일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날,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2025 통일 골든벨 결선대회〉가 진행되었다. 국내외 청소년 3~4명이 한 팀을 이뤄 총 34개 팀이 팀 대항 형식으로 약 50문제를 풀었다. 통일과 역사를 주제로 한 문항에 참가자들의 협력과 호응이 이어졌으며, 결선에서는 12개 팀 47명에게 시상금이 수여되었다. 퀴즈 문항에는 독립운동 관련 주제가 반영되어, 해외에서 자란 동포 청소년들이 독립운동 관련 문항을 접하며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2025 통일 골든벨〉 시상식 단체사진



3일차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방문

둘째 날, 참가자들은 파주 DMZ 일대를 방문하여 도라산전망대와 제3땅굴을 견학하였다. 북한 지역이 조망되는 도라산전망대와 실제 남침용 갱도인 제3땅굴 현장은 분단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는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당일 저녁에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KBS 1TV 〈우리말 겨루기〉 예심이 진행되었으며, 해외 참가 청소년 중 8명이 선발되었다.

셋째 날, 일정의 마지막 방문지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었다. 광복 80년의 역사를 조명하는 이 공간에서 참가 청소년들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학습하였다. 임시정부기념관 방문은 통일 체험에 독립운동 역사 탐방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획된 행사의 취지를 구현하는 일정이었다. 이후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K-푸드를 체험하며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국내외 청소년이 함께 나눈 광복 80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는 행사 전날인 7월 25일과 행사 종료 후인 8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7월 29일에는 민주평통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현장 사진이 게재되었다. 8월 4일에는 KBS 2TV 〈생생정보통〉이 〈2025 청소년 통일 어드벤처〉 현장을 전국에 방영하였다.

〈2025 청소년 통일 어드벤처〉는 기존 〈통일 골든벨〉의 틀을 확장하여 독립운동 역사 탐방과 분단 현장 체험을 결합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7개국에서 선발된 해외 동포·현지 청소년과 국내 청소년이 함께 참가한 이번 행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프로그램을 국제적 범위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관과 통일 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국내외 청소년들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6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광복의 빛, 평화와 만남의 길을 비추다

통일부는 2025년 10월 4일 더 플라자 호텔 서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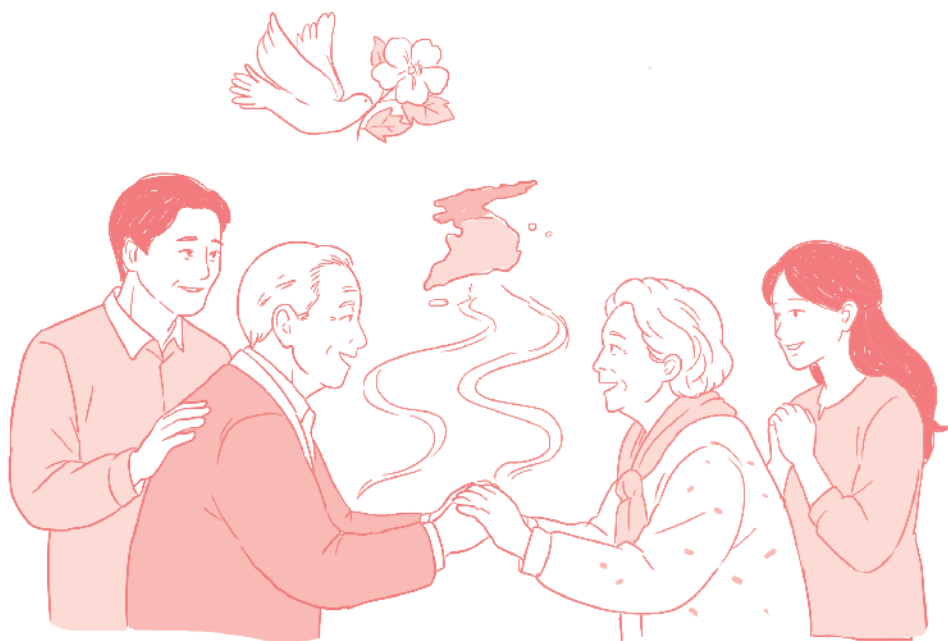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산가족들과 관련 단체,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 약 370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광복의 빛, 평화와 만남의 길을 비추다〉라는 슬로건 아래,

‘역사와 기억’, ‘위로와 공감’, ‘빛과 희망’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대통령 축사 —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위로의 날

〈이산가족의 날〉은 2023년 이산가족법 제12조의2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매년 추석 전전날(음력 8월 13일)을 기념일로 정한 것은 추석 명절에도 북녘의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억하겠다는 취지다.

2025년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은 광복 80년에 개최되어 그 의미를 더하였다. 기념식은 오전 10시 25분 합동추모식을 시작으로 본행사와 오찬 행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프닝 공연은 〈고향의 봄〉을 배경으로 한 창작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통일부장관 내레이션의 주제영상 〈기억과 마음이 빛과 희망으로〉가 이어졌다. 대통령 서면축사는 국가안보실 2차장이 대독하였으며, 이산가족 문제의 국가적 해결 의지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강조되었다. 기념공연에는 이북 7도 부녀연합합창단과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이 참여하여 이산가족의 염원과 희망을 주제로 한 공연을 선보였다. 주제 퍼포먼스로는 〈희망의 점등

식〉이 진행되었다. 오찬 시간에는 1983년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의 진행을 맡았던 이지연 아나운서와 이동표 화백이 참여한 〈이산가족 이야기〉 영상이 상영되었으며, 오찬 종료 후 해외 이산가족 및 이산 2~3세대의 소감 발표가 진행되었다.

기념행사는 서울 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도모하였다. 인천·강원·전남 각 지역 통일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이산가족 관련 문화행사가 함께 개최되었다. 인천과 강원에서는 이산가족의 생애기록물과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전시하였으며, 전남에서는 이산가족 초청 행사와 도서 나눔 행사 등을 진행하였다.

광복 80년, 공감이 만드는 공동체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는 이산가족 문제가 역사적 과제이자 현재진행형의 인도적 사안임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동시에 이산가족을 향한 위로에 광복 80년의 의미를 더한 특별한 자리였다. 이 행사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그 해결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으로써 앞으로도 가치 있는 기념의 자리가 될 것이다.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브릴란떼 어린이 합창단 공연

● 프로그램 세부 일정

순서	시간	세부 내용
사전행사	10:25~10:30	합동추모식 ※ 09:30~ 참석자 등록 및 디지털 망배단 운영
	10:30~10:42	개회 및 국민의례
	10:42~10:47	오프닝 공연 - 창작무용 <고향의 봄>
	10:47~10:50	주제영상 - <기억과 마음이 빛과 희망으로>(통일부장관 내레이션)
본행사	10:50~11:05	축사 • 대통령 서면축사(국가안보실 2차장 대독) • 국회의원,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
	11:05~11:15	유공자 포상
	11:15~11:35	기념공연 - 이북7도 부녀연합합창단,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
	11:35~11:40	주제 퍼포먼스 - <희망의 점등식>
오찬행사	11:50~12:00	이산가족 이야기(대화 영상) • 이지연 아나운서(1983년 KBS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진행) • 이동표 화백(평생 이산의 아픔을 소재로 미술작품 활동)
	12:00~12:45	오찬(국민 응원 영상 상영)
	12:45~12:50	이산가족 소감발표(해외 이산가족, 이산2~3세대 등)



통일부장관 유공자 표창 기념사진

〈평화통일〉 수록 기고문

광복 80년, 분단 80년: 통일을 넘어 ‘분단 이후의 시민’을 상상하다



분단의 현실을 상징하는 판문점의 풍경, 이제는 ‘분단 이후의 시민’과 평화공존의 문화를 모색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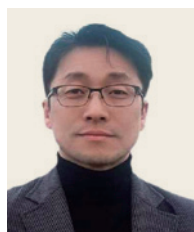
분단은 남북의 이념 대립이 아니라 식민지 해방의 불균형 속에서 비롯된 국제정치의 산물이며 그 흔적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통일의 당위를 되뇌는 일 이 아니라 분단의 의미를 성찰하고 평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분단 이후의 시민’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통일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상상력과 평화공존의 문화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광복 80년, 분단의 원인을 다시 생각하다

광복 80년이자 38선이 처음 그어진 지 80년이 되는 해다. 반면 독일은 통일 35주년을 보내고 있다. 독일에겐 통일은 과거이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형이지만, 우리는 종종 그들의 과거로부터 미래를 상상하곤 한다. 그러나 그 상상 속에는 오래된 질문이 빠져 있다. 우리는 왜, 어떻게 분단되었는가라는 물음이다.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교수

정진현



독일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해 시내 야외 카페에 앉아 모닝커피를 시켰다. 손님은 우리 외에 젊은 커플 한 쌍뿐이었다. 인사와 함께 말을 건넸다. “이 동네에 사세요?” “아뇨, 여행차 왔어요.” 둘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여성이 먼저 말했다.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괴팅겐에서 일하는 게 1순위라 이곳에 지원하려고요.”

노벨상 수상자를 수십 명 배출한 학문의 도시답게 자부심이 묻어났다. 나는 남자친구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친구도 이곳에서 직장을 찾는지 궁금했다.

“저는 금융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전통적 금융 강국인 스위스나 네덜란드에서 첫 직장을 시작하려고요.”

그의 말을 듣고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기껏해야 프랑크푸르트나 뮌헨 같은 독일 내 대도시를 떠올렸던 반면에, 대학을 갓 졸업한 이십 대 청년의 시야는 이미 독일을 넘어 있었다. 국경을 건너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옆 도시로 출퇴근하는 일처럼 자연스러웠다. 대륙

을 무대로 한 상상력, 경계를 넘어선 삶의 정체성—이들이 바로 ‘독일 통일세대’였다.

이 만남을 계기로 나는 고국의 현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의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통일의 당위보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서는 상상력’이 아닐까. 그 생각이 이어져 며칠 뒤, 막스 플랑크연구원 세미나에서 있었던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다. 한 동료가 내게 물었다. “너희는 일본에 식민화(colonization)되었던 거니, 아니면 합병(annexation)이었어?” 나는 “둘 다 같은 거 아닌가?”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단호히 말했다.



오늘날까지 남아 남북 분단의 흔적을 전하는 베를린 장벽과 그 앞에 선 시민의 모습

“아냐, 둘은 성격이 달라.” 세미나가 곧 시작될 참이라 “그럼 annexation이지”라고 짧게 답했다. 그랬더니 그는 “그래서 너희가 분단된 거구나!”라고 말하고 돌아섰다. 그 짧은 대화가 내게 남긴 것은 단순한 어학적 차이가 아니었다.

분단의 성격을 이해해야 통일의 방향이 보인다

한국의 분단은 남북의 이념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해방의 불균형에서 시작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분할은 패전국의 귀결이었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식민지 해방의 역설이었다. 일본은 패전했으나 책임을 회피했고, 한반도는 해방되었으나 분할되었다.

일본인 역사학자 하세가와 쓰요시가 쓴 『중전의 설계자들』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현대사 단추가 어떻게 처음 잘못 끼워졌는지 일말의 힌트를 얻는다. 비교적 보면, 독일이 명백한 ‘패전’으로 전후 질서 재편의 출발점이 된 반면, 일본은 ‘중전’이라는 표현 속에 패전의 책임을 희석시키며 전쟁의 종식을 맞이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은 동서독의 분단과 달리, 한반도의 분단이 식민지 해방의 불균형 속에서 비롯된 역사적 역설임을 암시한다.

이처럼 한반도의 분단은 민족 내부의 문제라기보다 국제정치 질서가 만들어낸 구조적 불평등의 결과였다. 냉전의 최전선이 된 한반도는 냉전

체제하 최초의 열전(한국전쟁)을 치러야 했고, 그 상처는 오늘날까지 이어진다. 독일의 분단은 내전 없이 점령으로 시작되어 화해의 서사를 품을 수 있었지만, 한반도의 분단은 전쟁의 상흔과 체제의 대립을 낳았다. 분단의 트라우마는 민주사회에서도 남남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 등 공동체 내부의 대결 양상으로 파생되었으며, 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일의 당위를 되뇌는 일이 아니라, 분단의 기원을 성찰하는 일이다. 왜 분단되었는지를 묻는 일은 단순한 역사적 반성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통일을 꿈꾸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한나 아렌트의 말을 빌리자면, 정치는 인간이 타인과 더불어 말하고 행위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여는 능동적 행위이다. 통일 역시 제도의 결정이 아니라, 시민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공동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때문에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은 제도 개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세계(common world)’의 복원이어야 한다.



한나 아렌트의 정치 철학은
통일을 단순한 제도적 통합이 아닌,
시민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능동적 과정이다

출처: Barbara Niggel Radloff, Hannah Arendt auf dem 1. Kulturkritikerkongress(1958), Münchner Stadtmuseum, Sammlung Fotografie,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달라진 세대, 달라진 통일 인식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젊은 세대의 통일 필요성 인식은 낮은 반면, 평화 유지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이는 통일 담론이 ‘세계시민적 평화감수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이다. 청년 세대는 국경을 넘는 연대와 협력을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통일을 ‘국가적 목표’보다 ‘공존의 가치’로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사 누스바움은 “모든 품위 있는 사회는 공감과 사랑의 정서를 적절히 함양함으로써 사회적 분열과 계층의 분리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서로의 상처를 공감하고 연민할 때, 제도 너머의 평화가 시작된다. 통일은 영토의 결합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누스바움의 ‘역량(capabilities)’ 개념처럼, 남과 북 모두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다.

이제 통일교육은 ‘이념적 통일 의식’이 아니라, 평화 · 통일 · 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방향은 통일을 민주주의의 연장선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마사 누스바움은 통일을 단순한 국가의 결합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과 기회를 누리는 ‘역량의 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본다

출처: Jerry Bauer, Martha Nussbaum,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평화를 배우고, 논쟁을 토론하며,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구조—이것이 바로 한반도 통합을 위한 사회적 역량의 토대다.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사회적 대화의 시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는 대결이 아닌 협력, 단절이 아닌 상생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는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함께 번영하는 한반도 공동체의 비전을 뜻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 · 통일정책 추진〉을 통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대북 · 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정부 · 국회 ·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개방적 대화 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제와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고, 국민 제안을 정책화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둘째, 평화 · 통일 담론의 생산과 확산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청년 · 여성의 참여, 지역별 통일플러스센터 운영, 민간 연구 생태계 강화 등이 그 핵심이다.

셋째, 통일교육을 평화 · 통일 · 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시키고, 학교 · 지역사회 · 디지털 플랫폼에서 평화문화를 일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한국

적 맥락에서 구현하려는 시도, 일명 'K-보이텔 스바흐 합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대화와 시민참여는 정부나 특정 조직의 몫이 아니다. 지역의 주민, 교사, 시민단체, 청년세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여야 한다. 민주평통 위원들은 그중 한 예로, 지역 현장에서 대화를 촉진하고 공존의 언어를 확산시키는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만큼 평화공존의 문화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과제다.

분단 이후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

통일은 더 이상 국가 단위의 거대 담론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문화적 과정이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탄생성(natality)'-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능력-처럼, 분단 80년의 한반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 희망의 씨앗은 거대한 정치가 아니라, 평화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시민에게 있다.

교육의 목적은 국경 안의 충성심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 전체를 향한 공감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생애사 나눔을 통해 동서독 주민간의 화해, 구동독 내 비밀경찰과 탄압받은 자들간의 용서와 치유를 실천한 괴텔리츠 선생의 동서포럼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서부터 분단을 치유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번영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이 비전은 통일의 종착점이 아니라, 우리가 분단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다. 광복 80년, 분단 80년의 교차점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분명하다.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시민으로 분단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이야말로, 이 시대의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다.

통일부 5대 국정과제

117만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

- 사회적 대화 활성화
- ✓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제도화하는 사회적 대화 추진체계 구축·운영

- 평화·통일 담론 확산 및 평화통일 공공외교 추진
- ✓ 민간이 평화·통일 담론의 생산 및 확산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체계 구축

-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 추진
- ✓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발전

- 북한자료 공개 확대
-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고려한 북한 자료 공개 법·제도 마련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이용 시스템 구축

통일부

지난 9월 23일, 통일부에서는
〈국민과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정책 추진〉을 통한 방향을 제시했다.

광복 80주년, 역사 앞에 선 대한민국, 청소년에게 묻는다



서울시가 광복 80년을 맞아 2025년 8월 1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게시한 대형 태극기 작품

2025년, 우리는 광복 80년을 맞이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그 날의 함성과 눈물이 어느덧 80년의 세월을 지나온 것이다. 두 세대를 훨씬 넘긴 지금, 광복은 더 이상 생생한 기억이 아닌 ‘역사’가 되었지만, 그 의미는 조금도 퇴색되지 않았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묻게 된다. “우리는 그 자유를 잘 지켜내고 있는가?”, “우리는 그 희생의 대가에 해당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광복의 의미를 재고(再考)해 본다. 이는 단지 나라를 되찾은 날이 아니다. 그것은 민족이 자주성을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되찾은 순간이었다. 뺏긴 말과 글, 짓밟힌 문화, 침묵을 강요당했던 수많은 민중의 아픔을 딛고 일어난 그날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인간 존엄의 회복’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광복은 그날의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과업이며,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계승되어야 할 유산이다.

과거를 잊지 말되, 머물지 말자

광복의 역사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희생이 스며들어 있다. 독립운동가들의 외침과 유관순 열사의 절규, 3·1운동의 함성과 임시정부의 불굴의 의지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를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여전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은 피상적이다. “광복절은 휴일일 뿐”이라는 청소년들의 무심한 말은 그들이 역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지? 올해도 태극기를 게시한 가정은 얼마나 될까?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기억은 단지 과거를 떠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것을 오늘에 적용하는 실천이다. 다시 말해, 광복의 정신은 단지 ‘일제에 저항했다’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것은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자유를 향한 갈망,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투쟁이라는 보편적 가치다. 이런 정신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특히 청소년들에게 멈춤이 없이 이어져야 할 시대의 언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교육, 광복의 정신을 품어야

지금 우리는 새로운 광복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정보는 넘치지만, 진실을 찾기 어렵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성과 공동체 의식은

위협받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길어 올린 다음과 같은 소중한 가치라 할 것이다.

첫째, 자주적인 사고의 힘이다. 일제 강점기는 우리에게 자주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다. 지금 청소년들이 마주한 또 다른 형태의 ‘식민지’는 타인의 기준과 외부의 시선이다. SNS의 여론에 휩쓸리고, 정체성 없이 유행을 좇는 삶 속에서, 가짜 뉴스를 접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 시대 광복의 정신이 ‘자신의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둘째, 연대와 공동체 정신이다. 독립운동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모두의 연대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분열로 고통받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일, 공감과 협력의 가치를 심어주는 교육이야말로 오늘날의 독립운동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역사적 책임감이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역사를 통해 비판적 사고를 기르고, 현재를 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줄의 교과서 내용보다, ‘그날의 선택이 오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교육이 절실하다.



교육 칼럼니스트

전 재 학

국가의 과제, 교육의 전환점

광복 80년을 맞이한 올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단발성 기념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행사에 머무르지 말고, 역사교육의 근본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분단과 전쟁, 민주화의 과정까지 통합적으로 가르치는 서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이 ‘왜’ 이 역사를 배워야 하는지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독립운동가의 삶을 단지 책장에 꽂아 위인전으로 간직하기보다, 그들의 고뇌와 선택을 통해 ‘나였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고민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의 삶과 역사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줄 때, 비로소 진정한 교육이 시작된다 할 것이다.

광복 80년은 단지 ‘기념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의 물음표가 되어야 한다. “당신은 자유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청소년, 그리고 그들을 길러내는 기성세대인 어른이 함께하는 사회라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80년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정신의 연장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곧, 진정한 광복의 완성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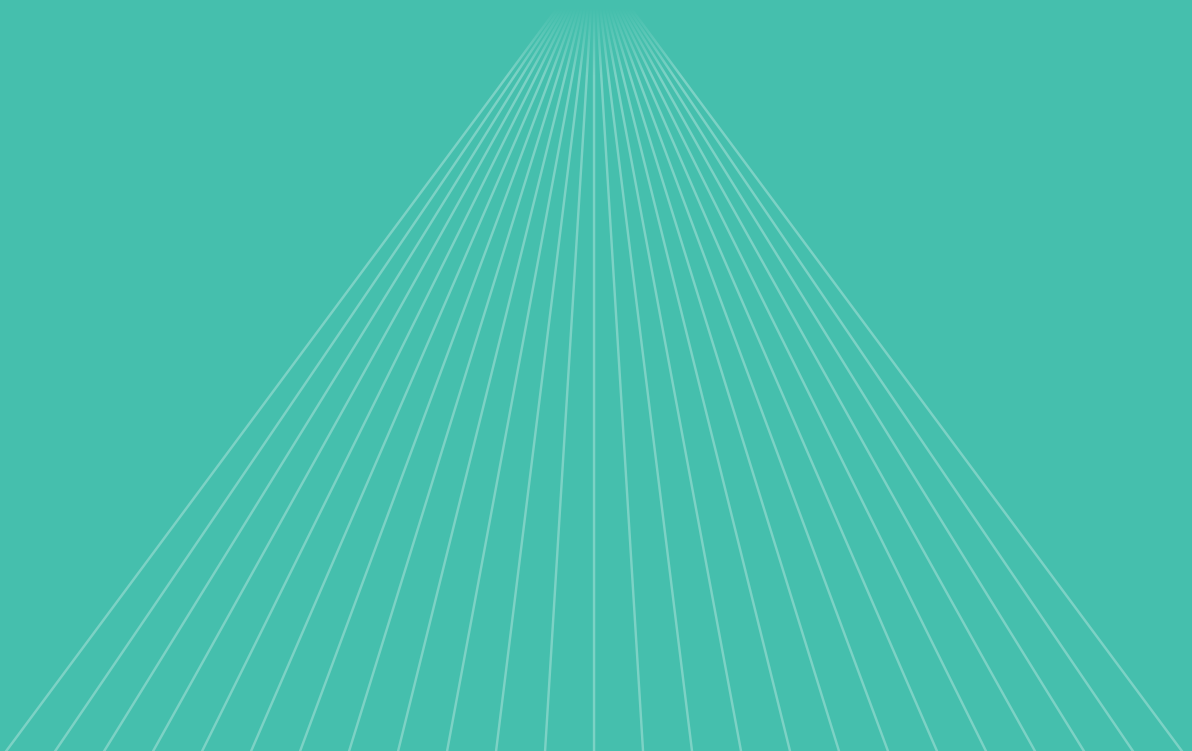
“

지금 우리는 새로운 광복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역사 속에서 길어 올린 소중한 가치이다.

”

광복의 가치는 더 널리, 그리고 더 가까이
국민에게 알려질 때 진정한 빛을 발한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전하는
광복 80년의 이야기가 역사를 넘어 일상 깊숙이 전해졌다.
이 장에는 광복 80년의 빛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눈 뜨거운 기록이 담겨있다.

4장



제4장 빛의 확산

국민과 함께 나누는 80년의 가치

제1절 홍보 개관: 광복 80년 홍보의 지도를 그리다

1. 홍보 목표 및 방향
2. 단계별 홍보 추진 체계

제2절 홍보 준비: 빛을 맞이할 길을 마련하다

1. 국민인식조사
2. 홈페이지 운영
3. SNS 채널 운영
4. 상징체계 활용

제3절 국민과 함께: 일상의 풍경에 스며들다

1.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
2. 민관 협업
3. 참여 이벤트

제4절 광복의 확장: 광복의 가치를 널리 전하다

1. 광고
2. 홍보 콘텐츠
3. 서포터즈 '영광(YOUNG:光)'
4. 국민 소통의 결실

제1절



홍보 개관:
광복 80년 홍보의
지도를 그린다

1. 홍보 목표 및 방향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광복 80년을 맞아 자유를 되찾은 위대한 성취의 날을 기념하고, 과거의 성취를 발판삼아 세대를 아우르며 국민을 통합하는 ‘빛의 축제’ 추진을 목표로 2025년 7월 2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출범하였다.

특히, 이번 광복 80년은 광복을 경험한 세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기로서 광복 정신의 역사적 보존과 계승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그 날의 함성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와 그 유산을 이어받을 미래 세대가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광복 80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더 밝은 100년을 향한 이정표를 세우는 것에 홍보의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최근의 사회적 갈등과 정세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회복하며,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금 굳건히 세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였다.

홍보활동은 기념사업 전체의 목표 및 방향과 그 궤를 함께하여야 하므로, 기념사업의 세부 추진 목표인 ‘국민통합, 기쁨과 자긍심 고취, 세대 공감’을 바탕으로 홍보 목표를 수립하였다.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는 광복 80년을 계기로 국격과 자긍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광복을 경험한 세대와 함

께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미래적 차원에서는 과거 완료가 아닌 국민 화합을 향한 미래 지향적 광복 정신의 확산을 홍보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홍보 목표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방향으로 홍보를 추진하였다. 하나는 국민들에게 광복 80년과 그 의미를 널리 알려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광고·홍보물 제작, TV·디지털·옥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광고 캠페인 실행,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홈페이지와 SNS 운영을 통한 광복 80년 가치 알리기 등의 홍보를 추진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광복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기념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실시, 광복 80년 서포터즈 운영, 오프라인 행사(축제) 개최 등을 통한 직접적 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기관·기업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였다.

2. 단계별 홍보 추진 체계

광복 80년 기념사업 홍보는 단기간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쳐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1단계(5월)는 홍보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기간으로, 세부 홍보계획 수립, 광고 및 홍보영상 기획, SNS 채널 개설, 서포터즈 운영 체계 구축, 민간 협업 파트너 발굴 등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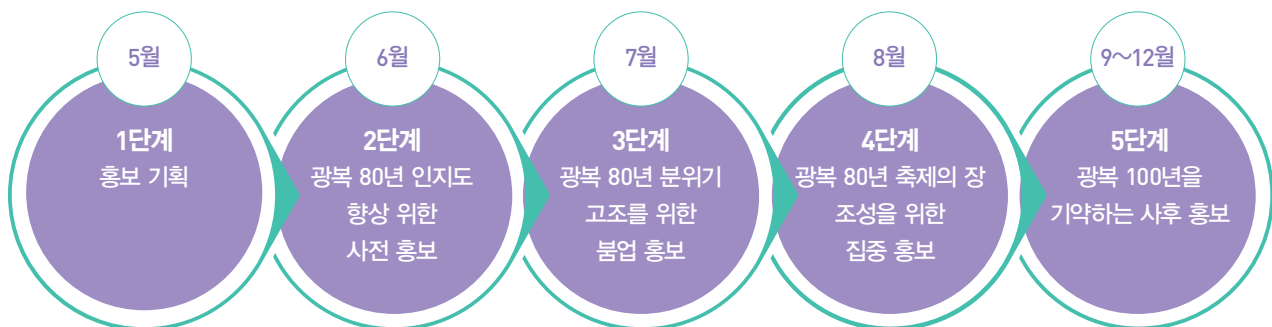
2단계(6월)부터는 본격적인 홍보 실행을 위해 광고물과 SNS 콘텐츠 제작에 착수하였다. 특히 6월 23일부터 광복 80년 사전 광고영상을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송출함으로써 광복 80년 홍보의 포문을 열었으며, 온라인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서포터즈 모집, 민간 파트너와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3단계(7월)에는 광복절을 한 달 앞둔 시점에 걸맞은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참여 행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였다. 광복 80년 서포터즈는 7월 23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으며, 광복 80년 메인 광고물을 TV·디지털

및 옥외 매체 등에 송출하기 시작하면서 대국민 접점을 확대하였다.

4단계(8월)는 광복 80년 홍보의 핵심 기간으로서, 8월 2일에 청계광장에서 광복 80년 행사인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을 개최하였으며, 그 외에도 ‘스탬프투어’, ‘나의 소원 이벤트’, ‘땡큐 광복 솜품 챌린지’ 등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이 본격 운영되었다. 또한, 광복절을 앞두고 유명 유튜브 채널과 협업한 광복절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카드뉴스·홍보 영상 등 각종 SNS 콘텐츠들이 제작·확산되었다.

5단계(9월~12월)에는 광복 80년에 대한 지속적 관심 유도와 광복 100년 준비에 초점을 두었다. 위원회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주요 행사와 서포터즈 활동 콘텐츠를 연말까지 게시하였다. 또한, 광복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광복 100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 14일에서 11월 9일까지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 수상작이 광복 100년 기념사업에 포함되는 등 의미있는 결실을 거두었다.



제2절

광복 80년



홍보 준비:
빛을 맞이할
길을 마련하다

1. 국민인식조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2025년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들이 느끼는 광복의 의미와 기념사업에 대한 기대를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진행되었다. 조사는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총 3개 분야,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국민의 43.7%는 2025년이 광복 80년임을 알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는 응답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복 이후 80년

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중상위권 이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7.8%로 광복 60년(1.9%), 광복 70년(8.2%) 대비 크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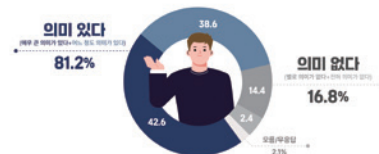
정부가 우선해야 하는 기념사업 추진 목적으로는 ‘국민 화합과 공감대 형성’(31.1%)이 가장 높은 응답을 받았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활력 제고’(16.5%), ‘미래지향적 국가비전 제시’(16.1%), ‘국민의 역사인식과 자긍심 고취’(14.1%) 등이 뒤를 이었다. 광복 80년을 대표하는 사업으로는 ‘독립운동가 선양사업’(35.2%)이 가장 많이 꼽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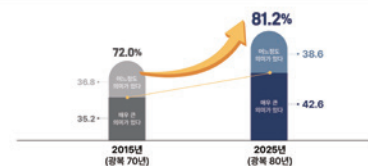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 카드뉴스

높아진 광복의 중요성 국민 81.2% ‘의미 있다’

● 광복 80년인 올해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n=1,500)



연도별 변화



으며,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22.2%), ‘문화예술 축제’(18.3%), ‘학술·편찬·전시 사업’(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하반기에는 기념사업 추진 이후 국민 인식 변화와 성과 체감을 확인하기 위한 후속 조사가 실시되었다. 해당 조사는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과 ‘기념 사업에 대한 관심도’, ‘성과 평가’ 등 총 3개 분야,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 결과, 광복 80년 인지율은 68.7%로 상반기(43.7%) 대비 크게 상승했으며, ‘의미 있다’는 응답 역시 88.8%로 상반기(81.2%) 대비 높아져, 광복 80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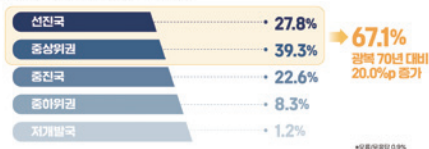
기념사업 성과 평가에서는 ‘독립유공자 유해보환’(22.6%)이 가장 기억에 남는 기념사업으로 꼽혔으며, ‘광복 80년 전야제’(19.4%), ‘국민주권대

축제’(18.7%),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11.9%), ‘광복 80년 기념사업 광고’(9.3%) 등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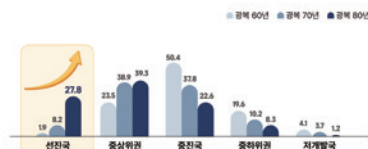
향후 광복 100년 기념사업 방향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후손 지원 강화’(24.3%)와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17.2%)가 주요하게 제시되었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독립유공자 예우 및 후손 지원 강화’가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청년층에서는 ‘광복 100년 기념 굿즈 및 엠블럼 제작’에 대한 선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장년층은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고령층은 ‘청소년 대상 역사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기념사업 추진 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핵심 과제를 중심에 두면서도, 세대별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국민 3명 중 2명 이상, 우리나라의 지위 중상위권 이상 국가로 평가

●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n=1,500)



연도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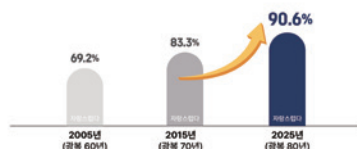


우리 역사 자부심 최고, 10명 중 9명 ‘자랑스럽다’ 응답

● 우리 역사에 대해 대체로 얼마나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n=1,500)



연도별 변화



2. 홈페이지 운영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광복 80년 관련 행사와 사업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7월 21일 출범과 동시에 홈페이지(www.korea815.go.kr)를 개설하였다.

홈페이지는 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였다. 메인화면은 주요 기념사업들의 일정 정보를 달력 형태로 제공하고, 각 사업별 상세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

었다. 또한, 기념사업별 홈페이지와 SNS를 클릭한 번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심을 가진 국민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국민임명식)> 등 광복 주간에 개최된 주요 행사의 참가 신청 창구로 활용되었으며, <광복 이은숙 글꼴> 배포 이벤트, <광복 100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등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국민 참여 행사를 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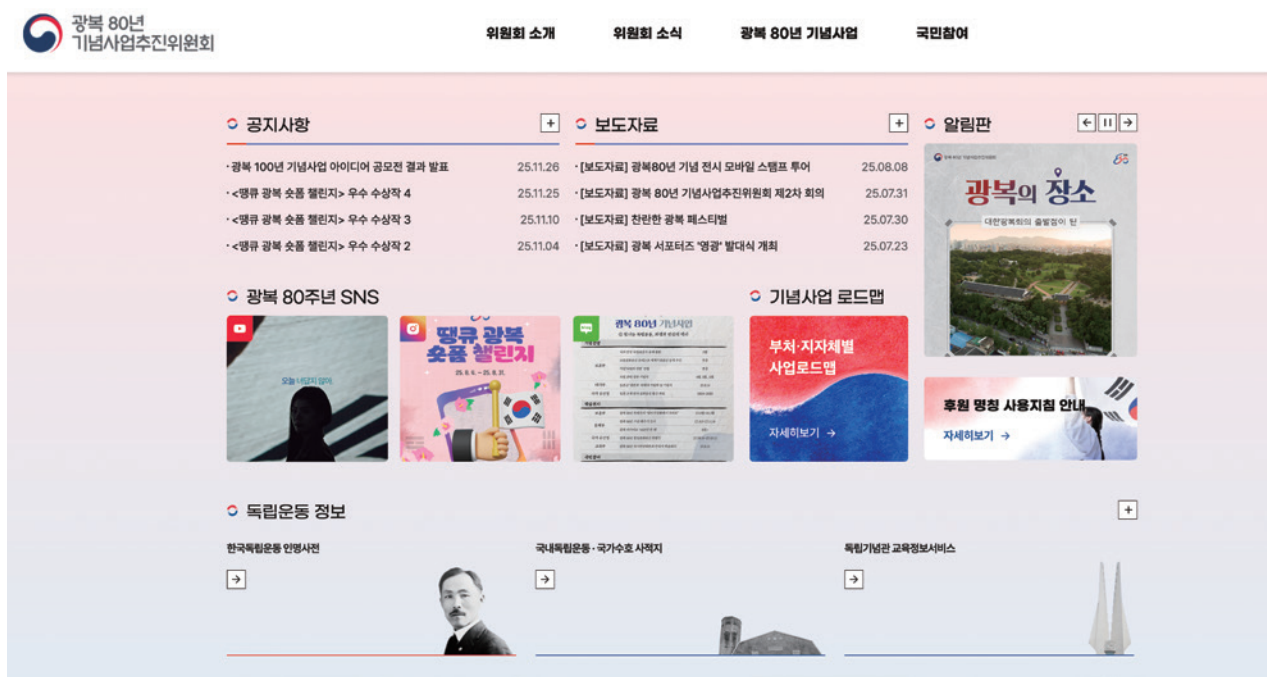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상단 화면

행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사업 추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홈페이지 내 ‘위원회 소개’ 및 ‘위원회 소식’ 메뉴는 범정부적 기념사업 추진기구로서 위원회의 활동을 알리는 한편, 광복 80년의 상징과 슬로건을 널리 확산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광복의 장소>, <광복의 깃발> 등 카드뉴스를 통해서 광복 역사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렸으며, 각 부처와 민간의 광복 80년 활동 소식, 언론 보도 등도 상세히 전달하였다.

광복 주간(8월 10일 ~ 8월 16일) 동안 총 189,855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기념사업 정보를 얻거나 기념사업에 참여하는 등, 위원회 홈페이지는 단순한 홍보 매체를 넘어 종합적인 기념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위원회의 주요 소식과 광복 80년 기념사업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여 대국민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기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홈페이지 메인 하단 화면

3. SNS 채널 운영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유튜브 채널

광복 80년이라는 역사적 기념일을 맞아 기념사업의 가치를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게 전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디지털 소통 창구의 구축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2025년 5월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의 공식 SNS 채널을 개설하였다. SNS 채널은 정보의 단순 나열식 확산에서 벗어나 매체별 이용 행태에 최적화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하였으며, 시각적 소통에 적당한 인스타그램, 고화질 영상 중심의 유튜브, 심층 정보 전달에 적합한 블로그로 채널을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채널 피로도를 낮추고, 콘텐츠의 질적 수준과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채널 개설 단계에서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행하였다. 시각적 측면에서 광복 80년 슬로건과 엠블럼을 활용하였고, 모든 채널에 통일감 있는 디자인 가이드를 적용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딱딱한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숏폼 영상, 카드뉴스, 참여 이벤트 등 최신 SNS 콘텐츠 트렌드를 반영하고,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기획·구성하였다.

채널 개설과 콘텐츠 라인업이 결정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광복 80년 홍보 콘텐츠를 게시하며 기념사업의 열기를 전파해 나갔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광복 80년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이 직접 콘텐츠의 주인공이 되는 쌍방향 소통 환경을 구축하였다.

유튜브 채널은 광복 80년에 대한 인지도 확산을 위한 채널로, 광고·인터뷰·행사 현장 스케치·기념사업 홍보 영상 등을 통해 광복 80년의 의미와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대중적 파급력을 확보해 나갔다. 인스타그램 채널은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친밀한 관계 형성을 목표로, 각종 국민 참여 이벤트와 기획 카드뉴스, 서포터즈 우수 콘텐츠 등을 꾸준히 선보이며 친근한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블로그 채널은 광복 80년 기념사업 현장 취재기와 상세 사업 공고 등 심층 정보를 기록·축적하는 한편, 포털 검색을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디지털 자료 저장소(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채널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함으로써 채널 간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성과 측면에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6월 1,297명으로 시작해 광복절의 열기가 정점에 달했던 8월에는 2,682명까지 증가하며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유튜브와 블로그의 전체 구독자는 5,000명을 넘어서며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했다. 콘텐츠 확산 측면에서는 6개월간 총 356건의 고품질 콘텐츠(인스타그램 181건, 블로그 119건, 유튜브 56건)를 게시하였으며, 그 결과 누적 조회수 3,950만 회(인스타그램 2,737만 회, 유튜브 1,196만 회, 블로그 17만 회)를 기록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소통 전략이 광복 80년 홍보에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주며, 광복 80년의 의미가 국민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블로그 채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인스타그램 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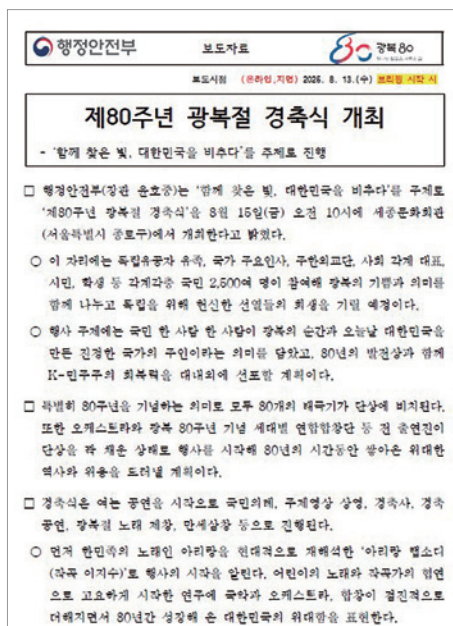
4. 상징체계 활용

광복 80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기념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 활동은 일관되고 체계적인 메시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메시지는 슬로건, 엠블럼, 로고 등 상징체계를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되었다. 즉, 상징체계의 수립은 모든 홍보활동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광복 80년 기념사업 상징체계는 2025년 7월 21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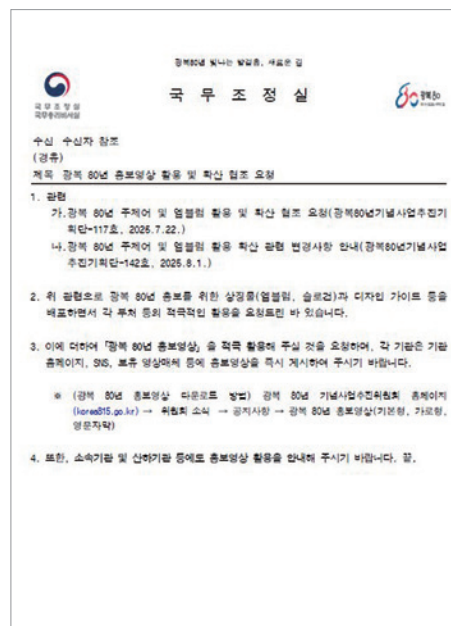
광복절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공식 상징체계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광복 관련 행사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파하였다. 전 부처에 공문을 발송하여 상징체계 활용을 독려하였

고, 각 부처는 다시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 등에 상징체계를 배포하여 빠르게 광복 80년 상징체계가 확산될 수 있었다. 그 결과 각 부처 등에서 활용하는 보도자료 및 공문서에 상징체계를 적용하였고, 기관 홈페이지, SNS, 기관 외벽 전광판 등에서도 광복 80년을 알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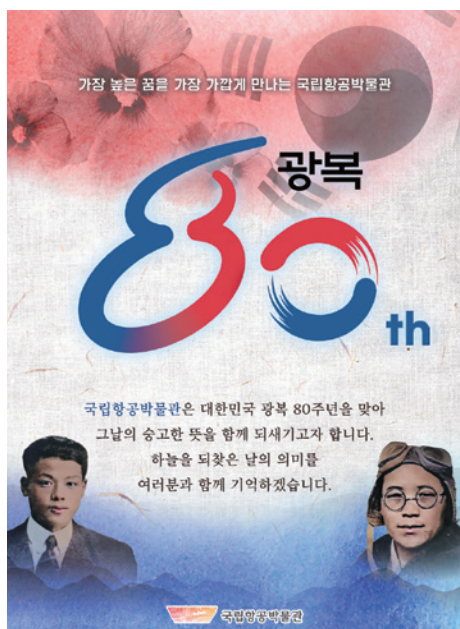
또한,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은 광복 80년 관련 영상 제작, 광고 집행, 각종 행사 및 캠페인 등 자체 홍보활동 추진시에도 광복 80년 공식 상징체계를 적극 활용하였다. 그 결과 광복 80년과 그 의미를 국민들에게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게 되었다.



광복 80년 상징물 활용(보도자료)



광복 80년 상징물 활용(공문서)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 콘텐츠



대한민국 정부 정책 주간지 표지



대한체육회 온라인 콘텐츠



보건복지부 온라인 콘텐츠



국립영천호국원 LED 전광판



국악방송 TV 화면

제3절

국민과 함께:
일상의 풍경에 스며들다

1.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

광복 80년을 기념하며 8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민 참여형 문화행사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통해 ‘광복의 기쁨’을 일상의 감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획되었고, 무더위 속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광복 80년과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 청계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전 세대가 함께한 광복의 기쁨

페스티벌은 게임존, 포토존, 문학존, 공연존의 4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방문객들이 광복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게임존은 다양한 연령대가 모두 함께 즐길 수 있

는 체험존으로 ‘컬러링 엽서 체험’과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가 진행되었고, 시민들이 그린 엽서와 태극기는 즉석에서 행사 현장에 전시되었다. 그 외에도 광복절을 의미하는 숫자 ‘8.15초’를 맞추는 타이머 게임과 ‘대한독립만세’를 외쳐서 소리 크기를 측정하는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두 게임을 통해 태극기 배지(badge), 광복 80년 상징물 라벨을 부착한 한정판 생수 등의 경품이 제공되었다.

포토존은 방문객들이 페스티벌의 추억을 자유롭게 남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독립운동가를 AI로 구현한 포토존과 흑백 필름 영수증으로 추억을 남기는 즉석 사진기는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행사 내내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문학존에서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에 실린



시민 참여 컬러링 엽서 체험 및 전시





독립운동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SI 포토존



문학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



공연존에서 공연하는 가수 '지두'



공연존에서 공연하는 창작국악그룹 '가온락'

‘나의 소원’과 같이, 참가자들의 소원을 작성하는 〈나의 소원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저항 문학과 4인(윤동주, 이육사, 이상화, 한용운)의 작품 속 문장을 메시지월(message wall)에 전시하여 시민들이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연존에서는 퓨전 국악그룹 ‘가온락’, 가수 ‘자두’ 등 6팀이 무대에 올라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고, 특히 멋글씨(캘리그래피) 작가 강병인 선생이 광복 80년 기념사업 슬로건인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을 써내려가는 대붓 퍼포먼스가 수많은 시민의 발길을 무대

앞으로 이끌었다.

운영부스에서 진행한 SNS 팔로우 이벤트는 기념품으로 증정한 김구·유관순 열쇠고리 1,000개가 모두 소진될 만큼 성황을 이루었고, 각 프로그램 참여 시 제공한 진관사 태극기 배지(badge), 광복 80년 기념 친환경 가방, 볼펜 등 다양한 기념품도 준비 물량이 전부 소진될 만큼 전폭적인 참여와 반응을 얻었다.

8월 청계광장에서의 행사 진행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았다. 수시로 대형 집회가 열리는 도심 한복판에 부스와 무대를 세워야 했고, 기록적



멋글씨 작가 강병인 선생의 대붓 퍼포먼스



운영부스에서 배포된 김구 키링



게임존 참여 시 증정한 진관사 태극기 배지



게임존에서 배포된 광복 80년 기념 친환경 가방



문학존에서 배포된 광복 80년 기념 볼펜

인 폭염이 예고된 시기였기에 안전 확보는 기획 초기부터 가장 큰 과제였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인근 집회 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돌발상황에 대비했고, 폭염 대비를 위해 행사장 부스 내부에는 이동식 에어컨을, 공연존 객석에는 차광막을 설치했다. 또한, 부채, 쿨패치, 종이모자 등 폭염 대비 물품 4,200여 개를 현장에서 무상 배포했으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행사 기간 동

안 구급차와 구급요원도 대기하였다. 이렇듯 행사 방문객이 끝까지 즐겁게 머무를 수 있는 광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 덕분에, 현장의 뜨거운 열기는 온라인으로도 확대되었다. 행사 이후 많은 보도자료와 기사, 사진, SNS 게시물 등 후기 콘텐츠가 확산되며,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은 전 세대가 함께 광복의 기쁨을 나눈 축제의 장으로 기록되었다.

2. 민관 협업

광복의 의미를 생활 속 깊이 확산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광복 80년을 만들기 위하여,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하 ‘제주개발공사’), 카카오모빌리티, 임시정부기념관, 이회영기념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 국민이 기억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사업을 추진하였다.

광복 80년 한정판 생수 출시, 제주개발공사와의 동행

7월 23일 프레스센터 무궁화홀에서 위원회와 제주개발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

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범부처협의회 의장인 국무조정실장과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참석하였고, 양측은 광복 80년 상징체계의 활용과 ‘광복 80년 한정판 삼다수’ 출시 등을 합의하였다.

그 결과 국민들은 마트와 편의점 등 일상 공간에서 광복 80년 상징물이 적용된 한정판 삼다수를 접하며, 광복 80년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협업을 통해 총 5,500만 병(5만 5천 톤) 이상의 광복 80년 삼다수가 전국에 유통되었고,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한 주요 행사 현장에서도 배포되는 등 대국민 접점을 확대하였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 제주개발공사 협약식



광복 80년 한정판 삼다수 라벨 이미지

서울역에 올려퍼진 광복 80년,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

광복 80년 슬로건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을 담은 광고 영상은 서울역에서도 만나볼 수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광복 80년의 중요성과 의미 확산에 공감하여, 광고 사업권을 보유한 서울역 내 대형 파노라마 전광판을 통해 광복 80년 TV 광고영상을 무상으로 송출하는데 협력하였다. 8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하루 100회 이상 광고 영상이 송출되었으며, 정시마다 음성 내레이션이 함께 울려 퍼져 서울역을 오가는 수많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시민들은 대형 LED 전광판을 통해 광복 80년 광고 영상과 슬로건을 접하였고, 이는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광복 80년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역 대형 파노라마 광고



임시정부기념관에 전시된 강병인 선생 멋글씨 작품

퍼포먼스가 작품이 되다, 임시정부기념관 전시와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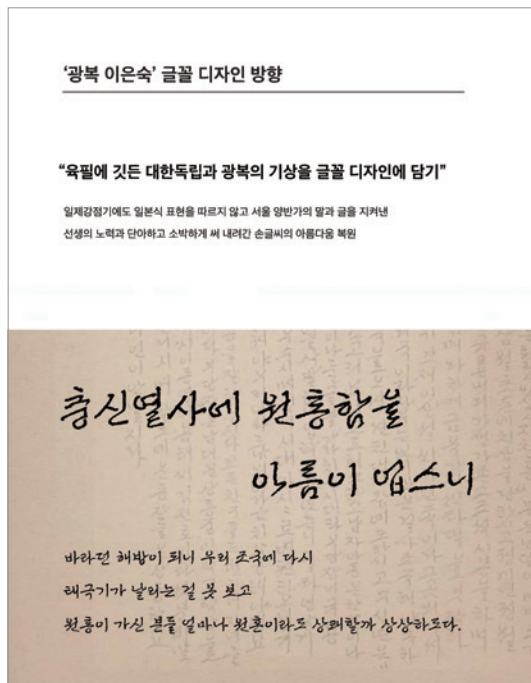
8월 2일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에서 멋글씨(캘리그래피) 작가 강병인 선생이 한지에 먹물로 써 내려간 4,000mm x 2,300mm 크기의 대작 ‘광복 80년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은 행사 이후 임시정부기념관의 광복 80년 기념 전시 <임시의 정원에서 국회로>로 옮겨졌다. 작품 설명문에는 ‘독립운동가들의 활동과 정신, 광복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적 위상과 빛나는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의지를 반영한 작품이다.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광복의 의미와 광복 80년 이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라고 소개되었다. 2025년 8월 15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진행된 이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광복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함께 체감할 수 있었다. 청계광장에서 한 번의 퍼포먼스로 사라질 수도 있었던 이 작품은 전시장의 벽면으로 자리를 옮겨 긴 호흡의 기록물로 그 의미를 남겼다.

‘광복 이은숙’ 글꼴의 탄생, 이회영기념관 및 산돌구름과의 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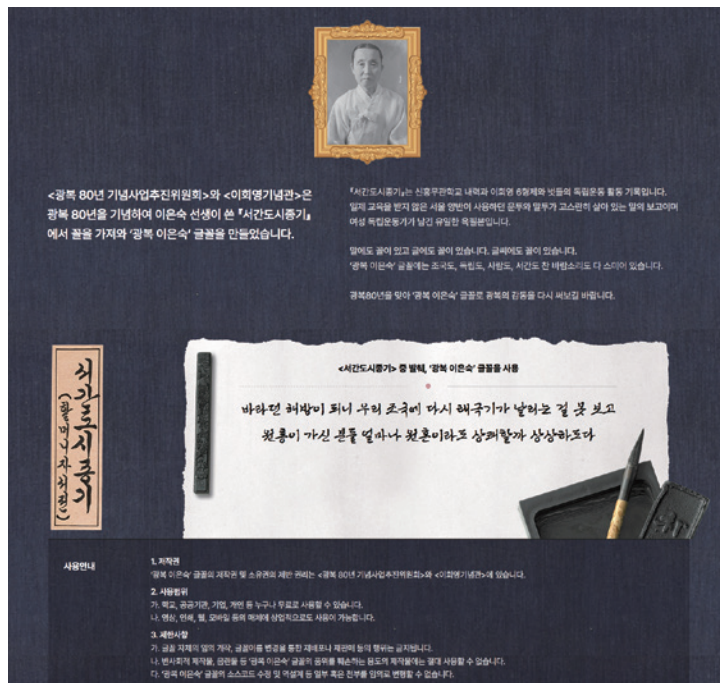
한글은 일제강점기 민족말살정책의 대상이었으며, 광복은 민족해방을 넘어 우리 말과 글을 되찾은 역사적 순간이다. 광복 80년을 맞아 우리 말과 글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 독립운동가 이은숙 선생의 육필본 <서간도시종기>의 필체를 활용하여 ‘광복 이은숙’ 글꼴을 개발하였다.(<서간도시종기>는 신흥무관학교 내력과 이회영 6형제 및 동지들의 독립운동 활동을 기록한 귀중한 역사 자료이다.) 광복 80년을 맞아 개발된 이 글꼴은 이회영기념관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한글 11,172자, 영문·숫자 94자, 특수기호 986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15일 광복절에 맞춰 세상에 공개되었다.

글꼴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와 이회영기념관 홈페이지, 산돌구름 웹사이트 등을 통해 무료로 배포하였고, 출시 18일 만에 다운로드 2,320회, 사용자 20만 명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해당 글꼴은 ‘민주헌정수호 특별상’ 상장의 글꼴로 활용되어 그 의미를 더했으며, 한 여성 독립운동가의 손글씨가 오늘날 누군가의 기록과 편지 위에서 다시 쓰인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한 광복 80년의 민관 협업 사례는 역사적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의 장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향후 기념사업의 새로운 좌표를 제시한 의미있는 발걸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광복 이은숙’ 글꼴 가이드북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홈페이지의 ‘광복 이은숙’ 글꼴 소개

3. 참여 이벤트

국민 참여로 모두가 함께 즐기는 광복 80년을 만들기 위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기획·진행되었다.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진행된 총 7건의 이벤트는 평균 400명 이상의 참여를 이끌며, 온 국민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광복의 기쁨을 나누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하였다.

서포터즈 및 광고 영상 홍보용 댓글 이벤트

광복 80년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산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홍보 시기별 맞춤형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6월 초에는 광복 80년 서포터즈 모집 홍보를 위해 서포터즈 이름 ‘영광’을 SNS 댓글로 맞추는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1,667명이 참여하였다. 이후 광복 80년 사전광고 송출에 맞추어 6월 말부터 시작한 이벤트에서는 광복 정신을 뜻하는 ‘나다움’ 실천 사언을

공식 SNS 채널 개설 기념

댓글 퀴즈 이벤트

정답을 댓글로 작성하고 선물 받아주세요!

광복 80년 서포터즈의 이름은?

HINT
광복 정신을 이어받은 청춘들이 빛을 이어간다는 의미

참여 기간: 2025.6.4 (수) - 6.24 (화)

당첨 발표: 2025.6.30 (월)
공식 SNS 채널에 공지 예정

당첨 경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T

정답자: 80명

참여 방법

STEP1
퀴즈의 정답을 댓글로 작성

STEP2
궁금증 링크에서 이벤트 참여 인증

공식 SNS 팔로우하면 당첨 확률 UP!

서포터즈 홍보용 이벤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광복 80년 TV 광고 이벤트

찾아라! 광복 80년 슬로건

2025.7.23. ~ 8.17.

길 는 운 새 나
빛 로 걸 발 음

영상 댓글로 광복 80년 슬로건을 맞춰주세요!

YouTube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식채널에서 영상을 확인하세요

TV 광고 홍보용 이벤트

모집한 결과, 총 751명이 이벤트에 참여하였다.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TV 광고 영상 홍보를 위해 ‘광복 80년 슬로건’을 맞추는 퀴즈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광고 영상을 매개로 1,294명의 이벤트 참여자와 광복 80년에 대한 소통을 이어갈 수 있었고, 광복 80년 슬로건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광복 이은숙’ 글꼴을 활용한 공감형 이벤트

8월 14일부터 31일까지 ‘광복 이은숙’ 글꼴 출시를 기념하여, 독립운동가의 삶을 현대적 관점에

서 재해석한 ‘내가 독립운동가라면’ 이벤트를 진행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이은숙 선생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만일 내가 독립운동가라면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참여자가 스스로 역사의 주체가 되어보는 능동적 공감을 유도했다. 참여자들의 답변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화면에는 ‘광복 이은숙’ 글꼴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본인이 작성한 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노출되었다. 이벤트 결과 총 401명이 ‘내가 독립운동가라면’이라는 질문에 글을 작성하여, 100여 년 전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오늘날의 언어로 되살리는 뜻깊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내가 독립운동가라면’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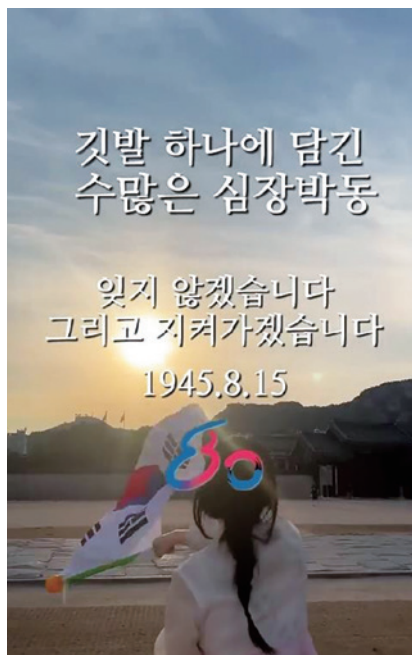
‘나의 소원’ 이벤트

현장 열기를 온라인으로 연계한 '나의 소원' 이벤트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을 모티브로 기획된 '나의 소원 이벤트'는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의 현장 열기를 온라인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되었다. 페스티벌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7월 말부터 8월 초 까지 7일간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페스티벌 현장에서 참여한 416명에 더하여 온라인을 통해 1,794명이 추가로 이벤트에 응모함으로써 총 2,210명이 참여하였다. 선정된 응모작들에는 '다음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남기는 나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의 나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나라' 등 시민들의 간절한 소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숏폼 영상 공모전 '땡큐 광복 숏폼 챌린지'

'땡큐 광복 숏폼 챌린지'는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그 숭고한 희생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자 기획되었다. 과거 독립운동가부터 현재까지,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영웅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감사를 전하는 숏폼영상을 제작하되, 숫자 '80'을 의미하는 손동작 또는 광복 80년 상징물을 삽입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8월 9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 챌린지에 총 122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전문가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우수작 12편은 위원회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다.



'땡큐 광복 숏폼 챌린지' 우수작

광복 80년 문화전시 ‘스탬프 투어’ 이벤트

‘스탬프 투어’ 이벤트는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광복 80년 기념 전시에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들이 방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전시 주최 기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관람객이 여러 전시장을 방문할 경우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많은 관람객들의 참여와 방문을 이끌어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한 모바일 앱을 활용해, 관람객

이 3곳 이상의 전시장에 방문하여 전시장별로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스탬프를 적립하면, 광복 80년 기념 한정판 열쇠고리와 연구용 화폐를 증정하였다. 전시장 관람과 온라인 참여를 결합한 본 이벤트에 총 5,977명이 참여하였고, 함께 진행된 온라인 인증 사진 이벤트에도 115명이 참여하였다. 8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진행된 이번 이벤트는 아이 동반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전시 관람의 재미와 광복의 의미를 동시에 전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참여 이벤트 주요 내용 및 참여자 수

이벤트	기간	주요 내용	참여자 수
광복 80년 SNS 개설 이벤트	6. 4. ~ 6. 24. (21일)	• (목적) 광복 80년 위원회 SNS 개설 및 서포터즈 모집 홍보 • (내용) 광복 80년 서포터즈 이름(‘영광’) 맞추기 SNS 댓글 작성	1,667명
찾아라! 광복 DNA	6. 23. ~ 7. 22. (30일)	• (목적) 광복 80년 사전 홍보(온라인광고) 개시 • (내용) 광복 80년 온라인 광고 시청 후, 나다움을 실천한 사연을 SNS 댓글로 작성	751명
광복 80년 슬로건 맞추기	7. 23. ~ 8. 17. (24일)	• (목적) TV 광고 개시 홍보 • (내용) TV 광고 시청 후, 영상에 나오는 광복 80년 슬로건을 SNS 댓글로 작성	1,294명
나의 소원 이벤트	7. 28. ~ 8. 3. (7일)	• (목적)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오프라인 행사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 연계 홍보 • (내용) 80자 내외 ‘나의 소원’을 작성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2,210명
땡큐 광복 숏폼 챌린지	8. 4. ~ 8. 31. (28일)	• (목적) 광복 80년 기념 국민 참여 챌린지 실시 • (내용) 빛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영웅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SNS 숏폼 영상 제작	122명
광복 80년 문화전시 스탬프 투어	8. 9. ~ 8. 24. (16일)	• (목적) 문화 전시 참여 유도 • (내용) 광복 80년 기념 문화 전시 공간 8곳 중 3곳 이상 방문시 기념품 증정	5,977명
		• (인증샷 이벤트) 스탬프 투어 참여하고 SNS 참여 인증 게시물 업로드	115명
내가 독립 운동가라면	8. 14. ~ 8. 31. (18일)	• (목적) ‘광복 이은숙’ 글꼴 출시 홍보 • (내용) ‘내가 독립 운동가라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을지 상상하여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글 작성	401명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 현장 참여자 수기문

청계광장을 가득 채운 광복의 기쁨



게임존에서 '태극기 바람개비'를 만든 시민들

역사와 미래가 만난

뜨거운 감동의 현장

서포터즈 안동현

2025년 8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에 다녀왔다. 올해는 광복 80년이라는 뜻깊은 해인 만큼 행사장 곳곳에는 특별한 의미와 감동들이 새겨져 있었고, 행사에 참

여한 시민들로 북적이는 현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적인 풍경처럼 느껴졌다.

특히 문학존의 프로그램들이 기억에 남는다.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중 ‘나의 소원’을 모티브로 한 ‘나의 소원 이벤트’부터 일제 강점기 시절 저항 시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저항 문학 메시지 월’까지, 공감을 넘어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광복의 감동을 전한 점이 인상 깊



문학존 현장



었다. 소박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담긴 시민들의 소원을 읽으며 미소를 짓기도 하고, 절박한 목소리와 감정이 느껴지는 저항시인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눈물이 맺히기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는 광복 80년 기념품과 문학 카드가, 마음속에는 잊지 못할 감동이 담겨 있었다. 광복이라는 단어가 그저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임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광복을 기억하는 방식

서포터즈 이환승

광복 80년 기념행사인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의 개최 소식을 듣고 청계천으로 향했다. 현장에 도

착하니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진행되고 있었고, 부스에 찾아온 많은 시민들의 열기 덕분에 청계광장은 이미 축제의 분위기로 물들어 있었다.

행사 당일, 날씨가 무척 더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함께했다. 진지하게, 또는 활기차게 각자의 방식으로 모두 페스티벌을 열정적으로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더불어 축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행사를 진행해 주신 운영진 분들 덕분에 시민들 또한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더위에 굴하지 않고 굳건하게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모습이, 신세대들이 이어가는 광복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다.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은 다가올 광복절과 이어지는 행사들의 포문을 열고, 시민들에게 광복을 널리 알리는 데에 의미가 있었다.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올해, 지금 느끼고 영위하고 있는 평화와 여유는 앞선 세대의 희생이 밑받침되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기는 시민들

광복 80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거창하진 않더라도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인지하고 광복의 빛나는 영광을 함께 기억하고 이어나가길 바란다.

함께 기억하는 광복 80년의 하루

서포터즈 최효정

8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복 80년을 기념

하는 뜻깊은 축제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이 열렸다. 페스티벌은 문학, 게임, 포토, 공연 등 4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되었고, 각 테마에 맞춰 광복의 의미를 다채롭게 풀어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문학존의 '나의 소원 이벤트'를 통해 이전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는 나의 소망을 글로 담아보았으며, 자연스럽게 과거의 소원과 지금의 소원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 게임존의 테시벨 게임에서는 평소에 외쳐볼 기회가 없던 '만세'를 광복의 정신을 담아 외쳐볼 수 있어 재밌었다. 그 외에도 컬러링 엽서, 태극기 문양 바람개비 만들기



컬러링 엽서 전시 현장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은 날씨만큼이나 분위기도 화창했다. 현장을 빛내주신 수많은 시민분들 덕분에 더더욱 활기찬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많은 분들과 함께 광복 80년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나누며 광복의 빛나는 영광을 다시 기억하는 의미 있는 하루였다.

“광복이라는 단어가 그저 교과서 속 문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임을 다시금 실감할 수 있었던 하루였다.”

제4절



광복의 확장:
광복의 가치를 널리 전하다

1. 광고

광복 80년 광고는 과거에서 머무는 광복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광복으로서 전 세대 공감대 확보를 위해 ‘기쁨’, ‘자긍심’ 등의 컨셉으로 광복 80년 고유의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했다.

광복 80년 기대감을 조성하는 사전 광고

광복절을 두 달 가량 앞두고 광복 80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적 기대감을 서서히 끌어

올리기 위해 사전 광고를 실시하였다. 사전 광고는 광복절 시기의 대규모 광고에 앞서서 실시하는 티저(teaser)광고(전해야 할 상품 등의 정보요소를 밝히지 않음으로써 관심과 궁금증을 유발하는 광고) 형태로 제작되었다. 6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송출된 사전 광고 영상은 온라인 매체 활용이 많은 젊은 세대에게 친근한 분위기로 다가가기 위해 영상 초반부에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두려움’, ‘후회’, ‘한계’로부터 ‘나다움’을 되찾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후반부에는 ‘해봤잖아? 우리, 80년 전에도 말야.’라는 메시지를 통해 광



광복 80년 사전 광고

복 80년을 맞아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광복 정신을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사전광고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총 조회수는 1,553만 회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으며, 광고 시청자들은 ‘최근 본 영상 중 제일 감명 깊다’, ‘영상 너무 좋다’, ‘이런 게 대한민국이지’ 등의 댓글을 올리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광복 80년을 대대적으로 알린 본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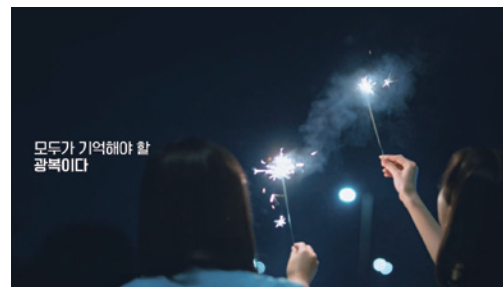
광복 80년을 전후한 7월 23일부터 8월 17일까지 홍보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TV, 온라인, 옥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광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광고 영상은 광복의 가치를 전 세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적 성장(1945년 광복의 순간, 1987년 민주화 운동, K-pop 문화산업의 성장)과 개인의 노력(꿈꾸는 청소년, 도전하는 취업준비생, 두려움에 맞서는 사회초년생)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광복 정신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였다.

특히, TV 광고는 지상파 등 10개 채널의 주요 시청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방송 매체 도달률(광고를 최소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의 비율)이 약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주목도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광복 80년이라는 국가적 기념일의 무게감을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자연스럽게 광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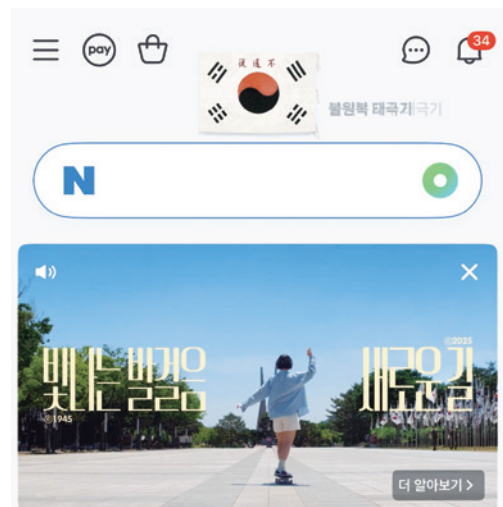
또한 TV 광고 음성(내레이션)을 활용한 라디오 광고를 MBC, CBS 채널에 송출함으로써 캠페인

의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네이버, 카카오, 토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온라인 매체에도 광고를 송출하여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광고의 접점을 넓혀갔다. 광복절 당일에는 네이버 첫 화면에 영상 배너광고를 집행한 결과 1,700만 회 이상 노출, 23만 회 이상 클릭을 기록하였다.

본 광고의 온라인 매체 도달률은 약 58%(유튜브 조회수 603만 회, 인스타그램 조회수 1,106만 회)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는 AP신문의 광고 평론가들로부터 ‘품격 있는 공공 캠페인의 교과서’, ‘연출의 묘수가 돋보인다’, ‘광복, 광고로 새로운 길을 열다’ 등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광복 80년 본 광고



네이버 영상 배너광고(광복절 당일 노출)

생활 접점에서 시선을 사로잡은 광복 80년 옥외광고

TV, 인터넷 광고 송출 시기에 맞추어 광복 80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 일상 속에서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버스·택시 광고,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버스정류장 광고판, KTX·SRT 열차 내부 모니터 광고, 옥외 전광판 및 서울 주요 지역 가로등 배너 등을 활용한 옥외광고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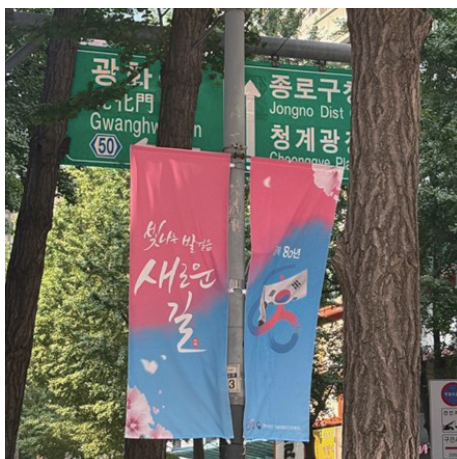
옥외광고에 활용된 대표 이미지는 태극 문양을 상징하는 배경색과 붓글씨로 표현한 광복 80년 기념사업 슬로건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강조했다. 또한, 중앙에 태극기를 든 인물을 배치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광복’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광복 80년이 과거의 기념비적 사건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옥외광고 중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전광판,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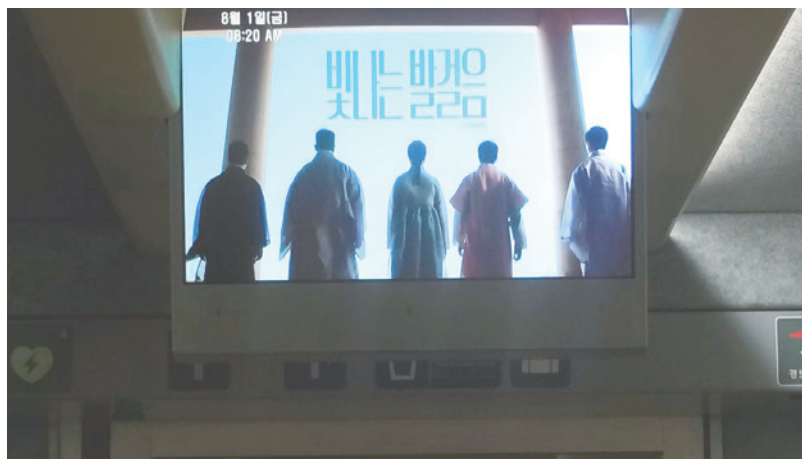


버스·택시 외부

역 내부 전광판 및 미디어보드, 을지로 삼성화재 건물 전광판, 그리고 가로등 배너 등의 광고매체는 매체별 운영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무료로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예산 절감과 홍보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



가로등 배너



KTX·SRT 열차 모니터



버스 정류장



엘리베이터



기차역



을지로 삼성화재 전광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광판



서울역 내부 전광판

2. 홍보 콘텐츠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광복 80년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이는 대중이 일상 속에서 역사를 더욱 친근하게 마주하도록 돕는 전략적 거점이 되었으며, 특히 감동적인 광복의 서사는 영상으로, 핵심적인 정보는 카드뉴스로 구성하는 등 정보의 성격에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기획하였다. 멀게만 느껴졌던 광복의 역사를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재구성하였으며, SNS 기반의 콘텐츠 공유를 유도함으로써 전 세대를 아우르는 광복 80년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손에 잡히는 광복 80년 기획 콘텐츠

6월부터 12월까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운영하며, 카드뉴스, 숏폼 영상, 행사 스케치 영상 등 총 356건의 콘텐츠를 제작·게시하였다. 6월에는 SNS 채널 개설 초기 단계임을 고려하여, 팔로워 확보를 위해 ‘80번째 광복의 의미’, ‘진관사 태극기’ 등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주제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 7월에는 운동주·이육사·한용운 등 저항시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카드뉴스 시리즈 ‘광복을 읽다’를 선보였으

며, 국민 참여형 숏폼 영상 콘텐츠 ‘광복 퀴즈쇼’를 8월까지 총 4편 제작하여 게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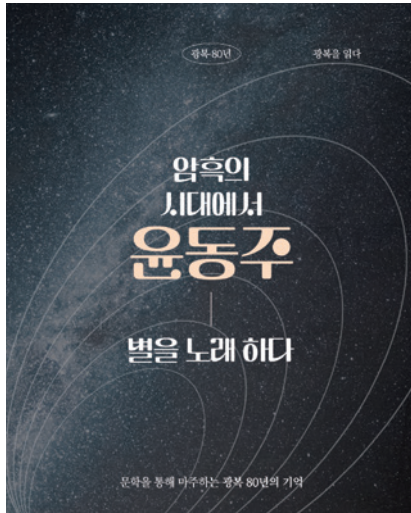
광복절을 맞이하는 8월에는 〈찬란한 광복 페스티벌〉 행사 현장 소개와 ‘80년 광복절 안내’ 카드뉴스를 제공하였고, 9월에는 유관순·김구 등 독립운동가들의 울림 있는 문장을 소개하는 ‘광복한 문장’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 10월에는 태극기에 얹힌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는 ‘광복의 깃발’을, 11월에는 ‘윤봉길 의사의 회중시계’, ‘조화벽 지사의 가족가방’ 등 독립운동가의 유품에 담긴 이야기를 담은 카드뉴스를 게시하였다.

12월에는 일상생활 속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던 광복과 관련된 장소를 소개하는 ‘광복의 장소’를 선보였으며, 이러한 콘텐츠들은 누적 조회수 48만 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광복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7월 숏폼 콘텐츠: 광복 퀴즈쇼





7월 콘텐츠: 광복을 읽다



8월 콘텐츠: 광복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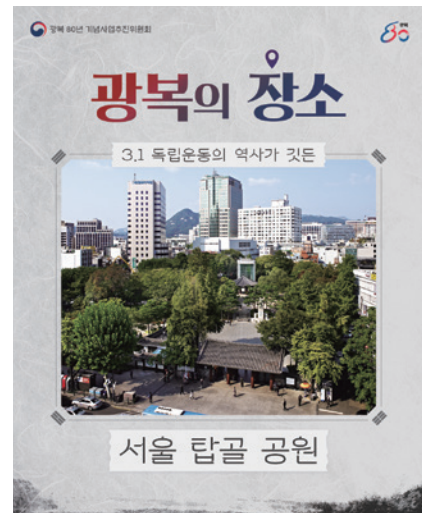
9월 콘텐츠: 광복 한 문장



10월 콘텐츠: 광복의 깃발



11월 콘텐츠: 광복의 물건



12월 콘텐츠: 광복의 장소

유명 유튜브 채널과의 협업 콘텐츠

유튜브를 통한 마케팅 활동과 연계하여 정부 정책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에 발맞추어, 광복 80년 특집 유튜브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추진하였다. 유명 유튜브 채널과 협업하여 총 2편을 기획하였으며, 하나는 젊은층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유쾌하고 재미있는 형식으로 광복 80년을 알리고자 하였고, 다른 하나는 역사적 사실과 지식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먼저, 코미디 채널 ‘뽕송국’과 협업한 영상은 독립운동 시대극 컨셉으로 8월 9일 업로드 되었다. 해당 콘텐츠는 채널 주요 구독자인 MZ세대로부터 ‘좋은 취지의 영상’, ‘주제도 독립운동이 라니 뜻깊어요’ 등의 반응을 이끌어내며 광복 80년에 대한 관심과 재미를 유발하였다. 본 영상은 위원회 유튜브 채널과 뽕송국 채널에 각각 게시

되었으며, 두 채널 합산 기준 총 조회수 11만 회를 기록하였다.

지식 채널 ‘궁금소’와 협업한 영상은 독립운동가의 생생한 스토리를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애국심을 고취시켰다. 이 영상은 1945년 8월 15일, 우리 역사의 변곡점이 된 그날을 되짚어보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수많은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제작되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이 걸어온 치열한 발자취를 조명함으로써 우리가 지켜온 역사의 가치를 되새기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 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서사로 구성되었다. 제작된 콘텐츠는 8월 14일 위원회 채널과 궁금소 채널에 각각 업로드되었으며, 총 조회수는 6.1만 회를 기록했다. 영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할 영상’,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잊지 맙시다’ 등 감동을 공유하는 댓글이 달렸다.



브랜드 콘텐츠(위: 뽕송국 / 아래: 궁금소)

3. 서포터즈 ‘영광(YOUNG:光)’

광복 80년 서포터즈는 국민들이 기념사업 홍보의 주체가 되어, 광복 80년 및 기념사업과 관련된 기사, 영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기념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간 총 935건의 광복 80년 기념사업 홍보 콘텐츠를 생성함으로써 대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광복의 영광을 잇는 80인의 발자취

서포터즈의 이름은 광복 정신을 이어받은 국민들이 영광의 빛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담아 ‘영광(YOUNG:光)’으로 결정되었다. 6월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모집에는 콘텐츠 제작, 홍보, 역사에 관심있는 10대 중고생부터 50대 직장인까지, 서울·경인권은 물론 제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과 배경의 참가자들이 지원하였으며,



광복 80년 서포터즈 발대식 카드섹션 퍼포먼스



광복 80년 서포터즈 위촉식



서포터즈 활동 다짐 선거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80명이 선발되었다. 서포터즈 활동은 7월 9일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으며, 오리엔테이션에서 서포터즈는 활동 안내 및 콘텐츠 기획, 저작권 교육 등 활동에 필요한 기초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 후 7월 23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이 개최되었고, 52명의 서포터즈가 참석하여 선서식과 임명식을 통해 공식적인 활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해성 감독의 기념 강연 〈80장의 사진으로 만나는 광복 이야기〉를 통해 역사의 현장이 담긴 사진을 소개하고 광복의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백범 김구 선생 좌상 참배와 광복 80년 로고 카드섹션 퍼포먼스는 서포터즈 활동의 결의를 다지는 상징적 의례가 되었다. 발대식에 참석한 서포터즈에게는 5개월의 여정을 함께할 동행의 표식으로, 손선풍기, 단체티셔츠, 친환경 가방, 서포터즈증으로 구성된 활동용품들을 제공하여 소속감과 자부심을 고취하였다.

서포터즈는 7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정기 과제를 부여 받았고, 과제 수행의 결과로 광복 80년을 주제로 한 기사 230건, 영상 118건, 카드뉴스 110건 등 총 458건의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정기 과제 외에도 서포터즈는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국민임명식〉, 〈전야제〉 등 광복 80년 주요 기념행사를 직접 취재하는 특별 과제와 전시·행사 등을 자발적으로 발굴하는 추가 과제에 참여하여 137건의 결과물을 창출하였다. 제작된 콘텐츠 대상 독창성·완성도·전달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3인의 심사를 거쳐 매월 우수 콘텐츠 10건을 선정하여 위원회 SNS 채널에 게시하였으며, 서포터즈 개인 SNS를 통해서도 블로그 299건, 인스타그램 209건, 유튜브 78건 등 총 935건의 콘텐츠가 게시됨으로써 광복 80년에 대한 관심을 널리 확산하였다.

11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해단식은 지난 5개월간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수료 조건(월별 과제 60% 이상 수행 및 공식 행사 1건 이상 참여)을 충족한 49명의 서포터즈를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국

민의례를 시작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
획단장 인사말, 주요 활동 성과 공유, 수료증 수
여 및 우수자 포상, 단체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
되었다. 기획단장은 인사말에서 ‘공식적인 서포
터즈 활동은 이제 마무리되지만 여러분께서 전
해주신 광복 80년의 빛나는 발걸음과 새로운 길
의 깊은 의미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라며 서
포터즈를 격려했다. 이날 해단식을 끝으로 5개
월간의 활동을 마친 서포터즈 ‘영광(YOUNG:
光)’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발자취를 디지털
공간에 기록하고 공유함으로써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인지도와 참여
를 극대화하는 임무를 완수하였다.

“
여러분께서 전해주신
광복 80년의 빛나는 발걸음과
새로운 길의 깊은 의미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



광복 80년 서포터즈 해단식

4. 국민 소통의 결실

공공브랜드 종합대상 수상의 영광

광복 80년을 널리 알리기 위한 범국민적 소통과 노력의 결과, 2025년 11월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최하는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공공부문 종합대상(그랑프리)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진흥원은 광복 80년 홍보에 대해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참여하는 공감형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추진했다는 점을 높이 인정했다. 특히 민관의 긴밀한 참여와 연대 속에서 선열들의 꿈과 독립을 향한 열정, 그리고 오늘의 삶을 뜨겁게 살아가는 국민의 열정을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종합대상 수상은 단순한 포상의 의미를 넘어,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낸 소통의 결실이자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브랜드 가치를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3회 한국공공브랜드 대상 시상식 현장



종합대상 상패 및 상장



광복 80년 서포터즈 ‘영광’ 최우수 활동자 유재호 수기문

광복 80년의 역사와 가치를 전하다



해단식에서 최우수 활동자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유재호 서포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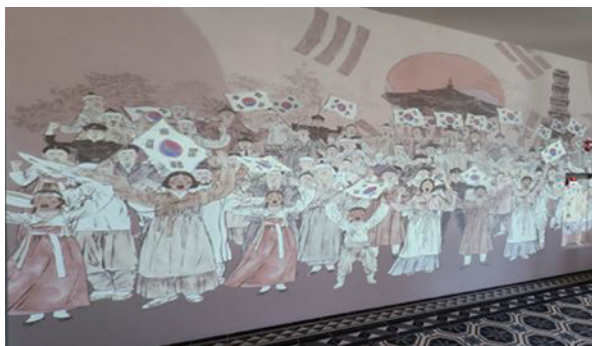
역사를 알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빛나는 발걸음

처음 광복 80년 서포터즈 모집 공고 포스터를 보았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국민을 대표하여 광복 80년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것에 매력을 느껴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다. 처음 서포터즈 활동에 임하던 때엔 어느새 벌써 광복이 80년을 맞이했다는 반가운 마음과, 무엇보다

도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컸다. 누군가에게는 서포터즈 활동이 별것 아닌 일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작은 역할일지라도 서포터즈를 통해 많은 국민들에게 광복 80년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AI가 되살린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마주하다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열린 다양한 전시들을 관람할 수 있었다. 광복을 주제로 다채롭게 개최되는 전시 소식들을 보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지, 어떤 역사를 조명하고 있을지, 전시 장소로 가는 매 순간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것 같다. 특히 다양한 전시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AI를 활용하여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복원한 콘텐츠들이 기억에 남는다. 당시 현장 모습을 사실적으로 구현한 자료들이 몰랐던 역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광복 80년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 AI 미디어아트

광복에 담긴 영광의 무게

서포터즈 활동 이후 광복 80년의 의미를 좀 더 무겁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전엔 광복절을 그저 휴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노력이 수반된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생각한다. 직접 서포터즈 활동을 해보니 ‘광복’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까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다.

전시를 관람할 때마다 ‘광복의 역사와 독립운동가에 대한 사전 지식이 더 많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찾기 위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독립운동가들이 느꼈을 책임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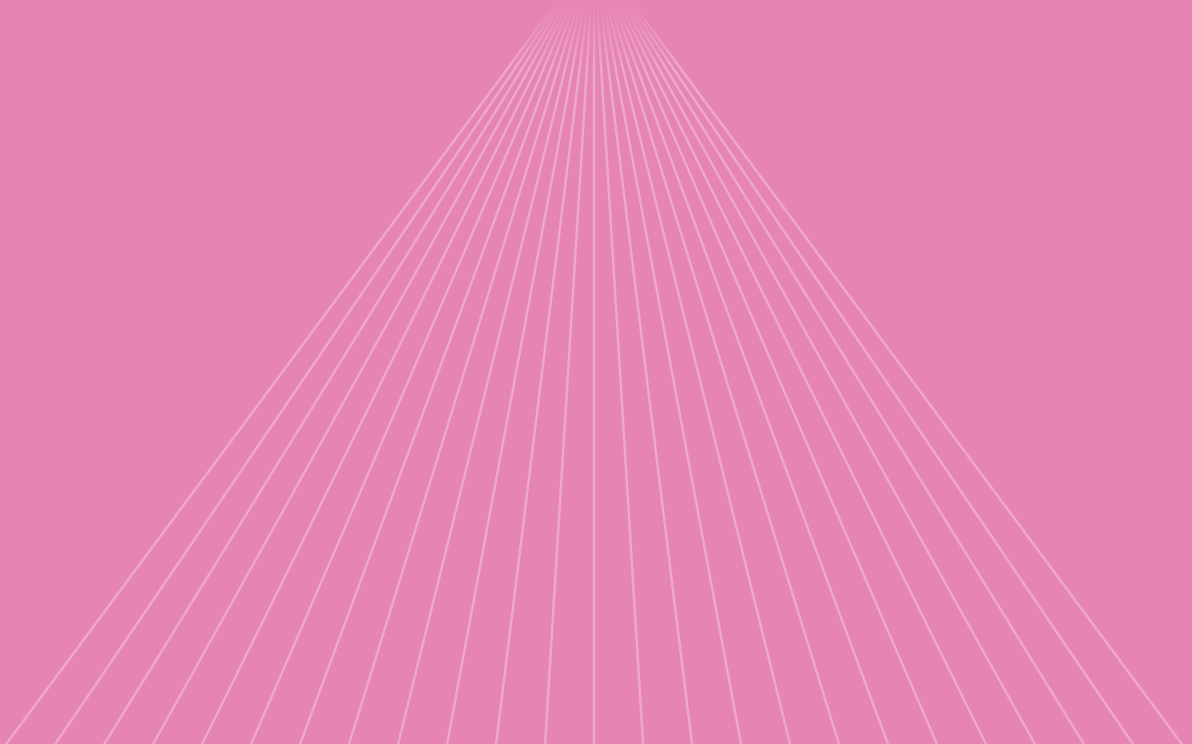
광복 다음의 숙제, 통일을 향한 바람

광복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나니, 분단국가가 된 대한민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겨우 찾은 뒤에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다는 점이 더욱 아쉽게 느껴졌다. 한 민족이었고 함께 이뤄낸 독립인데 왜 분단되어야 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사를 알아야 우리 국가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이던 시절의 모습은 어땠는지,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찾은 광복처럼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을 기념하는 날을 자연스레 꿈꾸게 됐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와 역사에 관심을 가진다면, 미래에는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은 또 다른 시작이다.
80년의 여정이 100년의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증장기 기념사업과 백범의 꿈을 잇는 기념사업을 시작했다.
이 장에는 광복 100년을 향한 힘찬 비상이 담겨있다.

5장



제5장 빛의 비상

광복 100년의 여명을 향하여

제1절 중장기 기념사업 발굴: 광복 100년 미래의 토대를 쌓다

1. 위원 제안 및 워킹그룹 운영
2. 광복 100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3. 중장기 기념사업 내용

제2절 2026년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추진

1.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
2. 워킹그룹 및 전문가 간담회
3.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준비 상황

제1절

제3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2025. 12. 23. (화) 16:00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



중장기 기념사업 발굴:
광복 100년 미래의
토대를 쌓다



1. 위원 제안 및 워킹그룹 운영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2025년 8월 15일 광복 80년 주요 기념행사가 마무리된 후, 광복 100년을 준비하는 중장기 기념사업 발굴에 착수하였다. 위원 제안과 워킹그룹 심의, 대국민 공모전, 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거쳐 16개 기념사업을 구체화하였다.

중장기 기념사업 발굴은 위원 및 부처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워킹그룹 회의에서 집중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된 1차 서면 접수에서는 13명의 위원이 26건의 기념사업을 제안하였다. 이후 9월 24일 제3차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기념사업별 제안 취지와 핵심가치 부합 여부,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진행된 2차 서면 접수에서는 14건의 아이디어가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10월 24일 제4차 워킹그룹 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기념사업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사 기념사업은 연계·통합하고, 부처 간 이견이 크거나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념사업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위원회는 워킹그룹 심의와 병행하여 전문가 면담과 관계부처 협의도 적극 추진하였다. 11월 14일에는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독립운동가 얼굴 복원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두 차례(11. 18. / 11. 27.)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광복 100년 기념관 건립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 밖의 중장기 기념사업을 논의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광복 100년 기념관 건립 및 미서훈 독립운동가 기념·선양 사업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였다.



제4차 광복 80년 기념사업 워킹그룹 회의

2. 광복 100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광복 100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전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11월 9일까지 27일간 진행되었으며, 개인 또는 단체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었다. 공모 주제는 ‘광복 상징물 개발’, ‘독립 역사와 헌신’, ‘광복 정신의 계승·확산’, ‘광복 100년의 미래 비전’ 총 4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응모자는 해당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자유 주제로 참여할 수 있었다.

위원회는 SNS와 홈페이지, 카드뉴스는 물론 ‘위비티’, ‘스펙업’ 등 9개 이벤트 및 대외활동 사이트를 통해 공모전을 홍보하였다. 온라인 광고의 총 노출건수는 654만 건, 클릭 수는 1만 3천 건에 달하였으며, 홍보 카드뉴스 조회수는 총 70만 9천 회를 기록

하는 등 높은 국민적 관심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총 404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기본 요건을 충족한 145건이 1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위원회 위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4인의 심사위원이 온라인·대면심사를 거쳐 목표 적합성, 독창성, 구체성,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28건을 선정하고, 11월 26일 위원회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수상작 7건을 발표하였다.

대상 수상작인 ‘기억의 숲, 울림의 서고’는 시각 중심의 기존 기념물과 달리 ‘소리(청각)’를 매개로 역사를 체험하는 공간을 제안한 작품이다. 위원회는 이 제안이 자연친화적 공간과 디지털 기록 자산을 결합한 ‘K-메모리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고 평가하여 중장기 기념사업 후보로 선정하였다.

● 광복 100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대상	기억의 숲, 울림의 서고	- 서울 또는 독립기념관 인근 대규모 숲 조성 - 독립운동 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울림 기둥’ 구축
최우수	K-헤리티지 유니버스	독립역사를 ‘헤리티지 IP’로 자산화, 임팩트 펀드를 통한 ‘투자-수익-재투자’ 시스템 마련
우수	시대의 아이돌: K-History 비긴즈	독립 역사를 팬덤문화와 접목하여 Z세대가 직접 경험·소비하도록 유도
	100년의 기록, 100인의 이름	디지털 시민 사료관 구축 및 시민 사료 발굴단 운영을 통한 독립운동가 100인 선정
장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광복을 외쳤다	장애를 가진 독립운동가 다큐멘터리 제작 및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관 등과의 협업
	1000년의 미래를 향한 한일 공동미래 협의체 구성	- 한일 미래 청년 포럼, 공동 전시, 우정 캠페인, - 역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흩뿌려진 100년의 시간을 모으다	LEGO와 협업한 독립운동가 주제 특수레고 제작 및 스마트폰 영상 연계 교육

3. 중장기 기념사업 내용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2025년 12월 23일 3차 회의에서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체계 및 제도 정비’, ‘광복 100년을 기념하는 인프라 조성’, ‘광복 전후 역사의 기록 및 학술 연구’, ‘체험과 교류를 통한 공감대 확산’ 등 4개 주제, 16개의 중장기 기념사업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 중 공모전 대상작인 ‘기억의 숲, 울림의 서고’는 워킹그룹 심의를 거쳐 중장기 기념사업 후보로 선정된 이후, 12월에 개최된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제안자 황지운 씨가 직접 제안 취지와 세부 구상을 발표하고 최종 채택되어 대정부 건의안에 반영되었다.

각 기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체계 및 제도 정비

광복 100년 기념사업 준비 및 추진체계 마련

2045년 광복 100년은 대한민국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사적 분기점이다. 이에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위원회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무조정실 내에 국가 기념사업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광복 90년 기념사업 추진 시점부터 광복 100년 준비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복 9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을 기

념사업 종료 후 해체하지 않고, 광복 10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으로 전환하여 연속성을 확보하는 제안이다. 또한,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복 1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특별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선양

본 사업은 학계와 유족 추산 대비 정부의 독립유공자 서훈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따라 발굴 주체를 정부 중심에서 지자체와 민간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의회를 구축하여 적극적 발굴 체계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심의과정에서의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공적심사 국민참여단’ 설치를 검토하며, 개선된 기준을 적용한 공적조사와 심사를 2029년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속적인 전문 연구 용역을 통해 독립운동 참여자를 발굴하는 등 미서훈 독립유공자 제조명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독립정신 계승 헌법 명시 및 관련 법률 연계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의병 항쟁, 의열 투쟁, 광복군 활동, 국내외 민족 교육 및 문화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독립운동의 역사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

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위원회는 헌법 개정 시 전문에 ‘독립정신’과 같은 포괄적 표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독립유공자법의 기본이념에도 독립운동 정신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군조직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의 국군 강령에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여 국군의 정통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 광복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일 간 역사 치유에 헌신한 공로자 발굴 · 포상

본 사업은 우리나라 독립과 문화재 보존 등에 공로가 큰 일본인에 대한 포상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개선과 양국 간 교류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기존 포상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인물을 매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대표적으로 참고할 만한 사례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일본 소재 한국 문화유산 환수 · 복원’에 기여한 일본인에 대한 상훈 수여이다. 국가 유산청은 2025년 12월 9일 일본 고덕원에 위치한 조선시대 목조 건축물 관월당을 한국으로 반환하여 양국 우호 · 교류 실천에 기여한 사토 다카오 스님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였다.

광복 100년을 기념하는 인프라 조성

광복 100년 기념관(가칭) 건립

‘광복 100년 기념관(가칭)’은 다수의 위원이 제안한 기념시설 건립 아이디어를 통합하여 기획되었다. 위원들은 광복 100년이라는 역사적 전환

점을 기념하기 위해 3·1운동과 독립운동, 산업 발전, 문화 ·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상징적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념관의 기본 구상을 마련하였다. 기념관은 상징성 · 접근성 · 포용성을 갖춘 생활 · 문화형 공간으로 조성하고, 국민 공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민관합동 건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 선정과 전시 콘셉트 등 기본 구상과 사업계획 수립 · 심의 등을 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존 운영 중인 기념관 · 박물관을 리모델링 · 보완하고 일관된 콘셉트에 따라 특별전을 개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기억의 숲, 울림의 서고

제안자 황지운 씨는 광복을 억압 속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은 역사로 보고, 독립운동가의 목소리와 광복 당시의 함성, 그 정신을 이어받은 오늘날 국민의 다짐을 음성으로 담아낸 아카이브 구축을 제안하였다. 서울 주요 녹지 또는 독립기념관 인근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고, 산책로를 따라 광복의 해인 1945년을 상징하는 1,945개의 ‘울림 기둥’을 설치하여 방문객이 접근하면 독립운동가의 목소리와 광복 당시의 함성이 들리도록 설계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숲의 중심부에 조성되는 ‘침묵의 샘’은 방문객이 수많은 목소리를 마주한 이후 이를 내면화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되었다. 아울러 음성 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국민참여 녹음부스 운영, 온라인 ‘울림의 서고’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청소년 · 청년 세대와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본 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여성독립운동가, 여성노동·민주화운동가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국립여성사박물관을 건립하자는 제안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002년 설립한 여성사전시관을 2028년까지 국립여성사박물관으로 확대·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일본군 ‘위안부’, 여성독립운동가, 여성노동·민주화운동가의 역사를 고루 반영하는 광복 80년 중장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기리는 공간 구성, 3·1운동 이후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을 조망하는 전시 구성, 여성 노동·민주화운동 역사와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의 기여를 조명하는 아카이브 구축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박물관은 2025년 12월에 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으며, 2026년 상반기부터 2028년 하반기까지 공사 발주 및 시공을 거쳐 2028년 하반기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다.

국내외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및 활용체계 구축

본 사업은 국내외 독립운동 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 중 현충시설 또는 국가유산으로 등록·관리 가능한 대상을 파악하고, 중국·러시아·미국·유럽·중남미를 대상으로 해외 유적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한 기존 유적지에 대한 안내·해설판을 전면 개편 및 증설하고,

교육·체험활동 강화, 생활밀착형 기념물 도입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희생자가 살았던 마지막 거주지 앞 보도에 ‘슈톨퍼슈타인(Stolperstein)’이라는 ‘길 위의 기념비’를 설치하여, 도로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 독립운동 유적지도 국민이 일상에서 각 지역의 역사를 마주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존과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복 전후 역사의 기록 및 학술연구

고려인 디아스포라 기록 세계기록유산 등재

본 사업은 고려인의 강제이주와 정착 과정, 독립운동 참여와 문화적 기여 등의 기록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인간의 회복력과 공동체 정신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고, 반식민주의에 대한 영토 밖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기록원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의 고려인 디아스포라 기록 발굴 및 등재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재외동포청은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유물조사·연구 등을 통해 2027년까지 기록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4·3, 5·18 과거사 극복의 세계적 모델 기록·전시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였으며, 군사 정권하에서 오랫동안 왜곡되고 은폐되어 왔으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간과 정부의 노력으로 진상이 규명되고,

인권과 정의의 역사로 자리매김 하였다. 기념공원 조성, 기념재단 설립, 법정기념일 지정, 관련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 등 슬기롭게 풀어간 과거사 극복의 과정은 세계적으로도 참고할 수 있는 과거사 해결의 모델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역사를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고, 특별전 등을 개최하여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국가기록원은 4·3 및 5·18 관련 기록물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2028년 4월과 5월에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AI를 활용한 독립운동가 디지털 재현

본 사업은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억이 단절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제안되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GAN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와 Facial Similarity 등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독립운동가의 얼굴 이미지를 재현하고, 직계·방계 사진 비교를 통해 유사도 패턴 추출 등의 방식을 활용한다. 2026년 준비 단계에서는 후손 및 기록물 등 인물 관련 자료 확보와 소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7년 확산 단계에서는 기술 고도화와 재현 인물 규모 확대, 관련 기관 교육자료 시범 활용을 추진한다. 2028년 이후 활용 단계에서는 독립운동가 얼굴 재현 데이터베이스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해외 전시 및 공동연구, 재현 기술의 한국 대표 기술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독립운동 자료 디지털 통합 및 교육 활성화

본 사업은 국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 미래 세대인 어린이·청소년의 검증된 독립운동 자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국가보훈부는 소장 자료 중 공개 가능한 자료를 선별하여 전시하고, ‘공훈전자사료관’을 통해 독립유공자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2026년 국가문헌의 보존 및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자료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구축된 디지털 원문을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내외 협약 도서관(6,235곳)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이 참여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기획·운영하고, 독립운동 관련 순회전시 등을 통해 교육적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독립운동사 집대성을 통한 통사 편찬

본 사업은 광복 60년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및 광복 70년 〈한국독립운동인명사전〉 등 정부 주도의 학술 종합 작업을 계승하여, 독립운동사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광복 80년 이후 축적된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사업이다. 그간의 연구가 총론 및 인물 행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대중화 노력이 부족했다는 한계를 보완하고, 독립운동이 주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내 신진연구자와 국외 연구자가 참여하는 분과를 구성하고, 원문 진위 검증 및 국내외 자료 교차 검증 체계를 구축하며, 초기 단계부터 디지털화를 전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인물·단체·지명 간 자동 연계를 추진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지역 독립운동가 이름을 딴 도로명 주소 확산

2021년 6월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은 도로명 부여·변경 시 역사적 인물·사건, 희생·공헌자 관련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도로명 주소가 희생·공헌자를 기리는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역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딴 도로명 주소를 지자체가 적극 발굴·장려하도록 건의하였다. 또한 도로명 주소 신청 주체가 주민인 점을 감안하여, 도로명 주소 부여 제도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자체가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간 역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남북 역사학자 및 유관기관 간 독립운동사 공동 연구와 정례 회의를 추진하고, 남북에 걸친 독립운동사적지 연계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광복 90년 및 광복 100년을 계기로 공동 독립유공자 추모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포함하였다. 또한 독립운동 기록물이 평등과 자유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남북 공동 기록물 실태조사와 목록화,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독립운동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단' 구성 등 국제적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구상도 포함하였다.

체험과 교류를 통한 공감대 확산

청소년·청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체험

본 사업은 독립유공자 후손을 포함한 청소년·청년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를 직접 답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항일투쟁의 역사와 자주독립 정신을 미래 세대가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전국 단위 학교에 참여를 홍보하고, 답사 결과물 공유를 통해 보훈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독립운동을 통한 남북 역사적 공감대 형성

한반도 전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은 남북이 공동으로 존중하고 계승할 수 있는 역사적 자산이다. 본 사업은 이러한 독립운동을 기반으로 남북

광복 100년 준비, 미래 비전과 실천 관점



광복 80년은 1945년의 해방과 오늘날 ‘빛의 혁명’을 통한
민주주의 수호가 교차하는 역사적 해로 기억될 것이다.
선열들이 목숨 바쳐 되찾은 나라를 우리 세대가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온전히 지켜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과 기념
사업 실행을 위한 워킹그룹 의장으로 활동해
주셨습니다.**

**광복 80년은 다른 해 보다 의장님께 더 많은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광복 80년이
의장님께는 어떤 의미로 기억되시는지요?**

광복 80년은 제게 “두 번의 해방이 교차하는 감
격스러운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1945년, 우리
는 선열들의 강고한 투쟁, 희생과 헌신으로 일제
로부터 해방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흐
른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해방을 맞이했습
니다. 계엄의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은 성숙한 시
민 의식과 평화로운 ‘빛의 혁명’을 통해 헌정 질서

를 바로잡았고, 민주주의를 되돌려 놓았습니다.
동학농민혁명부터 ‘의병투쟁’, ‘3·1혁명’, 임정과
독립군·광복군의 독립전쟁을 통해 빼앗겼던 빛
을 되찾은 독립의 역사를 이어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
진 민주주의의 역사가 마침내 ‘빛의 혁명’으로 주
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가 제자리를 찾은 사건이 아
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얼마나 위대한
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단
단한지 전 세계에 증명한 역사적 쾌거입니다. 80
년 전 선조들이 목숨 바쳐 되찾은 나라를, 우리
세대는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그 가치를 지켜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광복 80년은 그 어느 때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워킹그룹 의장

부 윤 경



보다 가슴 벅차고 뜨거운 눈물이 나는, 진정한 의미의 ‘주권 재민(主權在民)’을 다시 확인한 기념비적인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개최되었던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광화문에서 개최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등 경축행사에 참가했던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감동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에서 광복 80년을 맞아 제작·개봉하고, 위원회 기념사업으로도 선정된 다큐멘터리 영화,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무장독립투쟁을 통해 우리 국군의 정체성과 정통성의 뿌리가 독립군, 광복군에 있고 국군이 국민의 군대임을 밝히는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한 6만 여 시민들의 관심과 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그리고 워킹그룹 의장으로 활동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위원과 워킹그룹 의장으로서 활동한 지난 시간은 저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하면서도, 우리 공동체의 저력이 얼마나 단단하고 위대한지를 실감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매 순간 제 식견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킹그룹이 의미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리더십과 통찰력, 워킹그룹 멤버들의 탁월한 식견과 경륜, 기념사업추진기획단 실무진들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어 제반 준비 시간이 매우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토의와 협의를 통해 위원회 기념사업으로 45개 사업을 확정, 추진하게 된 것은 지금도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후 대정부 건의(안)으로 16개 중장기 기념사업을 확정할 때까지 보여준 워킹그룹 멤버들의 창의성과 전문성,

역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각 부처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의 끈질긴 설득과 중재가 없었더라면 저희가 거둔 성과도 매우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그동안 치열하게 토의하고 고민해 주신 워킹그룹의 공병삼, 김능진, 김용달, 박명현, 박찬승, 양조훈, 유민, 임석희, 이경숙, 이진현, 이태준, 호사가 유지 위원님들과, 함께 애써주신 추진단의 백승일 기획총괄과장 등 실무진 모든 분들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사회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해 광장에 모여 ‘빛의 혁명’을 이루어 낸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과 실무진들 역시 촉박한 일정과 이견의 부딪힘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해 주어 기념사업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서는 광복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중장기 기념사업 발굴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중장기 기념사업을 선정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은 무엇이었는지요?

중장기 기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방향은 ‘과거의 독립정신을 올곧게 세우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 100년의 비전을 모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독립역사, 독립정신, 국민통합, 미래선도>라는 4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집중했습니다.

첫째, ‘독립역사의 정의로운 복원과 독립정신의 계승’입니다. 기념사업의 근간은 결국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데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역사적 업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그 공로를 정당하게 평가하는 작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찾는 것을 넘어, 우리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80년 전 그분들이 꿈꿨던 독립된 조국의 가치를 온전히 계승하는 첫걸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래와 세대, 그리고 글로벌 가치로의 확장’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를 더 적극적으로 재조명하여 독립운동사의 지평을 넓히고,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단순히 관람객에 머물지 않고 기념사업 기획과 실행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미래 세대 참여형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광복 정신이 한반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가 공감하는 자유와 평화의 보편적 가치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글로벌 차원의 기념사업도 고민했습니다.

셋째, ‘국민통합을 통한 미래선도 국가로의 도약’입니다. 100년을 준비하는 기념사업은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광복 100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배치하여, 대한민국이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는 ‘미래선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합

니다.

결국 저희가 고민한 것은 80년 전 선조들의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지금의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어 미래 세대와 함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오로지 조국의 자주독립과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을 염원했던 백범 김구의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들이 1차 제시한 42개 사업과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제시된 사업들에 대한 부처 검토 의견, 그리고 위원들의 심도깊은 토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16개 중장기 기념사업이 선정되어 정부에 추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과제들이 향후 20년 동안 쉽 없이 실천되어 광복 100년을 맞이할 때, 대한민국이 인류의 가치를 드높이는 명실상부한 선도 국가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몇 개월 동안 진행하시는 동안 소회 또는 아쉬운 점이 있으셨는지요?

기념사업을 추진하며 몹시 안타까웠던 점은 “전문가의 통찰과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에서 유관 부처와 우리 사회가 가진 벽”을 실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워킹그룹은 광복회와 독립운동사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함께 했는데 그분들이 제시해 주신 제언들은 광복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미래 100년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 소중한 제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독립투쟁 관련 유사박물관·공원의 통합관리, 독립기념관 서울관 건립 및 역사박물관과의 통합운영, 3·1운동 기념관 건립, 개천절의 명칭을 건국기원절로 부활, 삼일절을 독립선언일로 명칭 변경, 헌법적 가치와 정체성 회복을 위한 각종 활동 법제화 추진 등 의미있고 필요한 제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동농 김가진 선생, 광주학생운동의 주역 장재성 선생 등 독립운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함에도 해방 이후 정치적 행적, 사료 입증 곤란 등을 이유로 유공자 서훈에서 제외되거나 서훈을 받지 못한 미서훈 독립운동가가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고를 치른 분이 무려 5만 5천 명에 이르나, 이 중 서훈 받은 분이 1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유공자 적극 발굴, 전향적·적극적 심사 및 포상 추진 등 포상 체계를 일부 개선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100년을 준비하는 기념사업은 과거를 기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과업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이 필요합니다. 향후에는 전문가의 깊이 있는 식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결정의 최우선 순위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열린 의사결정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합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회에 그치지 않고, 우리 기념사업 백서에 남겨 훗날 100년을

준비할 후배들이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광복 100년을 향해 나아갈 미래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의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미래 세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오늘의 선택과 실천 속에서 계속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성세대가 물려준 80년의 유산을 넘어, 앞으로 20년 뒤 맞이할 100년을 만들어 갈 주역들입니다.

과거 독립운동 선조들이 꿈꿨던 나라는 단순히 외세로부터 해방된 나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주국가이면서 문화국가이자,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문화 강국’을 꿈꾸셨습니다. 민주주의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이 감시하고 참여할 때 비로소 지켜지는 것임을 여러분도 이번 ‘빛의 혁명’을 통해 깨달았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대는 그 빛을 이어받아, 더 나은 정상 국가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광복 100년을 맞이할 2045년에는 여러분이 쟁취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전세계의 표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마주할 세상은 더 복잡하고 불확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늘 그랬듯,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오늘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기술과 인문학을 융합하여 여러분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꿈꾸고 도전하십시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하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십시오. 세계 시민과 함께 연대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끝으로, 광복 80년과 기념사업, 그리고 광복 100년의 준비 관련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광복 80년은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이면서도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외세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함과 동시에, 우리 내부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 국가의 궤도에 올려놓은 승리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뜨거운 감동과 국민의 저력이 일시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민주주의의 저력을 이제는 100년의 미래 비전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경제적 번영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인권, 그리고 헌법 정신이 바로 서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광복 80년에 다짐하고, 100년에 완성해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광복 80년은 ‘다음 100년을 향한 대전환의 시작’

입니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활동이 단발성 프로젝트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나아가갈 지향점을 설정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부터는 각 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이 협력하여 백서에 담긴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광복 100년 기념사업은 정부 주도의 기념행사를 넘어, 전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이자 ‘미래 비전 선포식’이 되어야 합니다. 20년 뒤, 광복 100년 기념식장에서 우리가 오늘 준비한 이 기반 위에서 더욱 번영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마주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워킹그룹에서 중장기 기념사업으로 제안한 <광복 100년 기념사업 준비 및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특히 특별법을 조기에 제정해 장기적·체계적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길 고대합니다.

“

경제적 번영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인권,
그리고 헌법 정신이 바로 서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광복 80년에 다짐하고,
100년에 완성해야 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광복 80년은 ‘다음 100년을 향한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

광복 100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 수상자 황지윤 수기문

‘기억의 숲, 울림의 서고’, 광복의 기억을 온몸으로 체험하다



제3차 전체회의에서 대상 작품을 직접 발표하는 황지윤 국민 제안자

눈으로 보는 기념에서 귀로 듣는 기념으로

처음 공모전 포스터에서 ‘광복 100년’이라는 단어를 마주했을 때, 가슴 벅차고 설렘과 동시에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지 고민이 많았다. 보통 ‘100주년’이라고 하면 크고 웅장한 기념비나 상

징물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된다. 나 역시 처음에는 멋진 조형물을 먼저 떠올렸다. 그런데 문득, “100년 뒤의 후손들이 그 조형물을 보며 무엇을 느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광복이라는 것이 단순히 국토를 되찾은 것을 넘어 억압 속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은 사건이기도 하듯이, 눈으로만 보는 기념물보다 사람들이 직접 와서 무언가를 듣고, 느끼며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숲 속에서 광복의 함성을 듣다

‘기억의 숲, 울림의 서고’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숲을 떠올리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숲에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합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책 대신 목소리를 보관하는 도서관의 기능을 더해 ‘울림의 서고’라는 이름이 탄생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면서 숲속에 기계적인 스피커가 덩그러니 놓여 있으면 좀 어색할 것 같았다. 그러한 이유로 소리가 나오는 장치를 숲과 어울리는 나무 기둥 모양으로 디자인하고, 기둥

의 개수를 광복의 해를 상징하는 숫자인 1,945개로 맞추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숲에 방문한 시민들은 기둥 사이를 걸으며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광복, 그 날의 함성소리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숲 안쪽 조용한 곳에서 지금 나의 다짐이나 목소리를 남겨볼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시민들에게 쉽터로 인식되는 일상 속 공간에서의 경험들은 역사를 단순히 교과서 속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이야기로 인식하도록 만들 것이다.

역사가 위로가 되는 쉽터

‘기억의 숲, 울림의 서고’는 쉽이 되는 공간이자 역사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되었다. 이 아이디어가 앞으로 준비될 광복 100년 기념사업에 있어 작게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



거창한 의미를 강요하기보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진 계획안

제목

광복 100년 기념 체험형 문화공간 – 기억의 숲, 울림의 서고

기획 의도

광복 100년의 의미를 기리는 상징물은 과거의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성찰을 요구합니다. 진정한 광복의 의미는 억압의 시대를 끝내고 우리의 빛과 목소리를 되찾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기념사업은 시각 중심의 기념물에 치중하여,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내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기획은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최초로 소리와 목소리를 주제로 하는 체험형 기념 공간입니다.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했던 시대를 이겨낸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목소리, 광복의 환희에 터져 나왔던 국민의 함성, 그리고 그 역사를 이어받은 우리들의 다짐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아카이브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억의 숲, 울림의 서고’는 책 대신 목소리를 보관하는 도서관이자, 조용한 숲을 거닐며 역사와 대화하는 명상의 공간입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시각적 압도가 아닌 청각적 공감을 통해 광복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기존의 기념물과는 다른 깊은 울림을 선사하며,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감동을 주는 새로운 기념 문화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사업 내용

이 사업은 ‘소리’를 매개로 역사를 체험하는 독창적인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 조성: 기억의 숲 물리적 구축

가. 위치 및 개념

상징성을 고려하여 서울의 주요 녹지(예: 용산공원 부지) 또는 독립기념관 인근에 대규모의 '숲'을 조성합니다. 이 숲은 인공적인 조형미를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수목과 산책로를 중심으로 설계하여 방문객이 사색에 잠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나. 핵심 상징물 '울림 기둥'

숲속 산책로를 따라, 1945년 광복을 상징하는 1,945개의 '울림 기둥'을 설치합니다. 이 기둥은 높이 3~5미터의 가느다란 원기둥 형태로, 시간의 인내를 상징하는 코르텐강(녹슨 질감 철)이나 백동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각 기둥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내부에 고성능 방향성 스피커와 근접 센서를 탑재한 '소리의 그릇'입니다. 방문객이 기둥에 접근하면, 센서가 작동하여 마치 숲속에서 누군가 속삭이듯 기둥에 담긴 목소리가 방문객에게만 들리도록 설계합니다.

다. 중앙 공간 침묵의 샘

숲의 가장 깊은 중앙에는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고요한 수(水) 공간, '침묵의 샘'을 조성합니다. 이는 방문객이 숲에서 들었던 수많은 목소리를 스스로 내면화하고 성찰하는 공간입니다. 원형의 얇은 연못 중앙에는 광복 100년을 상징하는 단 하나의 조명만 설치하여, 물 위에 비친 하늘과 빛을 보며 사색에 잠길 수 있도록 합니다.

2. 콘텐츠 구축: '울림의 서고' 디지털 아카이브

가. 과거의 목소리(기록의 복원)

사업의 핵심 콘텐츠입니다. 국가기록원,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방송사 자료실 등에 보관된 독립운동가의 실제 육성 녹음 파일(김구, 안창호 등)을 최대한 수집합니다. 이후 디지털 리마스터링 작업을 거쳐 잡음을 제거하고, 가장 선명한 음질로 복원하여 각 '울림 기둥'에 담습니다.

나. 재현의 목소리(증언의 재구성)

육성 자료가 없는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유관순, 안중근, 윤동주 등)을 위해, 그분들이 남기신 일기, 편지, 재판 기록, 시, 어록 등을 전문 성우와 배우, 그리고 해당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직접 낭독하여 녹음합니다. 이 과

정은 단순한 낭독이 아닌, 감정을 담은 ‘오디오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하여 몰입감을 극대화합니다. 각 목소리는 역사적 고증을 거쳐 당시의 감정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전달합니다.

다. 국제적 목소리(세계의 공감)

광복의 의미를 국내외로 전파한다는 목표에 맞추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지지했던 외국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왔던 외국인 선교사나 언론인(앨버트 테일러, 프랭크 스코필드 등)의 기록을 발굴합니다. 이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제작하여 울림 기둥의 일부에 배치함으로써,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도 광복의 국제적 의미를 전달합니다.

3. 체험 및 운영 프로그램

가. 소리 산책 프로그램

방문객은 별도의 기기 없이 숲을 거닐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기둥에서는 단재 신채호의 격문이, 어떤 기둥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법정 증언이, 또 다른 기둥에서는 이름 모를 학도병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흘러나옵니다. 방문객은 자신만의 속도로 걸으며, 예측 불가능한 소리와의 만남을 통해 역사를 입체적으로 경험합니다.

나. 나의 울림(국민 참여 녹음 부스)

침묵의 샘 옆에 ‘울림의 집’이라는 작은 녹음 스튜디오를 마련합니다. 국민 누구나 이곳에서 광복 100년에 대한 자신의 다짐, 조국에 대한 희망,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 목소리들은 심사를 거쳐 현재의 목소리로 분류되어, 일정 기간 ‘울림 기둥’을 통해 송출됩니다. 이는 과거의 영웅들과 현재의 우리가 하나의 숲에서 목소리로 만나는 감동적인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 온라인 및 국제 홍보

‘기억의 숲’에서 수집된 핵심적인 목소리들을 아카이빙한 온라인 플랫폼(웹사이트, 팟캐스트)을 구축합니다. ‘오늘의 목소리’와 같은 콘텐츠를 ASMR이나 명상 콘텐츠처럼 가공하여, 전 세계인이 온라인으로도 ‘울림의 서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때 꼭 들러야 할 정신적, 문화적 명소로 홍보합니다.

기대 효과

1. 가장 독창적인 K-메모리얼(K-Memorial)의 탄생

시각적 압도가 아닌 청각적 공감을 통해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이 기획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독창적인 기념 방식입니다. K-컬처의 위상에 걸맞은 K-메모리얼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적 상상력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깊은 영적 울림을 주는 성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2. 살아있는 역사 교육 및 국민 통합의 장 마련

텍스트로만 존재하던 독립운동가들의 고뇌와 열망이 목소리라는 가장 직접적인 매체를 통해 전달됨으로써, 청소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에게 그 어떤 교과서보다 강렬한 역사 교육의 장이 됩니다. 또한, 나의 울림 프로그램을 통해 과거의 목소리와 현재 국민의 목소리가 한 공간에서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세대를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광복의 정신을 미래로 이어가는 국민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3. 합리적 예산으로 구현하는 지속가능한 문화 공간

초대형 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수천억 원대의 천문학적인 건축비와 막대한 유지보수비 대신, 본 사업은 숲이라는 자연 친화적 공간과 오디오 아카이브라는 디지털 자산을 결합합니다. 울림 기둥의 설치와 음원 시스템 구축은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예산으로 실현 가능하며, 자연 속 공간으로서 계절의 변화와 함께 영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입니다.

4. 국내외 광복의 의미 확산 및 국가 브랜드 제고

기억의 숲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독립사를 가장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국어로 제공되는 역사적 증언을 통해, 한국의 '광복'이 단순히 주권을 되찾은 사건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한 투쟁이었음을 알리게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를 경제 선진국을 넘어 정신적, 문화적 선도국가로 격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

제2절



2026년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추진

1.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

2026년은 백범 김구의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유네스코는 1957년부터 회원국이 제안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이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가 간 협력과 평화와 안보에의 기여’라는 기구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할 경우 이를 ‘유네스코 기념해(UNESCO Celebration of Anniversaries)’로 지정하여 전 세계와 함께 기념하고 있다.

● 우리나라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 연혁

- **1994** 서울 수도 지정 600주년
- **1996** 한글 창제 및 반포 550주년
- **2012** 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 **2013**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
- **2021**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 **2026**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2024년 12월 5일(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는 2026년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24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를 통해 파리 소재 유네스코 본부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서에는 김구 선생이 국민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근간으로서 경제적·군사적 힘보다 문화의 발전을 중시하였다는 점과 문화국가의 토대로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 점 등을 핵심 가치로 담았으며, 유네스코 유관 분야로 ‘교육’과 ‘문화’가 선택되었다.

2025년 3월 유네스코 사무국은 김구 선생의 출생지가 황해도임을 고려하여, 북한의 지지가 확보될 경우 차기 집행이사회 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8월 까지 북한의 묵시적 동의 확보 등 유네스코 본부와의 막후 교섭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25년 10월 9일 유네스코 제222차 집행이사회에서 예비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31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43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김구 선생이 2026년 기념해 대상 인물로 최종 선정되었다. 유네스코는 선정 배경으로 문화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추구한 백범 김구의 비전이 유네스코의 보편적 가치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김구 탄생 150주년의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은 대한민국이 오늘날 문화강국으로 성장해 온 과정이 독립운동 시기부터 이어져 온 ‘문화의 힘’에 대한 염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김구 선생이 추구한 문화·자유·평화·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전 세계와 함께 조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2026년 범정부 차원의 기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2. 워킹그룹 및 전문가 간담회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을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2025년 12월 23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이종찬 민간위원장은 김구 탄생 150주년이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된 이유가 김구 선생의 ‘문화국가’ 비전에 있음을 강조하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힘을 합쳐 범정부 기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관련 관계부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외교부 ·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광복회 관계자가 참석하여 범부처 차원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였다. 3월 4일에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워킹그룹에서 세부 사업 아이디어가 논의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념사업의 기본 구상이 마련되었다.

3월 9일에는 국무조정실 · 국가보훈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참여한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착수회의가 개최되어, 정책 홍보 및 브랜드 구축 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3월 20일에는 국무총리 주재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되어 기념사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김구 선생이 ‘문화의 힘’을 국가의 미래로 제시한 것은 시대를 앞선 탁견이며, 유네스코 기념해 지정은 이러한 백범 김구의 사상이 국제사회에서도 보편적 가치로 평가받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김구 선생의 비전을 이어받아 기념사업을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로 확산하기 위해 한국문화원 등의 해외 홍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제시하였다.

3.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준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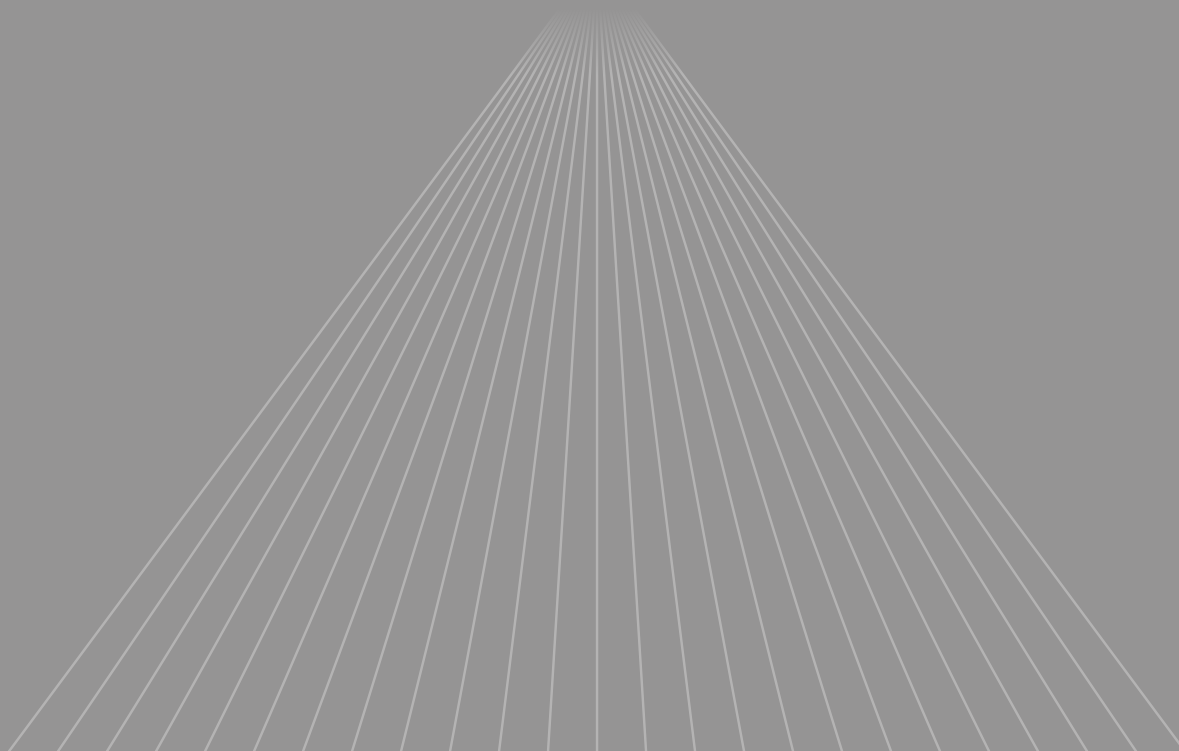


총리 주재 간담회

국무조정실은 2026년 4월 <민관합동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기념사업 추진 TF>를 출범시켰다. 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행정안전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가유산청 실장급 관계자와(사)백범김구기념사업협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광복회 등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및 청년으로 구성되었다. 국무조정실은 추진 방향 설정과 부처 간 역할 조정 및 TF 회의 운영을, 국가보훈부는 사업 추진 총괄과 전담추진팀 운영 및 대외협력 등을 맡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범정부 홍보 지

원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산하에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전담 추진팀을 두어 TF 결정사항의 후속 이행과 사업 점검·관리, 백서 발간, 대외 협력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4월 27일 기념사업 추진방안은 국무총리 주재 국가보훈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최종 확정되었다. 이와 함께 기념사업 전반에 적용할 슬로건은 ‘나의 소원, 평화의 힘’으로 확정하고 인물 스케치와 한글 이름을 결합한 로고를 개발하였다. 또한 글로벌 홍보를 위해 영문 로고도 함께 개발하였다.

부록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련 규정
2.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3.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념사업 개요
4. 광복 80년 지방자치단체 기념사업 개요
5.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회의 내용
6.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

1.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련 규정

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4755호, 2024. 7. 23.,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이란 자유를 위한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국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려는 대한민국의 뜻을 담은 8·15 기념행사, 국내외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의 결정
2.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3.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조정
4. 광복 80년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기획·지원

5. 그 밖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3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협의체의 장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雇)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된다.

제10조(범부처협의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행정적·재정적 사안에 대하여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기관별 이행 방안 등을 협의

하기 위해 위원회에 범부처협의회를 둔다.

② 범부처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범부처협의회의 구성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 등과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부기관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된다.

제11조(자문단)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2조(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범부처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무조정실의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기획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획단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기획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

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방송 토론, 현상공모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범부처협의회의 위원, 자문단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분과위원회·범부처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범부처협의회의, 자문단 및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4755호, 2024. 7.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나.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세칙 (2025. 7. 2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분과위원회·범부처협의회 및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8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영 제7조의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때에는 의안, 일시, 장소 등을 참석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전체회의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부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부기관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하여 참석한 부기관장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3조(의안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 8인 이

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의안은 전체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자문단) ①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촉위원장과 협의하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제2조 제6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대행)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영 제5조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영 제7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조(구성) ① 영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단의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 필요한 경우 위원 중 일부를 소집하여 전체회의 상정 안건의 사전 논의를 할 수 있으며, 참석자 중 의장을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 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 4인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안은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4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간에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

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장들은 상호 협의하여 운영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에는 2인 이내의 소속 분과위원을 참석시킬 수 있다. 운영협의회 의장은 해당 운영협의회 참석자 중 호선으로 정한다.

제4장 범부처협의회의 운영

제9조(회의) ① 범부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참석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제5장 기획단의 운영

제10조(직무 등) ①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회, 분과위원회, 협의회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기념사업과 관련된 업무의 조사·연구 및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작성 지원
 3.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인사·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등 행정지원
 4. 기타 위원장, 협의회의 의장 등이 지시하는 사항
- ② 기획단에는 단장 밑에 기획총괄과, 독립유산과, 미래비전과, 세계협력과, 참여문화과를 둔다.

제6장 보칙

제11조(수당 등 지급기준) 영 제14조에 따른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은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른다.

제12조(위임) 이 운영세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범부처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후원 명칭 사용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 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위원회 후원명칭”이란 위원회 승인을 받은 광복 80년 관련 행사에 사용하는 위원회 명칭을 말한다.

(사용례) 후원: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제3조(후원명칭 사용 신청 대상) ① 후원명칭의 사용 신청 대상 기관 및 단체(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개인은 신청할 수 없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
2. 언론사, 방송사, 민간기업 등 단체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광복 80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행사
2.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행사
3. 위원회 기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국 규모의 행사로서 비영리 목적의 행사이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후원명칭 사용 신청의 접수) ①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한 날이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10일 전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1. 행사 계획서(행사 참가 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 내용 포함)
2.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
4. 그 밖에 후원 행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으로 의결된 행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검토 및 승인)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3조에 따른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정치적 목적 또는 영리 목적의 유무 및 사적 행사 여부

3. 행사주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구성, 설립목적, 행사의 후원기관(단체), 행사와 관련된 인사 등 행사주최 단체의 건전성
 4. 행사내용의 충실성, 안전대책 수립여부 등 행사안전 확보여부 등
 5. 특정 물품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정 행사와 관련하여 따로 검토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부합 여부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경우 준수요건을 명시하여 사용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광복 80년 주제어와 엠블럼을 사용하게 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③ 사용신청자는 위원장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후원명칭 사용자의 결과 보고 등) 위원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마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결과서를 추진기획단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 등) 위원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행사의 준비 및 진행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기관단체에 대한 점검 등) 추진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행사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라. 광복 80년 기념사업 상징체계
(주제어 · 엠블럼) 활용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주제어와 엠블럼을 사용할 때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주제어와 엠블럼은 각호와 같다.

1. 주제어: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영문) Bright Legacy, Brighter Future



〈의미〉

- ◆ 위기 속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간 대한국민의 위대한 역량을 이어받아, 위기의 시대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염원을 표현
- ◆ 기쁨 · 자긍심의 정서를 반영하여 과거의 역사적 의미를 기념하는 한편, 모든 세대가 함께 미래를 밝히는 모습에 초점
- ◆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아 나섰던 청년 독립운동가인 윤동주(서거 80주기)의 시를 인용하여 미래 세대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의미

2. 엠블럼





〈의미〉

- ◆ ‘8’은 ‘한반도’를 모티브로 하여 우리 한민족 전체를 상징하면서, ‘0’의 태극 문양과 함께 ‘온 국민이 하나’되는 모습 및 ‘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염원을 표현
- ◆ 파랑과 빨강은 각각 ‘희망’과 ‘열정’을 나타내며, ‘국민 모두의 열정’을 모아 ‘더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과 의지 표현

3. 엠블럼 디자인 매뉴얼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모든 국민은 광복 80년 주제어와 엠블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방송사, 신문사 등은 광복 80년 관련 기념 행사 이벤트 캠페인 등에서 광복 80년 주제어와 엠블럼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③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에 반영된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광복 80년 주제어와 엠블럼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용제한) ① 누구라도 광복 80년 주제어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광복 80년 엠블럼 디자인 형태를 고의 또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정치 목적으로 광복 80년 주제어와 엠블럼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영리 목적으로 광복 80년 주제어와 엠블럼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영리목적특례)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방송사, 신문사 등의 광복 80년 기념행사(이벤트·캠페인 등 포함)를 후원하는 광고(방송, 신문, 인터넷 포털 등)에서 광복 80년 주제어와 엠블럼을 표출할 수 있다.

②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은 기업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 공익광고 등에서 광복 80년 주제어와 엠블럼을 노출할 수 있다.

③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 등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제휴 또는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광복 80년 주제어와 엠블럼을 노출할 수 있다.

④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밖에 금융기관의 통장에 사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그 행위가 과도한 영리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광복 80년 주제어와 엠블럼을 사용할 수 있다.

2.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2025년 7월 기준)

● 위원장

성명	현직	비고
김민석	국무총리	
이종찬	광복회장	

● 위촉 위원(58명, 가나다 순)

성명	현직	비고
강동수	KDI글로벌지식협력단지 운영단장	
강새봄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	
공병삼	부천소방서 소방위	워킹그룹 위원
김능진	충남대 명예교수	워킹그룹 위원
김민선	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	
김아영	현대미술가	
김용달	광복회 학술원장	워킹그룹 위원
김은미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주혜	재미(在美)작가	
김준수	국립창극단 부수석단원	
김초롱	작가	
김춘동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회장	
김태욱	문화기획자	워킹그룹 위원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	
문수복	한국과학기술원 전산학부 교수	
박명현	숙명여대 경영학부 강사	워킹그룹 위원

성명	현직	비고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지우	고등학생	
박진호	패럴림픽 국가대표 사격선수	
박찬승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워킹그룹 위원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배순민	KT AI Future Lab장	
부윤경	홍범도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워킹그룹 의장
서영석	농업인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	
서해성	전시기획자	워킹그룹 위원
송재혁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최고기술자 겸 반도체연구소장	
신민재	대학생	
양정훈	수원대 교수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워킹그룹 위원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	
유민	광복회 기획조정실장	워킹그룹 위원
유은지	클래식기타리스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이경숙	전(前)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워킹그룹 위원
이영표	KBS축구해설위원	
이우일	서울대 기계공학부 명예교수	
이정주	영남대 국제개발새마을학과 교수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이진현	한국외대 초빙연구원	워킹그룹 위원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이태준	인베랩 부대표	워킹그룹 위원
이해학	거례살림공동체 이사장	워킹그룹 위원
이호성	하나은행 은행장	
임석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책임연구원	워킹그룹 위원

성명	현직	비고
장애진	응급구조사	
전봉희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전순옥	전(前) 국회의원	
정광태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 명예회장	
정대례	중앙보훈병원 간호과장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정태현	고려대 명예교수	워킹그룹 위원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최태성	별별한국사 연구소장	
허미미	유도선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워킹그룹 위원
황태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워킹그룹 위원

● 정부 위원(2026년 5월 기준)

성명	현직	비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조 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최희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나.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2025년 7월 기준)

구분	직급	성명	원 소속기관
기획단장	고위공무원	박상철	국무조정실
	부이사관(과장)	백승일	국무조정실
기획총괄과	서기관	최진수	국무조정실
	사무관	이채영	국무조정실
	주무관	황유연	국가보훈부
	행정실무원	강혜빈	국무조정실
	서기관(과장)	송영조	국가보훈부
독립유산과	사무관	김준호	국가보훈부
	연구관	임경희	국가유산청
	전문위원	홍용표	독립기념관
미래비전과	서기관(과장)	윤우근	기획재정부
	사무관	노일준	통일부
세계협력과	서기관(과장)	박래운	행정안전부
	외무사무관	조민정	외교부
	사무관	신종혁	행정안전부
	육군중령	이윤병	국방부
	전문위원	한수진	한국국제교류재단
	서기관(과장)	이규석	문화체육관광부
참여문화과	사무관	김민지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관	장규택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이재라	서울특별시
	전문위원	최정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념사업 개요

가. 위원회 기념사업(45개)

분야	연번	사업명	소관	일시	주요 내용
① 빛나는 독립운동, 희생과 헌신의 역사					
기념 선양	1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보훈부	8월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하고 추모하여 애국정신을 계승·발전
	2	보훈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보훈부	연중	보훈문화유산의 역사적, 인류 보편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추진
	3	기청 독립의 전당 건립	보훈부	연중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유공자 위패를 모시고 있는 기존의 '독립관'이 노후·협소하여 현대적인 위패봉안실 및 미래 세대 체험공간으로 확대 건립
	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여가부	8. 1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중요성 재조명 - 청소년 작품 공모작 시상 등
	5	독립 관련 정부 기념식	보훈부	4월, 6월, 11월	임정수립기념일, 6·10만세운동 기념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 순국선열의 날 등
	6	일본 소재 한국 문화유산 환수·복원	국가 유산청	2024년~ 2028년	일제 강점기 반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소재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
학술 전시	7	광복 80년 특별전시 〈임시의정원에서 국회로〉	보훈부	2025년 8월 ~ 2026년 1월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생산문서, 의정원 인물들에 관한 자료 등을 특별전시
	8	광복 80년 기념 태극기 전시	문체부	8. 8.~11. 16.	태극기 기획특별전, 현대사 라키비움 전시, 옥상 무궁정원 조성 등
	9	광복 80년 항일문화유산 특별전	국가 유산청	8. 11.~10. 12.	항일독립운동 관련 문화유산 전시 및 학술세미나, 특별강연 실시(서울)
	10	광복 80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학술회의	교육부	8. 13.	'세계사의 시선으로 본 국권회복의 역사적 의미'를 주제로 학술회의
	11	광복 아카이브 〈1945년 한 해〉	문체부	8월~12월	'1945년 한 해'를 자료로 살펴봄에 당시 한국인의 삶과 선택을 이해하는 스토리텔링 아카이브

분야	연번	사업명	소관	일시	주요 내용
국민 참여	12	독립운동가 감사캠페인	보훈부	연중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헌신을 조명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 제작·편성 및 국민 참여 행사 연중 개최
	13	광복 80년 기념키트 및 타임캡슐 제작	보훈부	7월~10월	초등학교 1~2학년 눈높이에 맞춘 '광복 80년 기념 키트' 및 타임캡슐 제작, 정규 교과수업 등에 배포
② 자랑스러운 80년, 대한민국의 여정					
학술 전시	14	광복 80년 국가기록 특별전	행안부	8. 23.~8. 31.	광복 이후 80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성장·발전사를 기록을 통해 전시(서울)
	15	〈통계로 본 광복 80년,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발간	통계청	8월, 12월	광복 이후 사회 변화상, 발전 현황을 객관적 통계로 파악 ※ 2025 사회동향 자료집 발간 및 전문가 포럼(8. 27), 「최종 자료집」 발간(12월)
	16	광복 80년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문체부	7월~12월	광복 80년 기념 독립운동 관련 소장품 공개 및 손기정 전시(서울)
	17	광복 80년 특별전시 〈우리들의 이순신〉	문체부	2025년 11월 ~2026년 3월	광복 80년 기념으로 국립중앙박물관 최초로 '이순신' 특별전시 개최(서울)
	18	광복 80년 국립중앙도서관 80년 전시	문체부	10월~12월	국가대표도서관이 소장한 국가 지식·문화의 총체를 망라한 전시 개최(서울)
	19	민속아카이브센터 미디어큐브 영상전시 〈되찾은 빛, 이어질 노래 아리랑〉	문체부	7. 15.~9. 30.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아리랑을 활용한 콘텐츠로 민족의식과 광복의 기쁨 전달(경기 파주)
공연 방송	20	광복 80년 KTV 대기희 시리즈 제작	문체부	3월~12월	① 빛나는 시간들: 대한민국 영광의 20장면(8월~10월) ② 광복의 유산 - 80년의 조각들(8월~11월) ③ 新문화영화 시리즈 제작(3월~10월) ④ 광복 100년, 미래로 보내는 타임캡슐(12월)
기타 연계	21	광복 80년 기념품 발행 및 연계 사업 추진	한국은행 과기정통부	8월	광복 80년 테마 기념주화·우표, 굿즈 등 발행
	22	국민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군	국방부	6월~10월	국군의 날 기념식, 지상군 페스티벌 행사, 해군관함식, 음악회 등 군 행사 시 광복 80년 메시지 홍보
③ 모두가 하나되는 빛의 축제 축제·문화제					
축제· 문화제	23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안부	8. 15.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국민화합의 축제'로 개최
	24	광복 80년 전야제 〈우리는 빛이다〉	문체부	8. 14.	광복 80년 불업 조성을 위한 국민 참여형 문화예술축제(서울 흥례문광장)

분야	연번	사업명	소관	일시	주요 내용
축제·문화제	25	광복 80년 경축 문화예술축제			
		1) 광복 80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	보훈부 국회, 광복회	8월	K-pop 등 글로벌 문화 콘텐츠 및 보훈을 융합하여, 광복을 '기쁨의 날'로 전환하는 '뮤직 페스티벌' 형식의 행사
		2) 광복 80년 경축 드론쇼	보훈부	6월~11월	독립운동과 광복을 주제로 다양한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드론쇼 개최 및 보훈테마 체험공간 운영(전국)
		3) 80개의 빛, 하나된 우리	보훈부	8월	독립운동과 광복 80년의 의미를 담은 미디어 아트쇼 진행
	26	광복 80년 공군 에어쇼 (스페이스 챌린지)	국방부	5월~9월	블랙이글스 에어쇼에 '광복 80년' 메시지 홍보 (원주, 수원, 광주, 김해, 서산)
기념선양	27	광복 80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	산림청	7월~8월	광복 80년 기념 나라꽃 무궁화 대축제 중앙행사 및 중앙 행사 연계 동시다발 지역행사(수원, 완주, 홍천, 장성) 개최
	28	K-메모리얼 로드			
		1) 8.15 광복대행진	광복회	8. 15.	국민과 함께 '독립운동 시원지 - 광화문 중심부' 도보 퍼레이드 진행
		2)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	보훈부	연중	지역별 보훈명소를 스토리텔링 기반 탐방길로 개편 및 캠핑·런닝·하이킹 등 활동을 융합한 투어 사업 추진
공연방송		3) 중국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사적지 탐방	보훈부	9월	중국 내 임시정부 역사 관련 공연, 교육체험존, 국제학술회의 운영 및 사적지 탐방
	29	광복 80년 기념 국악 공연	문체부	8. 14.~8. 16.	광복 80년 계기 창작악단 기획공연(서울), 국악 칸타타 공연(부산)
	30	광복 80년 기념 역사 뮤지컬 갈라쇼	문체부	8. 15.	광복 80년 기념으로 국립중앙박물관 특별 뮤지컬 갈라쇼 개최(서울)
	31	광복 80년 기념 특별공연 〈광복, 빛의 씨앗들〉	국가 유산청	8. 15.~8. 16.	일제에 의해 왜곡, 단절 등의 수난을 겪은 무형유산을 활용한 특별공연 개최(전북 전주)
	32	〈독립군: 끝나지 않은 전쟁〉 제작	독립군 제작위원회	8. 13.~	홍범도 장군의 치열한 무장투쟁을 영화로 제작하여 독립군·광복군 역사를 홍보
국민참여	33	광복 80년 기념 마라톤			
		1) 8.15km 통일 마라톤	통일부	11월	'8.15km 달리기'라는 활동을 통해, 광복과 통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점 강조(경기 파주)
		2) 손기정 평화 마라톤	문체부	11월	마라톤을 통해 대한국민임에도 일장기를 달고 뛰어야했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손기정 선수의 도전·평화정신 확산

분야	연번	사업명	소관	일시	주요 내용
국민 참여	34	독립운동가 후손 프로야구 시구	문체부	8. 15.	독립운동가 후손을 선정하여 독립유공자의 희생정신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기리는 계기 마련
④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글로벌 선도국가					
축제·문화제	35	주요 재외공관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	외교부	8. 15.	재외공관 주관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 (*미·일·중 등 주요 공관)
	36	재외문화원 광복 80년 기념 문화행사	문체부	연중	광복 80년의 의미를 소개할 수 있는 뮤지컬, 사진전, 영화제, 종합문화행사 등 개최
기념선양	37	해외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활용			
		1) 몽골 이태준 기념관 개관	보훈부 외교부	9월	신축(2024년 12월) 기념관에 전시관 조성(~2025년 8월) 및 개관(9월)
		2) LA흥사단 옛 본부건물 리모델링	보훈부	2025년 ~2026년	LA소재 국외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을 위해 매입한 흥사단 옛 본부건물 복원
		3) 충칭 한·중 공동행사 개최	보훈부 외교부	8월~9월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재개관 30주년 행사 (기념식, 한중우호음악회, 사진전, 공동 학술회의 등)
	38	나라사랑 태극기 캠페인	행안부	1. 1.~8. 15.	전 국민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확산
	39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보훈부	8. 10.~8. 16.	광복절 전후 주요 행사에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1995년부터 매년 시행)
	40	뉴욕 한인교회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식 및 음악회	보훈부	9월~10월	뉴욕 한인교회 독립운동기념관 개관식 및 음악회
학술전시	41	광복 80년 성과 및 광복 100년 대비 미래전략 연구	경인사研	~2026년 2월	광복 이후 80년간의 대한민국 변화상을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확인하고, 광복 100년 미래 전략 도출
	42	국제 한반도 포럼(GKF)	통일부	6월~9월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
국민 참여	43	광복 80년 주제 국제 콘텐츠 공모전	문체부	11월	광복 80년과 연계한 특별주제를 설정하여, 국제 콘텐츠 공모 진행
	44	재외동포사회와 교류하는 광복 80년	재외 동포청	연중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세계한인 회장회의 등 주요 계기별 광복 80년 기념활동 지원 등
	45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통일부	5월, 9월	광복·통일 주제 초·중·고등학생 등 청소년 대상 영화제·동요제 등의 경연대회 ※ 숏츠 영화제(5. 23.), 어린이 동요제(9. 26.)

나. 부처 자체 추진사업(54개)

분야	연번	사업명	소관	일시	주요 내용
축제·문화제	1	2025 대한민국 과학축제 (과학문화 팝업 별별잡화점 운영)	과기 정통부	4. 11.~4. 13.	'과학기술'과 '광복 80년'을 연계한 홍보 및 이벤트 부스 운영 등
	2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보훈부	6월	음악과 음식, 놀이문화를 통해 일상 속 보훈을 느끼는 대규모 뮤직페스티벌 추진
	3	2025 코리아세일페스타	산업부	11월	광복 80년 기념 문구, CI 및 슬로건 등 공동홍보 협조
	4	2025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	중기부	11. 18.~11. 20.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시 광복 정신과 K-기업가정신 연계 메시지 발신
	5	광복 80년 연계 <우주항공공간> 선포식	우주 항공청	5. 27.	<우주항공공간 선포식>(5. 27.) 계기 광복 80년과 우주항공분야 연계 및 의미 부각
기념 선양	6	과학기술 공로자 만화·영상 제작	과기 정통부	4월~8월	독립유공 발명가·과학기술유공자의 업적을 알리는 만화·영상 제작 및 전시
	7	광복 80년 기념 과학조선 기획전	과기 정통부	8월~10월	광복 80년 기념, 일제강점기 '과학조선'을 꿈꾸며 독립운동을 전개한 과학자들의 과학분야 활동 대국민 전시
	8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	법무부	8월	독립유공자 후손을 발굴하여 우리 국적 수여 (2006년부터 매년 개최)
	9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및 발굴 포상	보훈부	연중	애국지사 장례의전 격상, 독립유공자 및 후손 위문,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 등
	10	기행 광복 80주년 특별관 건립	보훈부	연중	독립운동을 최신기술과 융합하여 차별화된 콘텐츠로 전시하는 특별관을 독립기념관 내 건립(천안)
	11	국가관리기념관 디지털전시관 재개관	보훈부	4월	국가관리기념관의 노후한 전시형태 개선을 통한 활성화 도모
	12	<발명의 날> 계기 독립유공 발명가 발굴 및 전시	특허청	5. 19.~5. 20.	'발명의 날 60주년'과 '광복 80년'을 맞아 부대행사로 독립유공 발명가 발굴, 후손 초청 및 공로상 수여, 발명품 관련 전시

분야	연번	사업명	소관	일시	주요 내용
학술 전시	13	독도 체험관 특별전시전	교육부	10. 25.	광복 80년 및 독도체험관 리모델링 개관 기념으로 독도 사진·영상, 체험 콘텐츠 등 전시·운영
	14	한인의 미주 이주와 독립운동 전시	교육부	3월	미국 LA한국교육원 한인의 독립운동 전시관 개관 (2025년 3월) 및 전시
	15	제14차 한독통일자문위원회	통일부	11월	한-독간 행사(11. 16.~11. 18.)에 광복 관련 내용 반영
	16	통일·대북정책 국민합의 토론회	통일부	9월	통일·대북정책 관련 다양한 아젠다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 토론' 진행
	17	통일 관련 주요 학술회의 참여	통일부	7월~8월	국제학술회의(7월~8월) 실시
	18	광복 80년 국제학술심포지엄	보훈부	8월	아시아 각국의 독립운동사 비교 분석 및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보편성과 특수성 도출 목적의 국제학술회의 개최
	19	광복 80년 계기 특별전	보훈부	8월~12월	태극기를 중심으로 보는 독립운동과 광복의 의미를 살펴 보는 특별전시회 개최(독립기념관 및 주요 도시 순회 전시)
	20	자료와 함께하는 수장고 탐방	보훈부	3. 1. / 8. 15.	독립기념관 제1수장고, 제2수장고의 3·1운동 관련 자료, 독립운동 주요 문화유산 공개 및 자료관리 살펴보기
	21	광복 80년 기념 영화 특별전	문체부	8월	독립운동과 해방기를 담은 영화 상영(서울, 부산, 대구)
	22	기록영상 컬렉션 (해방과 번영의 신화)	문체부	8. 15.~9. 14.	애국선열의 희생으로 얻어낸 해방의 감격과 그들의 정신으로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일어서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한국영상자료원 보유 기록영상 10편 공개
국민 참여	23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민주평통	6. 23.	지역사회(강릉)와 함께 통일 공론의 장 마련
	24	광복 80년 기념 국외교류 전시	보훈부	6. 18.~9. 5.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럽 내 활약상을 알리고, 평화의 의미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전시회 개최 (주벨기에유럽연합한국문화원 공동주최 특별전시)
	25	광복 80년 기념 학생 계기교육 활성화	교육부	7월~10월	독립운동 교육자료, 독도 교육·콘텐츠 보급 등을 통해 계기 교육 활성화 지원
	26	전국 중·고등학생 우리역사 바로알기 대회	교육부	5. 19.~6. 2.	중·고등학생 대상 역사보고서 공모전 개최
	27	제3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과기 정통부	7. 8.~7. 10.	국내외 한인 과학기술인 대상 특강, 포럼, 독립운동가 후손 과학기술인 초청 행사, 광복 80년 기념 전시 부스 운영 등 교류의 장 마련

분야	연번	사업명	소관	일시	주요 내용
국민 참여	28	한·중 청년 미래 우호증진단 광복 80년 기념 행사	외교부	5월	광복 80년을 맞아 한중 미래 세대가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를 방문하여 한중 우호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우호정서 제고
	29	2025 통일문화 콘텐츠 공모전	통일부	7월~8월, 11월	통일 콘텐츠(숏폼, 웹툰, 이모티콘, 디자인 다양화 등) 창작 공모전 실시
	30	통일문화행사 <통하나봄>	통일부	10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과 광복'을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 마련(충남) ※ 서울(5월), 대전(10. 18.~10. 19.)
	31	재외동포 통일공감대 문화행사	통일부	6월, 9월	광복 80년 연계, 한반도 분단 80년 상황과 통일 필요성에 대한 재외동포와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 ※ 일본(6. 29.), 유럽(9. 27.)
	32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개방행사	통일부	8월	8월 정기 행사시 광복 80년 관련 전시, 태극기 만들기, 가족 통일(광복)골든벨 등 검토·추진
	33	2030세대와 탈북청년이 함께하는 글로벌 통일체험	통일부	7월	탈북 청년들과 남한 2030 세대들이 독일·폴란드 역사적 현장을 방문
	34	모두의 보훈 기반 민·관 협력 활성화	보훈부	연중	일반 국민, 기업이 기부를 통해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을 위한 복지사업, 기념행사 개최
	35	광복 80년 연계 보훈콘텐츠 공모전	보훈부	4월~5월	미래 세대 대상 광복 80년 이모티콘 및 굿즈 디자인 공모전 개최
	36	전적지 활용 안보관광 활성화	문체부	연중	UN군 현충시설과 전적지 등을 자원화하여 내외국과 함께 한반도 평화·안보의 가치 공유
	37	광복 80년 기념 주요 관광지 홍보	문체부	3월~9월	2025년~2026년 한국관광 100선 선정지 중 독립운동 연관 관광지 17개소 홍보
	38	국립합창단 3·1절 기념연주회	문체부	2. 27.	우리 민족의 아픔과 역사를 음악적 언어로 해석한 공연 <거룩한 함성>(서울)
	39	여행가는 달 캠페인	문체부	3월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광복 관련 여행 콘텐츠·정보 제공
	40	광복 80년 국민참여 기념사업 운영 및 홍보	국조실 문체부	3월~12월	국민참여 기념사업 운영 및 광복 80년 의미 정책광고
	41	광복 80년 기념 산업기술 특집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산업부	7월~8월	일제강점기 속에서도 자주적인 기술 발전을 이뤄낸 산업기술인의 이야기를 기념 영상으로 제작·확산
	42	광복 80년 기념 산업기술 유산 80선(혁신과 성장의 발자취)	산업부	10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 주요 산업기술 성과 80선을 발굴하고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배포

분야	연번	사업명	소관	일시	주요 내용
국민 참여	43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계기 광복 역사 조명 프로그램	여가부	5. 22.~5. 24.	독립운동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안동시와 협력, 광복의 의미와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경북 안동)
	44	청소년 통일 어드벤처	민주 평통	3월~7월	광복 80년 기념 통일 골든벨 개최를 통해 재외동포 청소년의 올바른 통일관, 역사관 함양 및 글로벌 통일인재 육성
공연 방송	45	광복 80년 기념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과기 정통부	연중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특집 다큐 제작지원
	46	광복 80년 기념 창작오페라 〈화전기〉	문체부	10. 25.~10. 26.	배삼식 作 희곡 '화전기'를 각색한 창작 오페라(서울)
	47	광복 80년 계기 해외 언론인 초청 취재 지원	문체부	7. 22.~7. 27.	광복에 도움을 주었거나 식민 통치에서 독립한 해외 국가 언론인 및 디지털 저널리스트 초청(8명 내외) 및 취재 지원
	48	광복 80년 기념 판소리 춘향가 공연	문체부	8. 14.~8. 16.	판소리 공연(남원)
	49	광복 80년 기념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인천공항 홍보	국가 유산청	8월~12월	광복 80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념 영상을 기획·제작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천공항에서 상영
	50	광복 80년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방통위	6. 16.~8. 15.	공동체 의식 회복과 나라사랑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방영
기타 연계	51	제3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계기 국회협업 문화행사 개최	통일부	10. 4.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 표명
	52	제13회 통일교육주간 계기 학교·지역사회 통일인식 제고	통일부	5. 19.~5. 25.	미래 세대 통일교육 중요성 강조 및 국민적 통일의지 결집
	53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 계기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개최	통일부	7. 12.~7. 14.	광복 80년과 연계, 진정한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라는 점을 홍보
	54	개발협력주간 기념행사 연계	국조실	11월	광화문 홍보존(11월초)에 광복 80년 기념부스 또는 기념사진전 코너 운영(서울)

4. 광복 80년 지방자치단체 기념사업 개요

구분	사업명	일시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광복 80년 광복주간 행사	8. 9.~8. 16.	300여 개의 태극기 바람개비 및 80개 계단으로 조성된 태극기 언덕 등 서울광장을 활용한 광복 80년 기념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등 광복절 주간 행사 운영 (23,000여 명 참여)
	광복 80년 서울시 기념콘서트	8. 15.	광복의 기쁨과 환희를 나누고,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기념 콘서트 개최 및 KBS2TV 생방송 진행(서울광장) ※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 및 보훈단체, 시민 등 3,500여 명 참석
	8 · 15 Seoul, My Soul 콘서트	8. 16.	안중근 의사의 항일독립운동을 다룬 <영웅>, <레미제라블> 등 ‘독립’을 주제로 한 뮤지컬 갈라 음악회 개최
	광복 80년 기념 서울역사박물관 특별전	8. 8.~11. 2.	광복 이후 80년간 서울에서 개최된 광복절 경축식 관련 사진, 영상 및 기념화폐 · 우표 등 기념물 및 광복절 기록 등 역사적 사건 자료 전시
	해외 독립운동가 후손 초청	8. 12.~8. 17.	중국 거주 11가족 19명 초청, 현충원 참배 및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 안창호기념관 등 탐방
부산광역시	부산광복원정대 국외탐방	7. 16.~7. 19.	광복 80년 기념 및 상징성을 반영, 총 80명의 참여자 모집하여 연길 · 백두산 등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 추진
	광복 80년 기념 부산박물관 특별기획전 <광복의 시간, 그날을 걷다>	6. 21.~8. 15.	광복 80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범어서 중심으로 한 부산 지역의 항일운동 조명(44,000여 명 관람)
	광복 80년 기념 부산 근현대역사관 금고미술관 기획전 <신선한 유산, 예술로 미래를 열다>	3. 25.~8. 17.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오늘날 부산 발전의 근간이 된 ‘한국 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유산’을 현대미술로 재해석한 기획전 개최
	광복 80년 기념 공모전 <내가 찾은 광복의 순간>	5. 19.~7. 11.	8.15 광복을 위해 노력한 독립운동 중 가장 소개하고 싶은 순간을 시 활용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 공모전 개최 및 전시(18점)
대구광역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음악회	8. 15.	단막 공연 등 광복 퍼포먼스 및 국내 가수 초청 공연 등 광복을 기념하고 시민이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는 경축음악회 개최(25,000여 명 참여)
	광복 80년 계기 815인 광복콘서트	5. 3.	광복절 그날의 의미와 염원을 담아 815명의 출연진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합창 콘서트 개최

구분	사업명	일시	주요 내용
인천광역시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전시회	8. 12.~12. 31.	광복 80년 기념 인천(계양구)의 독립운동 재조명 및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전시회 개최
	2025 나라사랑 축제	8. 15.	한국 선교 140년 및 광복 80년 기념으로 인천의 역사성과 나라사랑을 주제로 대규모 문화행사 개최
	문화가 있는 날, 시민 행복 음악회	8. 27.	광복 80년 광복절과 연계하여 국가보훈의 의미를 문화예술로 전달하는 참여형 음악회 개최
광주광역시	항일무장독립투쟁 역사 유적지 전시 및 인문학 강의	6. 25.~6. 30.	광복 80년을 맞아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인식 제고 및 희생정신 계승을 위한 사진 전시 및 인문학 강연 개최
	제8회 허스토리 기획전시 공모전 수상작 전시	7. 4.~9. 1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과 역사를 기억하고 인권·평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전시 개최
	광주광역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제145회 정기공연	8. 14.	미래 세대와 함께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광복 80년 기념 음악회 개최
	2025 광주민족예술제 <빛의 여장: 여성, 역사, 예술로 피어나다>	10. 25.	광복 80년을 기념하여 광주 지역의 민족 예술과 여성 문화를 융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80년의 의미를 여성의 시각에서 조명하는 시민참여형 예술제 개최
대전광역시	광복절 퍼레이드 및 보훈음악회	8. 15.	<대전 0시 축제 2025>와 연계하여 중앙로역 특설무대까지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하는 만세삼창 퍼레이드 및 보훈 음악회 개최
울산광역시	울산박물관 광복 80년 기념 전시회	8. 12.~10. 12.	울산 독립운동사 관련 인물 전시, 태극기 그리기 체험행사 등 전시회 개최
	울산 독립운동 재조명 세미나	11. 14.	항일정신이 담긴 울산 지명 이야기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및 사진전 등 개최
경기도	독립유공자 80인 선정 및 학술대회	3. 1.~3. 31.	경기도 출신 독립유공자 80인을 선정하여 3·1절부터 순차적으로 공개 및 홍보 (웹툰, 동영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3. 9.	'위안부' 피해자의 삶과 기억을 기리는 기림의 날 기념식, 흉상 제막식 및 문화공연, 디지털 휴먼(AI)과의 대화 등 참여형 기념행사 개최
	청년이 주도하는 평화 세미나	4. 17.~12. 31.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청년 주도의 평화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및 외국인 유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교육 및 활동 추진
	광복 80년 기념 <기억과 미래> 파주 페스타	6. 14.~6. 15.	광복 80년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도민 대표 독립선언 및 대한독립만세 플래시몹 등 테마행사 및 명사 특강 체험부스 등 부대행사 개최

구분	사업명	일시	주요 내용
강원도	광복 80주년 기념 기획전시 〈키워드로 읽는 독립운동사〉	4. 11.~7. 27.	독립운동 관련 주요 사건 및 인물을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구성, 독립운동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도록 전시 개최
	광복 80년 기념 기획전시 〈기억의 방〉, 〈다시 웃는 그 날〉	8. 1.~10. 12.	우리나라 최초 여성 의병장(윤희순 의사) 업적 재조명 및 강원지역 출신 독립 유공자 20인의 흑백사진을 AI 기술로 복원해 광복의 기쁨을 담은 '웃는 얼굴'로 재현하여 전시
충청 북도	광복 80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8. 12.	국외지역 항일투쟁 주제 학술대회 개최
	광복 80년 계기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행사	2월~11월	독립운동의 발원지 연해주와 이상설 및 대한국민의회 재조명 등 2월의 독립운동 행사 개최, 생겨진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및 미래포럼 개최 등으로 근대 수학교육의 아버지 이상설 선생 재조명
충청 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추모행사 및 기록전	8. 12.~8. 1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맞아 추모행사 및 관련 사진 등 전시 개최
	독립운동가 추모 · 선양 문화제	10. 21.	중 · 고등학생 대상 공연 및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문화제 개최(학생 650여 명 참석)
	독립유공자 유족 초청 만남의 날 행사	10. 29.	독립유공자 유족 등을 초청, 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 유족들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기 위한 행사 개최(유족 등 250여 명 참여)
전라 남도	광복 80년 기념 명사 초청 포럼	5. 29. / 8. 1.	〈전라도 역사이야기(5월)〉 및 〈한국 근대사와 호남의 역할(8월)〉 등을 통해 광복 80년 분위기 조성 및 독립의 가치 재조명(700여 명 참석)
	제80주년 광복절 기념 특별전 〈빛을 되찾은 날, 광복 80년 이야기〉	7. 28.~8. 22.	광복 80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역사인식 함양 등을 위해 독립기념관 전시물 30여 점 전시 등 특별전 개최
	광복 80년 기념 공연 〈간타다 백범 김구: 대만을 지키는 사람들〉	8. 2.	광복 80년을 기념, 백범 김구 선생과 전남 활동 열사들의 업적을 주제로 기념 공연 개최
경상 북도	광복 80년 기념 경북 독립유공자 추모벽 명각 사업	8. 12.	2019년 광복절 이후 경북 독립유공 포상자 291명 대상 기념관 추모벽에 명각 추진 및 후손 초청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전하는 행사 개최
	광복 80년 특집 독도 지오그래픽 제작 (울릉군)	11. 20.	영원히 지켜야 할 민족의 섬 독도를 실감형 콘텐츠로 재구성한 '독도 지오그래픽' 제작 등 방영(MBC)
경상 남도	경남 독립유공자 위패봉안당 건립	9. 17.~12. 15.	광복 80년 계기 도내 독립유공자 1,258명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위패 봉안시설 신규 건립(경남 항일 독립운동 기념탑 내)
제주도	광복 80년 시가 퍼레이드 및 경축 음악회	8. 15.	광복 80년 기념 축하 시가 퍼레이드 및 제주 해변 공연장 경축 음악회를 제주국제관악제 〈여름 시즌〉과 연계하여 개최(국내외 12개국 4,000여 명 참여)
세종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음악회	8. 15.	독립운동가의 삶을 다룬 뮤지컬 〈페치카〉 및 유나이티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공연 등 광복 80년 기념 경축식 및 음악회 개최(시민 1,200여 명 참석)

5.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회의 내용

회의 개최실적: 전체회의 3회, 범부처협의회 1회, 워킹그룹 3회

● 위원회 전체회의

일시	회의체명	내용
2025. 7. 21.	제1차 전체회의	• 안건1: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안) • 안건2: 광복 80년 기념사업 상징물 및 홍보 추진방안(안) ※논의 내용: ▲ 국민통합, 역사정체성 확립, 기술·문화 선도국가로의 도약 등 추진방향 논의 ▲ 촉박한 시일을 고려,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세부사항을 신속논의하고 종합계획을 마련
2025. 7. 31.	제2차 전체회의	• 안건1: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안) • 안건2: 광복 80년 경축행사 준비상황(안) ※논의 내용: 독립역사·정신을 계승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 추진, 광복주간 주요행사 준비 철저, 주요행사 온라인 생중계 필요성 제기 등
2025. 12. 23.	제3차 전체회의	• 안건1: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성과 • 안건2: 중장기 광복 기념사업 대정부 건의(안)

● 범부처협의회

일시	회의체명	내용
2025. 2. 27.	범부처협의회	• 안건: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계획 ※논의 내용: 위원회 출범 전각 부처가 소관 과제 차질없이 준비

● 워킹그룹

일시	회의체명	내용
2025. 7. 25.	워킹그룹	안건: 기념사업 후보안 검토(우선 고려 22개 사업) ※논의 내용: ▲ 기념사업 핵심가치 ▲ 신규 사업 제안 ▲ 사업 보완 · 수정방향 등
2025. 7. 29.	워킹그룹	안건: 기념사업 후보안 검토(검토 가능 37개, 부처 추진 17개 사업) ※논의 내용: ▲ 기념사업 핵심가치 ▲ 신규 사업 제안 ▲ 사업 보완 · 수정방향 등
2025. 9. 24.	워킹그룹	안건: 중장기 과제 후보안 검토 ※논의 내용: ▲ 중장기 과제 아이디어 세부사항 ▲ 국민 공모전 필요성 ▲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로 중장기 과제로 채택하여 백서에 기록해둘 필요
2025.10. 24.	워킹그룹	안건: 중장기 과제 후보안 검토 ※논의 내용: ▲ 중장기 과제 아이디어 세부사항 ▲ 유사 아이디어 통합 필요성 ▲ 해외 사례 참고 필요성 등
2026. 1. 27.	워킹그룹	안건: 광복 100주년을 향한 대한민국의 지향 및 미래전략 논의
2026. 3. 4.	워킹그룹	안건: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기념사업 논의 ※논의 내용: ▲ 학생 대상 국내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 광복회 주관 국제학술대회 등 신규 사업 논의

※ 전문가 간담회(면담) 11회

일시	참석자	내용
2024. 6. 14.	류지성 고려대 특임교수, 배영미 독립기념관 학술연구부장, 박재민 건국대 기술경영학과 교수, 옥상훈 네이버 클라우드 리더,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전문위원, 김동길 디마이너스원 대표, 류미나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교수	광복 기념사업 준비 관련 아이디어 회의
2024. 7. 2.	이강덕 KBS N 대표,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영찬 이화여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조영훈 한국SW협회 본부장, 김선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	광복 기념사업 준비 관련 아이디어 회의
2024. 7. 22.	인재진 호원대 공연미디어학부 교수,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필성 샌드박스네트워크 대표, 한상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광복 기념사업 준비 관련 아이디어 회의
2024. 8. 19.	이제석 광고연구소 대표, 이형진 숙명여대 영어영문학부 교수, 김인선 영화감독, 노윤상 인코오드 대표	광복 기념사업 준비 관련 아이디어 회의
2024. 8. 23.	박준형 서울예술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광복 기념사업 준비 관련 아이디어 회의
2024. 9. 10.	박지훈 모소마이스컴퍼니 대표	광복 기념사업 준비 관련 아이디어 회의
2024. 9. 26.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미소 DMZ 피스트레인 페스티벌 총감독	광복 기념사업 준비 관련 아이디어 회의
2025. 11. 18.	김태욱, 전봉희, 박명현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김충배 허준박물관장	중장기 광복 기념사업 관련 아이디어 회의
2025. 11. 18.	조영훈 국립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교수	중장기 광복 기념사업 관련 아이디어 회의
2025. 11. 27.	유나경 PMA엔지니어링 대표	중장기 광복 기념사업 관련 아이디어 회의
2026. 2. 12.	김태욱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이성민 방통대 미디어영상학과 부교수, 정보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정호 에투알클래식 대표	김구 탄생 150주년 관련 아이디어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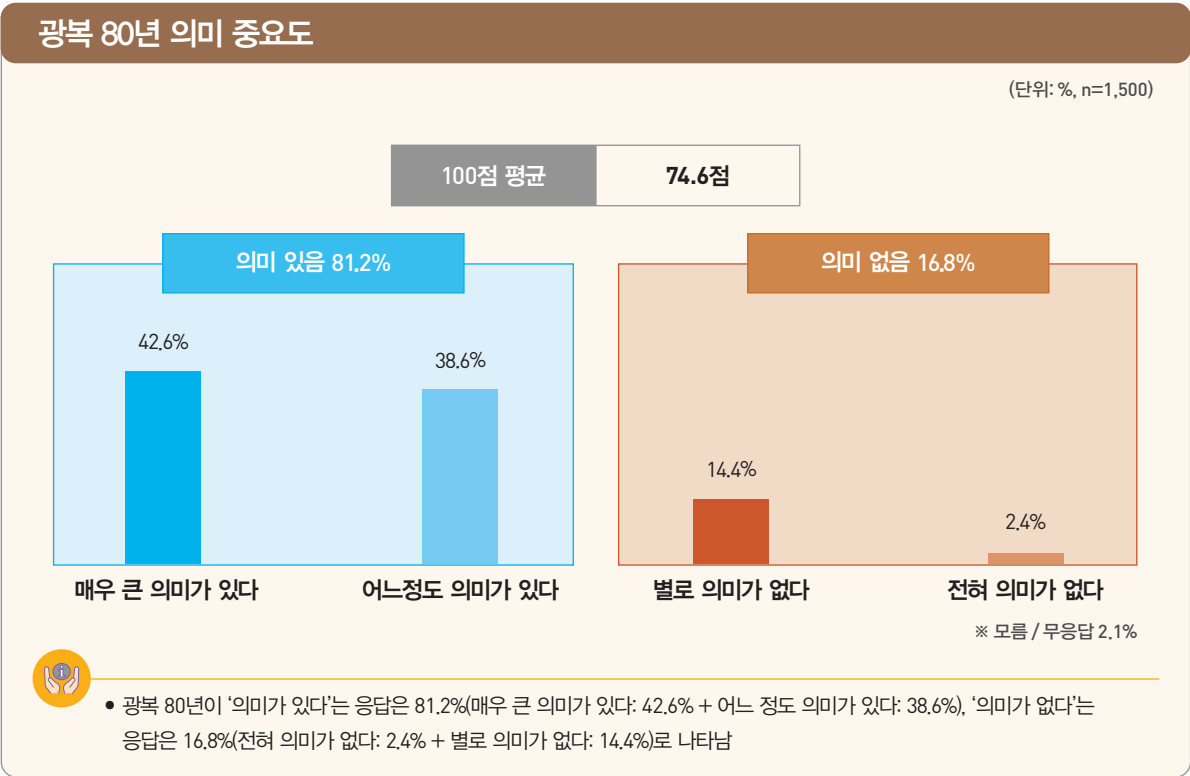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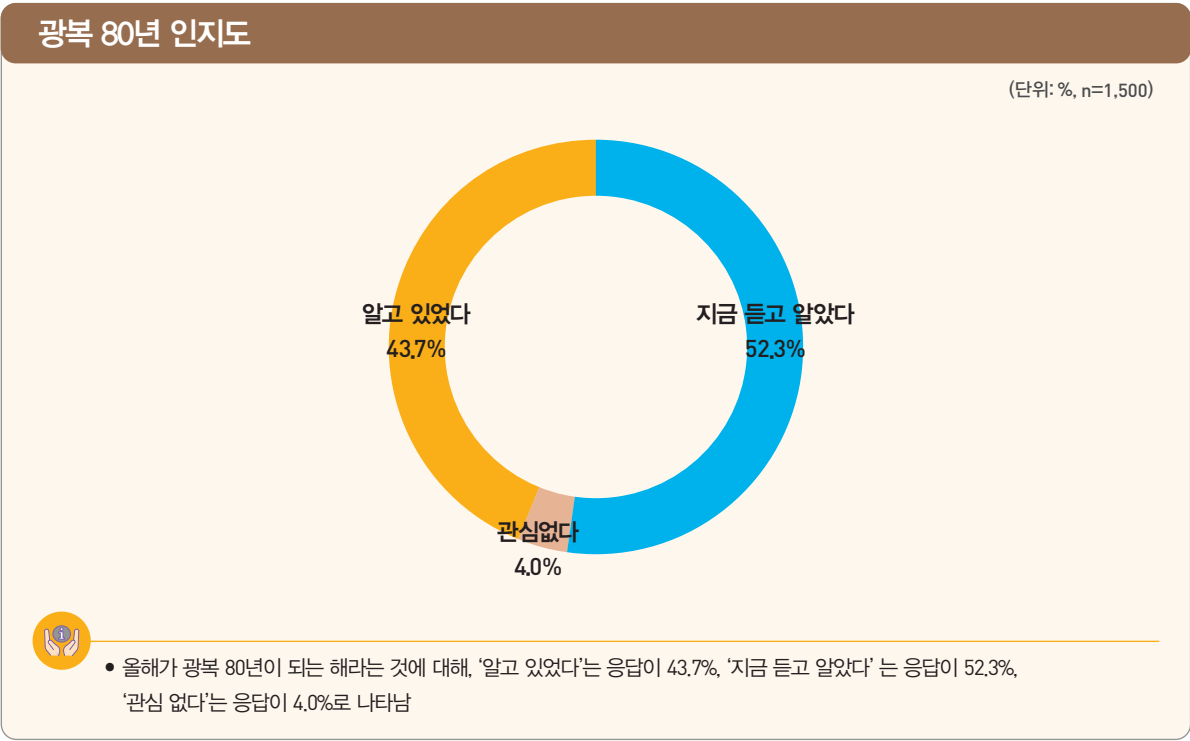
6.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



가. 상반기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요약)

(2025. 4. 24.~4. 27.)

I.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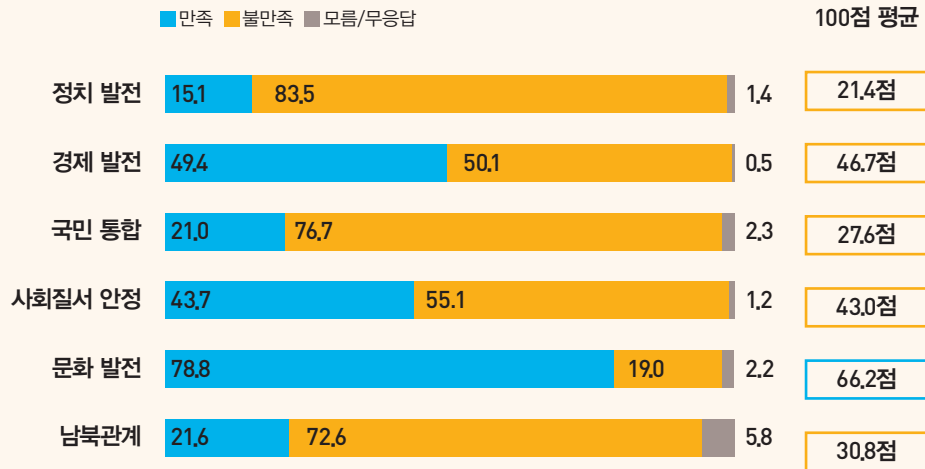


II. 광복 80년,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분야별 발전 만족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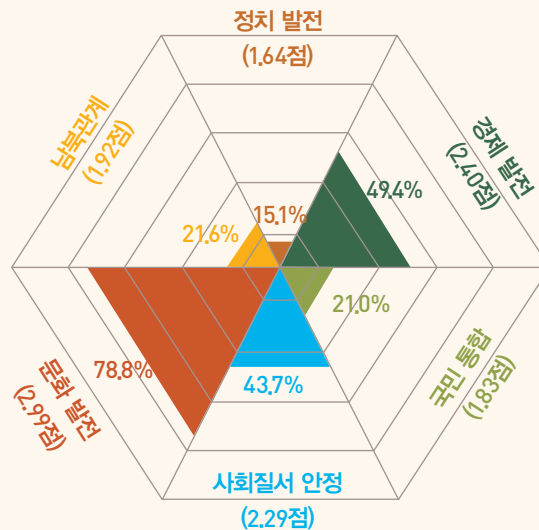
(단위: %, n=1,500)

문화 발전(66.2점) > 경제 발전(46.7점) > 사회질서 안정(43.0점) 상위권



분야별 발전 만족도

(단위: %, n=1,500 / 4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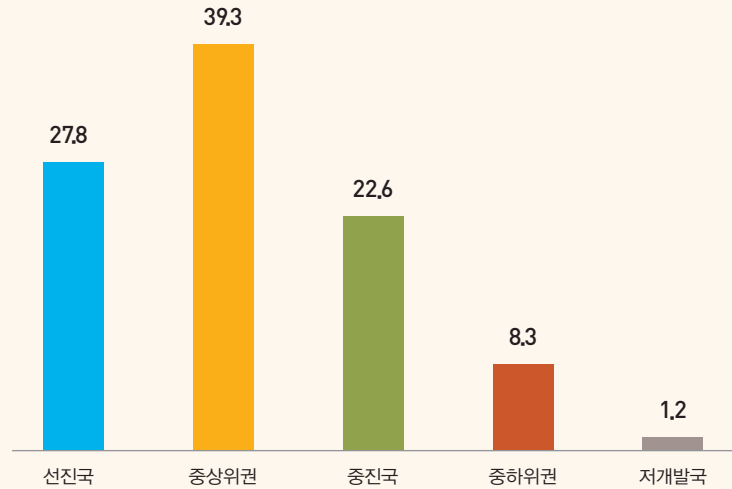


- 각 분야별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문화 발전'(66.2점), '경제 발전'(46.7점), '사회질서 안정'(43.0점)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남북관계'(30.8점), '국민 통합'(27.6점), '정치 발전'(21.4점)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현재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

(단위: %, n=1,500)

중상위권 이상 67.1%



※ 모름 / 무응답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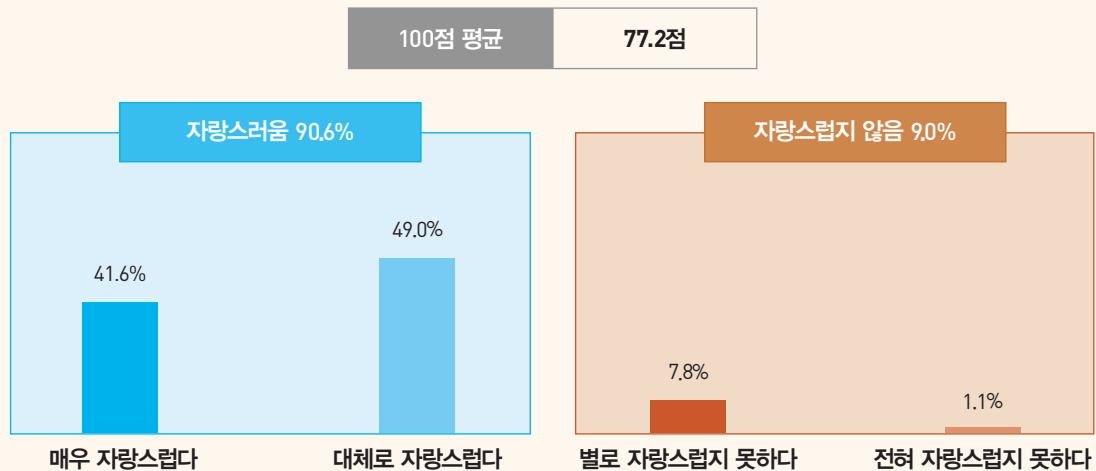


-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지금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위에 대해서는, '중상위권' 39.3%, '선진국' 27.8%, '중진국' 22.6%, '중하위권' 8.3%, '저개발국' 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

(단위: %, n=1,500)

자랑스러움 90.6% > 자랑스럽지 않음 9.0%



※ 모름 / 무응답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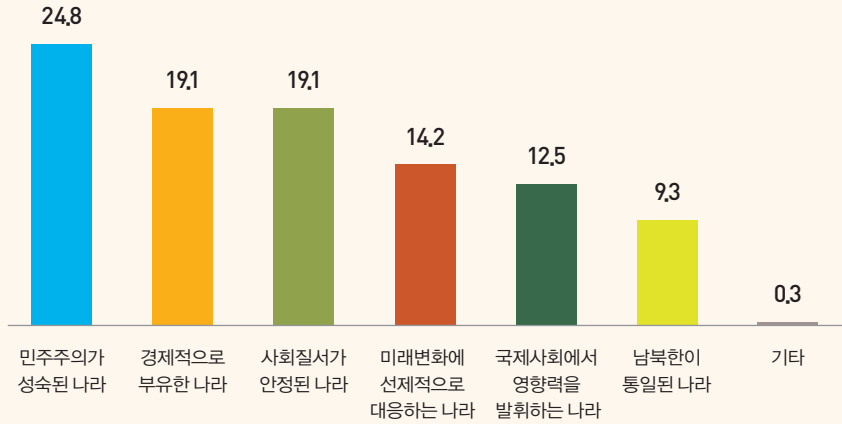


-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에 대해서는, '자랑스럽다'는 응답이 90.6%(매우 자랑스럽다: 41.6% + 대체로 자랑스럽다: 49.0%), '자랑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9.0%(전혀 자랑스럽지 못하다: 1.1% + 별로 자랑스럽지 못하다: 7.8%)로 나타남 (100점 환산 평균 점수 77.2점)

향후 우리나라 발전 방향

(단위: %, n=1,500)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 24.8% >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 사회질서가 안정된 나라 19.1% 상위권



※ 모름 / 무응답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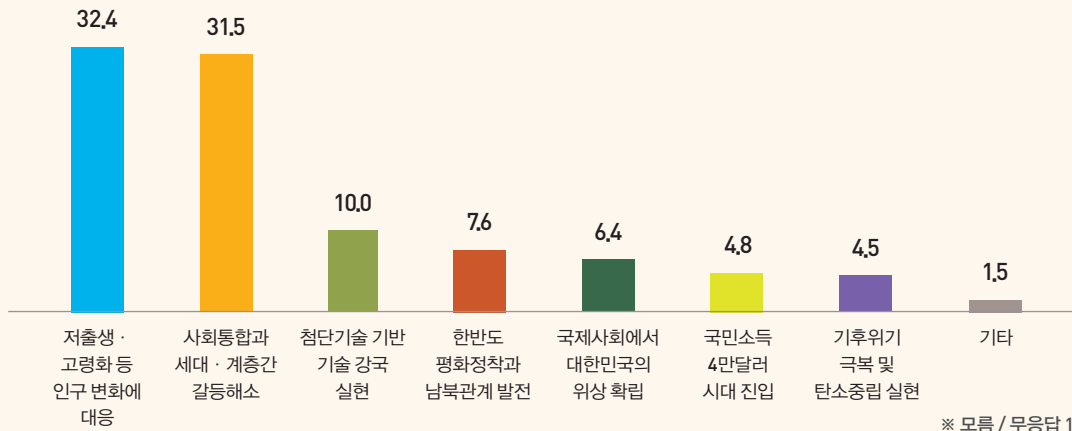
-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성숙된 나라' 24.8%,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사회질서가 안정된 나라' 각 19.1%, '미래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나라' 14.2%,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 12.5%, '남북한이 통일된 나라' 9.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Ⅲ.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 방향 및 수요 파악

광복 80년, 중요한 국가적 과제

(단위: %, n=1,500)

저출생 ·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 32.4% > 사회통합과 세대 · 계층간 갈등 해소 31.5% 상위권



※ 모름 / 무응답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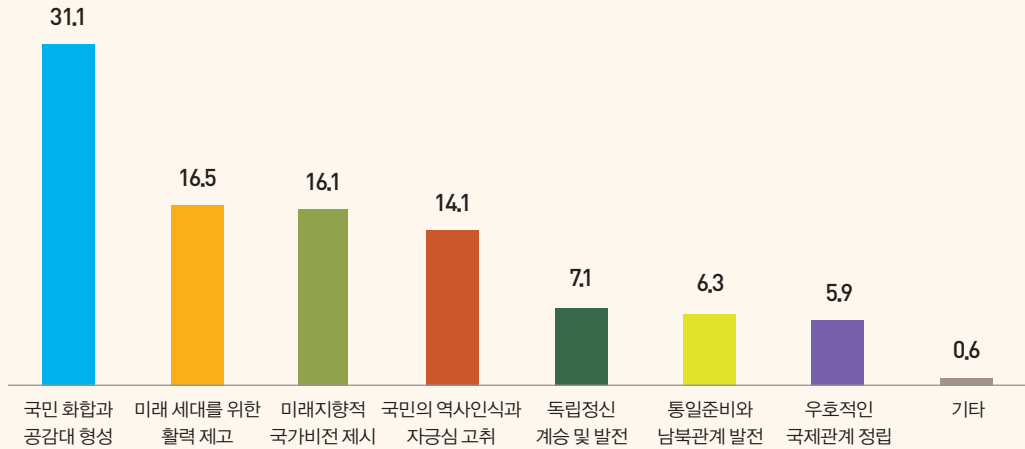


-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할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저출생 · 고령화 등 인구 변화에 대응'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으로 '사회통합과 세대 · 계층간 갈등 해소' 31.5%, '첨단기술 기반 기술 강국 실현' 10.0%,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 7.6%,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확립' 6.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광복 80년 기념사업 발굴 / 추진의 우선적인 목적

(단위: %, n=1,500)

국민 화합과 공감대 형성 31.1% > 미래 세대를 위한 활력 제고 16.5% 상위권



※ 모름 / 무응답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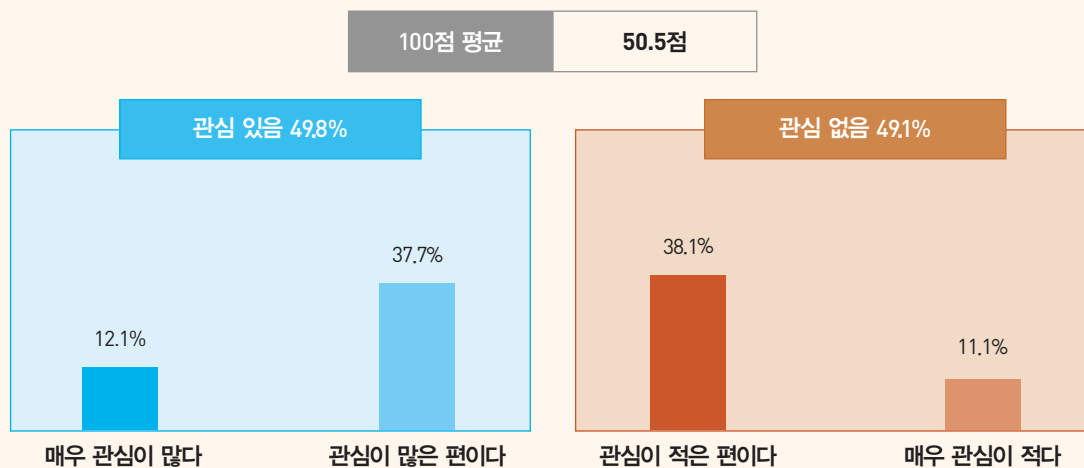


- 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 목적에 대해서는, '국민 화합과 공감대 형성'이 31.1%, '미래 세대를 위한 활력 제고' 16.5%, '미래지향적 국가비전 제시' 16.1%, '국민의 역사인식과 자긍심 고취' 14.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광복 80년 기념사업 관심 정도

(단위: %, n=1,500)

관심 있음 49.8% > 관심 없음 49.1%



※ 모름 / 무응답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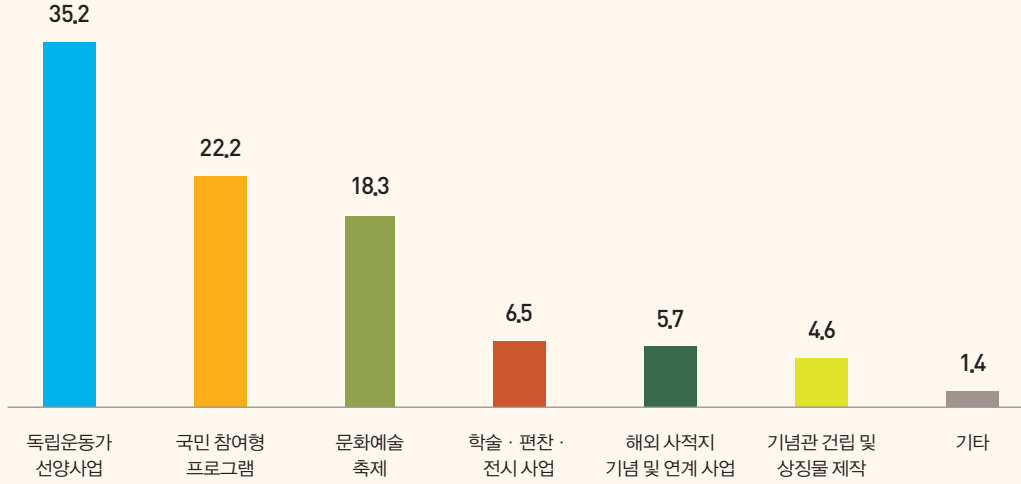


-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는 '관심 있다'는 응답이 49.8%(매우 관심이 많다: 12.1% + 관심이 많은 편이다: 37.7%), '관심 없다'는 응답은 49.1%(매우 관심이 적다: 11.1% + 관심이 적은 편이다: 38.1%)로 나타남(100점 환산 평균 점수는 50.5점)

광복 80년을 가장 잘 상징할 것 같은 사업

(단위: %, n=1,500)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35.2% >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22.2% > 문화예술 축제 18.3% 상위권



※ 모름 / 무응답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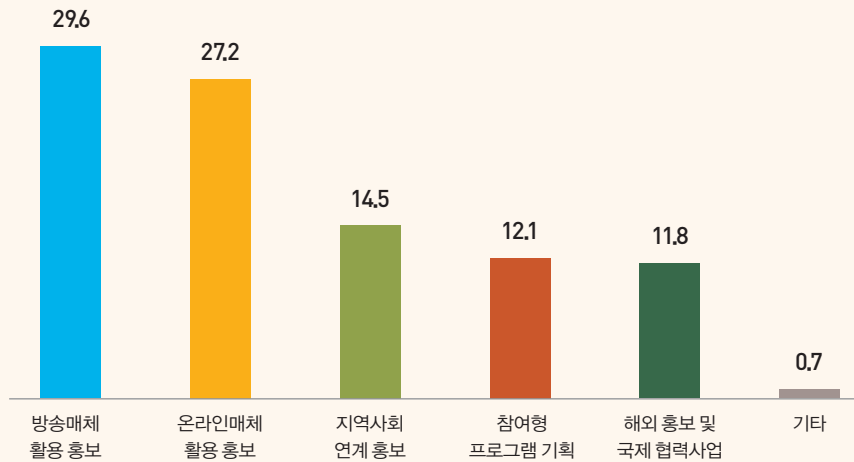


- 광복 80년을 가장 잘 상징할 것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 선양사업'이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 다음으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22.2%, '문화예술 축제' 18.3%, '학술·편찬·전시 사업' 6.5%, '해외 사적지 기념 및 연계 사업' 5.7%, '기념관 건립 및 상징물 제작' 4.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광복 80년 기념사업 확대 방안

(단위: %, n=1,500)

방송매체 활용 29.6% > 온라인매체 활용 27.2% > 지역사회 연계 14.5% 상위권



※ 모름 / 무응답 4.0%



- 광복 80년 기념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방송매체 활용 홍보' 29.6%, '온라인매체 활용 홍보' 27.2%, '지역사회 연계 홍보' 14.5%,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 12.1%, '해외 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11.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나. 하반기 광복 80년 국민인식조사 및 기념사업 성과분석(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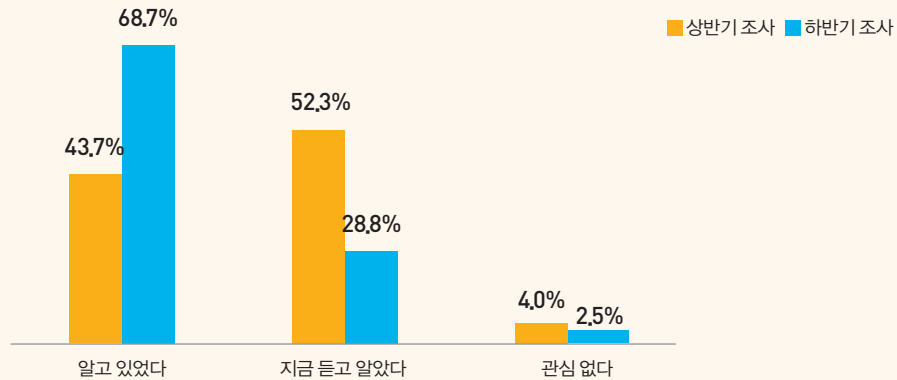
(2025. 11. 28.~12. 1.)

I.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광복 80년 인지도

상·하반기(n=1,500명), (단위: %)

알고 있었다 68.7% > 지금 듣고 알았다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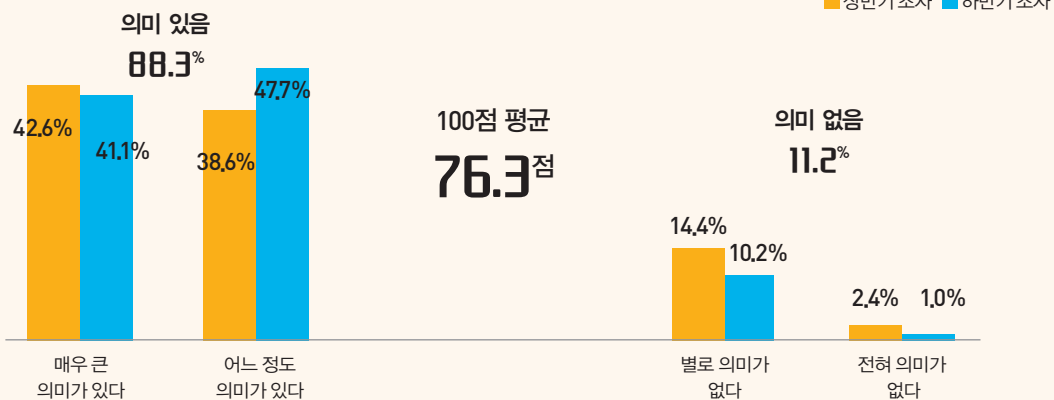


- 올해가 광복 80년이 되는 해라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68.7%, '지금 듣고 알았다'는 응답이 28.8%, '관심 없다'는 응답이 2.5%로 나타남
-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상반기 조사(43.7%) 대비 25.0%p 높게 나타남

광복 80년 의미 중요도

(단위: %, n=1,500)

의미 있음 88.8% > 의미 없음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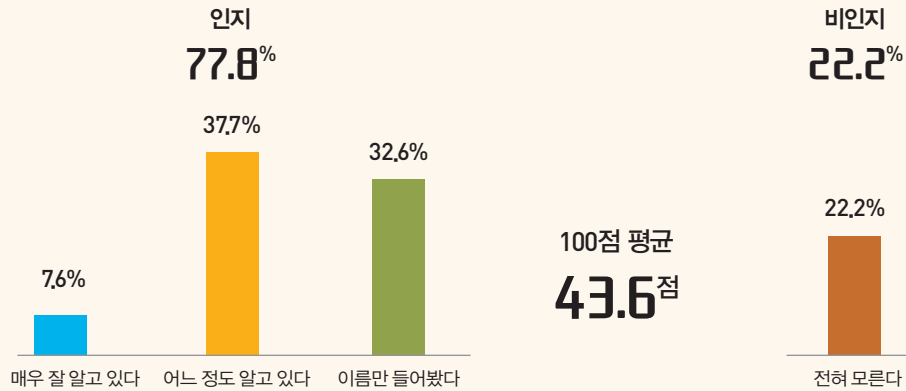
- 광복 80년이 '의미가 있다'는 응답은 88.8%(매우 큰 의미가 있다: 41.1% +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47.7%), '의미가 없다'는 응답은 11.2%(전혀 의미가 없다: 1.0% + 별로 의미가 없다: 10.2%)로 나타남
- '의미가 있다'는 응답은 상반기 조사(81.2%) 대비 7.6%p 높게 나타남

II. 광복 80년 기념사업 인지도/관심도

광복 80년 기념사업 인지도

(단위: %, n=1,500)

인지 77.8% > 비인지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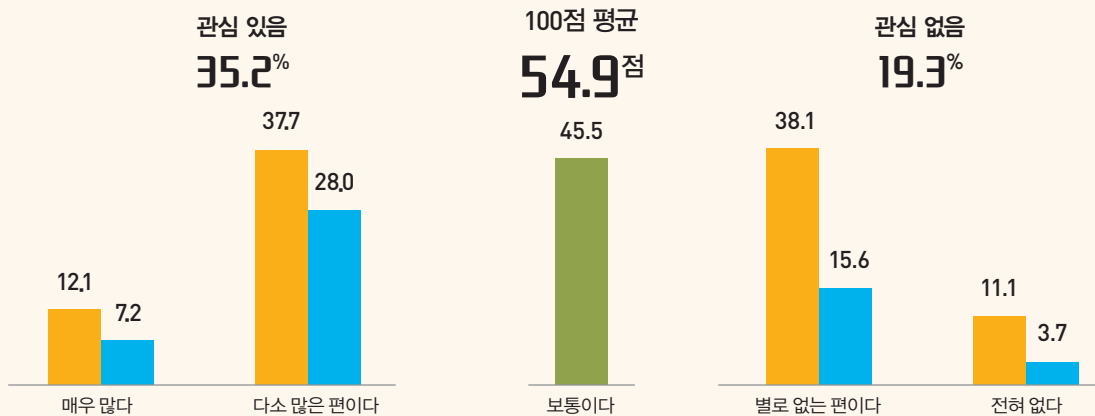
-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잘 알고 있었다' 7.6%,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7.7%, '이름만 들어봤다' 32.6%, '전혀 모른다' 22.2%로 나타남(100점 환산 평균 점수 43.6점)

광복 80년 기념사업 관심도

(단위: %, n=1,500)

관심 있음 35.2% > 보통이다 45.5% > 관심 없음 19.3%

■ 상반기 조사 ■ 하반기 조사



-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대한 관심 정도는 '관심 있다' 35.2%(매우 많다: 7.2% + 다소 많은 편이다: 28.0%), '관심 없다' 19.3%(전혀 없다: 3.7% + 별로 없는 편이다: 15.6%)로 나타남(100점 환산 평균 점수 54.9점)
- 기념사업 관심도의 100점 평균 환산 점수는 상반기 조사(50.5점) 대비 4.4점 높게 나타남

Ⅲ. 광복 80년 기념사업 관련 평가

평가 대상 사업 및 평가 항목

광복 주간 국민통합축제





광복절 경축식

국민주권대축제

광복 80년 전야제

독립역사 및 독립정신 계승 확산 사업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학술전시

독립관련 영상 및 공연

대국민 홍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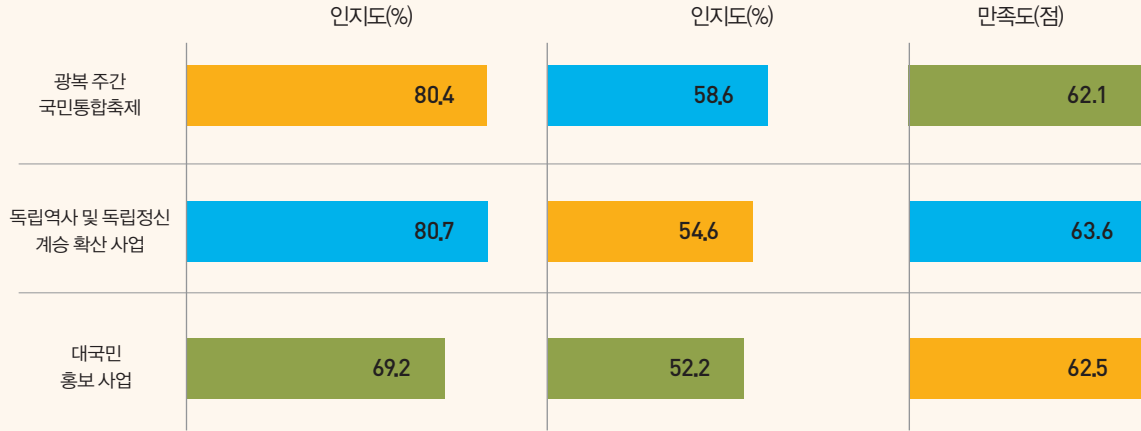

광복 80년 기념사업 광고

민간 협업형, 참여형 캠페인

광복 주간 국민통합 축제 관련 평가	평가 대상 기념사업: 광복절 경축식, 국민주권대축제, 광복 80년 전야제	
	조사 참여 전 인지도	참여 경험
	메시지 전달성	공감대 형성
	광복 의미 확산 기여도	인식 변화
	추천 의향	구성 및 연출 적절성
	전반적 만족도	
독립역사 및 독립정신 계승 확산 사업 관련 평가	평가 대상 기념사업: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학술전시, 독립관련 영상 및 공연	
	조사 참여 전 인지도	참여 경험
	메시지 전달성	공감대 형성
	광복 의미 확산 기여도	인식 변화
	추천 의향	이해 용이성
	전반적 만족도	
대국민 홍보 사업 관련 평가	평가 대상 기념사업: 광복 80년 기념사업 광고, 민간 협업형/참여형 캠페인	
	조사 참여 전 인지도	참여 경험
	메시지 전달성	공감대 형성
	광복 의미 확산 기여도	인식 변화
	추천 의향	상징성 및 의미 표현 효과성
	국민 참여 및 관심 확산 도움 정도	전반적 만족도

광복 80년 기념사업 주요 성과지표 결과

기념사업의 인지도와 만족도는 '독립역사 및 독립정신 계승 확산 사업', 참여율은 '광복 주간 국민통합축제'가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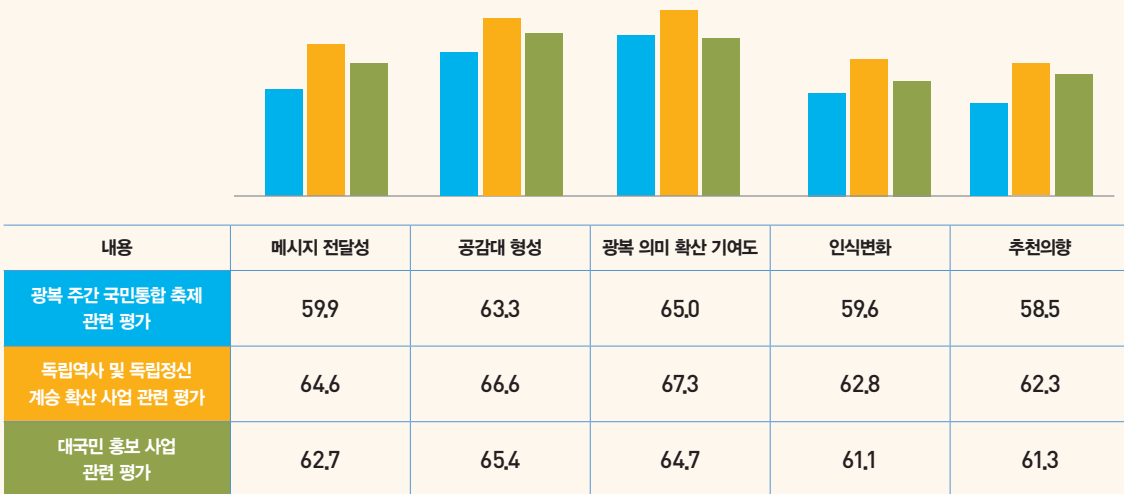


- (광복 주간 국민통합축제) 인지도 80.4%, 참여율 58.6%, 만족도 62.1점
- (독립역사 및 독립정신 계승 확산 사업) 인지도 80.7%, 참여율 54.6%, 만족도 63.6점
- (대국민 홍보 사업) 인지도 69.2%, 참여율 52.2%, 만족도 62.5점

광복 80년 기념사업 공통평가 항목 결과

(단위: %, n=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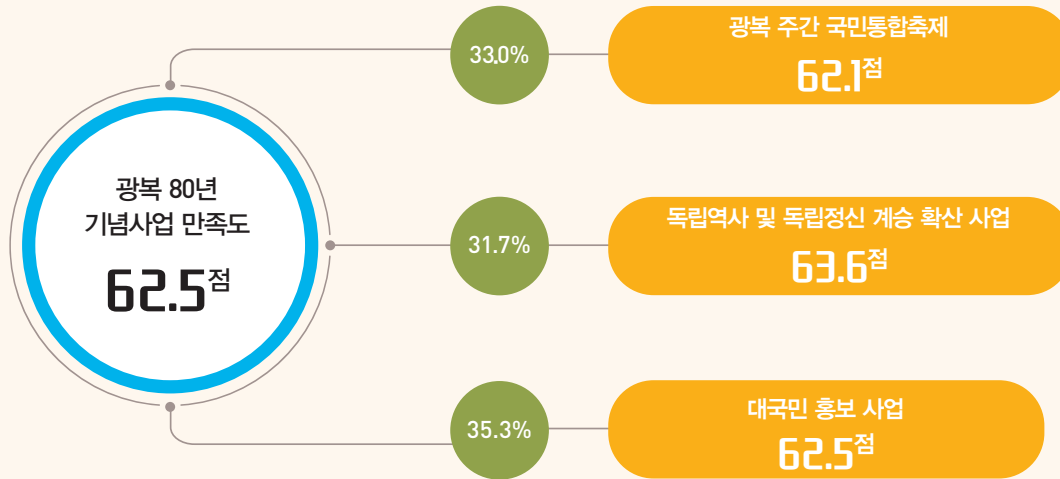
기념사업의 주요 핵심 성과 ▶ 광복 의미 확산 기여도



- (공통항목 평가) '광복 의미 확산 기여도'가 모든 기념사업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평가됨
- (사업별 평가) '독립역사 및 독립정신 계승 확산 사업'이 모든 공통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개별평가 항목 결과

광복 80년 기념사업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 ▶ 대국민 홍보사업



- (기념사업별 영향력 평가) 대국민 홍보사업(35.3%) > 광복 주간 국민통합축제(33.0%) > 독립역사 및 독립정신 계승 확산 사업(31.7%)
- 이는, 대국민 홍보사업이 전체 기념사업 만족도 제고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력이 있는 요인임을 시사함

세부 기념사업별 평가 결과 _ 광복 주간 국민통합축제

(단위: %, n=1,500)

국민 대다수(80.4%) 광복 주간 국민통합축제 인지, 방송 · SNS 기반의 참여 형태 우세

광복 주간 국민통합축제 인지도

인지 80.4%



- 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이름만 들어봤다

광복 주간 국민통합축제 참여율

참여 58.6%



- 현장에서 관람했다
- 실시간 중계 영상을 통해 보았다
- 행사 이후 TV나 SNS 콘텐츠를 통해 보았다

광복 주간 국민통합축제 만족도

만족 55.1%



- 매우 만족한다
- 대체로 만족한다
- 보통

비인지 19.6%

불참 41.4%

불만족 14%



- (인지도) 80.4%(매우 잘 알고 있다 6.8%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4.1% + 이름만 들어봤다 29.5%)
- (참여율) 10명 중 6명 정도(58.6%)가 참여, '행사 이후 TV나 SNS 콘텐츠를 통해 보았다'(30.2%), '실시간 중계 영상을 통해 보았다'(25.5%)가 대부분을 차지
- (만족도) 만족 55.1%, 보통 30.9%, 불만족 14.0%(100점 평균 기준 62.1점)

세부 기념사업별 평가 결과 _ 독립역사 및 독립정신 계승 확산 사업

(단위: %, n=1,500)

전반적 만족도 1위(63.6점), 높은 인지도 기반 TV · 언론 · SNS 접촉 형태 다수

독립역사 및 독립정신 계승 확산 사업 인지도

인지 80.7%



■ 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이름만 들어봤다

비인지 19.3%

독립역사 및 독립정신 계승 확산 사업 참여율

참여 54.6%



■ 현장에서 관람했다
■ TV, 언론, SNS를 통해 보았다

불참 45.4%

독립역사 및 독립정신 계승 확산 사업 만족도

만족 56.3%



■ 매우 만족한다
■ 대체로 만족한다

불만족 10.4%



- (인지도) 80.7%(매우 잘 알고 있다 5.5%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3.7% + 이름만 들어봤다 31.4%)
- (참여율) 54.6%가 참여, 'TV, 언론, SNS 콘텐츠를 통해 보았다'(51.0%) 대부분
- (만족도) 만족 56.3%, 보통 33.3%, 불만족 10.4%(100점 평균 기준 63.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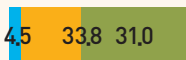
세부 기념사업별 평가 결과 _ 대국민 홍보 사업

(단위: %, n=1,500)

인지도 · 참여율 대비 체감 만족도 ↑, TV · 유튜브 등 영상 광고가 핵심 접촉 경로

대국민 홍보 사업 인지도

인지 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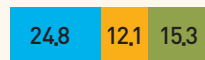


■ 매우 잘 알고 있다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이름만 들어봤다

비인지 30.8%

대국민 홍보 사업 참여율

참여 52.2%



■ TV, 유튜브 등 영상 광고로 본 적이 있다
■ 포스터, 배너 등 옥외광고를 통해 보았다
■ SNS, 블로그 등을 통해 본 적이 있다

불참 47.8%

대국민 홍보 사업 만족도

만족 53.2%



■ 매우 만족한다
■ 대체로 만족한다

불만족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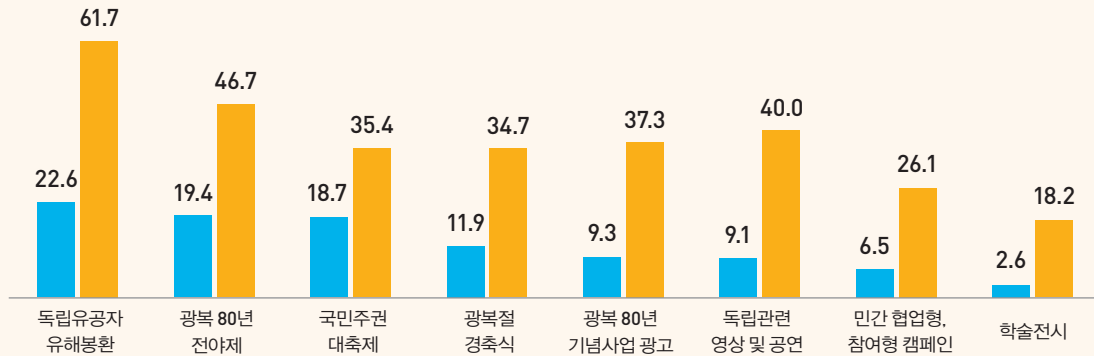
- (인지도) 69.2%(매우 잘 알고 있다 4.5%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3.8% + 이름만 들어봤다 31.0%)
- (참여율) 참여율 52.2%, 'TV, 유튜브 등 영상 광고로 본 적이 있다'(24.8%) 절반 차지
- (만족도) 만족 53.2%, 보통 35.1%, 불만족 11.7%(100점 평균 기준 62.5점)

가장 기억에 남는 광복 80년 기념사업

(단위: %, n=1,500)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22.6% > 광복 80년 전야제 19.4% > 국민주권대축제 18.7% 상위권

■ 1순위 ■ 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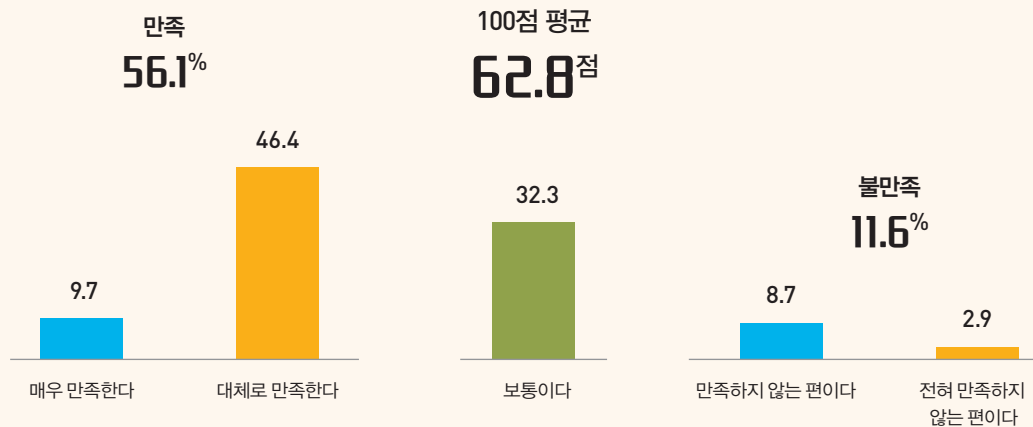


- 광복 80년 기념사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22.6%, '광복 80년 전야제' 19.4%, '국민주권대축제' 18.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1순위 기준)
- 그 다음으로 '광복절 경축식' 11.9%, '광복 80년 기념사업 광고' 9.3%, '독립관련 영상 및 공연' 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광복 80년 기념사업 전반적 만족도

(단위: %, n=1,500)

만족 56.1% > 불만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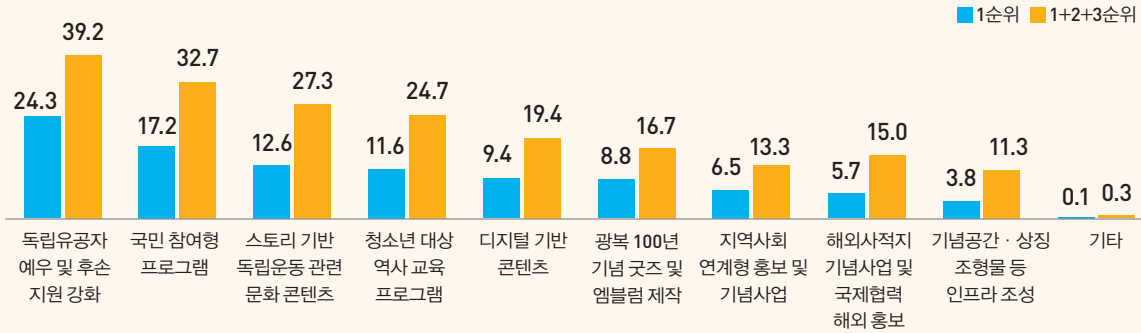


- 광복 80년 기념사업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한다' 56.1%(매우 만족한다: 9.7% + 대체로 만족한다: 46.4%), '불만족한다' 11.6%(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9% +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8.7%)로 나타남(100점 환산 평균 점수 62.8점)

향후 광복 100년 기념사업 추진 방향

(단위: %, n=1,500)

독립유공자 예우 및 후손 지원 강화 24.3% >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17.2% 상위권



- 향후 광복 100년 기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후손 지원 강화'가 24.3%로 가장 많이 꼽혔음 (1순위 기준)
- 그 다음으로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17.2%, '스토리 기반 독립운동 관련 문화 콘텐츠' 12.6%, '청소년 대상 역사 교육 프로그램' 11.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IV.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 성과분석

광복 80년 기념사업 핵심 성과

(단위: %, n=1,500)

독립역사 및 독립정신 계승 확산 사업 ▶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중심 성과로 평가

광복 80년을 가장 잘 상징할 것 같은 사업

상반기 조사

독립운동가 선양사업 35.2%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22.2%
문화예술 축제 18.3%

가장 기억에 남은 광복 80년 기념사업

하반기 조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22.6%
광복 80년 전야제 19.4%
국민주권대축제 18.7%

기념사업별 만족도

하반기 조사

독립역사 및 독립정신 계승 확산 사업 63.6점
광복주간 국민통합축제 62.5점
대국민 홍보 사업 62.1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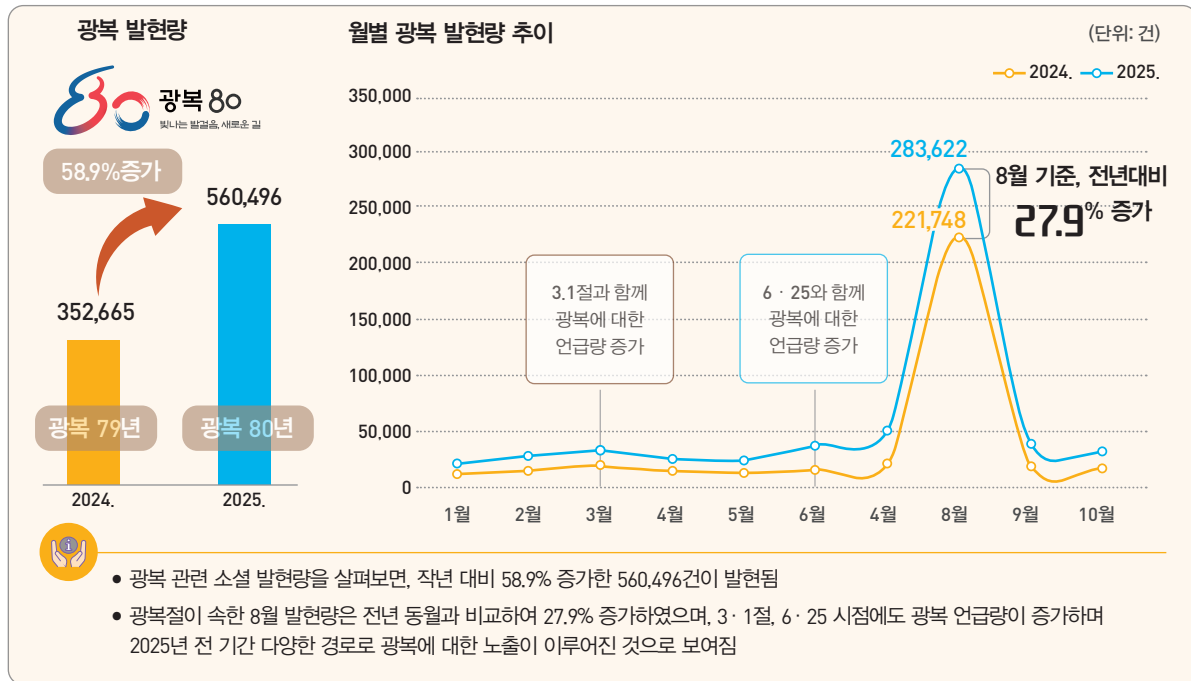


- 독립역사 및 독립정신 계승 확산 사업은 인지도(80.7%), 만족도(63.6점) 등 주요 성과지표와 메시지 전달성(64.0점), 공감대 형성(66.6점), 광복 의미 확산 기여도(67.3점) 등 공통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음
- 국민이 광복 80년을 가장 잘 상징할 것 같은 것으로 기대한 사업 방향과도 일치하며,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중심 성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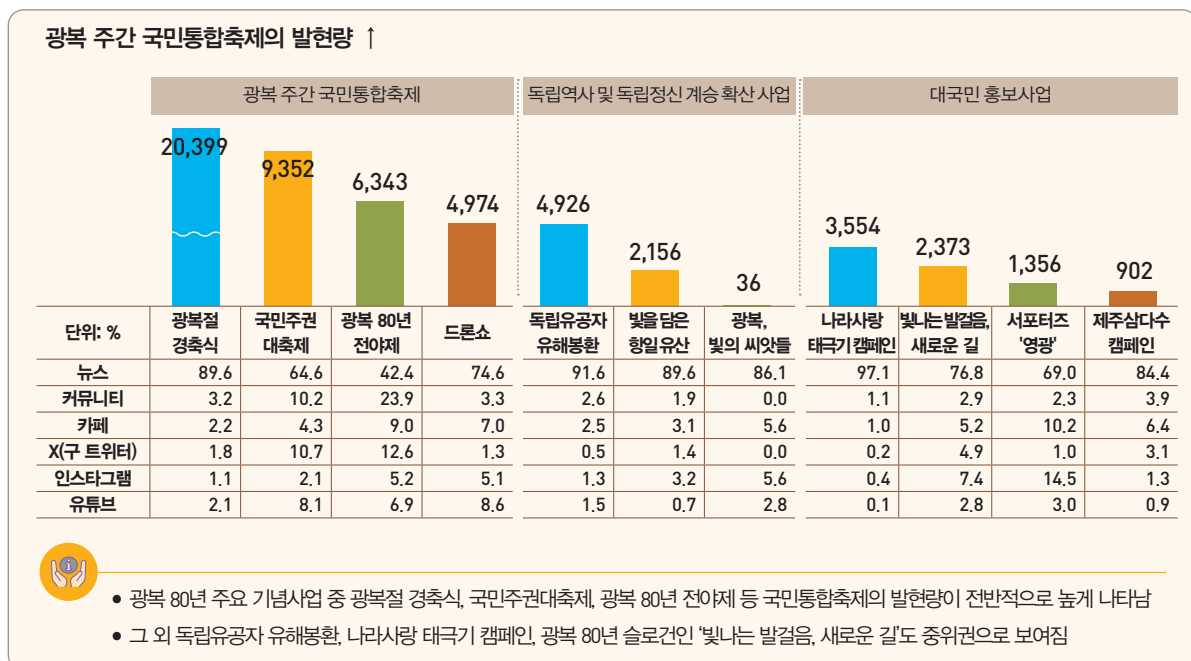
다. 소셜 빅데이터 조사 결과

2025. 1. 1.~2025. 10. 31.

I. '광복' 발현량



II. 주요 기념사업 발현량





광복 80년 기념사업 백서

발 행 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 행 일 2026년 6월

발 행 처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국무조정실)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Tel. 정부통합콜센터(국번없이 110)

디 자 인 AandF communication 02-756-5171

글 편 집 코한즈 02-3406-2876

I S B N 979-11-961073-2-1[03060]

※ 이 책에 실린 모든 디자인, 이미지의 저작권 및 판권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 있습니다.

